

韓國漢文敎育學會

2016年 夏季學術大會

한국한문교육학회 2016년 하계학술대회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한문과 교과서 개발 방향에 관한 연구”

- 일시 : 2016년 7월 9일(토) - 10일(일)
- 장소 : 원광대학교 승산기념관 2층 제1회의실
- 주최 : 한국한문교육학회
- 주관 : 원광대학교 한문교육과
- 후원 : 한국연구재단, (재)국제교류진흥회

韓 國 漢 文 敎 育 學 會

< 한국한문교육학회 2016년 하계학술대회 일정표 >

□ 7월 9일(土)

시 간	발 표 및 내 용	사 회
13:30~ 13:40	■ 개회식 - 개회사 : 송병렬 (한국한문교육학회 회장)	김영주 (성균관대)
13:40~ 14:00	기조발표주제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漢文科 교과서 개발 방향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 발표자 : 윤재민 (고려대)	
14:00~ 14:20	발표주제 : 한문교과서 研究史 검토 발표자 : 이동재 (공주대)	
14:20~ 14:40	발표주제 : 中等 漢文科 e-learning contents 開發 방안 발표자 : 이화춘 (전통문화연구회)	
14:40~ 15:00	휴식	
15:00~ 15:20	발표주제 : 융합교육[STEAM]을 위한 한문과 수업자료 개발과 교과서 적용 방안 발표자 : 이은민 (문성중)	양원석 (고려대)
15:20~ 15:40	발표주제 : 사고력 신장을 위한 한문 교과서 개발 방안 발표자 : 윤지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5:40~ 16:00	발표주제 : 실생활 연계형 한문 교과서 개발의 필요성과 방안 연구 발표자 : 허철 (한국교원대)	
16:00~ 16:20	휴식	
16:20~ 17:40	■ 종합토론 - 좌장 : 진재교 (성균관대) - 토론 : 안재철 (단국대), 하정원 (성균관대), 공민정 (경기 보정고), 백광호 (전주대), 김병철 (군포고)	
17:40~ 18:00	■ 연구윤리교육 ■ 총회	

□ 일정 : 7월 10일(日)

시 간	발 표 및 내 용	사 회
09:30~ 09:50	발표주제 : 문자학이 필요한 한문교과서 발표자 : 김동석(성균관대)	이돈석 (한국고전 번역원)
09:50~ 10:10	발표주제 : ‘會意兼形聲’에 대한 고찰 및 한문교과서에서의 활용 발표자 : 양원석(고려대)	
10:10~ 10:20	휴식	
10:20~ 10:40	발표주제 : ‘한문교과 논리 및 논술’ 수업의 구성 및 운영 방안 모색 발표자 : 김진경(고려대)	
10:40~ 11:00	발표주제 : 韓文(古文)과 中文(漢文) 발표자 : 김시황(경북대 명예교수)	
11:00~ 11:20	휴식	
11:20~ 12:10	■ 종합토론 - 좌장 : 이의강(원광대) - 토론 : 김영옥(고려대), 김성중(계명대), 김대희(원광대)	
12:10~ 12:20	■ 폐회식 - 폐회사 : 송병렬(한국한문교육학회 회장)	

目次

□ 7월 9일(土)

【 기조 발표 】

윤재민,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漢文科 교과서 개발 방향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	1
---	---

【 주제 발표 】

이동재, 한문교과서 研究史 검토	9
이회춘, 中等 漢文科 e-learning contents 開發 방안	31
이은민, 융합교육(STEAM)을 위한 한문과 수업자료 개발과 교과서 적용 방안	47
윤지훈, 사고력 신장을 위한 한문 교과서 개발 방안	91
허철, 실생활 연계형 한문 교과서 개발의 필요성과 방안 연구	101

□ 7월 10일(日)

【 주제 발표 】

김동석, 문자학이 필요한 한문교과서	115
양원석, ‘會意兼形聲’에 대한 고찰 및 한문교과서에서의 활용	129
김진경, ‘한문교과 논리 및 논술’ 수업의 구성 및 운영 방안 모색	139
김시황, 韓文(古文)과 中文(漢文)	153

□ 토론문	165
-------------	-----

【기조 발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漢文科 교과서 개발 방향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

尹在敏(高麗大)

1.

교과서의 편찬은 교육과정의 요구, 한문교육 연구자의 요구, 교사의 요구, 학습자의 요구, 시대의 요구 및 기타 사회 각계의 요구 등 여러 관련 주체들의 요구와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 교과서 편찬자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알게 모르게, 이들 여러 요구들을 일정하게 반영하여 교과서를 편찬한다. 이들 여러 요구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격에 대한 연구도 교과서 연구의 한 분야가 될 수 있다. 이 자리에서 이들 여러 요구의 내용과 성격을 따질 겨를은 없을 것 같다. 단지 이 발표에서는 이들 여러 요구 중 교육과정의 요구를 중심으로 몇 가지 문제를 따져보고자 한다. 교육과정의 요구는 통상 교육과정의 내용 그 자체 및 특히는 교과서 편찬을 담당하는 정책 당국이 제시하는 ‘교과용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또는 인정) 기준’에서 우선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다.

2.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교과용도서 편찬의 기본 방향을 ‘교육과정을 충실히 구현하는 교과용도서’, ‘바른 인성과 창의융합적 사고력을 갖춘 인재 양성에 적합한 교과용도서’, ‘일상생활과 연계되어 이해하기 쉽고 흥미를 유발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과용도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적합하며, 핵심역량 함양을 도모하는 실생활 중심의 교과용도서 개발’로 제시하였다.¹⁾ 이 교과용도서 편찬의 기본 방향을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과 비교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교과용도서 편찬(공통)의 기본 방향	
2009 개정 교육과정 ¹⁾	2015 개정 교육과정
창의·인성 교육에 적합한 현장·실생활 중심의 교과용도서 개발 - 교육과정을 충실히 구현하는 교과용도서 - 교육 현장의 적합성이 높은 교과용도서 - 학습자 중심의 다양하고 질 높은 교과용도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적합하며, 핵심역량 함양을 도모하는 실생활 중심의 교과용도서 개발 - 교육과정을 충실히 구현하는 교과용도서 - 바른 인성과 창의융합적 사고력을 갖춘 인재 양성에 적합한 교과용도서 - 일상생활과 연계되어 이해하기 쉽고 흥미를 유발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과용도서

1)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1),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고시(제2011-361호, '11.08.09)에 따른 초·중등학교 검정 교과용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 3면.

1)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5.11.),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개발을 위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

‘창의융합형 인재’, ‘바른 인성과 창의융합적 사고력’, ‘핵심역량’ 등 새로운 용어 개념이 눈에 띈다. ‘창의융합형 인재’나 ‘바른 인성과 창의융합적 사고력’은 언뜻 보면 2009 개정 교육과정이 내세우는 ‘창의·인성 교육’과 같은 맥락에 있는 용어로 보인다. 그러나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주요 내용으로 제시하는 ‘바른 인성과 창의융합적 사고력’을 갖춘 인재 양성에 적합한 교과용도서¹⁾는 이번에 새롭게 내용이 보완 강조되어 제시된 것이다. 그 세부 내용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교과용도서 편찬(공통)의 주요 내용	
2009 개정 교육과정 ²⁾	2015 개정 교육과정 ³⁾
<p>다. 학습자 중심의 다양하고 질 높은 교과용도서 편찬</p> <p>(1) 창의·인성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내용 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의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는 교육 내용, 방법, 평가 구안 ○ 학습의 과정, 탐구 과정, 통합적인 사고력 신장 중시 ○ 나눔과 배려의 인성 교육을 구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 방법과 활동 제시 <p>(2)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으며 활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편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의 생활 경험을 반영한 내용 구성으로 흥미와 동기 유발 및 이해력 증진 ○ 자기 주도적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 구성 ○ 다양한 편집 디자인 기법의 도입, 가독성의 제고 ○ 사례 중심, 직접적인 체험을 중시하는 내용 구성 	<p>나. 바른 인성과 창의융합적 사고력을 갖춘 인재 양성에 적합한 교과용도서 편찬</p> <p>(1) 바른 인성 함양을 도모하는 교과용도서 편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존중, 공감, 소통, 협력, 참여, 정의, 배려 등의 인성 요소를 중심으로 인성 교육이 구현될 수 있도록 개발 - 교과 특성에 따라 교실 수업 단위에서 인성 교육을 구현할 수 있는 교육 내용 제시 - 학생 참여와 협력 및 체험 학습이 강화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제시 <p>(2) 지식의 창조 및 융합 능력을 신장하는 교과용도서 편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문·사회·과학기술 기초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개발 - 교과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 제시 - 융·복합적 사고력과 통찰력을 발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제시

인성의 내용이 보다 구체화되고 다양화되었다. 창의의 내용이 ‘창의성’으로만 제시되던 데에서 ‘지식의 창조 및 융합 능력’으로, 그리고 ‘인문·사회·과학기술 기초 소양’, ‘교과 역량’, ‘융·복합적 사고력과 통찰력’ 등으로 그 세부 내용이 보다 구체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교과용도서의 공통 편찬 방향이 한문 교과서의 개발 방향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기준』, 1면 ; 충청북도교육청(2015?),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인정도서 개발을 위한 공통 편찬상의 유의점 및 공통 인정 기준』 참조

2)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1),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고시(제2011-361호, '11.08.09)에 따른 초·중등학교 검정 교과용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 4면.

3) 충청북도교육청(2015?),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인정도서 개발을 위한 공통 편찬상의 유의점 및 공통 인정 기준』 참조

다음의 표는 2009 및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서의 개발 방향을 비교한 것이다.

교과서의 개발 방향	
2009 개정 교육과정 ⁴⁾	2015 개정 교육과정 ⁵⁾
<p>(1) 교과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목표,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에 적합한 교과서를 개발한다.</p> <p>(2) 학습자의 능동적인 자기 주도적 학습과 개인차를 고려한 수준별 학습이 가능한 교과서를 개발한다.</p> <p>(3) 필수 학습 요소를 중심으로 학습량을 적정화하여 활용도가 높은 교과서를 개발한다.</p> <p>(4)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는 활동 중심의 교수·학습을 실현함으로써 지속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서를 개발한다.</p> <p>(5) 우리 문화의 이해를 토대로 하여 동아시아의 문화를 수용하고 세계화의 흐름 속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한다.</p> <p>(6) 스마트러닝 시대에 적합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교육 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내용과 자료를 제공한다.</p>	<p>(1) 교육과정의 ‘성격’,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교과서를 개발한다.</p> <p>(2)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에 적합한 교과서를 개발한다.</p> <p>(3)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적합하며, 핵심역량 함양을 도모하는 실생활 중심의 교과서를 개발한다.</p> <p>(4) 일상생활과 연계되어 이해하기 쉽고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과서를 개발한다.</p> <p>(5) 학습자의 창의력과 사고력, 탐구력을 기를 수 있고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교과서를 개발한다.</p> <p>(6) 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현장 교원의 참여와 검토를 통해 수업에서 활용도가 높은 교과서를 개발한다.</p>

2009 개정 교육과정이 내세우는 ‘창의·인성 교육’이 정작 한문 교과서의 개발 방향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 ‘(5) 우리 문화의 이해를 토대로 하여 동아시아의 문화를 수용하고 세계화의 흐름 속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한다.’라는 내용이 그나마 창의성과 관련된 법한데, 그러나 이 내용은 전통 문화의 이해와 계승 및 한자문화권의 상호 이해와 교류와 관련된 한문과 교육과정 자체의 목표와 관련해서 이해되는 내용이기도 하다.

반면에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3)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적합하며, 핵심역량 함양을 도모하는 실생활 중심의 교과서를 개발한다.’, ‘(5) 학습자의 창의력과 사고력, 탐구력을 기를 수 있고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교과서를 개발 한다.’라는 개발 방향은 이들 내용이 한문 교과서의 편찬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임을 분명하게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창의융합형 인재’, ‘바른 인성과 창의융합적 사고력’, ‘핵심역량’ 등은 한문 교과의 관점에서 볼 때 모두 교과의 핵심역량으로 수렴될 내용의 것이기도 하다. 한문 교과의 핵심역량으로 제시되는 “의사소통 능력, 정보처리 능력, 창의적 사고 능력, 인성 역량, 심미적 감성”⁶⁾ 등의 내용은 ‘창의융합형 인재’, ‘바른 인성과 창의융합적 사고력’ 등의 내용을 모두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기 때문이다.

4) 강원도교육연구원(2012), 「중학교 한문」, 『2012~2013년 강원도교육청 인정대상도서 교과별 인정기준』, 1면.

5) 충청북도교육청(2015?), 「중학교 한문」,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인정도서 개발을 위한 교과별 편찬상의 유의점 및 인정 기준』, 1면.

6) 교육부(2015),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17] 한문과 교육과정』, 3면.

다. 이렇게 본다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서 개발 방향이 이전 교육과정의 그것과 두드러지게 차이나는 내용은 바로 이 교과 핵심역량의 함양에 대한 강조라고 하겠다. 물론 교과 핵심역량의 함양에 대한 강조는 비록 명시적이거나 자의식적인 표명은 부족했다 하더라도 이전 교육과정에서도 이루어져 왔던 내용들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처럼 명시적이면서도 의식적으로 교과 핵심역량의 함양을 강조할 때, 이를 반영한 교과서의 모습은 이전 교과서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연구 거리가 아닐 수 없다.

핵심역량 함양에 대한 강조는 교과서 인정기준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과서 인정기준에서 창의·인성교육과 관련된 조항을 하나 제시하고 있다. ‘Ⅱ. 내용의 선정 및 조직’의 “8. 교수·학습 내용이 창의·인성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조직되었는가?”⁷⁾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과서 인정기준에서 핵심역량 함양과 관련된 내용으로 다음의 여러 조항들을 들고 있다. 곧, ‘Ⅱ. 내용의 선정 및 조직’의 “8. 일상생활과 연계되어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 제재, 소재 등을 선정하였는가?”, “9.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다양한 방식으로 일상생활에 적용함으로써 교과 역량 함양이 가능하도록 교육내용을 조직하였는가?”, ‘Ⅳ.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의 “19. 교과 역량 함양과 교과 지식의 적용 및 활용을 유도하는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를 제시하였는가?”, “20. 체험 중심의 인성교육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학생 참여와 협력 학습이 강화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를 제시하였는가?”⁸⁾ 등이 그것이다. 이들 인정기준의 조항들은 앞서 언급했던 교과서의 개발 방향들과 일정하게 연결되는 내용들이라 하겠다.

3.

교과서의 검정기준 또는 인정기준은 교육과정의 요구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들이라 할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인정 기준의 심사 영역 및 항목들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내용은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를 심사 영역의 하나로 추가 제시하였다는 것과 일상생활과의 연계 및 교과 핵심역량의 함양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인정 기준의 심사 영역은 ‘Ⅰ. 교육과정의 준수(30)’, ‘Ⅱ. 내용의 선정 및 조직(35)’, ‘Ⅲ. 내용의 정확성 및 공정성(35)’(이상 괄호 안은 배점, 이하 같음)의 세 가지였다. 그러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여기에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를 더하여, 곧 ‘Ⅰ. 교육과정의 준수(16)’, ‘Ⅱ. 내용의 선정 및 조직(34)’, ‘Ⅲ. 내용의 정확성 및 공정성(34)’, ‘Ⅳ.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16)’의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를 심사 영역의 하나로 새롭게 제시한 것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를 교육과정 전체의 차원에서 일반론적으로 제시할 뿐만 아니라 핵심개념 차원에서도 보다 특수적 구체적으로 새롭게 제시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는 사항이다. 곧 2015 改定 教育課程은 핵심 개념을 ‘성취기준 그룹’으로 상정하여 성취 기준을 그룹별로 제시하되, 성취기준 그룹 설정 이유 및 그룹별 성취 기준을 먼저 제시하고, 해당 성취기준 그룹의 ‘학습 요소’, ‘성취기준 해설’,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을 이어서 함께 제시하고 있는바⁹⁾, 이는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를 그만큼 중시하고 강조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7) 강원도교육연구원(2012), 「중학교 한문」, 『2012~2013년 강원도교육청 인정대상도서 교과별 인정기준』, 4면.

8) 충청북도교육청(2015?), 「중학교 한문」,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인정도서 개발을 위한 교과별 편찬상의 유의점 및 인정 기준』, 6면.

9) 장호성 외(2015b), 43~51면 참조.

일상생활과의 연계 및 교과 핵심역량의 함양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앞서 인용한바 ‘II. 내용의 선정 및 조직’의 “8. 일상생활과 연계되어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 제재, 소재 등을 선정하였는가?”, “9.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다양한 방식으로 일상생활에 적용함으로써 교과 역량 함양이 가능하도록 교육내용을 조직하였는가?”, ‘IV.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의 “19. 교과 역량 함양과 교과 지식의 적용 및 활용을 유도하는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를 제시하였는가?”, “20. 체험 중심의 인성교육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학생 참여와 협력 학습이 강화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를 제시하였는가?”¹⁰⁾ 등의 내용을 지정한 것이다. 이들 내용이 심사 항목에 새롭게 포함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들 내용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강조하는 내용들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울러 이들 내용이 ‘내용의 선정과 조직’에서 뿐만 아니라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에서도 주요 인정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이들 내용은 또 어떻게 교과서에 반영할 것인가? 역시 연구 거리가 아닐 수 없다.

참고로 2009 및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서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교과서 인정 기준					
2009 개정 교육과정 ¹¹⁾			2015 개정 교육과정 ¹²⁾		
심사 영역	심사 항목	영역별 배점	심사 영역	심사항목	영역별 배점
I. 교육 과정의 준수	1. 교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목표’를 충실히 반영하였는가? 2. 교과 교육과정의 ‘내용(성취 기준)’을 충실히 반영하였는가? 3. 교과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방법’을 충실히 반영하였는가? 4. 교과 교육과정의 ‘평가’를 충실히 반영하였는가?	30	I. 교육 과정의 준수	1.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격’을 충실히 반영하였는가? 2. 교육과정에 제시된 ‘목표’를 충실히 반영하였는가? 3.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을 충실히 반영하였는가? 4.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을 충실히 반영하였는가?	16
II. 내용의 선정 및 조직	5. 내용의 수준과 범위가 학습자의 발달 특성에 적합하며, 단원의 분량은 교과 교육과정의 단위 배당 기준에 적정한가? 6. 단원의 전개 및 구성 체제가 유기적이며 소재와 제재가 참신한가? 7. 교수·학습 활동이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구성되었는가? 8. 교수학습 내용이 창의·인성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조직되었는가?	35	II. 내용의 선정 및 조직	5. 내용의 수준과 범위는 적합하고, 학습량은 교육과정 단위 배정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적당한가? 6. 내용 요소 간 위계가 있고,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7. 단원의 전개 및 구성 체제가 적절하며, 소재 및 제재는 참신한가? 8. 일상생활과 연계되어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 제재, 소재 등을 선정하였는가? 9.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다양한 방식	34

10) 충청북도교육청(2015?), 「중학교 한문」,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인정도서 개발을 위한 교과별 편찬상의 유의점 및 인정 기준』, 6면.

교과서 인정 기준					
2009 개정 교육과정 ¹¹⁾			2015 개정 교육과정 ¹²⁾		
심사 영역	심사 항목	영역별 배점	심사 영역	심사항목	영역별 배점
	9. 한자는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중 중학교용 900자 범위 내에서 선정하였으며, 기초 한자의 범위를 초과하는 한자(인명, 지명 등의 고유명사를 제외한 100자 이내)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시하였는가?			으로 일상생활에 적용함으로써 교과 역량 함양이 가능하도록 교육내용을 조직하였는가? 10.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조직하여 기술하였는가? 11. 한자는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중 중학교용 900자 범위 내에서 선정하였으며, 기초 한자의 범위를 초과하는 한자(인명, 지명 등의 고유명사를 제외하고 100자 이내)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시하였는가?	
Ⅲ. 내용의 정확성 및 공정성	10. 인용된 자료는 원전에 충실하며 작자와 출전을 정확히 밝혔는가? 11. 사실, 개념, 용어, 이론 등은 객관적이고 정확하며 학습자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되어 있는가? 12. 문법 용어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용어에 준하여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사용하였으며, 한자의 자형(字形)은 편찬상의 유의점에 제시된 자형을 충실히 따랐는가? 13. 사진, 삽화, 통계, 도표 및 각종 자료 등은 공신력 있는 최근의 것으로서 출처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가? 14. 특정 지역, 인물, 성, 상품, 기관·단체, 종교 등에 편향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기술하였는가? 15. 한글, 한자, 로마자, 인명, 지명, 통계, 도표, 지도, 계량 단위 등은 관련 자료 및 법규에 적합하게 표기하였는	35	Ⅲ. 내용의 정확성 및 공정성	12. 제시한 사실, 개념, 이론 등은 객관적이고 정확한가? 13. 인용된 자료는 원전에 충실하며, 작자와 출전을 정확하게 밝혔는가? 14. 문법 용어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용어에 준하여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사용하였으며, 한자의 자형(字形)은 편찬상의 유의점(안)에 제시된 자형을 충실히 따랐는가? 15. 평가 문항은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성취기준에 부합하고, 질문과 답에 오류가 없는가? 16. 사진, 삽화, 통계, 도표 및 각종 자료 등은 공신력 있는 최근의 것으로 정확하며, 출처를 분명히 제시하였는가? 17. 특정 지역, 문화, 계층, 인물, 성, 상품, 기관, 종교 등을 비방·왜곡 또는 옹호하지 않았으며, 집필자 개인의 편견 없이 내용을 공정하게 기술하였는가? 18. 한글, 한자, 로마자, 인명, 지명, 각	34

교과서 인정 기준					
2009 개정 교육과정 ¹¹⁾			2015 개정 교육과정 ¹²⁾		
심사 영역	심사 항목	영역별 배점	심사 영역	심사항목	영역별 배점
	가?			중 용어, 통계, 도표, 지도, 계량 단위 등의 표기 및 표현상의 오류가 없고 정확한가?	
			IV. 교 수 · 학 습 방 법 및 평 가	19. 교과 역량 함양과 교과 지식의 적용 및 활용을 유도하는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를 제시하였는가? 20. 체험 중심의 인성교육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학생 참여와 협력 학습이 강화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를 제시하였는가? 21.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하고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를 제시하였는가? 22.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을 제시하였는가?	16
합 계		100	합 계		100

4.

교과서 분량 문제를 또한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인정도서 개발을 위한 교과별 편찬상의 유의점 및 인정 기준』은 중학교 ‘한문’의 경우 교과서 분량을 “부록을 포함하여 190쪽이며, 10% 범위 내에서 가감¹³⁾할 수 있다고 하였고, 고등학교 ‘한문 I’, ‘한문 II’의 경우에는 교과서 분량을 “부록을 포함하여 180쪽이며, 10% 범위 내에서 증감¹⁴⁾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전 교육과정 교과서에 비해 통상 80~100쪽이 줄어든 셈이다. 이에 따라 대단원의 個數와 소단원의 個數 및 소단원별 면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새롭게 난제로 등장했다. 소단원별 신출한자의 배분 문제도 여기서 같이 고려할 대상이다. 한문 교과서 편찬은 한 권 한 권이 하나의 커다란 퍼즐이다. 퍼즐 풀이 마니아는

11) 강원도교육연구원(2012), 「중학교 한문」, 『2012~2013년 강원도교육청 인정대상도서 교과별 인정기준』, 4면.

12) 충청북도교육청(2015?), 「중학교 한문」,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인정도서 개발을 위한 교과별 편찬상의 유의점 및 인정 기준』, 6면.

13) 충청북도교육청(2015?), 「중학교 한문」,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인정도서 개발을 위한 교과별 편찬상의 유의점 및 인정 기준』, 3면.

14) 충청북도교육청(2015?), 「중학교 한문」,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인정도서 개발을 위한 교과별 편찬상의 유의점 및 인정 기준』, 9면.

언제까지 한문 교과서 편찬자들의 운명일 수밖에 없는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漢文科 교과서 개발 방향에 관한 연구’가 오늘의 학술대회의 주제이다. 이 주제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 연구 주제를 아우르고 있다. 하나는 漢文 교과서에 관한 일반론적 연구이며, 다른 하나는 당면한 한문 교과서 편찬이라는 실용적 실천적 목적을 전제로 하는 특수적 연구이다. 그 동안의 한문 교과서 연구는 주로 후자의 측면에서 수행되어 왔고, 전자의 측면 또한 통상 후자를 매개로 수행되어 왔던 게 사실이다. 오늘의 학술 대회 또한 여기서 예외가 아니다. 새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편찬이 진행 중인 현재 시점에서 오늘의 주제는 그야말로 따끈따끈한 주제라 아니할 수 없다. 모쪼록 오늘의 학술대회가 보다 나은 한문 교과서의 편찬 및 한문 교과서 연구의 심화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한문교과서 研究史 검토

李東宰(공주대)

<目次>

I. 序言	V. 2007년 개정 교육과정기
II. 교수요목기에서 제5차 교육과정기	VI. 2009년 개정 교육과정기
III. 제6차 교육과정기	VII. 結語
IV. 제7차 교육과정기	

I. 序言

교육은 국가 사회의 필요에 의해 의도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주로 가정과 사회, 학교 등에서 이루어진다. 그 가운데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가운데 교과활동은 주로 교과서를 활용하여 교수·학습이 이루어진다.

교과서의 사전적 의미는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라 주된 교재로 편찬된 서책, 음반, 영상 등을 말한다. 또한 과거에는 교과서는 표준적이고 보편타당한 사실을 담고 있는 것으로 믿었고, 학생들이 교과서의 내용을 잘 암기하는 것이 최상의 교육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시대의 발전과 변화는 학교교육의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교과서의 개념도 변화하게 되었다. 현시대에는 교과서는 단순히 표준화 되고 검증된 지식 정보의 조직체에서, 학습자인 학생들의 생각을 자극하여 창조적인 사고를 이끌어내는 매체의 역할로 그 기능이 변하고 있다.

한문교과가 정식 교과목으로 채택된 1972년 이후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그 유형이 교과중심교육과정에서 경험중심교육과정으로, 다시 학문중심교육과정으로 변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문교과서의 위치도 원전과 같은 절대적 권위를 가졌던 것이 학습의 도구인 자료집으로 그 의미가 축소되었다.¹⁾

교과서를 연구하는 목적은 더 좋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기존에 나온 교과서를 분석하여 장단점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교과서의 개발방향을 모색하여 차후 교과서를 제작할 때 이를 반영하여 더 좋은 교과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교과서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학자들마다 교과서를 바라보는 시각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교과서는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고, 교육과정을 구현하여야 하며, 오류가 없고, 학생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하여야 한다고 한다. 나아가 교과서는 재미있고, 가르치기 쉽고 배우기 쉬워야 하며,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유익한 내용을 담아야 하고, 학습자 개개인의 특성에 따른 학습 활동을 유도하는 교과서가 좋은 교과서라고 한다.

한문교과서 분석의 준거는 개인의 교육적 신념이나 취향이 아닌 교육과정이어야 한다. 즉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한문과의 성격, 교육목표, 내용이나 체제, 교수·학습 방법, 평가 등을 반영하고, 여기에 학생들이 하여금 쉽고 재미있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가에 있다.

현재까지 한문교과서를 대상으로 한 연구 성과는 국어과 등 다른 교과목에 비해 그 연구 성과가 매

1) 김만관(2000), 「교과서관에 따른 사회과 교과서의 변화」, 『교과서연구』33호, pp.319면 참조.

우 부족하지만 나름의 많은 성과가 있었다. 이는 한문교육에 있어서 교과교육에 대한 연구자가 적고, 교과서 분석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이 주된 이유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한문교육을 위해서는 반드시 좋은 교과서를 만들어야 하므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과서의 연구사를 검토하는 것은 교과서의 연구 목록을 작성하여 추후 교과서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연구사의 검토를 통해 교과서를 분석하는 여러 준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한문 교과서의 연구를 검토한 연구는 정재철(2011)에 의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을 뿐,²⁾ 한문교과서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는 연구의 제한 상 1945년 광복이후 간행된 한문 교과서를 연구한 논저들의 현황만을 살펴보고 교과서 연구의 論著들에 대한 분석은 추후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본고는 한문교과서의 연구사를 검토하는데, 이를 편의상 첫째, 교수요목기에서 제5차 교육과정기, 둘째, 제6차 교육과정기, 셋째, 제7차 교육과정기, 넷째, 2007년 개정 교육과정기, 다섯째, 2009년 개정 교육과정기로 나누어 살펴본다.

한문교과서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대부분 한자, 한자 어휘 등 독립된 연구로 이루어졌지만, 일부 연구는 한자와 한자 어휘, 내용 분석과 교수·학습방법 등 층위가 다른 것을 묶어서 복합적으로 연구하기도 하였고, 교육과정의 변천에 따라 통시적으로 연구를 하는 등, 교육과정별로 분류하여 구분하기가 어려운 연구 성과도 있다. 따라서 본고는 서술의 편의상 복합적인 연구는 그 가운데 주된 내용으로 분류하였고, 종적연구는 연구의 마지막 시기로 분류하여 서술하였다. 또한 연구의 편의상 정책, 교과서 전체분석, 한자, 한자 어휘, 산문의 구성, 문법, 풀이, 내용, 한시, 교수·학습, 평가, 제책, 기타로 구분하여 살펴보겠다.

II. 교수요목기에서 제5차 교육과정기

교수요목기(1945~1954)에서 제5차 교육과정기(1987~1992)는 우리나라의 교육에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던 시기이다.³⁾ 또한 한문이 제3차 교육과정기에 정규 교과로 편성되어 독립교과로서의 위상을 확보한 시기이다. 이 기간에 간행된 한문 교과서는 교수요목기에 30종이 간행이 되었고,⁴⁾ 제1차 교육과정

2) 정재철(2011), 「한문과 교재 연구의 성과와 전망 -중·고등학교 한문교과서를 중심으로-」, 『한문교육연구』 37집, 한국한문교육학회.

3) 이시기는 교수요목기(1945~1954), 제1차 교육과정기(1954~1963), 제2차 교육과정기(1963~1973), 제3차 교육과정기(1973~1981), 제4차 교육과정기(1981~1987) 제5차 교육과정기(1987~1992)로 약 반세기의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4) 朴炳連(1946), 『新修漢文讀本』, 文化堂, 임창순(1946), 『中等漢文讀本』, 경상북도학무국, 金敬琢(1947), 『初級漢文讀本 卷二』, 동방문화사, 金能根(1947), 『中等漢文敎本 卷三』, 문교도서주식회사, 金能根(1948), 『中級漢文敎本 卷二』, 문교도서주식회사, 金敬琢(1948), 『中級漢文敎本 卷三』, 동방문화사, 趙植(1948), 『中等漢文敎科書』, 建國社, 金得楚(1949), 『新修中等漢文 卷一』, 탐구당, 金敬琢(1949), 『中等漢文讀本 卷一』, 동방문화사, 金敬琢(1949), 『中等漢文讀本 卷二』, 동방문화사, 사범대학부속중학교(1949), 『中等漢文敎材上』, 사범대학부속중학교, 張鉉參(1949), 『정선 중등 한문(金)』, 三重文化社, 金敬琢(1949), 『中等漢文讀本 卷一』, 동방문화사, 金敬琢(1950), 『中等漢文敎本 卷一』, 문교도서주식회사, 金敬琢(1950), 『中等漢文敎本 卷三』, 문교도서주식회사, 金敬琢(1950), 『中等漢文敎本 卷二』, 동방문화사, 金得楚(1950), 『新修中等漢文』, 탐구당, 金能根(1950), 『中等漢文敎本 卷一』, 문교도서주식회사, 金能根(1950), 『中等漢文敎本 卷二』, 대영당, 金敬琢(1950), 『中等漢文敎本 卷一』, 동방문화사, 閔泰植(1950), 『中等漢文一』, 金龍圖書株式會社, 金敬琢(1951), 『中等漢文讀本 卷三』, 동국문화사, 金得楚(1951), 『新修中等漢文 卷一』, 탐구당, 金得楚(1951), 『新修中等漢文 卷三』, 탐구당, 金敬琢(1951), 『中等漢文讀本 卷二, 三』, 동국문화사, 金敬琢(1952), 『中等漢文讀本 卷一』, 동국문화사, 金得楚

기에는 6종이 간행되었으며,⁵⁾ 제2차 교육과정기에는 13종이 간행되었다.⁶⁾ 또한 제3차 교육과정기(1973~1981)에는 13종이 간행되었고,⁷⁾ 제4차 교육과정기(1981~1987)에서는 20종이 간행되었으며,⁸⁾ 제5차 교육과정기(1987~1992)는 29종의 교과서가 간행되었다.⁹⁾

이 시기에 간행된 한문교과서는 그 중수가 적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매우 소략하여 교수요목기에 간행된 교과서에 대한 연구는 2편에 불과하고, 제1차 교육과정기, 제2차 교육과정기에 간행된 한문교과서에 대한 독립적인 분석은 전무한 실정이다.

본장에서는 이 시기에 이루어진 교과서의 연구사를 살펴보는 데, 교과서 정책, 교과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 한자, 한자 어휘, 산문, 한문 문법, 해석, 한시 등의 순으로 살펴본다.

첫째, 교과서의 정책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과서 개발의 방향, 교과서의 장단점 분석을 통한 교과서 개발의 방향, 검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다룬다. 정책에 관한 연구는 정우상(1981)의 제3차 교육과정의 중학교 한문과 교육과정과 한문교육에 관한 연구가 있다.¹⁰⁾

둘째, 교과서 전체의 구성과 내용을 분석한 연구는 장영신·김용재(2013)가 敎授要目期 중학교 한문교과서의 구성 체계와 내용을 분석하였으며,¹¹⁾ 이어 장영신(2015)이 이를 심화 분석하였다.¹²⁾ 또한 김만

(1952), 『新修 中學漢文 卷 二』, 探究堂, 李允熙(1950), 『新編 中學漢文 卷 三』, 서울民衆書館, 李允熙(1950), 『新編 中學漢文 卷 三』, 서울民衆書館, 李允熙(1951), 『新編 中學漢文 卷 三』, 서울民衆書館.

5) 김능근(1956), 『중학한자』, 박영사, 김경택(1962), 『중등한자독본』, 동국문화사, 이가원(1967), 『중등한자독본』, 해동문화사, 차상원(1964), 『新編 高等漢文』 1, 문리사, 차상원(1964), 『新編 高等漢文』 2, 문리사, 차상원(1964), 『新編 高等漢文』 3, 문리사.

6) 민태식(1965), 『중학한자』, 동아출판사, 한상갑(1965), 『중학 한자어교본』, 지림출판사, 안인식(1966), 『신편 중학한자어』, 한국교육도서출판사, 조두현(1965), 『모범 중등한자』, 일지사, 차상원(1969), 『신편 중학한자어교본』, 문리사, 조용욱·신원우(1967), 『인문계고등학교 한문』, 사조사, 차상원(1967), 『신편 고등한문』 3, 을유문화사, 정병욱·이경선(1967), 『표준 한문』, 신구문화사, 이가원(1968), 『표준 한문』, 민중서관, 김득초(1968), 『新修 漢文』, 탐구당, 이은상·정범진(1968), 『표준 한문』, 교학사, 정종호(1968), 『新制 漢文』, 백미사, 조두현(1968), 『模範 漢文』, 일지사.

7) 중학한문교육연구회(1973), 『중등한문』, 한국검인정교과서주식회사, 한국교육개발원(1979), 『중학교 한문』 1, 고려서적, 한국교육개발원(1979), 『중학교 한문』 2, 고려서적, 한국교육개발원(1979), 『중학교 한문』 3, 고려서적, 고등한문교육연구회(1974), 『高等漢文』, 고등교과서(주), 이우성·이동환·임형택(1979), 『한문』 I, 문운당, 장순하·조두현(1979), 『한문』 I, 금성출판사, 성원경·진태하·김현룡(1979), 『한문』 I, 문호사, 김영기·조영진(1979), 『한문』 I, 고문사, 안병주·이이화(1979), 『한문』 I, 동화출판공사, 이우성·이동환·임형택(1979), 『한문』 II, 문운당, 성원경·진태하·김현룡(1979), 『한문』 II, 문호사, 김중권(1979), 『한문』 II, 서울문화사.

8) 이우성·이동환·임형택(1983), 『중학교 漢文』 1, 2, 3, 동아출판사, 정우상·김용길·안재철(1983), 『중학교 漢文』 1, 2, 3, 교학사, 최창규·조종업(1983), 『중학교 漢文』 1, 2, 3, 교학사, 장순하·조두현·서수생·최신희(1983), 『중학교 漢文』 1, 2, 3, 금성교과서(주), 김석하·이용완·이원강(1983), 『중학교 漢文』 1, 2, 3, 화학사, 이중찬·이운구·손팔주·서경요(1985), 『한문』, 어문각, 이우성·임형택·이동환(1985), 『한문』 2, 동아출판사, 박천규·이신복(1985), 『한문』 II, 탑출판사, 정우상·김용길(1985), 『한문』 II, 교학사, 조두현·서수생·장순하·최신희(1985), 『한문』 II, 금성교과서.

9) 정우상·배원룡(1988), 『중학교 漢文』 1, 2, 3, 동아출판사, 김용길·안재철(1988), 『중학교 漢文』 1, 2, 3, (주)교학사, 김중훈·이병혁·한성희(1988), 『중학교 漢文』 1, 2, 3, 금성교과서(주), 송하경·김병채·서인석(1988), 『중학교 漢文』 1, 2, 3, 박영사, 손홍명(1988), 『중학교 漢文』 1, 2, 3, 평화출판사, 이신복·정대립(1990), 『한문』 上, 태림출판사, 류풍연·이종복·방인태(1990), 『한문』 上, 웅진교과서, 이응백(1990), 『한문』 上, 지학사, 김중훈·이병혁·강귀수·한성희(1990), 『한문』 上, 금성교과서, 김용길·안재철(1990), 『한문』 上, 교학사, 김도련·이현식(1990), 『한문』 上, 교학연구사, 한국교육개발원(1988), 『한문』 下, 고려서적, 김중훈·이병혁·강귀수·한성희(1991), 『한문』 下, 금성교과서, 이응백(1991), 『한문』 下, 지학사, 류풍연·이종복·방인태(1991), 『한문』 下, 웅진교과서, 정우상·정달영(1991), 『한문』 下, 동아출판사, 김용길·안재철(1991), 『한문』 下, 교학사, 이신복·정대립(1991), 『한문』 下, 태림출판사, 김도련·이현식(1991), 『한문』 下, 교학연구사.

10) 정우상(1981), 『中學校 漢文科 敎育課程과 漢文敎育』, 『어문연구』 9집, 일조각.

11) 장영신·김용재(2013), 『敎授要目期 中학교 漢文 敎과서 구성 체계와 내용 분석』, 『교육연구』 58집, 성신여자대학교교육문제연구소.

경(1987)은 제4차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된 고등학교 한문교과서를 분석하였고,¹³⁾ 최태연(1988)과 박명철·권진호(1990)는 제5차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된 중학교 한문교과서의 내용을 분석하였으며,¹⁴⁾ 이창희(1989)는 제5차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된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문교육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¹⁵⁾

그리고 윤증자(1984)는 제3차, 4차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된 고등학교 한문교과서를 통시적으로 분석하였고,¹⁶⁾ 이강수(1988)는 제3차, 4차, 5차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된 한문교과서의 변천과정을 연구하였으며,¹⁷⁾ 황인수(1989)는 해방 이후 교수요목기부터 제5차 교육과정기에 간행된 한문 교과서의 변천 과정을 개략적으로 분석하였다.¹⁸⁾

셋째, 교과서에 수록된 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김두찬(1977)의 제3차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된 중·고등학교 한문교과서의 필순과 부수의 여러 문제점을 분석한 연구가 있고,¹⁹⁾ 최상익(1983)의 제4차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된 고등학교 한문 I 교과서에 수록된 ‘六書’의 여러 문제점을 분석한 연구가 있으며,²⁰⁾ 김용걸(1984)의 漢文科 教科書(中·高) 編纂에 있어서 한문교육용 기초한자의 제한에 대한 연구가 있고,²¹⁾ 김경수(1986)의 중학교 교육용 기초한자 연구가 있다.²²⁾ 또한 배원룡(1991)의 제5차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된 한문 교과서에 수록된 僻字에 대한 분석이 있다.²³⁾

넷째, 한문 문법에 관한 연구는 최종규(1988)의 제5차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된 고등학교 한문교과서에서 문장 성분의 설정을 분석한 연구가 있다.²⁴⁾

다섯째, 산문에 관한 연구는 문형지(1992)의 제5차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된 고등학교 한문교과서에 수록된 산문의 내용을 분석한 연구가 있다.²⁵⁾

여섯째, 한시에 관한 연구는 안중남(1991)의 제5차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된 고등학교 漢文教科書에掲載된 詩의 국가, 작자, 내용별로 분류한 연구가 있다.²⁶⁾

교수요목기에서 제2차 교육과정기는 아직 한문이 교육과정상 정규 교과목에 편성되지 않았으며, 제3차 교육과정기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정규 교과목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 시기는 한문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이 정교하게 정립되지 않은 시기이다. 따라서 이 시기가 50여년이나 지속되었지만 연구 성

12) 장영신(2015), 「教授要目期 中學校 漢文 教科書 研究」, 성신여대 대학원 박사.

13) 김만경(1987), 「高等學校 漢文教科書의 分析的 研究」, 단국대학교 대학원(석사).

14) 최태연(1988), 「中學校 漢文教科書 研究 -內容 分析을 中心으로-」, 『한문학연구』 5집, 계명한문학회, 박명철·권진호(1990), 「改編 漢文 教科書 8種分析」, 『안동한문학논집』 1집, 안동한문학회.

15) 이창희(1989), 「한문 교육의 문제점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문교육연구』 3집, 한국한문교육학회.

16) 윤증자(1984), 「高等學校 漢文教科書의 通時的考察」, 경북대학교 대학원(석사).

17) 이강수(1988), 「漢文教科書의 變遷過程 研究」, 고려대학교 대학원(석사).

18) 황인수(1989), 「解放이후 中·高等學校 漢文科 教育課程과 教科書 變遷 研究」, 강원대학교 대학원(석사).

19) 김두찬(1977), 「教科書 (中等漢文)의 및 몇 문제점 -漢字部首의 效用은 筆順에 正比例한다는 現象에 대하여-」, 『어문연구』 5집,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 최상익(1983), 「六書研究 -現行 高校用 漢文(I) 教科書에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17집, 강원대학교.

21) 김용걸(1984), 「漢文科 教科書(中·高) 編纂에 있어서 '漢文 教育用 基礎漢字' 制限에 關한 檢討」, 『교육연구』 17집, 성신여자대학교교육문제연구소.

22) 김경수(1986), 「中學校 教育用 基礎漢字 研究」, 『교육연구』 19권,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3) 배원룡(1991), 「한문 교과서의 僻字에 대하여 - 現행 중학교 5종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문교육연구』 5집, 한국한문교육학회.

24) 최종규(1988), 「漢文文法統一을 위한 一研究 -現行高교용 한문(1)교과서의 문장성분 설정내용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대학원(석사).

25) 문형지(1992), 「高等學校 漢文教科書의 분석연구 -檢認定 八種の 散文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석사).

26) 안중남(1991), 「韓國漢詩研究 -高等學校 漢文教科書에 掲載된 詩를 中心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석사).

과도 소략하고 연구 내용도 대부분 교과서의 내용 실태를 분석한 것에 불과하고 교과서의 정책이나 교수·학습방법, 평가, 교과서의 구성 등 제책에 관한 연구 성과가 전무하였다.

III. 제6차 교육과정기

제6차 교육과정기(1992~1997)에 간행된 한문교과서는 중학교 한문(1, 2, 3)이 8개의 출판사에 의해 출간이 되었고, 고등학교 한문(上, 下)이 11개 출판사에 의해 출간이 되어 모두 46종이 출간되었다.²⁷⁾

이 시기의 한문교과서의 연구는 교수요목기에서 제5차 교육과정에 비해 연구 성과도 더 늘어났으며, 평가 및 교과서 구성에 관한 연구 성과가 나오기 시작한다.

본장에서는 II장과 같이 정책, 교과서 전체 분석, 한자, 한자 어휘, 산문, 한문 문법, 번역, 한시, 교수·학습, 평가, 제책, 기타 순으로 서술한다.

첫째, 교과서를 분석하여 개선점을 밝힌 연구 성과를 살펴본다. 이 시기는 교과서의 정책에 관한 독립된 연구 성과는 없고, 다만 교과서의 분석과 함께 문제점을 밝히고 개선점을 찾는 연구가 있었다. 이를 살펴보면, 최상익(1993)은 제6차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된 고등학교 한문 上 교과서의 문제점을 분석하였고,²⁸⁾ 이명학(1994)은 중·고등학교 한문교과서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으며,²⁹⁾ 최오현(1997)은 중학교 한문교과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고찰을 하였다.³⁰⁾ 또한 송병렬(2000)과 박정도(2000)는 제6차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된 한문교과서를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새로운 교과서의 개발의 방향을 제시하였다.³¹⁾

둘째, 교과서의 전체 분석은 박혜숙(1992), 김길용(1995), 최관진(1996)의 제6차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된 중학교 한문교과서를 분석한 연구가 있고,³²⁾ 김창훈(1995)은 제6차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된 고등학교 한문교과서 上, 下권의 상호 연계성을 분석하였으며,³³⁾ 이흥우(1997)는 고등학교 한문교과서의 전체

27) 이응백 외(1995), 『한문』 1, 한샘교과서(주), 김도련 외(1995), 『한문』 1, 교학연구사, 전해옥 외(1995), 『한문』 1, 정법문화사, 박갑수 외(1995), 『한문』 1, 지학사, 박희병 외(1995), 『한문』 1, 을유문화사, 장순하 외(1995), 『한문』 1, (주) 지학사, 김상홍 외(1995), 『한문』 1, 중앙교육연구소, 이성직 외(1995), 『한문』 1, 학습개발사, 이응백 외(1996), 『한문』 2, 한샘교과서(주), 김도련 외(1996), 『한문』 2, 교학연구사, 전해옥 외(1996), 『한문』 2, 정법문화사, 박갑수 외(1996), 『한문』 2, 지학사, 박희병 외(1996), 『한문』 2, 을유문화사, 장순하 외(1996), 『한문』 2, (주) 지학사, 김상홍 외(1996), 『한문』 2, 중앙교육연구소, 이성직 외(1996), 『한문』 2, 학습개발사, 이응백 외(1997), 『한문』 3, 한샘교과서(주), 김도련(1997), 『한문』 3, 교학연구사, 전해옥(1997), 『한문』 3, 정법문화사, 박갑수 외(1997), 『한문』 3, 지학사, 박희병 외(1997), 『한문』 3, 을유문화사, 장순하 외(1997), 『한문』 3, (주) 지학사, 김상홍 외(1997), 『한문』 3, 중앙교육연구소, 이성직 외(1997), 『한문』 3, 학습개발사, 김도련 외(1996), 『고등학교 한문』 上, 下, 교학연구사, 김상홍 외(1996), 『고등학교 한문』 上, 下, (주) 중앙교육연구소, 김용길 외(1996), 『고등학교 한문』 上, 下, (주) 교학사, 류종연 외(1996), 『고등학교 한문』 上, 下, (주) 보진재, 박갑수 외(1996), 『고등학교 한문』 上, 下, 지학사, 이명학 외(1996), 『고등학교 한문』 上, 下, 을유문화사, 이지형 외(1996), 『고등학교 한문』 上, 下, (주) 한샘출판, 이희목 외(1996), 『고등학교 한문』 上, 下, (주) 천재교육, 정요일 외(1996), 『고등학교 한문』 上, 下, 재능교육, 정우상 외(1996), 『고등학교 한문』 上, 下, 동아출판사, 최상혁 외(1996), 『고등학교 한문』 上, 下, (주) 금성출판사.

28) 최상익(1993), 「현행 고등학교 『한문 上』 교과서의 문제점 연구」, 『한문교육연구』 7권, 한국한문교육학회.

29) 이명학(1994), 「현행 교과서의 현황과 개선방향」, 『한문교육연구』 8권, 한국한문교육학회.

30) 최오현(1997), 「중학교 한문 교과서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에 대한 일고」, 『한문교육연구』 11집, 한국한문교육학회.

31) 송병렬(2000), 「漢文科 教科教育에 있어서 教科書 問題」, 『한문교육연구』 14집, 한국한문교육학회, 박정도(2000), 「한문과 교과서 개발 방향」, 『교원교육』 16집,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원.

32) 박혜숙(1992), 「中學校 漢文 教科書에 대한 分析 研究」,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석사), 김길용(1995), 「제6차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한문교과서 분석」, 『한문교육연구』 9집, 한국한문교육학회, 최관진(1996), 「第6次 教育課程에 의한 中學校 漢文教科書 分析」,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석사).

33) 김창훈(1995), 「고등학교 한문교과서의 비교 고찰 -상, 하권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석사).

내용을 분류하여 분석하였다.³⁴⁾

셋째, 교과서에 수록된 한자에 대한 연구는 허은녕(1993)이 제6차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된 고등학교 한문교과서 上에 수록된 六書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³⁵⁾

넷째, 한문 문법에 관한 연구사를 살펴본다. 임중혜(1995)는 제6차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된 고등학교 한문교과서에 수록된 한문법의 실상을 정리하여 각 교과서별의 차이점을 분석하였고,³⁶⁾ 이어 송병렬(1996)은 중·고등학교 한문교과서에 수록된 한문 문법의 서술실태를 분석하였다.³⁷⁾ 또한 문형의 연구는 최종규(1988)의 제6차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된 고등학교 한문 上 교과서에 수록된 문장 성분의 설정 양상을 분석한 연구가 있고,³⁸⁾ 유수현(1996)의 제6차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된 중학교 한문교과서에 나타난 한문의 기본 문형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 통일 가능성을 모색한 연구가 있다.³⁹⁾ 나아가 허사에 관한 연구는 이병관(1995)의 제6차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된 중·고등학교 한문교과서 수록된 ‘之’의 문제점을 분석한 연구가 있고,⁴⁰⁾ 김도홍(1997)의 제6차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된 고등학교 한문교과서에 나타난 전치사에 대한 실태를 분석한 연구가 있으며,⁴¹⁾ 이지양(1998)의 고등학교 한문교과서에 나타난 虛字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있다.⁴²⁾

다섯째, 한문의 해석에 관한 연구는 한영호(2000)에 의해 특수 구문의 해석 오류와 그 원인을 분석한 연구가 있다.⁴³⁾

여섯째, 한시에 관한 연구사를 살펴본다. 이종문(1992)과 김태욱(1993)은 제6차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된 고등학교 한문교과서 上, 下에 수록된 한시를 국가별, 작가 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⁴⁴⁾ 또한 신용호(1993)는 고등학교 한문 上 교과서에 수록된 근체시의 해석상 오류 등을 분석하였으며,⁴⁵⁾ 남윤수(1994)는 고등학교 한문 교과서에 수록된 한시를 대상으로 押韻을 연구하였다.⁴⁶⁾

일곱째, 수업모형에 관한 연구는 박정도(1995)의 중·고등학교 한문교과서에 수록된 내용을 대상으로 한 수업모형의 연구가 있다.⁴⁷⁾

여덟째, 평가에 관한 연구는 안재철(1998)의 고등학교 한문교과서에 수록된 한자와 한자어를 대상으

34) 이흥우(1997), 「第6次 教育課程에 依한 高等學校 漢文 教科書 分析 研究」,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석사).

35) 허은녕(1993), 「現行 高等學校 漢文(上) 教科書 研究 -특히 六書의 問題點과 그 應用方法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대학원(석사).

36) 임중혜(1995), 「한문교과의 학교문법에 대한 고찰 : 한문교과의 학교문법 정립을 위한 고등학교 교과서 분석」,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석사), 임중혜(1996), 「漢文教科書 文法用語의 實際」, 『한문교육연구』 10집, 한국한문교육학회.

37) 송병렬(1996), 「교과서 한문 문법에 대한 재고」, 『한문교육연구』 10집, 한국한문교육학회.

38) 최종규(1988), 「漢文文法 統一을 위한 一研究 -현행 고교용 한문(上)교과서의 문장성분 설정내용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대학원(석사).

39) 유수현(1996), 「한문 기본문형 설정을 위한 연구 -현행 중학교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석사).

40) 이병관(1995), 「現行 中·高 漢文教科書 問題點 研究 -轉注의 정의, 之자의 용법, 補語의 문제를 중심으로-」, 『중국어문학논집』 7집, 중국어문학연구회.

41) 김도홍(1997), 「高等學校 漢文 教科書에 나타난 前置詞 用法에 관한 研究」,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석사).

42) 이지양(1998), 「高等學校 漢文教科書에 나타난 虛字研究」, 단국대학교 대학원(석사).

43) 한영호(2000), 「특수 구문의 해석오류와 그 원인에 관한 연구 -제6차 고교 한문 교과서(上,下)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대학원(석사).

44) 이종문(1992), 「高等學校 漢文 教科書 所載 漢詩에 對하여」, 『한국학논집』 19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김태욱(1993), 「高等學校 漢文 教科書 編纂에 關한 研究 -8種 教科書에 收錄된 漢詩를 中心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석사).

45) 신용호(1993), 「『고교한문 上』 교과서에 수록된 近體詩攷」, 『한문교육연구』 7권, 한국한문교육학회.

46) 남윤수(1994), 「漢文教科書(高校 8種) 所載 漢詩의 押韻 研究」, 『한자한문교육』 1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47) 박정도(1995), 「중·고등학교 漢文 教科 教授·學習 模型 研究」, 『교원교육』 11집,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원.

로 한 평가문제에 대한 분석 연구가 있다.⁴⁸⁾

아홉째, 교과서 체제와 字形에 관한 연구는 배원룡(1994)의 중학교 한문 교과서의 單元 설정을 분석한 연구가 있으며,⁴⁹⁾ 이병관(1995)의 중고 한문교과서에 사용된 字形의 문제점을 분석한 연구가 있다.⁵⁰⁾

제6차 교육과정기는 5년 동안 지속되었고 발간된 중고 한문 교과서도 46종에 이른다. 이 시기의 한문교과서의 연구는 전 시기인 교수요목기에서 제5차 교육과정기보다 더 많은 연구 성과가 있었다. 또한 전 시기의 연구가 주로 한문교과서의 실태 분석이 중심이었지만 이 시기에는 교과서의 개발의 방향을 모색하는 등 심화된 연구가 이루어졌다. 즉 이 시기에는 한문 문법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평가에 관한 연구가 처음으로 이루어졌으며, 교과서의 구성과 字形 등 제책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IV. 제7차 교육과정기

제7차 교육과정기(1997~2007)는 1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지속되었고, 교과서도 중학교는 한문 1, 2, 3을 11개 출판사에 의해 33종이 발간되었으며, 고등학교는 漢文이 10개 출판사가 검정을 받아 10종의 교과서를 발간하였고, 고등학교 한문고전은 1개 출판사에 의해 간행되었다.⁵¹⁾

또한 이 시기에는 전 시기에 비해 한문과 교과교육학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갖게 되었고, 이 분야의 연구자도 많이 양산되어서 전 시기에 비해 비약적으로 많은 연구 성과가 있었던 시기이다.

본장에서는 II장과 같이 정책, 교과서 전체 분석, 한자, 한자 어휘, 한문 문법, 산문, 한시, 제책, 기타 순으로 살펴본다.

첫째, 정책연구는 최태연(2000)이 한문 교육의 내용 표준화 문제를 제기하였으며,⁵²⁾ 윤채근(2002)은 교과서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였다.⁵³⁾ 또한 장호성(2004)은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中學校 漢文 教科書의 문제점⁵⁴⁾과 고등학교 한문교과서의 여러 문제점을 파악하고 새로운 교과서의 개발 방향을 제시하였으며,⁵⁵⁾ 송병렬(2006)과 이동재(2007)는 漢文科 教科書의 여러 문제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교과서의

48) 안재철(1998), 「현행 고등학교 한문교과서에 나타난 평가문제 분석연구 -한자 한자어 평가문제를 중심으로-」, 『한문교육연구』 12집, 한국한문교육학회.

49) 배원룡(1994), 「중학교 한문 교과서 單元 설정에 관한 연구」, 『한문교육연구』 8집, 한국한문교육학회

50) 이병관(1995), 「현행 중고 한문교과서 자형분석문제점 연구」, 『중어중문학』 17집, 한국중어중문학회

51) 중학교 한문은 김상홍 외(2001), 『중학교 한문』 1, 2, 3, (주) 중앙교육연구소, 민병수 외(2001), 『중학교 한문』 1, 2, 3, 민중서림, 박갑수 외(2001), 『중학교 한문』 1, 2, 3, (주) 지학사, 박성균 외(2001), 『중학교 한문』 1, 2, 3, 박영사, 오종일 외(2001), 『중학교 한문』 1, 2, 3, (주) 문원각, 유성준 외(2001), 『중학교 한문』 1, 2, 3, (주) 청색, 윤미길 외(2001), 『중학교 한문』 1, 2, 3, (주) 교학사, 이상진 외(2001), 『중학교 한문』 1, 2, 3, 동화사, 이응백 외(2001), 『중학교 한문』 1, 2, 3, (주) 한국 교육미디어, 이화규 외(2001), 『중학교 한문』 1, 2, 3, 한서출판사, 최상익 외(2001), 『중학교 한문』 1, 2, 3, 도서출판 H 등 11개 출판사가 검정에 통과하여 33종의 교과서가 간행이 되었고, 고등학교 한문은 이희목 외(2002), 『고등학교 漢文』, 천재교육, 이명학 외(2002), 『고등학교 漢文』, (주) 두산, 김정수 외(2002), 『고등학교 漢文』, 교학사, 유성준 외(2002), 『고등학교 漢文』, (주) 청색, 신표섭 외(2002), 『고등학교 漢文』, 대학서림, 최상익 외(2002), 『고등학교 漢文』, 금성출판사, 이수철 외(2002), 『고등학교 漢文』, 정진출판사, 김상홍 외(2002), 『고등학교 漢文』, 중앙교육진흥연구소, 박갑수 외(2002), 『고등학교 漢文』, 지학사, 안재철 외(2002), 『고등학교 漢文』, 교학사 등 10종이 발간되었으며, 한문고전은 최상익 외(2002), 『고등학교 한문 고전』, (주)금성출판사에서 1종이 출간되었다.

52) 최태연(2000), 「漢文 教育 內容의 標準化 問題」, 『한문교육연구』 14집, 한국한문교육학회.

53) 윤채근(2002), 「7차 교육과정에 따른 한문 교과서 활용 방안」, 『한문교육연구』 19집, 한국한문교육학회

54) 장호성(2004),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中學校 漢文 教科書의 問題」, 『한문학보』 10집, 우리한문학회.

대안을 제시하였다.⁵⁶⁾

이후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이 시행을 위한 교과서 집필을 위한 제언이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되었다. 한예원(2004)에 의해 제7차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른 한문교과서 집필지침의 특성과 문제점이 연구되었고,⁵⁷⁾ 이어 이돈석(2004)에 의해 제7차 고등학교 한문 교과서 검정에 따른 문제 및 개선 방안 연구⁵⁸⁾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한문 교과서 검정 기준과 편찬상의 유의점의 특성과 문제점이 연구되었다.⁵⁹⁾

둘째, 교과서의 전체 분석을 한 연구를 살펴본다. 먼저 중학교 연구사를 살펴보면, 윤보라(2003)와 장현옥(2004)은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된 중학교 한문 1의 체제와 내용의 문제점을 분석하였고,⁶⁰⁾ 김순천(2003)과 송민정(2007)은 중학교 한문 2 교과서를 분석하였으며,⁶¹⁾ 백인자(2005)는 중학교 한문 1, 2, 3 교과서를 분석하였다.⁶²⁾

또한 고등학교 한문 교과서의 분석은 김종구(2000)와 이규봉(2000), 우성월(2003)의 고등학교 한문 교과서의 체제와 내용을 분석한 연구가 있고,⁶³⁾ 원용석(2004)과 한기동(2004)의 고등학교 한문교과서의 체제와 내용 수준에 대한 분석이 있으며,⁶⁴⁾ 정순향(2004)의 고등학교 한문 고전 교과서를 분석한 연구가 있다.⁶⁵⁾ 나아가 김정아(2010)는 중학교 한문 교과서의 학습목표의 서술 실태를 분석하였다.⁶⁶⁾

셋째, 교과서에 수록된 한자에 대한 연구사를 살펴본다. 조영순(2006)의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된 중학교 한문교과서에서 중학교 한문교육용 기초 한자 900자의 교육목표 반영에 대한 적절성 연구가 있고,⁶⁷⁾ 정용주(2006)의 고등학교 한문교과서에서의 고등학교 한문교육용 기초한자의 적용양상에 대한 분석이 있으며,⁶⁸⁾ 안재철(2007)의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된 고등학교 한문교과서의 한자 수록 실태에 대한 분석이 있다.⁶⁹⁾

55) 장호성(2004), 「제8차 한문과 교육과정의 방향 제시 -한문과 교재의 문제-제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문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문교육연구』 22집, 한국한문교육학회.

56) 송병렬(2006), 「漢文科 教科書의 諸問題와 바람직한 방안」, 『한문학보』 16집, 우리한문학회, 이동재(2007), 「새로운 교육과정에 따른 중등학교 한문교과서 개발의 방향」, 『한자한문교육』 제19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57) 한예원(2004), 「제7차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른 한문교과서 집필지침의 특성과 문제점」, 『한문교육연구』 22집, 한국한문교육학회.

58) 이돈석(2004), 「제7차 고등학교 한문 교과서 검정에 따른 문제 및 개선 방안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석사).

59) 이돈석(2009), 「2007年 改正 教育 課程에 따른 漢文 教科書 『檢定 基準』과 『編纂上의 留意點』의 特徵과 問題點」, 『동방한문학』 40집, 동방한문학회.

60) 윤보라(2003), 「7次 教育課程에 依據한 漢文 教科書 分析 研究」, 조선대학교 대학원(석사), 장현옥(2004), 「제 7차 중 1 한문 교과서 체제 및 학습 내용의 문제와 개선 방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석사).

61) 김순천(2003),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2학년 한문교과서 분석」, 경북대학교 대학원(석사), 송민정(2007), 「中學校 '漢文' 教科書 分析 -中學校 2學年을 中心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석사).

62) 백인자(2005), 「第7次 教育課程에 따른 中學校 漢文 教科書 分析」, 단국대학교 대학원(석사).

63) 김종구(2000), 「高等學敎 漢文 教科書 研究」, 『개신어문연구』 17집, 개신어문학회, 우성월(2003), 「고등학교 한문 교과서의 분석적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석사), 이규봉(2000), 「고등학교 한문교과서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석사).

64) 원용석(2004), 「고등학교 한문 교과서의 내용 및 수준 문제 고찰」, 『한자한문교육』 13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한기동(2004), 「고등학교 한문교과서의 체제와 내용 연구 -주제 분석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대학원(석사).

65) 정순향(2004), 「高等學校 漢文古典 教科書 研究」, 계명대학교 대학원(석사), 정순향(2005), 「高等學校 漢文古典 教科書 研究」, 『한문학연구』 19집, 계명한문학회.

66) 김정아(2010), 「중학교 한문 교과서 학습목표 분석 -제7차 한문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석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석사).

67) 조영순(2006), 「中學校 漢文 教科書의 教育目標 反映에 대한 適切性 研究 -基礎漢字 900字를 對象으로-」, 건양대학교 대학원(석사).

68) 정용주(2006), 「漢文敎育用 基礎漢字의 교과서 적용양상」, 경북대학교 대학원(석사).

또한 字義에 대한 연구는 신은정(1999)의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된 중학교 한문교과서에 활용된 중학교 교육용 기초한자의 대표 字義를 출판사별로 제시한 것을 분석한 연구가 있고,⁷⁰⁾ 이동재(2004)의 중학교 한문교과서에서 출판사별로 제시한 대표 字義의 현황을 분석하고 통일화 방안을 모색한 연구가 있다.⁷¹⁾ 그리고 박선희(2004)에 의해 中等學校 한문교과서를 대상으로 字義의 제시 방법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고,⁷²⁾ 진재교(2008)에 의해 중학교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900자의 교과서 활용 방안이 제시되었다.⁷³⁾ 나아가 남미효(2005)는 고등학교 한문 교과서에 수록된 교육용 한자의 六書 분류를 시도하였다.⁷⁴⁾

넷째, 제7차 교육과정기의 한자 어휘에 관한 연구는 유경순(1999)의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된 고등학교 한문교과서에 수록된 한자 어휘 가운데, 학습 용어의 실태 분석이 있고,⁷⁵⁾ 최용월(2005)의 중학교 한문교과서에서 한자 어휘의 구성 체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가 있다.⁷⁶⁾ 또한 조선정(2003)의 제7차 교육과정 중학교 한문교과서에 수록된 故事成語의 국가별, 내용별 분류와 그 개선방향을 모색한 연구가 있으며,⁷⁷⁾ 한금자(2005)의 중학교 한문교과서의 한자 어휘와 중국어 어휘를 비교하고 그 활용 방안을 모색한 연구가 있다.⁷⁸⁾ 그리고 이정만(2004)과 노희정(2010)은 고등학교 한문교과서에 수록된 고사성어를 주제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으며,⁷⁹⁾ 정재철(2008)은 중학교 한문 과목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어휘 교육의 위상을 논하기도 하였다.⁸⁰⁾

다섯째, 한문 문법의 연구사를 살펴본다. 김승호(2001)는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된 고등학교 한문교과서의 문장 구조와 문법에 대한 연구를 연속하여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기준을 제시하였고,⁸¹⁾ 김태연(2005)은 고등학교 한문교과서에 수록된 문형의 실태를 분석하였으며,⁸²⁾ 김정흠(2006)은 제7차 교육과정 중학교 한문교과서에 나타난 한문문법의 내용의 실상을 비교 분석하였다.⁸³⁾ 또한 허사의

69) 안재철(2007), 「現行 高等學校 漢文教科書의 變遷 研究 -漢字·漢字語 領域 중심으로-」, 『한자한문교육』 18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70) 신은정(1999), 「中學校 教育用 基礎漢字 代表訓 研究」, 동아대학교 대학원(석사).

71) 이동재(2004), 「제7차 교육과정 중학교 한문 교과교육용 기초 한자 900자의 ‘의미’ 통일화 방안」, 『한자한문교육』 제13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72) 박선희(2004), 「中等學校 漢文教科書의 訓音 提示 方法 研究」, 부산대학교 대학원(석사).

73) 진재교(2008), 「중학교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900자의 교과서 활용 방안」, 『한문교육연구』 31집, 한국한문교육학회.

74) 남미효(2005), 「高等學校 『漢文』의 「교육한자」에 대한 六書分類 研究」, 전북대학교 대학원(석사).

75) 유경순(1999), 「高等學校 教科書에 나타난 漢字語 學習 用語 理解」,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석사).

76) 최용월(2005), 「中學校 漢文教科書 構成 體制의 問題點 및 改善方案 -한자 한자어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석사).

77) 조선정(2003), 「第 7次 教育課程 中學校 『漢文』教科書의 故事成語 部門에 관한 分析과 改善方向」,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석사).

78) 한금자(2005), 「한자어와 중국어 어휘 비교 및 활용 방안 -7차 중학교 한문 교과서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대학원(석사).

79) 이정만(2004), 「高等學校 漢文 教科書에 나타난 故事成語 教育에 關한 研究」, 조선대학교 대학원(석사).

80) 정재철(2008), 「중학교 한문 교과서에서의 어휘 교육의 위상 -중학교 한문 과목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한문교육연구』 31집, 한국한문교육학회.

81) 김승호(2001), 「漢文 教科의 漢文 文法 研究 1 -고등학교 한문 교과서에 나타난 문장 구조를 중심으로-」, 『한문학연구』 15집, 계명한문학회, 김승호(2001), 「漢文 教科의 漢文 文法 研究 2 -고등학교 한문 교과서의 문장 형식을 중심으로-」, 『대동한문학회지』 14집, 대동한문학회, 김승호(2001), 「한문 교과서의 한문 문법 연구 (2) -고등학교 한문 교과서의 문장 형식을 중심으로-」, 『대동한문학회지』 14집, 대동한문학회, 김승호(2006), 「漢文 文章 分類의 基準과 內容에 대하여」, 『한자한문교육』 16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82) 김태연(2005), 「漢文 文形에 대한 一考察 -고등학교 학교 문법의 文形 分類를 中心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석사).

83) 김정흠(2006), 「제7차 교육과정 중학교 한문교과서에 나타난 한문문법에 관한 내용 실태 연구」, 『한자한문교육』 16집,

연구는 이지양(1998)에 의해 고등학교 한문교과서에 나타난 虛字의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졌고,⁸⁴⁾ 이상호(2002), 남근영(2002), 박기수(2003)에 의해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된 고등학교 한문교과서에 수록된 ‘介詞’의 실태를 분석한 연구가 이루어졌다.⁸⁵⁾ 나아가 장호성(2006)에 의해 한문 학교문법의 제정에 대한 방안이 연구되었다.⁸⁶⁾

여섯째, 산문 영역의 연구사를 살펴본다. 산문 영역은 교과서의 산문 부분을 분석한 연구, 문장의 독해, 文種의 분류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먼저,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된 한문교과서의 산문 부분 전체를 분석한 연구는 안재철(2001)과 이지원(2004), 김혜원(2005)에 의해 고등학교 한문교과서의 제재와 내용의 실태 분석이 있었다.⁸⁷⁾ 또한 황연정(2008)에 의해 교육과정의 목표와 산문 단원의 학습목표와의 상관도 등의 분석이 있었고,⁸⁸⁾ 이대연(2008)에 의해 산문 단원의 구성과 학습 자료의 비교 분석이 이루어졌으며,⁸⁹⁾ 백광호(2009)에 의해 중·고등학교 한문교과서 散文 제재의 類型과 位階에 관한 試論이 연구되었다.⁹⁰⁾

현토와 해석에 대한 연구는 백원철(2000)의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된 中·高校 漢文教科書에 수록된 문장의 懸吐와 해석의 오류와 문제점에 대한 분석이 있고,⁹¹⁾ 최성순(2003)과 정만호(2005)의 고등학교 한문 교과서의 해석 오류에 대한 분석이 있으며,⁹²⁾ 손인도(2005)의 중·고등학교 한문교과서에 수록된 논어의 해석 다양성과 오류를 검토한 연구가 있다.⁹³⁾ 나아가 정만호(2008)의 고등학교 한문교과서의 ‘吐’와 해석의 문제점을 분석한 연구가 있으며,⁹⁴⁾ 임명호(2003)의 허사를 중심으로 한 한문 끊어 읽기 교육에 관한 연구가 있다.⁹⁵⁾

또한 특정 소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홍성준(1998)과 전명희(2003)에 의해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된 고등학교 한문 교과서에 수록된 四書의 수용 실태를 분석한 연구가 있고,⁹⁶⁾ 원운숙(2004)의 사서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84) 이지양(1998), 「高等學校 漢文教科書에 나타난 虛字研究」, 단국대학교 대학원(석사).

85) 이상호(2002), 「高等學校 漢文教科書에 나타난 副詞 研究」, 조선대학교 대학원(석사), 남근영(2002), 「高等學校 漢文教科書에 나타난 前置介詞 研究」, 조선대학교 대학원(석사), 박기수(2003), 「第7次 教育課程에 의한 高等學校 漢文教科書에 나타난 介詞 研究」, 『한자한문교육』 10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86) 장호성(2006), 「한문 학교문법 제정의 방안 모색」, 『한문교육연구』 16, 한국한문교육학회.

87) 안재철(2001), 「현행 고등학교 한문교과서의 「한문」영역 단위 분석」, 『한문학논집』 19집, 근역한문학회, 이지원(2004), 「第7次 漢文科 教育課程에 따른 高等學校 漢文教科書의 散文 研究」, 단국대학교 대학원(석사), 김혜원(2005), 「第7次 教育課程에 따른 高等學校 漢文教科書 內容 分析 研究 -高等學校 漢文教科書 收錄 散文을 中心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석사).

88) 황연정(2008), 「第7次 漢文科 教育課程의 目標와 高等學校 教科書 敍事 題材의 學習目標 分析」, 고려대학교 대학원(석사).

89) 이대연(2008), 「고등학교 한문교과서의 서사문학에 관한 연구 -단원 구성 및 학습 자료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대학원(석사).

90) 백광호(2009), 「제7차 중·고등학교『漢文』교과서 散文 제재의 類型과 位階에 관한 試論」, 『우리어문연구』 34집, 우리어문학회.

91) 백원철(2000), 「中·高校 漢文教科書 文章의 懸吐와 解釋에 관한 研究 -現行 漢文教科書 文章의 懸吐와 解釋의 誤謬 및 問題點 中心으로-」, 『한문학보』 2집, 우리한문학회.

92) 최성순(2003), 「第 7次 高校 漢文 教科書 分析 研究 -解釋上 誤謬를 中心으로-」, 강원대학교 대학원(석사), 정만호(2005), 「高等學校 漢文 教科書 懸吐의 問題點」, 『한자한문교육』 15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93) 손인도(2005), 「中等 漢文教科書에 收錄된 『論語』의 解釋에 對한 研究」, 공주대학교 대학원(석사).

94) 오석환(2008), 「제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문교과서 산문 지도의 문제점 -吐와 해석을 중심으로-」, 『한자한문교육』 20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95) 임명호(2003), 「漢文 끊어 읽기 교육에 관한 研究 -虛詞를 中心으로-」, 『한문교육연구』 17, 한국한문교육학회.

96) 홍성준(1998), 「교과서의 四書 수용에 관한 일 연구 -고등학교 한문교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석사), 전명

의 수용양상과 효율적인 지도방안을 모색한 연구가 있다.⁹⁷⁾ 나아가 배원철(2004) 이근혁(2006)에 의해 속담의 수록 양상에 대한 분석이 있고,⁹⁸⁾ 정을석(2008)의 고등학교 한문교과서에 수록된 俗談·格言을 분석한 연구가 있다.⁹⁹⁾ 그리고 정미정(1998)과 정태영(2005)에 의해 고등학교 한문 교과서에 수록된 산문의 가치관 분석이 이루어졌고,¹⁰⁰⁾ 이귀연(2000)과 최선정(2006)에 의해 중학교 한문교과서에 수록된 산문의 가치관 분석이 이루어졌다.¹⁰¹⁾ 또한 한예원(2003)과 임완혁(2003)에 의해 한문교과서에서의 문학 교육 比重의 분석이 이루어졌고,¹⁰²⁾ 윤채근(2003)의 高等學校 漢文 教科書에 나타나는 性 正體性에 관한 연구가 있으며,¹⁰³⁾ 김수미(2007)에 의해 고등학교 한문 교과서에서의 여성 관련 지문의 현황이 분석되었다.¹⁰⁴⁾

일곱째, 한시의 연구사를 살펴본다. 먼저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된 중학교 한문교과서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김연수(2007)가 고등학교 한문교과서 한시 단원 구성 체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하였고,¹⁰⁵⁾ 박인희(2004)와 김태주(2007)가 중학교 한문 교과서에 수록된 한시의 국가별, 작가별 수록 양상을 분석하였으며,¹⁰⁶⁾ 박두순(2000), 권석구(2001), 배병국(2001), 박준호(2001), 박지현(2002), 박완식(2002), 차경애(2003), 강영순(2004), 박진아(2006), 이정(2004), 김정채(2009) 등이 고등학교 한문교과서에 실려 있는 한시의 국가별, 작가별, 작품별 분류와 번역 상의 오류 등의 분석을 하였다.¹⁰⁷⁾

또한 이선주(1999)는 고등학교 한문교과서에 수록된 5언시의 해석에 관한 연구를 하였고,¹⁰⁸⁾ 김상홍

희(2003), 「高等學校 漢文教科書에 收錄된 四書 研究」, 조선대학교 대학원(석사)

97) 원운숙(2004), 「高等學校 漢文教科書에 보이는 四書經文의 內容과 效率의 指導方法 研究」,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

98) 배원철(2004), 「中等學校 漢文教科書의 俗談 受容樣相 研究」, 부산대학교 대학원(석사), 이근혁(2006), 「漢文教科書에 실린 散文과 俗談의 樣相考 -7次 教育課程 高等 漢文教科書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석사).

99) 정을석(2008), 「高等學校 漢文 教科書에 收錄된 俗談·格言에 관한 研究」, 조선대학교 대학원(석사).

100) 정미정(1998), 「고등학교 한문 I 교과서 분석 연구 -가치관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석사), 정태영(2005), 「고등학교 한문교과서에 나타난 가치관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석사).

101) 이귀연(2000), 「중학교 한문교과서 분석 연구 -가치관 형성 영역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석사), 최선정(2006), 「第7次 中學校 2學年 漢文 教科書에 나타난 道德的 價値觀 研究」, 전주대학교 대학원(석사).

102) 한예원(2003), 「漢文教科書의 文學教育 比重」, 『한문교육연구』 20집, 한국한문교육학회, 임완혁(2003), 「제7차 教育課程에 따른 漢文 教科書에서의 文學教育 -散文, 小說을 중심으로-」, 『한문교육연구』 제20호, 한국한문교육학회.

103) 윤채근(2003)은 高等學校 漢文 教科書에 나타나는 性 正體性에 관한 연구 -성적 자아 형성의 교육적 의미와 연관하여-, 『한문교육연구』 21집, 한국한문교육학회.

104) 김수미(2007), 「고등학교 한문 교과서에 나타난 여성 관련 지문의 현황과 여성상」, 경북대학교 대학원(석사).

105) 김연수(2007), 「고등학교 『漢文』교과서 漢詩 단원 구성 체제의 비판적 고찰」, 『한자한문교육』 19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106) 박인희(2004), 「第7次 教育課程에 의한 中學校 漢文 教科書 漢詩 研究」, 영남대학교 대학원(석사), 김태주(2007), 「第7次 教育課程 中學校 漢文 教科書 所收 漢詩에 대한 考察」,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석사).

107) 박두순(2000), 「高等學校 漢文 教科書 內 漢詩에 대한 分析 研究」, 공주대학교 대학원(석사), 권석구(2001), 「高等學校 漢文教科書 收錄 漢詩의 問題點」, 『한문학연구』 15집, 계명한문학회, 권석구(2001), 「高等學校 漢文教科書 收錄 漢詩의 問題點」, 계명대학교 대학원(석사), 배병국(2001), 「고등학교 한문 교과서 수록 한시의 분석」, 공주대학교 대학원(석사), 박준호(2001), 「高等學校 漢文教科書 研究 1 -現行 11種(I·II)의 教科書에 수록된 漢詩를 중심으로-」, 『한문교육연구』 16집, 한국한문교육학회, 박지현(2002), 「高等學校 漢文 教科書에 收錄된 漢詩 研究」, 조선대학교 대학원(석사), 박완식(2002), 「漢文 教科書 內의 漢詩 分析 研究 -第7次 高等學校 漢文 教科書를 중심으로-」, 『교육논총』 16집, 전주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차경애(2003), 「第7次 高等學校 漢文教科書의 漢詩에 關한 研究」, 조선대학교 대학원(석사), 강영순(2004), 「高校 漢文 教科書 內 漢詩에 대한 研究」, 공주대학교 대학원(석사), 박진아(2006), 「高等學校 漢文 教科書 所載 漢詩와 故事成語의 樣相과 分析」,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 이정(2004), 「현행 한문 교과서 수록 한시 분석 -제7차 고등학교 한문 교과서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석사), 김정채(2009), 「高等學校 漢文教科書의 漢詩 研究」, 조선대학교 대학원(석사).

(2003)과 오석환(2008)은 고등학교 한문교과서에 수록된 한시의 원전 오류, 해석 등 여러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¹⁰⁹⁾ 김동협(2005)과 최윤용(2009)은 고등학교 한문 교과서에 수록된 한시의 해석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¹¹⁰⁾ 또한 이창희(1999)는 고등학교 한문교과서에 수록된 한시의 형식과 용어를 중심으로 한 실태의 분석과 작자의 소개와 감상을 시도하였고,¹¹¹⁾ 조영호(2009)는 고등학교 한문교과서에 수록된 한시 작가의 정신 풍모를 분석하였으며,¹¹²⁾ 오혜진(2007)은 중·고등학교 한문교과서에 수록된 한시와 중국·일본 교과서에 수록된 한시를 비교 분석하였고,¹¹³⁾ 김자연(2010)은 중·고등학교 한문교과서에 수록된 중국고전시를 분석하였다.¹¹⁴⁾

여덟째, 교수 학습에 관한 연구사를 살펴본다. 한연석(2006)은 고등학교 한문교과서를 대상으로 자원을 활용한 한자교수 학습 방법을 구안하였고,¹¹⁵⁾ 조경숙(2003)은 중학교 한문교과서에 수록된 고사성어의 수업모형 연구하였고,¹¹⁶⁾ 김재길(2000)이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된 고등학교 한문 교과서에 수록된 散文의 수업모형을 개발하였다.¹¹⁷⁾ 또한 김일환(1999)은 한문교육에서 인성교육 방안 연구를 하였고,¹¹⁸⁾ 김설화(2010)는 중학교 3학년 한문교과서를 활용한 인성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¹¹⁹⁾ 나아가 유현정(2001)의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된 중·고등학교 한문교과서에 수록된 논어의 지도방안을 모색한 연구가 있고,¹²⁰⁾ 최미숙(2002)의 고등학교 한문교과서에 수록된 歷史 산문의 지도 방법에 대한 연구가 있으며,¹²¹⁾ 임명숙(2003)의 고등학교 한문교과서에 수록된 한문소설의 분석과 지도 방안을 모색한 연구가 있고,¹²²⁾ 차석란(2004)의 중학교 3학년 한문교과서를 활용한 가치관 형성 수업 모형 연구가 있으며,¹²³⁾ 이지은(2006)의 고등학교 한문교과서에 수록된 속담의 효율적 학습방안을 모색한 연구가 있다.¹²⁴⁾ 또한 한시 교육방법에 관한 연구는 엄선용(1999), 김철규(2001), 윤은정(2004), 김연주(2004),

-
- 108) 이선주(1999), 「漢詩의 五言詩 讀解 研究 :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五言詩를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대학원(석사).
 109) 김상홍(2003),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高等學校 漢文 教科書의 문제점 -漢詩 單元을 중심으로-」, 『한문교육연구』 20집, 한국한문교육학회, 오석환(2008), 「제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문교과서 한시 해석의 문제점 -懸吐와 對偶를 중심으로-」, 『한문고전연구』 17집, 한국한문고전학회.
 110) 김동협(2005), 「현행 10종 고등학교 한문 교과서 所載 한시 해석에 관한 短見」, 『국제언어문학』 12집, 국제언어문학회, 최윤용(2009), 「漢詩 解釋에 關한 考察」, 『한문고전연구』 18권, 한국한문고전학회.
 111) 이창희(1999), 「고등학교 한문 교과서 한시 단원의 고찰 (1) - 용어와 형식을 중심으로 -」, 『우리어문연구』 12집, 우리어문학회, 이창희(2000), 「고등학교 한문 교과서 한시 단원의 고찰 (2) - 작자 소개와 작품 감상 -」, 『우리어문연구』 14집, 우리어문학회.
 112) 조영호(2009), 「제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문교과서에 나타난 漢詩 작가의 정신 풍모 분석」, 『한문교육연구』 32집, 한국한문교육학회.
 113) 오혜진(2007), 「韓·中·日 教科書의 漢詩 單元 比較」,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석사).
 114) 김자연(2010), 「제7차 교육과정 중·고등학교 한문교과서 수록 중국고전시 연구」, 군산대학교 대학원(석사).
 115) 한연석(2006), 「자원을 활용한 한자교수학습방법 연구 -고등학교 한문교과서를 중심으로-」, 『한자한문교육』 17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116) 조경숙(2003), 「고사성어의 수업모형 연구 -중학교 한문교과서를 중심으로-」, 인천대학교 대학원(석사).
 117) 김재길(2000), 「高等學校 漢文 教科書에 收錄된 散文 授業模型 開發 研究」,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석사).
 118) 김일환(1999), 「漢文教科의 人性教育的 特性과 授業方案」, 『교육연구』 15집, 공주대학교 교육연구소.
 119) 김설화(2010), 「21세기 漢文교육을 통한 人性教育的 방안 연구 -제7차 중학교 3학년 교과서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석사).
 120) 유현정(2001), 「중등학교 한문교과서에 실린 『논어』의 지도방안」, 부산대학교 대학원(석사), 유현정(2003), 「中等學校 漢文教科書에 실린 『論語』의 指導方案」, 『효원한문학연구』 3집, 효원한문학회.
 121) 최미숙(2002), 「高等學校 漢文 教科書에 收錄된 韓國 歷史 散文 指導 方案 研究」,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석사).
 122) 임명숙(2003), 「韓國 漢文小說의 分析과 指導 方案 -고등학교 한문 교과서 수록 작품을 대상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석사).
 123) 차석란(2004), 「漢文教科의 價値觀 形成 授業方案 研究 -第7次 教育課程 中學校 3學年 教科書를 中心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석사).

박기상(2005), 이묘희(2009)가 고등학교 한문교과서 수록 한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고,¹²⁵⁾ 김갑기·김홍철(2003)은 한시 지도에 있어서 用事의 이해의 중요성을 지적하였으며,¹²⁶⁾ 허지영(2007)은 교과서의 재구성을 통한 한시의 효율적인 지도방안을 연구하였다.¹²⁷⁾

아홉째, 한문과의 평가에 대한 연구사를 살펴보면, 한예원(2002)은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된 중학교 한문교과서에 수록된 평가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연구하였고,¹²⁸⁾ 배정화(2004)는 중학교 한문 1 교과서를 대상으로 평가 문항의 유형을 분석하였다.¹²⁹⁾ 또한 우상호(2001)와 류지은(2008)은 고등학교 한문교과서에 수록된 평가 영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였고,¹³⁰⁾ 정은선(2003)과 윤성필(2005)은 한문교과서의 학습평가 유형과 평가 문항을 학습목표와 비교 분석한 연구를 하였으며,¹³¹⁾ 윤숙현(2004)과 박기상(2005)은 고등학교 한문교과서에 수록된 한시 영역의 평가문항을 분석하였다.¹³²⁾

열째, 한문교과서의 구성 등 제책에 관한 연구는 박영숙(2004)의 한문교육의 실상과 새로운 교과서 모델의 모색에 관한 연구가 있고,¹³³⁾ 김수연(2005)의 중학교 한문 전자교과서의 설계 및 구현에 관한 연구가 있다.¹³⁴⁾ 또한 김왕규·원용석·한은수·김동규(2006)의 한문과 교과 교육 내용 체계 및 내용 교재 개발에 관한 연구¹³⁵⁾와 이영훈(2005)의 고등학교 한문교과서의 단위 제목 설정연구,¹³⁶⁾ 김희정(2007)의 한문과 題材 선정에 관한 연구,¹³⁷⁾ 김연수(2007)의 고등학교 한문교과서 한시 단위 구성 체제에 대한 고찰이 있었다.¹³⁸⁾

124) 이지은(2006), 「第7次 高等學校 漢文教科書의 效率的 學習方案 -俗談 單元을 中心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석사).

125) 엄선용(1999), 「高等學校 漢文 教科書 漢詩 指導 方法에 關한 研究」,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석사), 김철규(2001), 「창의력 신장을 위한 한시지도법 연구 -고등학교 한문 교과서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대학원(석사), 윤은정(2004), 「中學校 漢詩 授業 模型 研究 -第7次 教育課程을 中心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석사), 김연주(2004), 「제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문>교과서의 한시단원과 한시교육의 개선방안,」 고려대학교 대학원(석사), 이묘희(2009), 「創意力 伸長을 위한 漢詩 교수-학습 方法에 關한 研究 -고등학교 한문교과서 수록 한시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석사).

126) 김갑기·김홍철(2003), 「漢詩指導와 用事의 問題 -7次檢認定 高校漢文教材 收錄 漢詩를 中心으로-,」 『한문교육연구』 20호, 한국한문교육학회.

127) 허지영(2007), 「교과서 재구성을 통한 효율적인 한문과 지도 방안 -고등학교 『한문』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석사).

128) 한예원(2002), 「중학교 한문과 평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한문교육연구』 19집, 한국한문교육학회.

129) 배정화(2004), 「제7차 한문교과서 평가문항의 유형 분석 -중학교 1학년 교과서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석사).

130) 우상호(2001), 「고등학교 한문과 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석사), 류지은(2008), 「고등학교『漢文』의 평가문항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석사).

131) 정은선(2003), 「7차 고등학교 한문 교과서 학습평가 유형 연구 -평가유형 분석 및 평가자료 개발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대학원(석사), 윤성필(2005), 「제7차 고등학교 『한문』의 평가문항 비교 연구 - 학습목표 반영도 및 평가유형 분석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석사).

132) 윤숙현(2004), 「第7次 高等學校 漢文教科書에 나타난 漢詩 評價問題 分析研究」, 조선대학교 대학원(석사), 박기상(2005), 「고등학교 제7차 한문교과서의 평가문항 분석 -‘한시’ 단원의 평가문항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석사).

133) 박영숙(2004), 「漢文教育의 實狀과 새로운 教科書 模型의 摸索」,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석사).

134) 김수연(2005), 「중학교 한문 전자교과서의 설계 및 구현,」 동국대학교 대학원(석사).

135) 김왕규·원용석·한은수·김동규(2006), 「한문과 교과 교육 내용 체계 및 내용 교재 개발,」 『한자한문교육』 17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136) 이영훈(2005),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한문』의 분석 -단위 제목 설정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석사).

137) 김희정(2007), 「한문과 題材 선정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석사).

138) 김연수(2007), 「고등학교 『漢文』교과서 漢詩 단위 구성 체제의 비판적 고찰,」 『한자한문교육』 19집, 한국한자한문교

이밖에 조용식(2001)의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된 고등학교 한문 I 교과서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수준에서 검토가 있었고,¹³⁹⁾ 임명화(2003)의 고등학교 한문 교과서에 나타난 어학적 서술 비교 분석이 있었으며,¹⁴⁰⁾ 이남숙(2005)의 고등학교 한문 교과서의 수록된 산문의 原典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며,¹⁴¹⁾ 김동규(2006)의 韓·中·日 3국의 고등학교 한문 교재 현황을 비교 검토한 연구가 있다.¹⁴²⁾

제7차 교육과정기는 1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지속되었고, 교과서도 중·고등학교 한문교과서가 44종이 발간되었다. 이 시기는 한문교과서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시기이다. 교과서 정책은 물론 제책에 이르기까지 한문교과서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특히 더 좋은 한문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에 관한 연구가 많이 있었고, 한자에 관한 연구 성과도 많아졌으며, 한문 문법에 관한 연구도 제6차 교육과정기보다 심화된 연구 성과가 있었다. 또한 현토와 해석에 관한 여러 편의 연구가 있었고,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와 평가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V. 2007년 개정 교육과정기

2007년 개정 교육과정기(2007~2009)는 3년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지속되었지만 중·고등학교 한문교과서가 61종이 출간이 되었다.¹⁴³⁾ 또한 제7차 교육과정 시기부터 불기 시작한 교과교육학에 대

육학회.

139) 조용식(2001), 「고등학교 한문 I 교과서 검토 -학생들의 관심과 수준을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대학원(석사).

140) 임명화(2003), 「현행 10종 고등학교 한문 교과서에 나타난 어학적 서술 비교 분석」, 『중어중문학』 32집, 한국중어중문학회.

141) 이남숙(2005), 「第 7次 高等學校 漢文 教科書의 引用 散文과 그 原典의 問題」, 고려대학교 대학원(석사).

142) 김동규(2006), 「韓·中·日 三國의 한문 교재 현황과 전망 -고등학교 교과서 중 한문교재를 중심으로-」, 『한문교육연구』 26집, 한국한문교육학회.

143) 김상홍 외(2010), 『중학교 한문』 1, (주) 지학사, 김용재 외(2010), 『중학교 한문』 1, 더 텍스트 김홍철 외(2010), 『중학교 한문』 1, 장원교육, 박성규 외(2010), 『중학교 한문』 1, 두산동아, 송재소 외(2010), 『중학교 한문』 1, (주) 다락원, 심경호 외(2010), 『중학교 한문』 1, 대교, 안재철 외(2010), 『중학교 한문』 1, ㈜미래엔컬처그룹, 이동재 외(2010), 『중학교 한문』 1, 비유와 상징, 이명학 외(2010), 『중학교 한문』 1, (주) 금성출판사, 이상진 외(2010), 『중학교 한문』 1, (주) 동화사, 이희목 외(2010), 『중학교 한문』 1, 천재교육, 장윤희 외(2010), 『중학교 한문』 1, 민중서림, 정환국 외(2010), 『중학교 한문』 1, 천재교육, 진재교 외(2010), 『중학교 한문』 1, 장원교육, 황형주 외(2010), 『중학교 한문』 1, 지학사, 김상홍 외(2011), 『중학교 한문』 1, (주) 지학사, 김용재 외(2011), 『중학교 한문』 1, 더 텍스트 김홍철 외(2011), 『중학교 한문』 1, 장원교육, 박성규 외(2011), 『중학교 한문』 1, 두산동아, 송재소 외(2011), 『중학교 한문』 1, (주) 다락원, 심경호 외(2011), 『중학교 한문』 1, 대교, 안재철 외(2011), 『중학교 한문』 1, ㈜미래엔컬처그룹, 이동재 외(2011), 『중학교 한문』 1, 비유와 상징, 이명학 외(2011), 『중학교 한문』 1, (주) 금성출판사, 이상진 외(2011), 『중학교 한문』 1, (주) 동화사, 이희목 외(2011), 『중학교 한문』 1, 천재교육, 장윤희 외(2011), 『중학교 한문』 1, 민중서림, 정환국 외(2011), 『중학교 한문』 1, 천재교육, 진재교 외(2011), 『중학교 한문』 1, 장원교육, 황형주 외(2011), 『중학교 한문』 1, 지학사, 김상홍 외(2012), 『중학교 한문』 1, (주) 지학사, 김용재 외(2012), 『중학교 한문』 1, 더 텍스트 김홍철 외(2012), 『중학교 한문』 1, 장원교육, 박성규 외(2012), 『중학교 한문』 1, 두산동아, 송재소 외(2012), 『중학교 한문』 1, (주) 다락원, 심경호 외(2012), 『중학교 한문』 1, 대교, 안재철 외(2012), 『중학교 한문』 1, ㈜미래엔컬처그룹, 이동재 외(2012), 『중학교 한문』 1, 비유와 상징, 이명학 외(2012), 『중학교 한문』 1, (주) 금성출판사, 이상진 외(2012), 『중학교 한문』 1, (주) 동화사, 이희목 외(2012), 『중학교 한문』 1, 천재교육, 장윤희 외(2012), 『중학교 한문』 1, 민중서림, 정환국 외(2012), 『중학교 한문』 1, 천재교육, 진재교 외(2012), 『중학교 한문』 1, 장원교육, 황형주 외(2012), 『중학교 한문』 1, 지학사, 김연중 외(2011), 『고등학교 漢文』 I, 교학사, 김용재 외(2011), 『고등학교 漢文』 I, (주) 더텍스트, 박성규 외(2011), 『고등학교 漢文』 I, 두산동아, 송재소 외(2011), 『고등학교 漢文』 I, (주) 다락원, 신표설 외(2011), 『고등학교 漢文』 I, 대학서림, 김용재 외(2013), 『고등학교 漢文』 I, YBM, 박성규 외(2013), 『고등학교 漢文』 I, 두산동아, 이상진 외(2013), 『고등학교 漢文』 I, 동화사, 송재소 외(2013), 『고등학교 漢文』 I, (주) 다락원, 신표설 외(2013), 『고등학교 漢文』 I, 금성출판사, 신표설 외(2013), 『고등학교 漢文』 I, 대학서림, 심경호 외(2013), 『고등학교

한 관심이 여전히 지속되고 이 분야의 연구자도 많이 있어서 교과서 전반에 대한 분석과 심화된 연구가 이루어진 시기이다.

본장에서는 II장과 같이 정책, 교과서 전체 분석, 한자, 한자 어휘, 한문 문법, 산문, 한시, 제책, 기타 순으로 살펴본다.

첫째, 정책에 관한 연구사를 살펴본다. 한예원(2007)은 2007년 교육과정 개정안에 따른 고등학교 한문교과서의 방향을 제시하였고,¹⁴⁴⁾ 이어 김여주(2008)는 2007년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과 교과서 적용 방안을 제시하였으며,¹⁴⁵⁾ 장호성(2010)은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한문 교과서 개발 방안을 제시하였다.¹⁴⁶⁾ 또한 이돈석(2009)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한문교과서 검정기준과 편찬상의 유의점의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¹⁴⁷⁾

둘째, 교과서의 전체 분석은 조성균(2010)에 의해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한문1 교과서의 영역별 내용 분석이 이루어졌고,¹⁴⁸⁾ 이어 김주희(2011)에 의해 중학교 2학년 한문교과서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¹⁴⁹⁾

셋째, 한자영역의 연구사를 살펴본다. 양원석(2010)은 2007년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된 중학교 한문 교과서 1의 '한자'영역 실행에 관한 예비적 분석을 하였고,¹⁵⁰⁾ 허철(2008)은 한문교과교육에서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선정에 관한 기초연구¹⁵¹⁾와 이를 바탕으로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字義의 문제점과 代表字義 선정 방안을 연구하였다.¹⁵²⁾

넷째, 한자 어휘 영역의 연구사를 살펴본다. 이동재(2012)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한문 1, 2, 3교과서에 활용된 한자 어휘와 漢文과의 상관성을 분석한 연구를 하였고,¹⁵³⁾ 노희정(2010)은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한문교과서 수록된 고사성어의 내용별 분류를 하였으며,¹⁵⁴⁾ 정재철(2008)은 중학교 한문 과목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어휘 교육의 위상을 논하기도 하였다.¹⁵⁵⁾ 한편 한자 어휘의 일상용어나 학습 용어에 관한 연구 성과는 현재까지는 전무한 실정이다.

다섯째, 산문 영역의 연구사를 살펴본다. 산문 영역은 교과서의 산문 부분을 분석한 연구, 문법, 내용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먼저, 교과서의 산문 부분을 분석한 연구는 조두연(2010)과 장영신(2010)에 의

漢文』 I, (주) 미래엔, 안대회 외(2013), 『고등학교 漢文』 I, 천재교육, 임완형 외(2013), 『고등학교 漢文』 I, 교학사, 진재교 외(2013), 『고등학교 漢文』 I, 장원교육, 안대회 외(2013), 『고등학교 漢文』 II, 천재교육.

144) 한예원(2007), 「2007년 교육과정 개정안에 따른 고등학교 한문교과서의 방향」, 『한문교육연구』 29집, 한국한문교육학회.

145) 김여주(2008), 「2007년 개정 漢文科 교육과정과 교과서 적용 방안」, 『한문교육연구』 31집, 한국한문교육학회.

146) 장호성(2010),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한문 교과서 개발 방안」, 『한자한문교육』 24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147) 이돈석(2009), 「2007년 改正 教育 課程에 따른 漢文 教科書『檢定 基準』과『編纂上의 留意點』의 特徵과 問題點」, 『동방한문학』 40집, 동방한문학회.

148) 조성균(2010),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한문1 교과서 영역별 내용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석사).

149) 김주희(2011), 「2007년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2학년 한문교과서 분석」, 경북대학교 대학원(석사).

150) 양원석(2010), 「2007년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 실행 연구 : 중학교 1학년 '한자' 영역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 예비 연구」, 『동양한문학연구』 30집, 동양한문학회.

151) 허철(2008), 「한문교과교육에서 한문교육용한자 선정을 위한 기초연구」, 『동방한문학』 35집, 동방한문학회.

152) 허철(2010),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字義의 문제점과 代表字義 선정 방안」, 『동방한문학』 43집, 동방한문학회.

153) 이동재(2012), 「중학교『漢文』 1, 2, 3 교과서에 수록된 語彙의 한자-한문과의 相關性 연구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A출판사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문학논집』 제35집, 근역한문학회.

154) 노희정(2010),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한문교과서의 고사성어 연구」, 군산대학교 대학원(석사).

155) 정재철(2008), 「중학교 한문 교과서에서의 어휘 교육의 위상 -중학교 한문 과목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한문교육연구』 31집, 한국한문교육학회.

해 중학교 1학년 한문교과서를 대상으로 문화영역이 분석되었고,¹⁵⁶⁾ 심재경(2010)에 의해 중학교 한문 1 교과서에 수록된 읽기 영역이 분석되었다.¹⁵⁷⁾

다음으로 한문 문법에 관한 연구는 정순영(2013)에 의해 2007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된 고등학교 한문 I 교과서에 수록된 ‘介詞’의 의미 범주의 분석¹⁵⁸⁾과 고등학교 한문교과서의 지식 영역의 서술에 대한 표현 양상이 분석되었다.¹⁵⁹⁾

나아가 내용영역의 연구사를 살펴본다. 김병주(2009)와 이돈석(2011)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된 고등학교 한문교과서의 논어 수용 양상을 분석하였고,¹⁶⁰⁾ 전연교(2011)는 중학교 한문 1 교과서에 수록된 四書의 의미 분석을 하였으며,¹⁶¹⁾ 이호식(2012)은 역대 한문교과서에 인용된 경서의 구절의 수록 양상을 분석하였다.¹⁶²⁾ 또한 김성중(2011)은 한문교과서에서 儒經·諸子書의 제재 선정 수준과 범위의 발전적인 제언을 하였고,¹⁶³⁾ 함영대(2011)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經典教育 研究의 성과와 전망을 분석하였으며,¹⁶⁴⁾ 이돈석(2013)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된 중학교 1학년 한문교과서에 실린 四書의 교육에 대한 고찰을 하였다.¹⁶⁵⁾

이밖에 김준영(2010)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된 고등학교 한문교과서에 수록된 노자에 대한 해석과 그 의미를 분석하였고,¹⁶⁶⁾ 김은주(2014)는 고등학교 한문 I 교과서 수록된 유가서와 제자서의 영역을 분석하였다.¹⁶⁷⁾ 또한 이동재(2011)는 중학교 한문 1교과서에 수록된 다문화 수용 양상을 분석하였다.¹⁶⁸⁾

여섯째, 한시 영역의 연구사를 살펴본다. 한시 영역에 대한 연구는 신상희(2011)가 제7차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된 중학교 한문 1 교과서의 한시의 내용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교육방안 연구하였고,¹⁶⁹⁾ 이어 안은하(2013)도 중학교 한문 교과서의 한시 영역을 교수·학습의 차원에서 분석하였다.¹⁷⁰⁾

156) 조두연(2010), 「2007 개정교육과정의 문화영역 분석 -중학교 1학년 한문교과서를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대학원(석사), 장영신(2010), 「2007년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 문화 영역에 관한 연구 -개정 중학교 1학년 교과서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석사).

157) 심재경(2010),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한문1 교과서 읽기영역 분석」, 『한문학논집』 30집, 근역한문학회.

158) 정순영(2013), 「‘介詞’의 정의와 문법적 의미범주에 관한 小考 -2007개정 고등학교 『漢文』 I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자한문교육』 31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159) 정순영(2013), 「2007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漢文』 I 교과서에서 ‘한문지식영역’의 서술에 대한 考察」, 『한문고전연구』 26집, 한국한문고전학회.

160) 김병주(2009), 「고등학교 한문교과서 내 『論語』의 수록 양상에 대한 연구」, 『한문고전연구』 18집, 한문고전연구, 이돈석(2011), 「高等學校 漢文教科書의 四書 教育 內容에 對한 考察」, 『한문고전연구』 23집, 한국한문고전학회.

161) 전연교(2011), 「중학교 1 한문 교과서 사서경문 의미 분석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대학원(석사).

162) 이호식(2012), 「역대 한문 교과서에 인용된 경서 구절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석사).

163) 김성중(2011), 「한문교과서에서 儒經·諸子書의 제재 선정 수준과 범위」, 『한문교육연구』 36집, 한국한문교육학회.

164) 함영대(2011), 「經典教育 研究의 성과와 전망」, 『한문교육연구』 37집, 한국한문교육학회.

165) 이돈석(2013), 「漢文 教科 經書 教育에 對한 一考 -2007 中學校 教育課程 1學年 教科書 四書 소재 經文을 중심으로-, 『한자한문교육』 30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166) 김준영(2010), 「高等學校 漢文 教科書에 收錄된 『老子』에 관한 研究 -句節의 解釋과 意味 分析을 中心으로-, 공주대학교 대학원(석사).

167) 김은주(2014), 「고등학교 『漢文 I』 교과서 內 ‘經書·諸子書’ 영역 분석 -2007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석사).

168) 이동재(2011),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漢文 1 교과서의 多文化 수용 양상 연구」, 『한자한문교육』 제26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169) 신상희(2011), 「제7차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한시 내용 분석과 효율적인 교육방안 연구 -중학교 1학년 한문교과서 내 한시 단원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석사).

일곱째, 교수·학습 영역의 연구사는 이선화(2009)가 중학교 한문 1 교과서를 분석하여 효과적인 수업 방법을 제시하였고,¹⁷¹⁾ 심상완(2013)은 중학교 한문 1 교과서에 수록된 전통삽화를 활용한 한자·한자어 교수·학습 방법을 연구하였다.¹⁷²⁾

여덟째, 평가 영역의 연구는 남궁원(2009)이 고등학교 한문 I 교과서를 대상으로 평가 문항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¹⁷³⁾

아홉째, 제책에 관한 연구사를 살펴본다. 윤재민(2008)은 한문 텍스트의 중학교 교과서 수용 범위와 수준에 관한 연구를 하였고,¹⁷⁴⁾ 김왕규(2008)는 새로 집필할 한문 교과서 단원 구성의 원리와 방안을 제시하였으며,¹⁷⁵⁾ 성진우(2008)는 한문교과서의 재구성 사례를 연구하였다.¹⁷⁶⁾ 또한 이동재(2011)는 중학교 한문 1 교과서에 수록된 본문 삽화의 오류를 분석하였다.¹⁷⁷⁾

이밖에 김운조(2008)는 현행 임용고사의 경향과 중등학교 한문과 교과서의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¹⁷⁸⁾ 이해동(2011)은 대학수학능력시험 한문영역과 한문교과서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¹⁷⁹⁾

2007년 개정 교육과정기는 3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전 시기에 비해 연구 성과가 많지 않다. 다만 교육과정의 내용 구조의 변화에 따른 교과서 개발 정책에 관한 연구가 다른 분야에 비해 많이 이루어졌고, 제책에 관한 연구도 내용구성은 물론 삽화 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VI. 2009년 개정 교육과정기

2009년 개정 교육과정기(2009~현재)에서 중·등학교 한문교과서는 중학교 한문 14종, 고등학교 한문 I 이 10종, 한문 II가 1종 등 총 25종이 간행이 되어 현재 일선 학교에서 교재로 사용 중에 있다.¹⁸⁰⁾ 또

170) 안은하(2013),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한문』 교과서의 한시 영역 연구 -교수·학습 방법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석사).

171) 이선화(2009), 「중학교 1학년 한문교과서 분석 및 효과적인 수업방법 연구」, 군산대학교 대학원(석사).

172) 심상완(2013), 「民書를 活用한 漢字·漢字語 教授·學習 方法 研究 -2007년 개정 중학교 I 한문교과서 수록 傳統民書를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

173) 남궁원(2009), 「2007년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 중 '평가'에 관한 연구 -고등학교 한문 I을 중심으로-」, 『한문고전연구』 19권, 한국한문고전학회.

174) 윤재민(2008), 「漢文 텍스트의 중학교 교과서 수용 범위와 수준 -短文, 散文, 漢詩를 중심으로-」, 『한문교육연구』 31집, 한국한문교육학회.

175) 김왕규(2008), 「한문 교과서 단원 구성의 원리와 방안」, 『한문교육연구』 31집, 한국한문교육학회.

176) 성진우(2008), 「한문 교사의 교과서 재구성 사례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석사).

177) 이동재(2011),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한문』 1 교과서의 본문 삽화 오류 분석」, 『한문교육연구』 36집, 한국한문교육학회.

178) 김운조(2008), 「현행 임용고사의 경향과 중등학교 현장교육과의 연관성 -중등학교 한문과 교과서의 문제를 생각하며-」, 『한문교육연구』 30집, 한국한문교육학회.

179) 이해동(2011), 「大學修學能力試驗 漢文領域과 漢文教科書의 相關關係 分析」, 부산대학교 대학원(석사).

180) 김언중 외(2013), 『중학교 한문』, 교학사, 김영주 외(2013), 『중학교 한문』, 천재교과서, 김용재 외(2013), 『중학교 한문』,

(㉠) YBM, 김현조 외(2013), 『중학교 한문』, (㉡) 동화사, 박성규 외(2013), 『중학교 한문』, 두산동아, 송영일 외(2013), 『중학교 한문』, 성림출판사, 송재소 외(2013), 『중학교 한문』, 다락원, 심경호 외(2013), 『중학교 한문』, 대교, 안대회 외(2013), 『중학교 한문』, 천재교육, 안재철 외(2013), 『중학교 한문』, (㉢) 미래엔, 이동재 외(2013), 『중학교 한문』, 비상교육, 이병주 외(2013), 『중학교 한문』, 대학서림, 이상진 외(2013), 『중학교 한문』, 디딤돌, 진재교 외(2013), 『중학교 한문』, 장원교육, 김용재 외(2014), 『고등학교 한문』 I, (㉣) YBM, 박성규 외(2014), 『고등학교 한문』 I, 두산동아, 송재소 외(2014), 『고등학교 한문』 I, 다락원, 신태영 외(2014), 『고등학교 한문』 I, 금성출판사, 신평섭 외(2014), 『고등학교 한문』 I, 대학서림, 심경호 외(2014), 『고등학교 한문』 I, (㉤) 미래엔, 안대회 외(2014), 『고등학교 한문』 I, 천재교육, 이상진 외(2014), 『고등학교 한문』 I, 동화사, 임완혁 외(2014), 『고등학교 한문』 I, 교학사, 진재교 외(2014), 『고등학교 한문』 I, 안대회 외(2014), 『고등학교

한 이 시기는 제7차 교육과정 시기부터 불기 시작한 교과교육학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지속되고, 이 분야의 연구자도 많이 있어서 전 시기에 비해 연구의 분량은 적지만 교과서 전반에 대한 분석과 심화가 이루어진 시기이다.

본장에서는 II장과 같이 정책, 교과서 전체 분석, 한자, 한자 어휘, 한문 문법, 산문, 한시, 제책, 기타 순으로 살펴본다.

첫째, 정책에 관한 연구사를 살펴본다. 윤지훈(2011)은 집중이수제 시행에 따른 중학교 한문 교과서의 편찬 방안을 모색하였고,¹⁸¹⁾ 이어 교과서 관련 정책의 변화와 한문교과서 개발방향을 제시하였으며,¹⁸²⁾ 김인정 심사 결과를 분석하여 질제고 방안을 제시하였다.¹⁸³⁾ 또한 허철(2012)은 시대의 조류에 따라 한문과의 Digital 교과서 개발의 필요성과 방향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¹⁸⁴⁾

둘째, 교과서의 전체의 대한 분석은 최상근(2015)에 의해 중학교 한문교과서를 대상으로 2007 개정, 2009 개정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한문과 교과서의 변화 양상을 살펴본 연구가 있다.¹⁸⁵⁾

셋째, 한자영역의 연구사는 이흥배(2014)의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된 중학교 한문 교과서를 분석하여 假借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가 있고,¹⁸⁶⁾ 김영옥(2014)의 한문교과서 내 漢字 字源 活用的 변천 양상을 살펴본 연구가 있으며,¹⁸⁷⁾ 한연석(2015)의 고등학교 한문교과서를 대상으로 한자의 字源 활용의 변천 양상을 분석한 연구가 있다.¹⁸⁸⁾ 또한 김성중(2013)의 고등학교 한문 I 교과서에 수록된 多義語 한자의 그 의미항목과 한문 용례를 분석한 연구가 있다.¹⁸⁹⁾

넷째, 한자 어휘에 관한 연구 성과는 현재까지는 전무한 실정이다.

다섯째, 산문 영역의 연구사를 살펴본다. 산문 영역은 교과서의 산문 부분을 분석한 연구, 문법, 내용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먼저, 산문 영역의 전체 분석 연구는 이수정(2012)에 의해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漢文 교과서의 단문 영역에 대한 내용별 실태분석이 이루어졌고,¹⁹⁰⁾ 강정란(2015)에 의해 고등학교 漢文 I 교과서의 산문 영역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¹⁹¹⁾ 또한 심재경(2011)은 중학교 한문1 교과서의 정의적 영역을 분석하였고,¹⁹²⁾ 고미경(2014)은 고등학교 漢文 I 교과서의 문화영역의 적용 사례를 연구하였으며,¹⁹³⁾ 배희정(2015)은 중·고등학교 漢文의 '文化' 영역 교육 현황과 방향을 연구하였다.¹⁹⁴⁾

교 한문 II, 천재교육

181) 윤지훈(2011), 「集中履修制 施行에 따른 中學校 漢文 教科書의 編纂 方案」, 『동방한문학』 47집, 동방한문학회.

182) 윤지훈(2013), 「교과서관련정책의 변화와 한문교과서 개발방향」, 『한자한문교육』 35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183) 윤지훈(2014), 「한문 교과서 심사 결과 분석을 통한 교과서 질 제고 방안」, 『동방한문학』 61집, 동방한문학회.

184) 허철(2012), 「漢文教科 Digital 教科書 開發 背景과 必要性, 方向 摸索」, 『한문교육연구』 39집, 한국한문교육학회.

185) 최상근(2015), 「2007, 2009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한문과 교과서의 변화 양상 -중학교 한문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문교육연구』 44집, 한국한문교육학회.

186) 이흥배(2014), 「현행 중학교 한문 교과서에서 假借의 교육 필요성과 인용에 대한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석사).

187) 김영옥(2014), 「漢文교과서 내 漢字 字源 活用的 변천 양상 연구」, 『한문학논집』 39집, 근역한문학회.

188) 한연석(2015), 「한문교재에 반영된 漢語文字學의 적용현황 考 -고등학교 한문교재를 중심으로-」, 『한문고전연구』 30집, 한국한문고전학회.

189) 김성중(2013), 「학습 요소로서의 多義語 한자 선정 및 그 의미항목과 한문 용례 -2007 개정 교육과정 한문 I 교과서 분석을 중심으로-」, 『한자한문교육』 31집, 한국한자한문학회.

190) 이수정(2012), 「中學校 漢文 教科書 '短文' 領域 研究」,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석사).

191) 강정란(2015),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漢文 I』 교과서 산문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석사).

192) 심재경(2011), 「중학교 한문1 교과서 정의적 영역 분석」, 『한자한문교육』 26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193) 고미경(2014), 「2009 改定 教育課程 '文化' 領域의 適用 事例 研究 -高等學校 『漢文 I』 教科書を 中心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석사).

194) 배희정(2015), 「漢文科 '文化' 領域 教育 現況과 方向」,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석사).

또한 한문 문법 영역의 연구는 김성중(2014)의 한문 문법의 분석 단위에 대한 代案이 제시되었다.¹⁹⁵⁾ 그리고 한문 해석에 대한 연구는 김홍구(2012)가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된 중학교 한문 1, 2 교과서의 翻譯 실태를 분석하였고,¹⁹⁶⁾ 강동석(2013)은 중학교 한문교과서의 讀解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¹⁹⁷⁾

나아가 내용영역의 연구사를 살펴본다. 이호식(2012)은 역대 한문교과서에 인용된 경서의 구절의 수록 양상을 분석하였고,¹⁹⁸⁾ 함영대(2014)는 중·등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서교육의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김용재(2013)는 중·고교 한문교과서에서의 ‘經書’ 교육에 관한 발전적 제언을 하였다.¹⁹⁹⁾ 이 밖에 이돈석(2013)은 중학교 한문교과서에 수용된 다문화 교육에 대한 분석을 하였으며,²⁰⁰⁾ 최윤용(2014)은 고등학교 漢文 I 교과서의 孝 관련 단원의 내용을 분석하였다.²⁰¹⁾

여섯째, 한시영역의 연구는 김연수·송혁기(2011)가 중학교 한문교과서에 한시의 수록 양상을 분석하였고,²⁰²⁾ 정성용(2011)과 노운숙(2014)은 고등학교 한문교과서에 수록된 한시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으며,²⁰³⁾ 엄선용(2014)은 제6차~2009개정 교육과정기에 집필된 한문1 교과서에 실린 한시의 수용양상을 분석하였다.²⁰⁴⁾

일곱째, 교수·학습에 관한 연구는 고인숙(2011)이 중학교 한문교과서를 대상으로 한자 연상학습방법을 구안하였고,²⁰⁵⁾ 고려진(2012)은 중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한 한문·도덕 연계수업 지도방안을 모색하였으며,²⁰⁶⁾ 한경은(2011)은 고등학교 한문교과서에 수록된 한시를 대상으로 한 교수·학습 방법을 연구하였고,²⁰⁷⁾ 김려원(2014)은 중학교 한문교과서에 수록된 한시의 교수·학습 방법을 연구하였다.²⁰⁸⁾ 또한 백광호·류재윤(2014)은 고등학교 한문 I 교과서에 나타난 학습활동을 분석하였다.²⁰⁹⁾

195) 김성중(2014), 「한문 문법 분석 단위의 확장 : 문장에서 段落으로」, 『한자한문교육』 35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196) 김홍구(2012), 「漢文 教科書 所載의 翻譯 研究 -中學校 1, 2학년 漢文 教科書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대학원(석사).

197) 강동석(2013), 「중학교 한문교과서의 독음과 문법, 독해에 관한 문제」, 『Journal of Korean Culture』 한국어문학회 학술포럼.

198) 이호식(2012), 「역대 한문 교과서에 인용된 경서 구절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석사).

199) 김용재(2013), 「중·고교 한문교과서에서의 ‘經書’ 교육에 관한 발전적 제언」, 『한문고전연구』 27집, 한문고전학회.

200) 이돈석(2013), 「2009 改定 教育課程에 따른 中學校 漢文 教科書의 多文化 教育에 對한 一見」, 『교육연구』 58집, 성신여자대학교교육문제연구소.

201) 최윤용(2014), 「孝와 관련된 단원 분석 -고등학교 한문 I을 중심으로-」, 『한자한문교육』 33권,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2) 김연수·송혁기(2011), 「漢詩 텍스트의 수준과 범위 - 중학교『漢文』교과서 한시 텍스트의 수록 양상 분석」, 『한문교육연구』 36집, 한국한문교육학회.

203) 정성용(2011), 「教科書 收錄 漢詩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高等學校 漢文 10種 教科書를 中心으로-」, 영남대학교 대학원(석사), 노운숙(2014), 「2009 改定 教育課程에 따른 高等學校『漢文』I 교과서의 한시영역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석사).

204) 엄선용(2014), 「漢文 I에 실린 漢詩텍스트 수록 양상 분석 -제6차~2009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문교육연구』 42권, 한국한문교육학회.

205) 고인숙(2011), 「字源을 활용한 한자연상학습방법 구안 -중학교 교과서를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대학원(석사).

206) 고려진(2012), 「인성교육을 위한 한문·도덕 연계수업 지도방안 연구 -중학교 한문 교과서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석사).

207) 한경은(2011), 「媒體 活用을 통한 漢詩 教授·學習 方法 研究 -高等學校 漢文 教科書 漢詩를 中心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석사).

208) 김려원(2014), 「漢文科 創意·人性教育을 위한 漢詩 교수·학습 방법 -2009년 개정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한문교과서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석사).

209) 백광호, 류재윤(2014), 「2009 改定 漢文科 教育課程에 따른『高等學校 漢文』I 教科書에 나타난 學習活動 分析」, 『교육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여덟째, 평가 영역의 연구는 이금화(2014)의 중학교 한문 교과서의 내용 영역별 평가 문항을 분석한 연구가 있다.²¹⁰⁾

아홉째, 제책 영역의 연구는 김경익(2014)의 중·고등학교 한문교과서의 漢字 領域分析 및 構成方向 摸索에 관한 연구가 있으며,²¹¹⁾ 김병건(2011)은 한문교육에 있어서 교과서 내용 선정의 타당성에 대한 고찰²¹²⁾과 한문교과서의 내용 구성에 관한 연구가 있다.²¹³⁾ 또한 윤지훈(2013)에 의해 한문 교과서 소재 인용 자료의 출처표기에 대한 연구가 있다.²¹⁴⁾

2009년 개정 교육과정기는 교육정책의 변화에 따라 한문과의 위상이 매우 위축된 시기로 2007년 개정 교육과정기와 비슷하게 연구 성과는 많지 않았으나, 빠르게 변하는 교육정책에 대응하여 새롭게 개정되는 교육과정에 따라 새로 편찬될 한문교과서의 개발에 관한 연구가 많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산문분야의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내용 분석은 四書와 관련된 연구 성과가 많았지만 한자 어휘에 관한 연구 성과가 없었다.

VII. 結語

한문교과서의 연구 목적은 더 좋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것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한문교과서는 1972년 한문교과가 교육과정에서 독립 교과로 편성되기 이전부터 교과서가 간행되었으며, 제3차 교육과정기 이후 교육과정기 별로 편차는 있었지만 대략 중학교는 20여 종, 고등학교는 10여종이 넘는 교과서가 간행되어 일선학교 한문교육의 핵심 교재로 사용되어 왔다. 또한 한문교과서는 교육과정기 별로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교육내용뿐만 아니라 교수·학습 방법, 평가 방법 등의 변화가 있었다.

교과서 분석의 준거는 개인의 교육적 신념이나 취향이 아닌 교육과정이어야 한다. 즉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한문과의 성격, 교육목표, 내용이나 제재, 교수·학습 방법, 평가 등을 반영하고, 여기에 학생들로 하여금 쉽고 재미있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가에 있다.

지금까지 한문교과서에 대한 연구는 교수요목기에 간행된 교과서를 분석한 연구가 2편이 있고, 이후 제1차, 2차 교육과정기에 간행된 교과서에 대한 연구 성과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후 제3차 교육과정기에 한문이 정규 교과목으로 편성되어 정규 교과목으로 한문교과서가 간행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한문교과서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한문교과서의 연구는 제7차 교육과정기에 한문교과서 전반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2007년 개정 교육과정 이후 교과서에 대한 연구가 줄어들고 있다.

한문교과서의 연구는 처음에는 교과서의 구성 실태와 내용의 수용 양상의 분석, 오류 분석에서 출발하였으나 교육과정이 거듭되면서 교육과정과 연계한 분석, 내용 수준, 위계별 학습 요소, 제책 등에 대한 여러 대안이 제시되는 등 연구가 심화되어왔다.

한문교과서의 연구는 한문 문법, 한시 등 특정 분야와 사서 등 특정 내용에 대한 연구가 집중되었고, 교과서의 다른 부분, 즉 학습목표의 진술과 교과 내용, 평가에 대한 연계 등에 관한 연구, 교과서의 구

210) 이금화(2014), 「중학교 『한문1』교과서 내용 영역별 평가문항 분석」, 조선대학교 대학원(석사).

211) 김경익(2014), 「중·고한문교과서 "漢字" 領域分析 및 構成方向 摸索」, 『한문교육연구』 35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12) 김병건(2011), 「漢文教育에 있어서 教科書 內容 選定의 妥當性 考察」, 『한자한문교육』 26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13) 김병건(2015), 「漢文科 教材 研究 과목의 내용 구성」, 『한자한문교육』 37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14) 윤지훈(2013), 「漢文 教科書 所在 引用 資料의 出處 表記에 관한 一考」, 『동방한문학』 56집, 동방한문학회.

성, 조직, 삽화 등 제책에 관한 연구 성과가 매우 부족하므로,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도 심화되어야 한다. 또한 기존의 연구자들은 한문과 교과서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첫째, 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 수용문제, 둘째, 한자-한자어-한문 학습의 위계성 문제, 셋째, 학습자 중심의 교육내용 조직문제 등으로 구한하여 지적하였듯이 내용의 구성도 학생들의 경험과 미래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내용을 찾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한문교과서의 가장 최우선의 과제는 학생들로 하여금 한문을 왜 배워야하는지에 답할 수 있는 교과서의 개발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한문교과서를 만들 때 가장 고려하여야 할 것은 교과서의 집필자도 편집자도 아니고, 현장의 한문교사도 아니며 한문교과서를 배우는 학생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즉 교과서의 단원 설정 취지는 물론 내용과 제재에 대한 선택, 성취기준에 담겨 있는 핵심 내용 및 개념이 학생들이 실용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한문교과서의 분석 기준은 첫째, 한문과 교육과정의 정신을 반영하여, 한문과가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할 수 있는 교과서인가, 둘째, 한문과 교육과정의 성격, 목표, 내용, 교수-학습방법, 평가를 반영한 교과서인가, 셋째, 교육수요자인 학생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생활 중심의 내용 선정이 된 교과서인가, 넷째, 전통적인 교과서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탐구과정을 중시하는 교수-학습 과정에 공헌할 수 있는 교과서인가, 여섯째, 가르치기 쉽고 배우기 쉬우면서 재미가 있어 흥미와 동기 유발이 가능한 교과서인가, 일곱째,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새로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생성할 수 있는 능력,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유연하게 잘 할 수 있는 능력 등 미래 사회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교과서인가라야 한다.²¹⁵⁾

지금까지 1945년 광복이후 간행된 한문교과서를 대상으로 한 연구사를 범박하게나마 검토하여보았다. 앞으로 분야별로 연구사를 앞에서 제시한 기준에 의해 다시 검토하여 보고, 연구의 기준이 타당한가를 평가해보는 것은 추후 과제로 남기며, 여러 동학들의 동참을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이종국(2002), 『한국의 교과서 출판 변천 연구』, 도서출판 일진사.
 이종국(2008), 『한국의 교과서 변천사』, 대한교과서(주).
 허강(2004), 『한국의 검인정 교과서』, 도서출판 일진사.
 이하 참고 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215) 이동재(2007), 「새로운 教育課程에 따른 中等學校 漢文教科書 개발의 方向」, 『한자한문교육』 제19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p. 146면 참조.

中等 漢文科 e-learning contents 開發 방안

- 이러닝 환경 변화를 대비한 한문과 표준DB 서비스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

李和春(전통문화연구회)

목 차

- I. 서론
- II. 이러닝 콘텐츠의 표준화와 공유의 필요성
- III. 한문과 이러닝 콘텐츠 센터의 구성 방안
- IV. 결론

I. 서론

한문과에서는 그간 한자부터 한자어 한문고전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의 콘텐츠에 대한 가능성과 활용방법 등을 연구해왔다. 한문교육학회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콘텐츠의 활용가능성, 콘텐츠의 선정 방안, 교수설계의 구현 등 콘텐츠 내용분야의 논문이 한 축을 이루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콘텐츠 DB설계의 방법, 웹기반 기술요소의 검토, 표준화 기술의 적용방법 등 ICT 기술의 활용한 한문 콘텐츠 개발에 관한 논문도 최근 하나의 연구 주류를 이루기 시작했다. 후자의 연구가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진 것은, 몇몇의 연구진들을 통해 상당히 진전되어 있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¹⁾

어떤 분야도 마찬가지이지만 각 분야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기반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 한문과 이러닝 콘텐츠도 마찬가지이다. 이러닝 콘텐츠 제작을 위한 인프라가 잘 갖춰지면 콘텐츠의 질적 양적 발전에 기여할 것이지만, 인프라가 부족하다면 결국 한문과 이러닝 발전은 어느 순간 한계에 봉착할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시각으로 콘텐츠 개발자 또는 생산자의 입장에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한문과에서 이러닝을 받아들이고 발전시킬 사전의 준비는 잘 되어있는가?’라는 물음에서 시작하고자한다.

그런데 현재 한문과의 중요한 학습요소로 한자가 있다. 漢字학습에 기준인 한문교육용기초한자의 확정안조차도 국가적 차원의 공식 Web 상에 디지털화된 정보로 존재하지 않는다.²⁾ 이러닝 콘텐츠 생산자가³⁾ 표준데이터도 없이 이러닝 콘텐츠를 만든다면, 해당 콘텐츠로 공부한 학습자는 相異한 내용을 학습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결국 교실 안팎의 교수·학습자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다. 더군다나 이런 문제가 한문과만의 과목특성에서 오는 요소로 본다면, 한문과 외부적 요인의 변화를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릴 수만은 없을 것이다.

1) 필자가 현업에서 느꼈던 점들이 상당수 체계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2) 물론 교육용기초한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논문들은 여기저기 존재한다. 그러나 그자체가 교육부의 공식 확정내용은 아니다.

3) 여기서 말하는 콘텐츠 개발자라고 의미하지 않고 생산자라고 말하는 것은, 전문 개발자 이외에도 교수·학습에 참여하는 교수자와 학습자를 콘텐츠 생산의 주체에 편입시켜서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시각에 따라서는 한문과 교수학습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주 사소한 지엽적인 문제로 치부할 수도 있다. 만약 한문과 콘텐츠의 생산과정을 겸인정 교과서의 제작과 같이 철저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는 일면 타당한 의견일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E-Learning에서 U-Learning으로 옮겨가며 이러닝의 범주가 확장되고, 수준별 학습, 자기 주도 학습, 거꾸로 학습(Flipped-Learning) 등으로 기존의 교수-학습의 개념이 바뀌는 과정이며, 교과서도 종이 교과서가 아닌 디지털 교과서로 넘어가고 있다. 게다가 이미 교실 밖의 세상에서는 콘텐츠의 생산자와 소비자도 개념이 바뀌어버렸다.

따라서, 교수학습의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한문과에서는 오히려 변화에 적응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부족한 점을 찾기 위하여 기초적인 단계부터 재점검하고 단계를 밟아가며 교수-학습환경의 변화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 한문과 스스로가 변화에 적응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서라도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은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⁴⁾

II. 이러닝의 콘텐츠의 표준화와 공유의 필요성

1. 이러닝, 이러닝 콘텐츠, 한문과 이러닝 콘텐츠

먼저 ‘한문과 이러닝 콘텐츠’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기로 한다. 주지하듯이 ‘이러닝 콘텐츠’란 ‘이러닝’과 ‘콘텐츠’의 합성어로서 ‘이러닝을 위한 콘텐츠’ 정도로 풀이할 수 있다. 콘텐츠란 원래 ‘목차’를 의미하였는데, 최근에는 ‘음악, 영화, 게임, 인터넷에 올려진 정보 등 모두가 콘텐츠 범주에 포함된다.’⁵⁾

이러닝이란 electronic과 learning이 합성어로 ‘전자적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학습’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 전자적 환경은 곧 인터넷 환경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닝이란 ‘인터넷 기반의 전자적 매체를 통해 구현된 융통성 있는 학습환경에서 학습자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상호작용 및 자기 주도적 학습활동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학습경험을 수행하는 학습체제’⁶⁾라고 정의 되고 있다. 따라서 ‘한문과 이러닝 콘텐츠’의 의미를

- 한문과를 대상으로
- 인터넷 기반의 전자적 매체를 통해 구현된 융통성 있는 학습환경에서
- 학습자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 상호작용 및 자기 주도적 학습활동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학습경험을 수행하기 위해
- 제작된 음악, 영화, 게임, 인터넷에 올려진 모든 정보’

라로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는데, 한문과 이러닝 콘텐츠는

- 한문과와의 연관성

4) 본고는 내용전문가인 한문과 연구자들의 시각에서는 조금 벗어나, 현업에서 콘텐츠 연구와 기획을 진행하고 있는 콘텐츠 기획자로서 한문과 이러닝 콘텐츠 발전을 위한 한문과의 先決사항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5) 중소기업청(2010) 참고

6) (사)한국기업교육협회(2010) 참고.

- 인터넷 기반 환경의 융통성
- 시간 공간의 무제한성
- 콘텐츠의 내용과 활용법의 다양성
- 인터넷을 공유를 통한 접근성

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염두에 두고서 한문과 이러닝 콘텐츠 제작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검토되어야 한다.

- ① 한문과와 관련된 범위를 고려하여 [한문과 교수학습 연구영역]
- ② PC 및 모바일 환경에서 모두 제한이 없이 [ICT 연구의 영역]
- ③ 원하는 시간과 원하는 장소에서 [ICT 연구의 영역]
- ④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어 [한문과 교수학습 연구영역]
- ⑤ 접근하여 상호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관계적 영역(가칭)]

위 내용은 한문과 이러닝 콘텐츠를 개발하고 활용할 때,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된다.

여기서 ①과 ④, ⑤, ②와 ③에는 차이점을 엿볼 수 있는데, 연구의 영역에 따라 연구 주체가 다를 수 있다. ②, ③은 한문과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기 보다는 ICT기술의 발전에 따라야 하는 한문과의 수동적 영역이라고 한다면, ①, ④는 한문과 교수학습의 연구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⑤에 대해서는 접근과 상호 공유를 고려하여 사회관계적 영역이라고 우선 임의로 명명하고 논의에 들어가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기술연구의 영역인 ②, ③은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①, ④의 한문과 교수학습연구의 영역과, 사회학적 영역이라 가칭한 ⑤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되, ④에서 한문과 교수학습 전문연구자들의 영역인 분야별 콘텐츠의 설계방안, 세부 구성방안은 살피지 않는다.

2. 한문과 이러닝 콘텐츠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오류의 구조적 원인

이러닝 콘텐츠의 ‘공유’는 미국방성 산하의 고급분산학습(ADL)⁷⁾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미군은 각 부대별로 제작한 전투교육, 전술교육, 군사장비 등 軍 교육용 콘텐츠를 각각의 부대가 만들게 한 후 콘텐츠를 부대 간에 서로 원활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이러닝 콘텐츠의 ‘표준화’를 시도하였다. 교육용 콘텐츠를 XML기반으로 표준화하여 이른 바 SCORM⁸⁾이라 명명하였고, 그 표준을 기준으로 이러닝 콘텐츠의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콘텐츠를 공유하였다.

이처럼 이러닝 콘텐츠는 ‘표준화’⁹⁾와 ‘공유’라는 태생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7) 고급분산학습(Advanced Distributed Learning; ADL)사업단

8) SCORM(Sharable Content Object Reference Model)은 ‘공유 가능한 콘텐츠 객체 참조모형’을 말하는데, XML을 활용한 웹기반 이러닝에 대한 표준 규격의 하나이다. SCORM 규격을 활용하면 하나의 콘텐츠를 여러 곳의 이러닝 서비스에서 재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본고에서는 이에 대하여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지 않는다.

9) 물론 이에서 말하는 표준화는 이러닝 콘텐츠 구조의 표준화이고, 앞으로 논의할 표준화는 한문과의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콘텐츠 내용이나 정보의 표준화이다.

사전적 개념정의에서도 공유를 하나의 개념으로 명시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정보처리 기술의 발달로 정보를 주고받는 매체에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학교 외부에서는 UCC라는 새로운 콘텐츠 생산방식이 생겨나 콘텐츠의 전문 제작자들의 담을 허물고 누구나 콘텐츠 생산자가 될 수 있게 되었고, 교실 속의 환경에서도 콘텐츠 생산자가 교사에만 머물지 않고, 학생에게 까지도 외연이 확장되었으며, 모바일 환경의 급속한 발전에 힘입어 M-learning, Smart-Learning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교과서의 연구개발과 실용화의 단계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라면 한문과 콘텐츠의 생산자를 교사나, 교육당국, 그리고 외주를 맡은 콘텐츠 제작 전문기업으로만 한정할 수 없다. 학생, 교사, 그리고 학부모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공교육에서 콘텐츠 제작자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중고교 한문 교과서의 인정절차 같은 제한된 형태의 콘텐츠 품질관리보다는 콘텐츠 품질관리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러한 대책은 결국 외연이 확장된 콘텐츠 개발자들을 고려하여, 콘텐츠 개발을 위한 한문과의 표준안을 제정하고 이를 적극 공유하는 등 표준화 자료의 공유 인프라를 갖춰줌으로써 한문과 콘텐츠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그럼 과연 지금의 한문과는 이러닝 콘텐츠 개발의 외연확대를 위해 얼마나 준비가 되어있을 것인가? 직접 콘텐츠를 만들면서 접했던 문제를 회상하며, 한문과의 대표적 기초정보인 ‘한문교육용기초한자’의 국가 차원의 공지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았으나 결코 찾을 수 없었다.

사실 현행 기초한자의 선정 내용은 2001년 한문교육용기초한자 조정에 따라 직후 백서로 제작된 사실이 있다. 그러나 디지털화 된 파일 형태의 정보는 수많은 사람들의 공개요청으로 인해 2008년에야 교육부의 홈페이지의 자료실에 등재되었다. 이후로 교육 소관부처의 조직이 변경되고 홈페이지의 개편을 거치면서 결국 현 교육부의 홈페이지에서는 다시 사라져 버렸고, 교육부 산하 기관이나 단체의 홈페이지에서도 역시 찾을 수 없었다.¹⁰⁾

이처럼 콘텐츠 제작을 위한 기초정보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한문과는 표준화와 공유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한문과 콘텐츠 생산자가 외연으로 확대되는 지금 이러한 표준 정보를 공유하여 활용하는 창구는 반드시 존재해야 할 것이다.

III. 한문과 이러닝 콘텐츠 포털의 구성방안 모색

그렇다면 이러한 한문과 이러닝 콘텐츠의 공개를 위한 웹 사이트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며, 이러닝 콘텐츠의 공유 방안을 무엇일까? 그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몇몇의 사이트의 성격을 검토해본다.

첫 번째, 국가 차원의 교수-학습용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곳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운영하는 ‘교수학습개발센터’이다.

10) 물론 자형, 대표훈음, 필순, 부수정보 등 기초정보도 미공개 상태이다.

<그림 1>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주요 활동



2008년 개설된 교수학습개발센터는 일선 교사들의 전문성향상 측면에서 교수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 내용이 잘 갖춰져 있다. 그러나 중등교육의 대상 교과가 국어, 도덕, 사회, 수학, 영어를 비롯한 10개 과목으로 아쉽게도 한문과 정보는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존재하지 않고 있다.¹¹⁾ 그 이유는 교수학습개발센터의 기획 단계부터 아예 배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¹²⁾

臺灣의 경우 우리의 ‘교수학습개발센터’와 비슷한 역할을 담당하는 곳은 國家教育研究院에서 운영하고 ‘愛學網’이 있다. ‘애학망’에서는 각종 교과별로 교수·학습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누적접속수가 2014년 이후로 약 2,550만 건을 넘었고, 분야별 이용자 수도 40,000명에 이를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다.¹³⁾

<그림 2> 臺灣의 교수학습지원센터 ‘愛學網’



11) 교수학습개발센터(<http://www.classroom.re.kr/>)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로,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중등교육에는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영어 등 10개 과목에 한하여 교수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12) 이화진 외(2002) 참조

내용의 구성도 한국의 교수학습개발센터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풍부한 내용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國小生, 國中生, 高中生, 教師 등으로 이용자를 구분하여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많은 자료를 Mobile로 제공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표 13> 애학망의 콘텐츠 구성 및 내용

구분	구성 내용
電視館	과목별 학습주제별 스토리텔링 동영상 등
學習萬花筒	학습자료 기초자료 제공. 특히 고문과 관련하여 원전자료 등
名人講堂	유명강사의 동영상 강의 등
益智遊戲	플래시 기반 게임 등
學習資源網站	대만의 中小學校의 문제자료 등
教育專題區	교원의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 영상자료 등

게다가 대만의 國家教育研究院은 허철(2003b)에 의해 소개된 바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교육용 사전을 공식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우리 한문과의 사정과는 달리 대만은 한자 및 한문고전이 그들의 語文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교육당국이 직접 한자, 한자어, 고문의 교수학습에 관한 각종 콘텐츠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다시 국내로 돌아와 보자. 일찍이 우리의 한문교사들은 스스로 교수학습센터 비슷한 역할을 하는 모임을 결성하고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다양한 한문과 자료들을 정리 제작하고 이를 공유하고 있다.¹⁴⁾ 그 밖의 콘텐츠 관련 홈페이지로는 ①개인의 취미를 기반으로 한 소형의 한자·한문관련 사이트 ②한문과 관련 연구자 및 교사들에 의한 학습자료 공유 사이트 ③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 등을 한자·한문 콘텐츠 및 DB 사이트 등 다양한 사이트 들이 존재하는데, 이들도 역시 일부 한문과 이러닝 콘텐츠의 대상이 되는 자료들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②는 개인이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러닝 콘텐츠를 제공하여 왔는데, 온라인 보급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학생들과 대중에게 한자교육 콘텐츠를 전달한 데에 그 의의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운영자의 個人的 사정이나, 財政的 곤란과 같은 문제로 인하여 사이트의 운영이 곤란을 겪고 있거나, 이미 그 운영을 중단하고 폐쇄한 곳이 많다.¹⁵⁾ ③은 상당한 양질의 콘텐츠를 보유한 사이트로서, 한문고전의 참고 역할을 하고 있어 활용의 가치가 높다. 그러나 자료가 워낙 방대한데다 일반이 감당하기에는 학술적 내용이 많아 학교교육에 그 콘텐츠를 직접 활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¹⁶⁾

13) ‘애학망’ 이용통계 참조 - http://stv.moe.edu.tw/co_aboutus.php

14) 전국한문교사모임 - <http://hanmun.eduhope.net/>

15) 개인 연구자에 의한 사이트로 진갑곤의 ‘한자박사’(<http://www.hanjadoc.com>)가 규모와 내용 면에서 대표적 사이트이다. 그러나 최근 3년 사이에 자료의 업데이트가 없는 점으로 미뤄볼 때 사이트만 이른바 ‘게점휴업’ 상태로 보이는데, 중등 교사로는 오형민, 최동윤 등 일부 교사들도 자발적으로 이러닝 콘텐츠를 제작하여 웹사이트를 운영해왔다. 이 가운데 오형민의 ‘이야기 한자여행’(<http://www.hanja.pe.kr>)은 현재도 운영 중이며, 최동윤의 ‘이야기 고사성어’(<http://www.sosok.hs.kr/~gosa>)는 운영이 중단된 상황이다. 그나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야기 한자여행’도 면담 결과 시간적 제한과 비용의 부담으로 인하여 운영이 곤란한 상황이라고 한다.

16) 한국고전번역원의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전통문화연구회의 ‘동양고전종합DB’(<http://db.juntong.or.kr>),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의 ‘유경편찬센터’(<http://ygc.skku.edu>) 등과 같이 한문과와 관련된 직접적인 원문 자료실로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이 많은 자료를 교수·학습자들이 직접 이용하기에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본고는 여기에서 한문과 이러닝 콘텐츠의 공유 공간을 ‘한문과 이러닝 콘텐츠 센터’라고 가칭하기로 한다. 그 이유는 기존의 ‘교수학습개발센터’와의 혼란을 피하기 위함이다. 기존의 교수학습개발센터는 엄격히 말하면 온라인 콘텐츠 개발을 위한 곳이 아니라 ‘교수학습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사이트이기 때문이다. 이와 구분하여 ‘한문과 이러닝 콘텐츠 센터’는 한문과 이러닝 개발에 필요한 제반 정보를 제공하고, 생산된 이러닝 콘텐츠를 공유하는 공간의 개념으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한문과 이러닝 콘텐츠의 공유를 위한 창구인 ‘한문과 이러닝 콘텐츠 센터’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할 것인가? 앞으로 다가올 다양한 한문과 이러닝의 환경 변화에 미리 적응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중등 한문과 이러닝용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정보화하고 이를 콘텐츠 생산자에게 제공할 창구가 되어야 한다.

1. 한문과 기초정보 제공

이제 본격적으로 한문과 이러닝 콘텐츠 센터의 구성요로서 한문과 콘텐츠 센터의 차별화된 구성 요소를 몇 가지 살펴보자. 공교육을 위한 ‘교과서’ 제작시, 교사의 교수학습용 교재 제작시, 출판사의 각종 ‘한자학습서’, 이러닝 기업의 ‘학습 콘텐츠’나 ‘스마트폰 앱’의 제작진이 한자 및 한문 콘텐츠를 제작을 계획하며 자료를 수집할 때를 가정해보자. 그들이 한문과 관련 대학을 전공하였더라도 사전지식이 없다면, ‘표준자형’, ‘대표훈음’, ‘부수’, ‘필순’ 등의 통일의 문제를 인식할 수도 없고, 설사 알았다고 하더라도 집필진 또는 제작진에 의하여 임의로 결정되는 구조라면 콘텐츠 간의 한자정보가 상이한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¹⁷⁾, 결국 자형의 혼란에 의한 情報 混線이 발생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로 인한 弊害는 교수-학습자들에게 그대로 전가될 것은 누구나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혼선을 막고 올바른 콘텐츠 제작을 위한 한자정보로 다음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한자의 자형을 표준화하여 제시하고 이를 적극 보급하여야 한다. 한자의 자형은 학습자들이 한자를 시각적으로 접근하게 되는 첫 번째 정보로서, 교수-학습시 첫 번째로 다뤄야 할 요소이다.¹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자의 자형 정보는 그 표준화된 자료가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제시되지 않고 있다.¹⁹⁾ 이러한 한자자형 통일의 부재는 결국 콘텐츠 제작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현재는 콘텐츠 제작자들이 직접 폰트를 조합하여 이미지 폰트로 만들거나 별도의 폰트를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보다는 교육당국에서 폰트제작사들을 상대로 폰트 수정에 대한 적극적 요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²⁰⁾

둘째, 한자의 代表訓音を 통일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초등학교의 한자학습은 대개 한자급수검정제도에 준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국가차원의 한자 대표훈음이 부재하므로, 검정시험을 주관하는 단체에 따라 제각각인 경우가 많다. 결국 민간의 한자급수 학습으로 한자학습을 접한 피교육자들이 장

17) 허철(2013a) 336~337면 참조.

18) 김영옥(2015)은 표준 자형 제정에 관한 주제를 나열하면서 국가차원의 한자 표준자형의 제정을 언급하며 연구를 마무리 하였다.

19) 최근 교과서 집필진과의 면담을 통해 들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교육용한자의 표준자형 등 교과서 집필에 필요한 통일안을 제시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으나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부 출판사에서는 한문교육용 한자서체를 별도로 제작하여 사용한다고 한다. 폰트이 직접개발이 어렵다면 자형 통일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권고나 실질적이 폰트 보수비용을 지원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0) 이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다면 한자교육용 폰트의 개발 보급도 필요하다. 그 범위는 PC 및 Mac용으로 각각 명조계열, 고딕계열, 궁서계열 등의 폰트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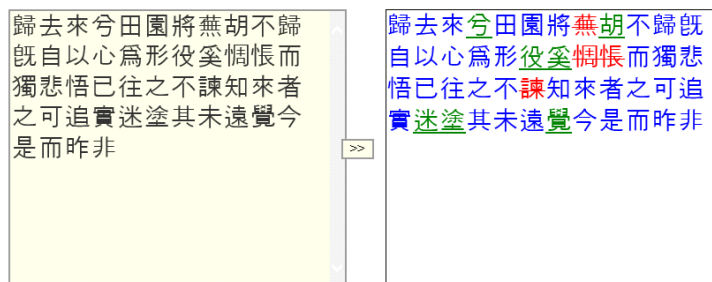
차 학교교육에 임할 경우 혼란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한자 훈음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한문과 연구진들에 의한 통일된 대표훈음을 제시하여 콘텐츠 개발자들이 손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셋째,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통일화된 筆順을 제시하여야 한다.²¹⁾ 필순을 통일화하여 제시하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필순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이나 범위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한자과에서 쓰기교육이 불필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교육 요소로서 필요하다면, 교육용한자 1,800자 또는 그 이하의 한자에 대해서라도 필순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하다. 표준화 되지 않으면 콘텐츠 생산 기업들에 의해서 제시되는 다양한 한자쓰기 콘텐츠의 필순이 相異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학습자들의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한자자전을 개발할 때에도 위 세 가지는 학습자의 입장에서 통일화가 절실하다.²²⁾

마지막으로, 고전정보화를 위한 기술적 측면에서 이용되는 틀들은 한문과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콘텐츠를 제작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어야 한다. 콘텐츠 제작시에 원문을 워드프로세서를 통해 직접 입력하는 과정을 거치는 경우도 있으나²³⁾, 각종 고전DB가 서비스되는 환경을 고려하면 웹사이트의 자료를 이용하고, ‘복사하기’, ‘붙여넣기’의 과정을 거쳐 수집한 원문을 활용하는 경우가 오히려 많을 수 있다. 그러나 유니코드가 고려되지 않은 자료는 콘텐츠로 제작했을 경우에 검색에서 제한이 될 수 있다.²⁴⁾ 때문에 이런 제한적 요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표준화를 위한 도구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데,

- ①수집자료의 한자를 중등, 고교, 기타로 색상으로 구분하여 제시해주는 웹기반 도구

<그림 3> 「귀거래사」 일부의 교육한자 검토



- ②수집자료의 UNICODE를 분석하여 호환영역 한자를 유니코드 영역으로 치환해주는 웹 기반 도구

21) 한자의 필순에 대한 고찰은 멀리는 고창석(1984)으로부터 가까이로는 한연석(2013년)까지 한국한문교육학회를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있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일이 거론하지 않는다.

22) 허철(2013)은 교사활용의 측면, 학생활용의 측면, 개발의 측면으로 나누어 한자자전의 개발에 관한 방법을 제시한 바 있다.

23) 전통문화연구회에서는 한글 및 MS-Word용으로 고전문구의 입력을 돕기 위한 사용자한자사전(한자어말뭉치)을 제공하고 있다. 해당 사용자한자사전은 『사자소학』, 『주구』, 『명심보감』, 『동몽선습』, 『격몽요결』과 『四書』의 원문을 원토단위로 일괄 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4) 물론 고전정보를 위한 전용 검색엔진을 통해 이용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검색엔진을 모든 사이트에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③한자의 자형을 교육용한자 자형에 맞게 검토하고 치환해주는 도구

등 다양한 한자 정보 검토용 도구도 동시에 제공²⁵⁾ 된다면 콘텐츠 개발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한문과 교육 범위의 劃定을 통한 원천자료의 제공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한자와 어휘’는 한문과의 내용체계에서 가장 먼저 제시되는 첫째로 제시된 어문 핵심 개념의 내용 요소이다.²⁶⁾ 교육부(2015)는 2015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어휘 관련 내용을 ‘일상용어’, ‘학습용어’, ‘성어’로 분류해 제시하였는데, 이에 따라 한문과의 한자어휘의 범주를 일상용어까지 확장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동양고전정보화연구소’에서 한글한자자동전환 소프트웨어의 개발 운영을 위해 수집한 최신어휘 자료²⁷⁾를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교육용한자 900자로 이루어지는 어휘 수는 77,971개에 이르며, 중고교용 1,800자로 이루어진 어휘 수는 180,633개에 이른다.²⁸⁾ 교과별 개념어로 사용되는 학습용어의 경우 교과서 등재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된다. 그러나 일상용어는 별도의 범위 정리가 없다면 이러닝 콘텐츠 제작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한자어휘 학습용 콘텐츠 개발 예시를 들어보자. 허철은 한자어 학습을 위해 逐字式 어휘학습의 가능성을 언급하였는데²⁹⁾, 최근 ‘LBH(Learning by Hint) 속뜻학습법’이라 명명하고 『초중교과 속뜻학습 국어사전』을 출간한 사례가 있다.³⁰⁾ 전통문화연구회는 이를 ‘漢字直解’라 명명하고 사이버서당을 통해 2016년 7월 1일 beta서비스를 개시하였다. 해당 서비스는 초등학교과서 소재의 ‘어휘 테이블’과, ‘단원정보 테이블’, ‘둘의 연결정보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통하여 ①교육과정별, 과목별, 학기별, 학년별, 출판사별, 저자별, 단원별 목록을 선택하여 해당어휘를 검색하고, ②검색된 어휘중에서 교과어휘, 고유명사, 기타 등의 분류로 원하는 어휘를 선택하고, ③어휘 목록이나, 한자어휘 쓰기노트를 제시하여 인쇄할 수 있는 화면을 제공한다. 해당 서비스는 아직 베타서비스라 어휘정보의 보완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그 서비스와 그 제공방식은 한자어휘 구축의 사례로서 참고가 될 것이다.³¹⁾

25) 전통문화연구회 동양고전정보화연구소에서는 해당 도구를 저작하여 내부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테스트 과정 등을 거친 후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26) 교육부(2015)

27) 표준국어대사전의 어휘에 최근 온라인 신문 등에서 사용하는 신조어, 합성어, 고유명사 등을 포함

28) 본 자료는 국립국어원의 국어대사전의 CD 데이터에, 전통문화연구회 동양고전정보화연구소에서 ‘한글한자자동변환’을 연구하면서 추가한 신조어, 합성어 등을 합한 약 28만 9천 100개의 어휘를 범위로, 그 가운데 한자로만 이루어진 어휘를 직접 분석한 자료이다.

29) 허철(2013a)

30) 전광진(2010) 참조. 그런데 전광진이 명명한 ‘속뜻학습’은 한문과에서 말하는 ‘축자역’ 또는 ‘한자직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축자학습’ 또는 ‘직해학습’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야 마땅할 것이다. 이에 대한 깊은 논의는 여기에서 진행하지 않는다.

31) 1~2학년은 일상생활의 어휘를 선정하고, 3~6학년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가운데에서 2학기의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등 주요 교과만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초등 교과서 어휘 (Beta)

어휘 검색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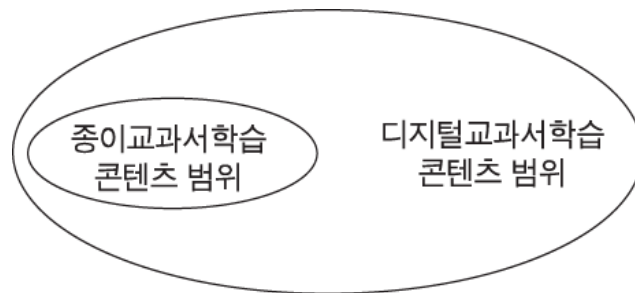
어휘목록출력

교과서 어휘 목록

교과서 어휘 쓰기 노트

최근 교육부에서는 1,800자 범위 내에서 초등학교 교과서에 200~300개의 한자어휘를 교과서의 옆단이나 밑단에 제시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다.³²⁾ 200~300개는 다소 미흡한 감이 있으나, 해당 연구를 통해 초등학교 교과서에서의 한자 교육의 기준이 공개된다면, 다양한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림 8> 수준별 학습에 따른 콘텐츠 내용의 범위



다음으로 각급학교별 한문 원전의 적절한 범위를 제공하여야 한다.³³⁾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범위의 선정과정을 거쳐 한문고전의 교육 범위를 확정해야 하는데 이는 한두 사람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다. 중국에서 교과서 원문의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王力 主編의 『古代漢語』는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1969년에 첫 출간된 『고대한어』는 1978년 중국의 교육부로부터 전국고등학교 문과의 통일된 교재로 제작되었고, 이후로도 꾸준한 의견수렴을 통한 조정과정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³⁴⁾

국내에서도 참고할 만한 사례는 찾아볼 수 있다. 학회의 차원에서 편찬한 책으로는 韓國漢文學會에서 편찬한 『詩選』³⁵⁾과 『散文選』³⁶⁾이 대표적인 예이다. 또 한문과 교원 임용을 위해 출제범위 선정³⁷⁾한 목록도 있다. 게다가 수많은 대학들이 각 대학의 ‘교양한문’ 강좌를 위해 자율적으로 시문을 선정하여 출판된 교재는 수십 종에 이른다. 특히 교사들의 자발적 모임인 ‘전국한문교사모임’에서도 교사들의 자발적인 자료 정리를 통해 다양한 교수-학습자료가 자료실을 통해 회원에게 制限的으로 배포되고 있다. 한편 국가주도의 DB구축을 통해 제작된, 한문 원전과 관련된 수많은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한다.³⁸⁾

그러나 이 많은 자료를 교수-학습자들이 직접 이용하기에는 자료의 검색과 활용이 쉽지 않다. 따라서 한문과 연구자들은 위의 사례를 참고하여 한문과 교육에 필요한 원전의 범위를 선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문과 콘텐츠의 범위 선정의 자료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

32) 최근 교육부는 「2016 정책연구과제 연구자 공모」(교육부, 2016.4.16. [별첨1] 과제 목록 및 내용, <http://www.moe.go.kr/web/100024/ko/board/view.do?bbsId=333&boardSeq=62886>)를 통해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 표기 방안 연구’의 제목으로 정책연구과제의 연구자를 공모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33) 허철(2013a) 참조.

34) 『고대한어』는 출간된 이후로 고교생의 고전문학 분야 원문을 참고하는 자료로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계속 증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35) 한국한문학연구회(1988a)

36) 한국한문학연구회(1988b)

37) 김여주(2007)에는 한문과 임용고사의 출제 범위에 대한 목록이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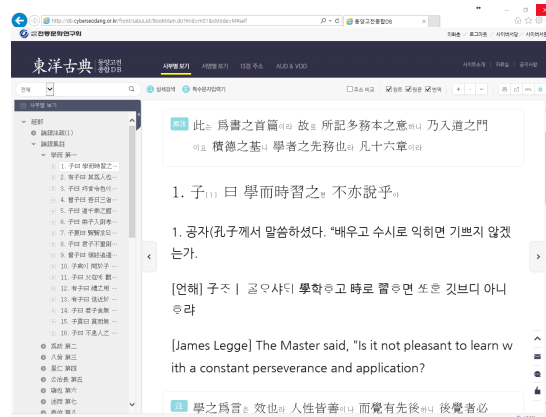
38) 한국고전번역원의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전통문화연구회의 ‘동양고전종합DB’(<http://db.juntong.or.kr>),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의 ‘유경편찬센터’(<http://ygc.skku.edu>) 등과 같이 한문과와 관련된 직접적인 원문 자료실로서 역할을 담당한다.

- 플립 러닝, 수준별 학습 등에 활용할 자료의 범위 제시
- 고등교육 또는 평생교육을 위한 한문과 교육 및 평가 범위 마련
- 기타 다양한 한문관련 평가의 출제 범위 제시

덧붙여, 선정된 원문에 통일된 懸吐 또는 標點를 선택적으로 제시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한문 원전은 특성상 多樣的한 해석이 제시될 수 있어 그에 따라 현토도 달라질 수 있다. 현재 중등 한문교과서는 현토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앞으로도 현토 방침을 폐기하지 않고 유지시킬 것을 前提한다면, 마땅히 교수·학습자 또는 콘텐츠 제작자를 위한 표준화된 현토를 제시해야 한다.

역사적으로도 국내에서는 조선시대 校書館에서 국가차원의 구결을 제시한 사례가 있다.³⁹⁾ 다만 현토는 국제화를 고려하여 표점을 중시하는 의견과 상충하는 등 異見이 있는 분야이므로 기준을 정하여 표준안, 허용안 등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⁴⁰⁾ 필요에 따라 현토를 없애고 표점을 제시하게 서비스할 수도 있다.

<그림 9> 동양고전종합DB의 현토 제시



끝으로, 미디어 자료의 제시가 필요하다. 한문교과는 과목의 특성상 교수·학습시 ‘原典 텍스트’ 외에도, 역사 유물의 ‘寫眞’, ‘歲時風俗 자료’, 중세의 동북아 및 한반도 ‘歷史地圖’, 역사적 인물들의 ‘肖像’, ‘필체’ 등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가 수록될 수 있다. 그러나 교사들이 교실 현장에서 이와 같은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료가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 경우 교사가 직접 On/Off-line을 망라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검토하여 학습자료로 만드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때 온라인 백과사전, 전문서적, 도판자료집 등 다양한 자료를 광범위하게 총동원해야 하는데 이는 상당히 번거롭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전공과 비전공의 범주를 넘나들며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교육용 콘텐츠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오류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⁴¹⁾ 따라서 한문과와 관련된 외부 콘텐츠들을 광범위하게 선정하고 이를 이러닝

39) 다양한 현토를 대비한 예로 전통문화연구회에서 출간한 『袖珍本 孟子』, 『袖珍本 論語·大學·中庸』 등이 있어 참고할 만하다.

40) 물론 위에 수록된 四書의 현토는 校正廳吐와 栗谷吐 만을 대비표로 懸吐하고 있어 현대어법에 현대어에 맞는 토가 필요하다.

41) 미술사를 전공한 황정수는 「tvN 미술 강의로 본 인문학 열풍의 그늘」이라는 Review를 통해 강사의 잘못을 지적하고

콘텐츠 망에 등재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⁴²⁾

지금까지 한문과 콘텐츠 센터가 담고 있어야 기본정보와 활용정보를 검토해보았다. 타 과목의 교수학습개발센터는 다음과 같은 콘텐츠를 담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항목은 그대로 담고 있어도 무방하리라 본다.

- 교실 수업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교과별 교수·학습자료
- 교과별 내용 교수법(pedagogical content knowledge)과 현장 수업 사례
- 국민공통기본교과 및 선택과목 평가 문항
- 장학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수업 컨설팅 지원 이러닝 프로그램
- 교사의 전문성 발달을 지원하는 각종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
-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필요한 교육과정 자료와 관련 보고서/연수자료
- 학교급별, 교과별 연구 동향 및 학회/교과모임 활동 안내

한문과 이러닝 콘텐츠 센터에서 우선 제시해야 할 기초정보 표준화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자형’, ‘대표훈음’, ‘필순’ 등 한자 정보
- ‘일상용어’, ‘학습용어’, ‘성어’ 등 한자어의 정보
- 교수학습 및 평가의 대상으로 삼는 한문원전의 정보
- 한문과 이러닝 콘텐츠 및 교수학습에 사용할 수 있는 시청각 미디어 정보
- 기타 한자데이터 활용 각종 소프트웨어

IV. 기대 역할 - 결론을 대신하여

지금까지 한문과 이러닝 콘텐츠 개발의 지원과 콘텐츠 공유의 공간으로서 한문과 이러닝 콘텐츠 센터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이런 공간이 마련된다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 콘텐츠 센터의 구체적 설계를 제시한 후 이용자 계층별로의 정확한 역할을 살피는 것이 순서이겠지만, 지면과 시간 관계상 이에서는 불가능하므로 다음과 같은 ‘기대역할’을 제시하는 것으로 본고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표 14> ‘한문과 이러닝 콘텐츠 센터(가칭)’의 역할

대상	기대역할
학생	사전 및 사전 이용 등 학습도구로서의 역할 과제물 제출시 자료검색 창고로서의 역할 거꾸로 학습 등의 사전학습 공간의 역할
교사	기존의 교수학습개발센터의 교사의 전문성 향상의 역할 수준별 학습, 거꾸로 학습을 위한 학습자료의 제시처

있다. 유명강사가 방송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강의하던 도중 장승업의 ‘群馬圖’를 잘못 인용한 사례로 이를 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링크 - <http://www.koreanart21.com/review/artWorldStory/view?id=5883&page=1>
42) 제공방식으로는 하이퍼텍스트(http)로 연결하여 제시하여도 무방할 수 있다.

대상	기대역할
	교실 수업에서 각종 수업자료 제시도구로서의 역할
전문 콘텐츠 제작자	교과서 및 디지털교과서 등 콘텐츠 제작시 표준DB 공급처 콘텐츠 제작시의 표준정보 검토기준

콘텐츠 센터의 역할은 위에 제시된 항목으로 한정되지는 않는다. 앞으로 한문과 연구자들의 콘텐츠 연구가 늘어나고 이를 표준화안으로 적극 받아들인다면 그 역할도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아직 콘텐츠 개발을 위한 논의선상에 본격적으로 올라오지 못했거나 심도 있게 논의 되지 못한 한문과 학습요소가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연구되기를 기대해본다.

참고자료

[CD 및 웹사이트]

교육부 - <http://www.moe.go.kr/>

대만 國家教育研究院, 「愛學網(i-Fun Learning)」 - <http://stv.moe.edu.tw/>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유경편찬센터」 - <http://ygc.skku.edu>

전통문화연구회, 「동양고전종합DB」 - <http://db.juntong.or.kr>

전통문화연구회, 「사이버서당」 - <http://www.cyberseodang.or.kr>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수학습개발센터」 - <http://www.classroom.re.kr/>

[관보 및 고시]

행정자치부(2015), 『관보』 제18629호(그2), 2015.11.3.(화)

교육부(2015),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17] 한문과 교육과정』, 교육부.

교육부(2016), 「2016년도 정책연구과제 연구자 공모」

[공수서 및 단행본]

王力(1999), 『古代漢語(校訂重排本)』 第一~四冊, 中華書局, 1999.

전광진(2011), 『초중교과 속뜻학습 국어사전』, LBH교육출판사, 2011.

한국한문학회(1988a), 『詩選』, 아세아문화사, 1988.

한국한문학회(1988b), 『散文選 上』, 아세아문화사, 1988.

(사)한국기업교육학회(2010), 『HDR용어사전』, (주)중앙경제, 2010.

[논문 및 연구보고서]

김영옥(2015),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표준 字形 제정에 관한 연구」, 『漢文教育研究』 44권, 189~226면.

김여주(2007), 「임용고사 출제 범위에 대한 개선안」, 『한문교육연구』 29권, 265~308면.

이화진 외(2002), 『KICE 교실 수업 개선 지원 시스템 개발 연구』 - KICE 교수-학습개발센터 웹사이트 구축을 중심으로 - 연구보고서 RRC 2002-23,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화진 외(2003), 『KICE 교수학습개발센터 콘텐츠 관리·운영』 연구보고 RRI 2003-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장호성(2005), 「한문 자료의 오류 문제 -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국어』, 『문학』 교과서를 중심으로」, 『漢文教育研究』 24권, 137~180면.

허철(2008), 「국어사전 등재 어휘를 통해 본 어휘 구성(構成) 분석(分析)과 한자(漢字)의 조어(造語)

- 능력 조사」, 『동방한문학』 37권, 289~333면.
- 허철(2010),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자의(字義)의 문제점과 대표자의(代表字義) 선정 방안」, 『동방한문학』, 43권, 255~282면.
- 허철(2013a), 「漢文教科 Digital 教科書 開發 背景과 必要性, 方向摸索」, 『漢文教育研究』 39권, 333~375면.
- 허철(2013b), 「漢文 학습 디지털 字典의 효용성과 DB설계에서 고려할 점에 대한 일견」, 『漢文教育研究』 41권, 213~260면.

융합교육[STEAM]을 위한 한문과 수업자료 개발과 교과서 적용 방안

이은민(문성중)

目次

- I. 서론
- II. STEAM 교육의 이해
 - 가. STEAM 교육의 구조
 - 나. STEAM 교육의 수업 유형
 - 다. STEAM 교육의 수업 설계
- III. STEAM 교육을 활용한 주몽신화 교수·학습 모형
- IV. STEAM 교육을 활용한 주몽신화 주제 중심형 수업의 실제
 - 가. 타머머신 신화기행, 별에서 온 주몽 전체 수업 흐름도
 - 나. 주몽신화 융합인재교육(STEAM) 주제 중심형 수업 지도안
 - 다. 주몽신화와 연계된 융합인재교육(STEAM) 과목 요소 추출
 - 라. 주몽신화 융합인재교육(STEAM) 수업 제작의도
 - 마. 융합인재교육(STEAM)을 활용한 주몽신화 차시별 지도안
 - 바. 융합인재교육(STEAM)을 활용한 주몽신화 차시별 교수·학습 과정
- V. STEAM 교육을 활용한 신화교육의 가치 및 교육적 효과의 기대
- VI. 결론 및 제언

I. 서론

『주역』 「계사전(繫辭傳)」에 나오는 “궁하면 변하리라. 변하면 통하리라. 통하면 영원하리라(窮即變 變即通 通即久)”라는 성현(聖賢)의 말씀을 떠올리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 교사로서 내가 과연 얼마나 현 세상과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교육하고 있는지 자문해 본다. “오늘날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은 누구일까?” 인재상은 영원하지 않다. 인재상은 항상 시대와 문화와 지역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므로 바뀌는 인재상에 따라서 교육도 역시 달라져야 한다.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오든지 그 미래에 따라서 인재상은 바뀔 것이고 교수·학습 방법도 변화될 것이다. 이와 맥을 같이하여 우리의 교육도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수차례 교육과정을 개편하면서 변모를 시도해 오고 있다. 그럴 때마다 교과서의 내용도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선정되어지는 교육적 내용들로 잘 집약시켜 구성되었고 구성된 교과서 내용들을 시대적 흐름에 맞은 교수·학습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교육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급변하게 요동치는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교육 현장에서 인문학 교과(국어, 한문)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로서 내가 간과하지 말고 점유할 수 있는 좌표점을 다시 설정해보는 것이 앞으로 교직생활을 해 나가는 데에 교사로서의 사명감을 더욱 고취시킬 수 있는 유의미(有意味)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음 표와 같이 교과 분류 기준을 살펴보면 고전 교과인 한문과 인간의 예술(인문학)을 다루고 있는 문학교과는 예체능과 같이 덕성과 감성을 길러내는 인성교과라는 점이다.

교과 분류 기준	관련 교과
도구교과	국어, 영어(외국어), 수학
내용교과	사회, 과학
인성교과	문학, 한문, 윤리, 음악, 미술, 체육

<표 1>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분류 기준 표

그렇다면 인문학적 내용과 소양을 다루고 있는 한문 및 문학 교과를 해당 교과의 틀 안에서만 구분지어 교육하지 말고 다원적 접근으로 관련 교과와 부합할 수 있는 다른 교과들을 함께 접목하여 입체적 통합 수업을 시도하자. 갈수록 EQ(emotional quotient)를 강조하고 중시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인문학 교과에 ‘노래, 그림, 연극, 영상’과 같은 예술적 매체들을 적극 활용하여 인문학 교육에 예술의 옷을 입혀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력의 날개를 달자. 더불어 과학, 수학, 기술, 공학이 융합된 STEM의 과학적, 실증적 이론으로 인문학의 이론에 접근하여 논리적 지성, IQ(intelligence quotient)를 더욱 체계화시켜, 확장적 사고, 종합적 사고, 창의적 사고를 신장시키자. 멀티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현재 이루어져야 할 교육도 다원적 담론과 다원적 접근을 해야 하므로 교과의 구분 짓기가 아닌 조화되는 교과끼리 함께 어울려 통합으로 동맹하는 교육의 재구성이 절대적으로 요구 된다.¹⁾

문학은 예술의 하나다. 예술은 현전(現前)이다. 다시 말해 지금의 것이다. 문학은 시간적 공간적 이동이 가능하므로 현전화(現前化)를 통해 재현할 수 있다. 현전화는 과거의 것을 현재의 시점에서 재가공하여 실현하는 것이다. 이는 과거의 현상이 이동해 와서 보여 지는 것이 아니라 보고 있는 현재의 사람이 과거로 돌아가 현전화(現前化)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학생들에게 인문학을 현대 연구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다중적 접근으로 과감한 통합교과적인 수업과 수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학문적 통합을 시도할 수 있는 교수 · 학습 방법으로 융합인재교육(STEAM)이 매우 최적화된 지도 방법이다.

현재 학교현장에서 교육하고 있는 한문 교과와 고전문학은 지금의 학생들에게 무한한 상상력과 잠재적 창의력을 샘솟게 하는 학문의 보고(寶庫)이자 개인의 인성을 함양하고 인생의 참된 길을 안내하는 등대와 같은 고마운 교과가 아닌 고전(苦戰)과 고행(苦行)을 감내해야하는 교과로 자리하고 있는 비참한 현실과 함께하고 있다. 더욱이 갈수록 고전문학 작품 수록도 감소 추세에 있고 한문교과의 수업 시간 단축 등 이러한 악조건을 물리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은 ‘STEAM 교육’으로서의 ‘융합적 현전화(現前

1) 이은민, 「한문교육, 예술의 옷을 입다. 고전의 飛上 교육적 현전화, 현실적 세계화」, 『제15호 광주교육연구, 광주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2015, 108~109쪽.

화)의 재구성이다. 이렇듯 새로운 교육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

고전문학의 훌륭한 가치와 매력은 비개연성을 가진 서사구조의 설화와 소설 작품들이 풍성하고, 노 래로 가창된 멋스러운 시가문학 작품들 또한 다양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일무이(唯一無二)한 우리의 고전 교과 및 고전문학이 STEAM 교육으로 짜임새 있게 재가공 된다면 ‘교육적으로는 현전화가, 원 활히 이루어 질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고전문학의 세계화’가 실제 현실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전문 학이 우리 공동체의 문학과 문화뿐만 아니라 인류 번영 및 인류 문화와도 함께 공존공영(共存共榮)하 여 고전문학의 한류(韓流)로 찬란하게 비상(飛上)할 수 있기를 바래본다.

첫 술에 배부르랴? STEAM 교육을 활용한 현전화 교수 · 학습 방법으로 연구할 작품은 비개연성을 가진 서사구조의 원형을 이루고 있는 건국신화 중 고구려의 건국 신화이자 영웅 신화의 효시인 주몽신 화를 STEAM 수업의 유형과 수업 설계를 기반으로 입체적 교수 · 학습 모형을 제시하고 우리의 건국 신화 프로젝트 수업안을 실제 구성하여 우리 고전문학 교육이 활기차게 공존공영(共存共榮)할 수 있는 활로를 찾고 신화교육의 가치와 교육적 효과를 모색하고자 한다.²⁾

II. STEAM 교육의 이해

STEM 교육을 주창한 Sanders는 21C 미국교육의 의제인 과학, 기술, 공학, 수학에 관한 교양 시민이 되 기 위한 요구에 대응하고 미래의 고기능 전문 근로자의 육성이 미래의 성장, 생산성, 경쟁력 향상을 위 한 중요한 열쇠가 되므로 STEM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21C 미국의 미래에 필요한 과학인재를 육 성할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미국의 STEM 교육은 미국 교육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후 Sanders에게 지도받은 Yakman에 의해 STEAM 통합 교육이 2007년 발표되었는데 기존의 STEM 교육에 인 간의 정서적 발달 및 iPhone의 기적과 같은 공학적 우수함에 예술적 창의성을 강조한 ‘예술’의 요소를 포함하여 STEAM 통합 교육 개념을 만들었다. 이러한 미국교육의 흐름을 받아들인 우리나라는 교육과 학기술부가 2010년 12월 17일 청와대 2011년 업무계획보고에서 창의적 융합인재와 양성을 위한 초 · 중등 STEAM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발표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미국과는 차별화된 한국형 STEAM 교육 의 연구와 성과를 가지고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다.³⁾

미국형 STEM과 STEAM의 교육 목적과, 한국형 STEAM(융합인재교육)의 교육 목적은 차이가 있는데 아래 <표 2>과 같이 정리하면서 STEAM 교육의 이해를 갈무리하겠다. 본 연구는 한국형 STEAM 교육 중심으로 STEAM의 구조와 수업의 유형 및 설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2) 이은민, 「융합인재교육[STEAM]을 활용한 기록신화의 현전화(現前化)지도방안 모색」, 국어교육학회 제59회 전국학술대회, 고려대학교, 2015. 8. 29.

3) 김민철, 「“미국의 STEM 교육 정책과 한국의 STEAM 교육 정책의 비교”, 전남대학교 교육학석사학위논문, 2013, 8~11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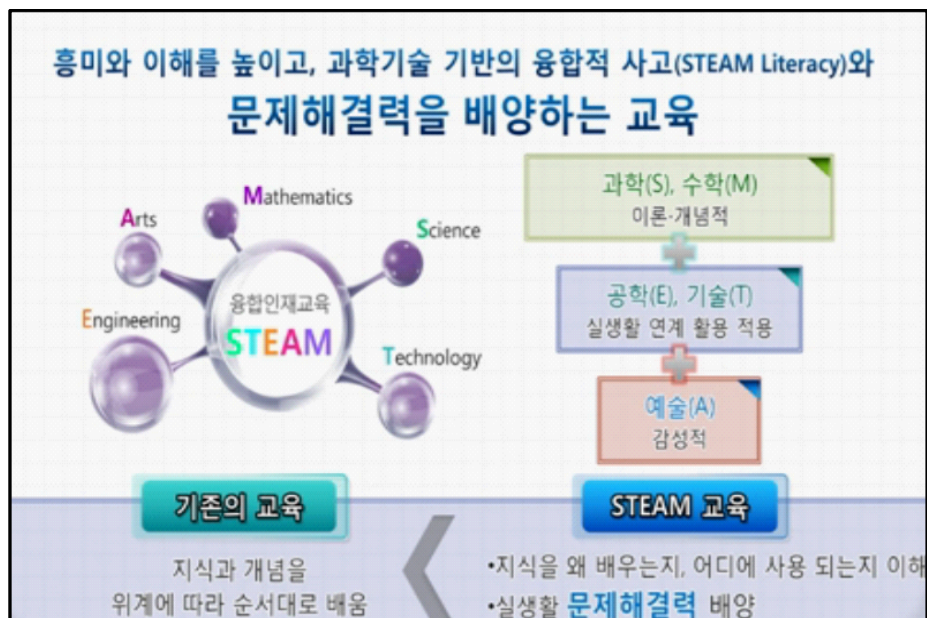
미국 STEAM 교육 이해		한국 STEAM 교육 이해
STEM	STEA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 통합 교육	STEM + Art 무미건조한 STEM에 흥미를 유발 하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Art(예 술)를 접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EAM 교육과정 재구조화 · 교원 역량 강화 · 미래형 수업모델 및 교실 · 체험, 탐구, 활용 중심의 과학기술 교육
목적 : 과학기술에 필요한 과학인재 육성		목적 : 미래를 선도할 폭넓은 융합인재 육 성

<표 2> 미국형 STEAM 교육과 한국형 STEAM 교육의 이해 [KAIST
첨단과학교사연수센터, 2014]

가. STEAM 교육의 구조

STEAM 교육을 우리말로 해석하면 융합인재교육이다. 융합은 화학적으로 진짜로 합친다는 뜻으로 융합(融合)의 어원을 살펴보면 다리 셋 달린 술 모양의 술 렉(藜)자에 벌레 (蟲: 성<省>音)자가 합쳐진 형성자로서, 끓이면 술에서 벌레가 기어 나오듯이 증기가 피어오르는 모양에서 ‘통하다, 녹다’의 뜻을 가진다. 그 모양을 형상화해서 융(融)자가 된 것으로 원래 술 렉(藜)자에 벌레 (蟲: 성<省>音)자의 형체가 하나가 되면서 전혀 새로운 것이 되는 것이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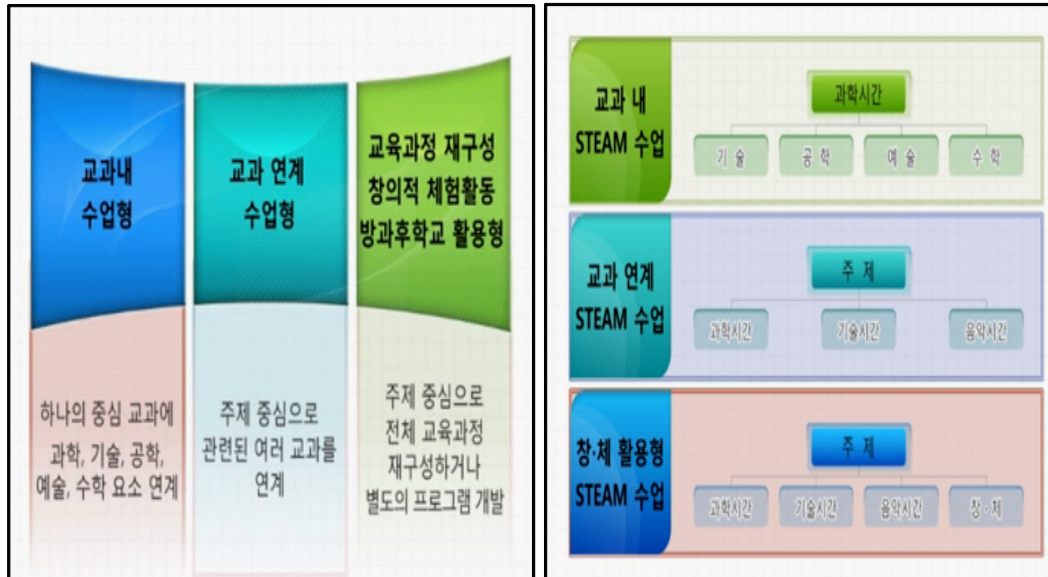
현재 한국형 STEAM 교육의 구조와 수업의 유형 및 STEAM 교육의 수업 설계를 살펴보면 <표 3>과 <표 4>와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3> STEAM 교육의 구조 [KAIST 첨단과학교사연수센터, 2014]

4) 김진수, 『STEAM 교육론』, 양서원. 2012, 29쪽.

나. STEAM 교육의 수업 유형



<표 4> STEAM 교육의 수업 유형 [KAIST 첨단과학교사연수센터, 2014]

다. STEAM 교육의 수업 설계

단계	내용	STEAM 교육의 수업 설계 절차
분석	교육과정 및 내용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업의 목표를 진술하고, 해당하는 학습결과와 유형을 확인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업목표가 지식이나 기술의 적용능력, 문제해결능력, 비판적 사고력 및 추론 능력, 협동능력, 자기주도학습능력 향상에 해당하는가? 세부 학습목표를 기술하고, 핵심적인 학습내용 목차를 작성한다. 학습내용과 연관된 사회적 이슈, 사례, 자료를 수집한다. 학습내용분야 실제 전문가의 전형적인 문제해결활동 시 수행되는 사고나 특성을 확인한다.
	학습자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자의 일반적 특성 학습자의 내용 관련 흥미와 선수지식 수준 자기주도학습능력과 협력학습능력의 수준 사전 경험(융합교육/문제기반학습) 시간과 노력
	학습목표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수업/교사)가 달성하려고 하는 교육목표는 무엇인가?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학습경험이 필요한가? 이러한 학습경험은 어떠한 교육내용과 교수·학습 활동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가? 교육목표의 달성여부는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가?

단계	내용	STEAM 교육의 수업 설계 절차
설계	STEAM 주제 설계 수업활동유형 계획 STEAM 수업계획안 작성하기 학습자 평가도구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주도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학생이 수업의 전 과정을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설계되었는가? ② 개념을 교사가 가르치지 않고 활동을 통해 학생이 깨우치도록 설계되었는가? ✔ 도구활용능력 : 다양한 도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가?(ICT, 토론 등) ✔ 협업 능력 : 소통을 통하여 동료 및 교사와의 협력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가? ✔ 창의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프로그램에 학생이 자신의 아이디어와 발상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가? ② 프로그램의 결과물이 모듈별 또는 개인별로 다르게 산출되도록 설계되었는가?
개발	교수 · 학습계획서 학습자용 수업자료 교수자용 수업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EAM 유형 : 교과내 수업형, 교과연계 수업형, 창의적 체험 활동형 ✔ 관련교과 : 교육과정을 통해 통합할 내용 요소 기록 ✔ 학습자 분석 : 내용요소, 선수지식, 선수 경험 ✔ 수업목표 : 창의력, 문제해결능력, 융합적사고, 자기주도적학습능력, 협동학습 능력, 도구활용능력, 교과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목표 제시 ✔ 수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업 주제 선정 → 주제를 구체화 한 차시별 소주제 선정 ✔ 수업계획안 : 차시별 소주제 선정시 STEAM 수업목표 제시, 교수학습 활동 전개
실행	STEAM프로그램 수업 적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에게 부여되었던 학습의 주도권이 학생에게로 옮겨감 ✔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동의 프로젝트 중심 ✔ 학생들의 목소리, 관심, 경험과 지식에 가치와 관심을 부여함 ✔ 학생들이 배우는 과제가 고립된 지식이 아니라 학생들의 현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식과 기술임 ✔ 학생들에게 깊이 있는 사고와 탐색을 반드시 요구하고요, 사고와 탐색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결과물 생성 ✔ 과정중심적이고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 평가
평가	평가실시안 (학생평가, 수업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평가, 동료평가, 성찰일기, 산출물, 포트폴리오 평가 실시를 위한 평가 항목 개발

<표 5> STEAM 교육의 수업 설계 [KAIST 첨단과학교사연수센터, 2014]

III. STEAM 교육을 활용한 건국신화 교수학습 모형

중심 교과(내용) - 연계 유형	프로그램 명칭	특 징
	A-STE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 교사가 예술 수업에 적용 ■ 예술(A) 과목은 미술, 음악, 체육, 역사, 국어, 사회 등

<표 6> 교과별 STEAM 유형 중 “예술 교과 중심” [김진수 STEAM 교육론, 2012]

IV. STEAM 교육을 활용한 주몽신화 주제 중심형 수업의 실제

가. 타임머신 신화기행, 별에서 온 주몽 전체 수업 흐름도



주몽신화 LED별자리제작 활동 동영상 QR코드



주몽신화 완성 작품 동영상 QR코드

1.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타임머신 신화기행, 주몽신화 STEAM 주제 중심형 수업을 통해 우리 건국신화의 중요성과 가치를 깨달아 우리의 민족성과 자긍심을 고취시킨다. 더불어 고전문학의 부정적인 거리감을 줄이고 무한한 상상력과 잠재적 창의력을 샘솟게 하는 학문의 보고로 재인식할 수 있고자 하였다.
2. STEAM 요소와 수업의 흐름도	<div> <div> 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도 12궁 별자리를 활용하여 자기 별자리 탐색하기 * 선조들의 천문관측기인 청성대의 과학적 원리 탐색하기 <p>① 황도12궁활용 내 별자리 탐색 ② 청성대의 과학적 원리 탐색</p> </div> <div> T <p>LED 회로 연결하여 자기 별자리 제작하기</p> <p>나의 별님~ 소원바라기</p> </div> <div> 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생년월일(四柱)과 관련된 나만의 별자리 설계하기 * 청성대의 제작 원리 설계 후 나만의 청성대 제작하기 <p>① 자신의 별자리 설계 ② 나만의 청성대 제작</p> </div> <div>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몽 종류도 부채 디자인 하기 * 주몽 신화 표어 및 나의 소원 글짓기 <p>주몽 종류도 부채 제작</p> </div> <div> 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구려인이 생각하는 내세관을 그래프로 도식화하기->반 계네프 Liminal Zone * 주몽 인생 그래프로 표현하기 <p>고구려인의 내세관-圓融通徹 주몽 인생 그래프 표현</p> </div> </div>

5) 예술 교사란 순수 예술 교과 담당을 하는 교사뿐만 아니라 인문학을 하는 국어, 사회, 도덕, 역사, 지리 등과 관련된 교사도 포함된다.

3. STEAM 학습 준거 틀	
창의적 설계	비개연성의 서사구조를 갖추고 있는 주몽신화를 통해 영웅 신화의 전개 구조를 이해하고 주몽신화를 천문학과 연계하여 주몽과 관련 인물들의 별자리를 탐색하고 고구려 제천행사인 '동맹제'와 천문학적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더불어 고구려인의 천문과 신화의 세계관을 반영하는 활동으로 나의 별자리를 탐색하고 LED를 활용한 나의 별자리를 직접 제작한다.
상황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웅신화로 잘 알려진 고구려 시조인 주몽 신화는 사실(事實)일까? 사실(寫實)일까? 주몽 신화 속 인물들의 별자리 탐색과 제천행사의 연결고리는 무엇이며 고구려인들에게 하늘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 한국인들과 고대 고구려인들의 민족적 유전인자는 무엇인가?
감성적 체험	고구려인들에게 하늘의 의미는 매우 흥미롭다. 그들은 하늘과 땅, 생과 死는 다르지 않다. 두 세계는 같은 세계이고 연속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며 고구려인들에게 하늘은 가까운 존재이자 그 속에서 영원히 살고자하는 마음이 강함을 알 수 있었다. 하늘의 자부심이 매우 강하고 하늘과 천문은 매우 친숙한 대상 이었다. 하늘을 섬기며 동경하는 고구려인들의 생활을 본받아 나의 별자리를 탐색하고 나만의 별자리를 직접 제작하여 자신이 희망하는 소원과 앞으로 자신의 비전을 되새겨 보며 자긍심과 자신감을 갖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4. STEAM 수업 후 달라진 점	
<p>주몽신화를 관련 내용과 부합하는 다양한 교과를 접목하여 수업을 하니 건국신화 및 영웅신화의 개념 및 가치관을 정확히 정립할 수 있었고 학생들이 보다 흥미롭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였다. 또한 학생들에게 고전문학이 매우 가치있고 매력적인 학문임을 재인식할 수 있었다.</p> <p>STEAM 주제 중심형 수업을 통해 확산적 사고, 종합적 사고, 창의적 사고, 더 나아가 인간교육(인성 교육)의 성취까지도 이룰 수 있었다.</p>	

나. 주몽신화 융합인재교육(STEAM) 주제 중심형 수업 지도안

타임머신 신화기행, ★별★에서 온 朱蒙

분반 & 조 : 문성중학교 / 전반(1반~4반), 후반(5반~8반)				
개 발 자 : 이은민(문성중학교)				
주 제 명		타임머신 신화기행, ★별★에서 온 朱蒙		
수업 목표		비개연성의 서사구조를 갖추고 있는 주몽신화를 통해 영웅 신화의 전개 구조를 이해하고 주몽신화를 천문학과 연계하여 주몽과 관련 인물들의 별자리를 탐색할 수 있으며, 우리 고유의 토속신앙 속 고구려 제천행사인 '동맹(東盟)'과 천문학적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고구려인의 천문과 신화의 세계를 반영하는 활동으로 나의 별자리를 탐색하고 직접 제작할 수 있다.		
적용 권장 학년		중학교 1학년(자유학기제) · 고등학교 1학년(문학 시간)		
총 수업시수		8차시		
적용 모형		주제중심 수업형		
차시	소주제	주요 내용		관련 교과
1 ~ 2	고구려의 시조, 영웅 '고주몽'	도입	영웅 신화로 잘 알려진 고구려 시조인 주몽 신화는 사실(事實)일까? 사실(寫實)일까? 더불어 주몽 신화 속 인물들의 별자리 탐색과 제천행사의 연결고리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	A S M

	그를 알고 싶다.	전개	활동 서사 구조(틀)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몽의 혈통을 중심으로 한 주몽 인물 관계도를 알아보고 주몽과 관련 인물들의 별자리를 '한국 고유의 별자리 28宿로 찾아보기.	
		정리	주몽의 인물관계와 별자리를 마인드맵으로 정리하기.	
3 ~ 4	동맹(東盟)과 주몽신화 풍류도 부채 만들기	도입	고구려인들에게 하늘 '天' 은 어떤 의미이고, 그들이 소원을 기원하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A T
		전개	활동1. 우리 고유 신앙은 무엇이며 고구려 제천행사는 어떻게 진행 되었는지 탐색하기. 활동2. 주몽신화 속 이야기를 그림과 표어로 제작하는 '주몽 풍류도' 부채 만들기.	
		정리	주몽 풍류도 작품 발표 및 감상평하기. (동료평가-루브릭 활용)	
5 ~ 6	선조들의 천문관측 코드 '첨성대' 탐험 "나만의 첨성대" 제작하기	도입	첨성대에 관한 동영상 시청하고 첨성대의 과학적인 구조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	S T
		전개	첨성대의 과학적인 구조를 이해하고 나만의 첨성대를 설계한 후 직접 제작하기.	
		정리	나만의 첨성대에 대한 내용 발표하기.	
7 ~ 8	LED를 활용한 내 별자리 모형제작 '나의 별님~ 나의 소원 바라기'	도입	황도 12궁의 별자리 이해하기.	S T A
		전개	활동1. 황도12궁을 탐색하여 나만의 별자리 만들기. 활동2. 나만의 별자리를 만든 후 나의 소원 바라기.	
		정리	별자리와 나만의 소원에 대한 발표 및 감상평하기. (동료평가-루브릭 활용)	

다. 주몽신화와 연계된 융합인재교육(STEAM) 과목 요소 추출

: S, T, E, A, M 각각과 관련되는 학습요소

과목	학습요소	학교 교육과정
○ S	과학적 방법으로 황도 12궁 별자리 탐색하기.	중 과학 3학년 : VII. 별의 성질
○ T	LED 회로 연결 이해하기.	중 기술 3학년 : III. 전기·전자의 이해
○ 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신의 생년월일과 관련된 나만의 별자리 설계하기. 첨성대의 제작 원리 설계 후 나만의 첨성대 제작하기. 	과학교육과정(3학년), 기술교육과정(3학년) 실제로 표현
○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의 별자리 디자인하기. 고구려 선사시대 역사 이해-광개토대왕릉비 금석문 내용 읽기 주몽 풍류도 부채 디자인하기. 주몽 신화 표어 및 나의 소원 글짓기. 	고 문학 1학년 : I. 주몽신화 중 역사 2학년 : II. 삼국의 성립 고 한문 : 광개토대왕릉비 금석문 고문(古文) 중 미술 1학년 : III. 전통 공예 중 국어 1학년 : I. 좋은 글을 쓰려면
○ M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몽 인생 그래프 그리기. 고구려인이 생각하는 내세관(圓融通徹)을 그래프로 도식화하기. 	중 수학 3학년 : VI. 함수 고 수학 1학년 : I. 집합

라. 주몽신화 융합인재교육(STEAM) 수업 제작의도

우리의 신화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 실체가 얼마든지 재해석될 수 있는 값진 보배이자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신화를 역사의 관점으로 보면 고대사를 연구하는 사료(史料)가 될 것이고 문학의 관점으로 보면 문예적 설화이다. 신화가 종교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토속 신앙인 무교(巫敎)가 되고 신화가 예술의 관점에서 보면 비개연성의 구조와 무한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서사 문학이 된다. 이처럼 다채로운 양식이 함께 공존하고 융합되어 있는 장르가 우리 한국 신화로서 그 실체를 다원적 접근으로 연구하는 교수 · 학습 방법으로 융합인재교육인 STEAM교육을 활용하여 고구려의 건국신화이자 영웅 신화의 효시인 ‘주몽신화’를 STEAM 수업의 유형과 수업 설계를 기반으로 입체적 교수 · 학습 모형을 제시하고 주몽신화에 부합되는 교과와 연계하여 총 8차시에 걸쳐 ‘타임머신 신화기행, 별에서 온 주몽’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타임머신 신화기행, 주몽신화’의 STEAM 주제 중심형 수업을 통해 우리 고전문학의 중요성과 가치를 깨달아 고전문학의 부정적인 거리감을 줄이고 무한한 상상력과 잠재적 창의력을 샘솟게 하는 학문의 보고로 재인식 할 수 있고자 하였다.

1~2차시는 우리 한국 신화를 접근하는 방법을 살펴보고 고구려 시조이자 영웅인 ‘고주몽’을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으로 기술과 공학의 첨단적 방법으로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우리 고유 별자리 28수를 탐색하여 주몽과 관련 인물들의 별자리를 직접 찾아보고 정리하여 마인드 맵으로 작성하는 활동을 통해 고주몽을 과학적 방법으로 접근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역사적 사료(광개토태왕릉비:금석문, 덕흥리고분벽화)를 통해 고구려의 시조이자 영웅인 주몽의 인물을 고증하고자 하였다.

3~4차시는 고구려 제천행사인 동맹(同盟)과 천문학적 상관관계를 스마트기기와 앱 어플 등을 활용하여 탐색하고 정리한 뒤 부채 안에 주몽신화 속 이야기를 그림과 표어로 제작하여 ‘주몽신화 풍류도’ 부채 만들기를 완성하여 실생활과 연계하는 산출물을 만들고 지성적 · 감성적 유희활동을 몸소 체험하는 활동을 통해 과정중심 배움중심 학습의 중요성과 성취감을 몸소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5~6차시는 선조들의 천문관측기인 첨성대의 원리와 제작 설계를 탐색하여 그 이치를 바르게 이해하고 직접 자신만의 첨성대 제작을 통하여 선인들의 과학적 지혜와 우수성을 몸소 체험하며 지성적 · 감성적 유희활동을 통해 우리 선조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하였다.

7~8차시는 황도 12궁을 활용하여 자신의 별자리를 직접 설계하고 제작하며 자신이 간절히 바라는 소원을 작성하는 시간을 마련하여 자신의 진로와 비전을 희망적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고 실생활과 연계하는 산출물을 협업하는 기회의 場을 갖도록 하였다.

우리의 신화에는 나를 나답게 우리를 우리답게 할 수 있는 문화적 원형이 존재하는데 그 근간을 바르게 인식하고 찾아가는 능력을 배양하여 우리 건국신화의 중요성과 참된 가치를 깨달아 우리의 민족성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한다. 더불어 우리 고전 및 고전문학 교육이 안팎으로 활기차게 공존공영(共存共榮)할 수 있는 활로를 찾고 우리나라 신화교육의 교육적 의의와 가치를 모색하는데 있다.

마. 융합인재교육(STEAM) 교육을 활용한 주몽신화 차시별 지도안

○ 1 ~ 2차시 : 자유학기제 ‘通通 고전문학 산책’ 블록타임 6교시, 7교시 운영

학습 과정	교수 · 학습 활동	학습자료 및 유의점	교사자료
도입 (20분)	<p>SA</p> <p>애니메이션 ‘주몽신화’의 장면을 보고 주몽과 관련된 키워드를 찾아 발표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몽신화 애니메이션 ‘주몽’ 동영상 시청 - 주몽과 관련된 키워드 발표하기 <p>역사저널 그날 88회 -주몽신화 영상을 통해 주몽의 탄생과 역사적 사료 (광개토대왕릉비)장면을 보고 신화는 무엇인지 발표하기.</p> <p>Co 고구려 건국 신화인 주몽신화는 사실(事實)일까? 사실(寫實)일까?</p> <p>tip 사실(事實)과 사실(寫實)의 개념을 설명한다. 고구려인들이 의식하는 내세관과 신화관 및 시조인 고주몽의 인식을 설명하고 다룬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몽신화 읽기 자료 · 스마트폰, 넷 북 · 동영상의 내용을 충분히 집중하여 시청하고 자신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pt, 동영상 · 학생전달 미션활동지
전개 (50분)	<p>SAM</p> <p>CD 고구려의 체천의식을 알아보고 주몽신화 별자리와의 상관관계 찾아 내기.</p> <p>tip 삼국지 동위전 고구려사 원문 제시 및 28宿 사진을 제시하며 간단하게 역사적 사료와 내용을 설명한다.</p> <p>CD 주몽신화 인물들의 관련 별자리들을 28宿에서 탐색하기</p> <p>tip 학생들에게 직접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주몽신화 인물들의 별자리를 검색하도록 한다.</p> <p>CD 주몽의 일생을 그래프로 구조화하기.</p> <p>tip 주몽신화는 영웅 서사 내용이므로 영웅신화의 이야기 구조 틀을 다룬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션활동지 · 색볼펜, 싸인펜, 색연필 등 미션 활동지에 필기할 문구류 	
정리 (20분)	<p>SA</p> <p>ET 주몽의 인물관계와 별자리를 마인드맵으로 작성하고 발표한다.</p> <p>tip 3-4차시 ‘주몽 풍류도’ 제작을 간단히 소개하여 학생들이 수업 내용의 준비 및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안내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용 활동지 	

STEAM 수업 관련 용어 설명	S : Science 과학, T : Technology 기술, E : Engineering 공학, A : Art 예술, M : Math 수학
	Co : Context 상황 제시,
	CD : Creative Design 창의적 설계, 주어진 상황에서 창의성, 효율성, 경제성, 심미성을 발현하여 최적의 방안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적인 과정
	ET : Emotional Touch 감성적 체험, 학습에 대한 긍정적 감정을 하는 것이다. 학습에 대한 흥미 자신감, 지적 만족감, 성취감 등을 느껴 학습에 대한 느끼고 성공의 경험을 동기유발, 욕구, 열정, 몰입의 의지가 생기고 개인적 의미를 발견하여 선순환적인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게 하는 모든 활동과 경험

○ 3 ~ 4차시 : 자유학기제 ‘通通 고전문학 산책’ 블록타임 6교시,7교시 운영

학습 과정	교수 · 학습 활동	학습자료 및 유의점	교사자료
도입 (20분)	<p>A</p> <p>기우제를 드리는 장면을 보고 학생들에게 무엇을 하는 행위인지를 발표하기.</p> <p>- 기우제 행사 동영상 시청</p> <p>- 동영상을 보고 해당 행사의 이유를 발표하기</p> <p>역사저널 그날 88회 -주몽신화 영상을 통해 동맹제의 의식 행사 영상을 보여 주고 고구려인들의 의식 세계가 무엇인지 발표하기.</p> <p>Co 고구려인에게 하늘 ‘天’ 은 어떤 의미이고, 그들이 소원을 기원하는 방법과 구체적 거행된 의식은 무엇이었을까?</p> <p>tip 고대에는 신화의 시대로 임금이 제천행사를 주관하고 고구려의 동맹제의실제 거행하였던 수혈(隧血)의 의미를 설명하고 다룬다.</p>	<p>· 기우제 동영상</p>	<p>· ppt, 동영상</p> <p>· 학생전달</p> <p>· 미션활동지</p> <p>· 학생전달</p> <p>평가루브릭</p>
전개 (50분)	<p>TA</p> <p>CD 우리 고유 신앙은 무엇이며 고구려 제천행사는 어떻게 진행 되었는지 탐색하기.</p> <p>tip 우리 고유 신앙인 무교의 다른 명칭인 ‘풍류도’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고,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우리 고유 신앙 및 고구려 제천 행사를 탐색 하고 정리하도록 한다.</p> <p>CD 주몽신화 전개 구조를 그림으로 표현하여 ‘주몽 풍류도’ 부채 제작하기.</p> <p>tip 학생들이 준비한 부채 위에 주몽 신화의 전개 이야기를 그림으로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분위기를 조성한다.</p>	<p>· 스마트폰, 넷 북</p> <p>· 미션활동지</p> <p>· 부채</p> <p>· 그림도구, 물감, 색연필, 크레파스, 싸인펜 등</p>	
정리 (20분)	<p>A</p> <p>ET ‘주몽 풍류도 부채’ 작품 발표 및 감상평하기.</p> <p>tip 주몽 풍류도 부채를 루브릭으로 평가하여 가장 독창적이고 아름답게 표현된 작품을 선정한다.(동료평가)</p> <p>tip 5-6차시 ‘첨성대 제작하기’를 간단히 소개하여 학생들이 수업 내용의 준비 및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안내한다.</p>	<p>· 평가 루브릭</p>	

STEAM 수업 관련 용어 설명	S : Science 과학, T : Technology 기술, E : Engineering 공학, A : Art 예술, M : Math 수학
	Co : Context 상황 제시,
	CD : Creative Design 창의적 설계, 주어진 상황에서 창의성, 효율성, 경제성, 심미성을 발현하여 최적의 방안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적인 과정
	ET : Emotional Touch 감성적 체험, 학습에 대한 긍정적 감정을 하는 것이다. 학습에 대한 흥미 자신감, 지적 만족감, 성취감 등을 느껴 학습에 대한 느끼고 성공의 경험을 동기유발, 욕구, 열정, 몰입의 의지가 생기고 개인적 의미를 발견하여 선순환적인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게 하는 모든 활동과 경험

○ 5 ~ 6차시 : 자유학기제 '通通 고전문학 산책' 블록타임 6교시,7교시 운영

학습 과정	교수 · 학습 활동	학습자료 및 유의점	교사자료
도입 (20분)	STA 침성대에 관한 동영상 시청하고 생각나누기 - 침성대에 관한 동영상 시청 https://www.youtube.com/watch?v=9Q9Ne7Kdga0 - 침성대에 관한 다양한 생각 발표하기 Co 내가 만약 침성대를 설계한다면? tip 동영상의 내용을 충분히 집중하여 시청하고 자신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 침성대 동영상	· ppt, 동영상 · 학생전달 미션활동지
전개 (50분)	STA CD 침성대에 관한 다양한 자료 나누기 - 침성대에 관한 다양한 역사적인 자료 나누기 - 침성대에 관한 다양한 과학적인 내용 공유하기 CD 나만의 침성대 만들기 - 동영상을 감상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과학적 사실을 정리하고 침성대 설계도 작성하기 CD 나만의 침성대 직접 제작하기 tip 정확하게 조립하고 특징 있게 개별적으로 디자인하고 제작한다.	· 미션활동지 · 침성대 만들기 설계도 · 침성대 키트	PPT
정리 (20분)	STA ET 자신이 제작한 침성대를 과학적 · 창의적으로 침성대의 구조를 발표한다. tip 7-8차시 '나의 별자리' 제작을 간단히 소개하여 학생들이 수업 내용의 준비 및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안내한다.	· 학생용 활동지	

STEAM 수업 관련
용어 설명

S : Science 과학, **T** : Technology 기술, **E** : Engineering 공학, **A** : Art 예술,
M : Math 수학

Co : Context 상황 제시,

CD : Creative Design 창의적 설계, 주어진 상황에서 창의성, 효율성, 경제성, 심미성을 발현하여 최적의 방안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적인 과정

ET : Emotional Touch 감성적 체험, 학습에 대한 긍정적 감정을 하는 것이다. 학습에 대한 흥미 자신감, 지적 만족감, 성취감 등을 느껴 학습에 대한 느끼고 성공의 경험을 동기유발, 욕구, 열정, 몰입의 의지가 생기고 개인적 의미를 발견하여 선순환적인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게 하는 모든 활동과 경험

○ 7 ~ 8차시 : 자유학기제 '通通 고전문학 산책' 블록타임 6교시,7교시 운영

학습과 정	교수 · 학습 활동	학습자료 및 유의점	교사자료
도입 (20분)	<p>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황도12궁 이해하기. 황도 12궁과 계절에 따른 별자리를 이해한다. <p>Co - 나의 별자리와 별자리점은 어떠한가?</p> <p>tip 황도 12궁에 해당하는 별자리와 자신의 생일을 연관시킬 수 있도록 지도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황도 12궁 동영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PPT, 동영상 학생전달 미션활동지
전개 (50분)	<p>S T A</p> <p>CD 황도12궁을 이용한 나의 별자리 탐색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션 활동지에 자신의 별자리를 직접 그려보고 자신의 소원을 기록한다. <p>CD 황도12궁을 이용한 나의 별자리 만들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ED와 우드락을 이용하여 직접 나의 별자리 제작한다. <p>CD 나의 별자리를 이용한 나의 소원 바라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의 별자리를 제작한 뒤 나의 소원을 작성한다. <p>tip 창의적, 예술적으로 디자인하고 제작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션활동지 학생도구자료 우드락, LED 및 기타자료 	PPT
정리 (20분)	<p>A</p> <p>ET 나의 별자리 만들고 나의 소원 바라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자신의 소원을 발표한다. <p>tip 나의 별자리를 루브릭으로 평가하여 가장 창의적 · 예술적으로 표현되고 나의 소원을 진실성 있게 발표한 작품을 우수작으로 선정한다.(동료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 루브릭 	

STEAM 수업 관련
용어 설명

S : Science 과학, **T** : Technology 기술, **E** : Engineering 공학, **A** : Art 예술,
M : Math 수학

Co : Context 상황 제시,

CD : Creative Design 창의적 설계, 주어진 상황에서 창의성, 효율성, 경제성, 심미성을 발현하여 최적의 방안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적인 과정

ET : Emotional Touch 감성적 체험, 학습에 대한 긍정적 감정을 하는 것이다. 학습에 대한 흥미 자신감, 지적 만족감, 성취감 등을 느껴 학습에 대한 느끼고 성공의 경험을 동기유발, 욕구, 열정, 몰입의 의지가 생기고 개인적 의미를 발견하여 선순환적인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게 하는 모든 활동과 경험

※ 평가 계획

평가 영역	평가 내용	평가방법
지식과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몽의 일대기를 그래프로 제시할 수 있는가? 주몽신화 속 인물들의 별자리를 찾을 수 있는가? 주몽의 인물관계와 전개 내용을 마인드맵으로 정리하고 바르게 설명할 수 있는가? 	수행평가
기능 및 기술 의사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의 고유 신앙이 무엇인지 바르게 말할 수 있는가? 고구려의 제천행사를 바르게 설명할 수 있는가? 주몽의 일대기를 그림으로 표현하여 부채를 창의적이고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가? 	동료평가/산출물 평가
창의성 예술성 활용성 인성·감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첨성대의 과학적 내용을 이용하여 제작 하였는가? 자신만의 창의적인 설계가 포함되어 있는가? 예술적인 아름다움이 있는가? 	수행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황도12궁을 이용하여 나만의 별자리를 바르게 제작 하였는가? 나만의 별자리를 창의성으로 제작 하였는가? 나의 별자리를 이용하여 나의 바램을 잘 표현하였는가? 	동료평가/산출물 평가

바. 융합인재교육(STEAM) 교육을 활용한 주몽신화 차시별 교수·학습 과정

😊 1차시 ~ 2차시 고구려의 시조, 영웅 '고주몽' 그를 알고 싶다.

○ 학습 주제 : 한국신화의 유기적 복합체를 이해하고 주몽신화 서사 구조를 파악하기

주몽신화의 사실(事實)과 사실(寫實)을 구별하여 신화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 고유의 별자리 28宿을 연계하여 주몽과 관련 인물들을 탐색해 보고 주몽 일대기의 서사 구조를 파악하여 마인드맵으로 정리한다.

○ 학습목표

학습문제 1. 한국신화의 유기적 복합체를 이해하고 신화의 다면성을 바르게 설명할 수 있다.

학습문제 2. 한국 고유의 별자리 28宿를 활용하여 신화 인물 속 별자리를 바르게 찾을 수 있다.

학습문제 3. 주몽신화의 영웅서사 구조 틀을 파악하고 그래프로 도식화 할 수 있다.

학습문제 4. 우리 고유의 별자리 28宿와 연계하여 주몽과 관련 인물들을 탐색하여 주몽 일대기의 구조를 파악하여 마인드맵을 작성할 수 있다.

○ 본시 내용

1. 도입(상황제시)

영웅 신화로 잘 알려진 고구려 시조인 주몽신화는 사실(事實)일까? 사실(寫實)일까? 그 진실을 분석하고 더불어 주몽 신화 속 인물들의 별자리 탐색과 제천행사의 연결고리는 무엇인지 탐색해 본다.

- 애니메이션 '주몽' 동영상 시청하고 주몽과 관련된 키워드 발표하기
- '역사저널 그날 88회 주몽신화' 영상을 통해 주몽의 탄생과 역사적 사료(광개토대왕비) 장면을 보고 신화란 무엇인지 발표하기
- 고구려 건국 신화인 주몽신화는 사실(事實)일까? 사실(寫實)일까?



♣ 1차시 학습과정

- ① 한국신화의 유기적 복합체를 이해하고 신화의 다면성을 파악하고 주몽신화의 사실(事實)과 사실(寫實)을 구별하여 파악하기.
- ② 한국 고유의 별자리 28宿를 활용하여 신화 인물 속 별자리 찾기.
- ③ 주몽의 인물관계와 별자리 28宿를 연계하여 마인드맵 작성하기.
- ④ 영웅신화인 주몽신화의 일대기를 그래프로 구조화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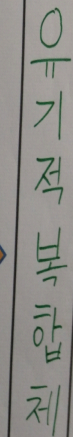
2. 전개(창의적 설계)

- 활동 1(협업) 한국신화의 유기적 복합체를 도식화하여 신화의 다면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주몽신화의 사실(事實)과 사실(寫實)을 구별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활동 2(협업) 한국 고유의 별자리 28宿 사진 및 관련 영상을 제시하고 주몽과 관련 인물들의 별자리를 28宿로 활용하여 스마트폰을 탐색하여 직접 찾을 수 있도록 지도한다.
- 활동 3(자기주도적학습) 영웅신화인 주몽의 일대기를 그래프로 구조화할 수 있도록 지도 한다.
- 활동 4(협업) 주몽과 관련 인물관계와 별자리를 마인드맵으로 작성하기.

3. 정리(감성적 체험)

-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하여 주몽의 인물관계와 별자리를 마인드맵 으로 표현하여 바르게 설명할 수 있다.
- 제작한 마인드맵을 서로 발표하며 상호 공유한다.
- 교사는 차시 수업을 예고한다.

[미션 1] 한국 신화의 다면성을 표현하고, 고구려인들의 내세관을 그래프로 도식화 하시오.

[illegible]

[미션 2] 고구려 시대를 알 수 있는 코드를 밝혀라. 1600년 전 고구려 밤하늘 여행
고구려의 신화의 세계 ‘덕흥리 고분벽화’의 별자리 28宿로 탐색하여 정리하시오.

<p>기전 4. 고구려 시대를 알 수 있는 코드를 밝혀라.</p> <p>1600전 고구려 밤하늘 여행 → 고구려의 신화의 세계 '덕흥리 고분벽화'의 별자리 28수로 탐색</p>	
	<p>북쪽 10월 중순 저녁 9시 덕흥리 고분벽화 천문도와 비교하여 사이에 있는 별자리</p>
	<p>여름 남쪽 하늘에 별자리. 문해 중심에서 자갈리 산광산과 신단 등 속담에 많이 사용</p>
	<p>북쪽 별자리를 천문도와 비교하여 가을이 되면 대항이 이별하게 해서 밤낮을 평등하게 나눈다는 뜻에서 별자리</p>
	<p>사자자리</p>
	<p>가을철 천문도에서 천문도에서 볼 수 있는 별자리. 밤은 별자리 12월 12일에 북극성을 중심으로 우물만 별자리</p>
	<p>별자리 천문도에서 볼 수 있는 항성 12월 12일에 별자리</p>
	<p>사자자리</p>



학생용 활동지

[미션 3] 주몽의 일대기를 그래프로 표현하시오.

1학년 조명: **팔방미인** 조원명: **박준, 박재성, 이충우, 이재정, 김성혁**

학생용 활동지 2015. 9. 1.(화) 1-2차시

미션 1. 주몽의 일대기 그래프로 표현하기

1. 주몽의 신아관 탄생
2. 주몽의 성장과 비열한 환경 (열약한 환경, 굶주림과 그늘의 아들에게 전해)
3. 과난과 여경, 죽을 고비
4. 극복, 투쟁에 승리
5. 고구려 건국, 건국시조가 됨

주몽신화의 영웅 일생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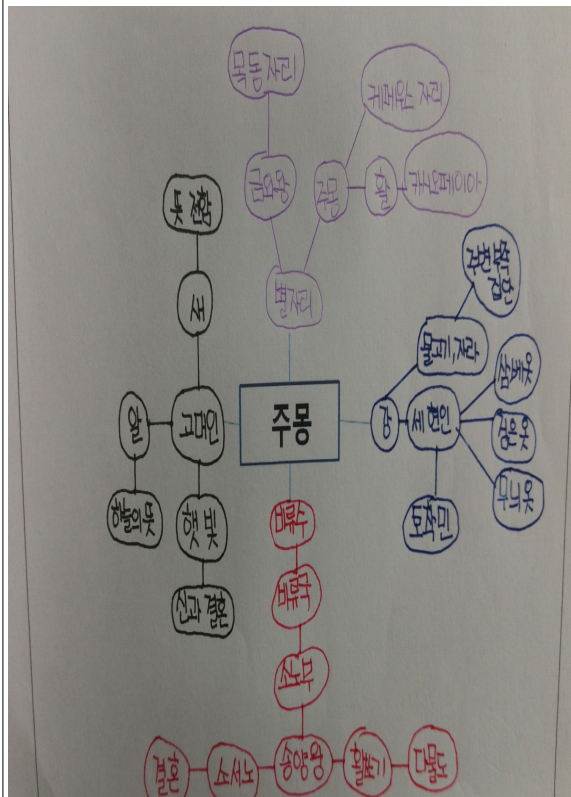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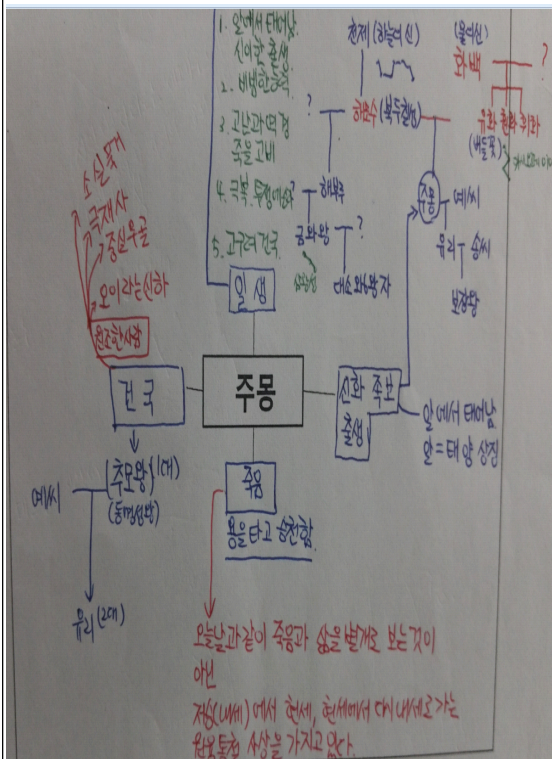
미션 1. 주몽의 일대기 그래프로 표현하기

1. 주몽의 신아관 탄생
2. 주몽의 성장과 비열한 환경 (열약한 환경, 굶주림과 그늘의 아들에게 전해)
3. 과난과 여경, 죽을 고비
4. 극복, 투쟁에 승리
5. 고구려 건국, 건국시조가 됨 (창조함)

주몽신화의 영웅 일생 구조

미션 2. 주몽신화 일대기를 주몽과 관련 인물 및 해당 별자리를 중심으로 마인드맵 제작

[미션 4] 주몽신화 일대기를 주몽과 관련 인물 및 해당 별자리를 중심으로 마인드맵을 작성하시오.



교사 지도자료



1차시 ~ 2차시

고구려의 시조, 영웅 '고주몽' 그를 알고 싶다.

<참고자료1> 주몽 : 활을 잘 쏘는 아이

고구려는 동명성왕이 세웠다. 시조인 동명성왕의 이름은 주몽이었다. 주몽은 부여에서 내려와 고구려를 세웠다(B.C. 37). 원래 부여에서 태어난 주몽은 탄생부터 남달랐다. 부여왕 해부루는 후계자로 삼을 아들이 없어 날마다 산천에 제사를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금빛 개구리 모양을 한 아이를 만나게 되고, 그 아이의 이름은 금개구리를 뜻하는 한자 '금와(金)'라 했다. 해부루가 죽은 뒤 금와가 왕이 되었다. 금와왕은 어느 날 사냥을 하던 중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게 된다. "저는 하백의 딸로, 유화라고 합니다. 하느님의 아들인 해모수를 만나 그만 유혹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허락도 없이 결혼했다가 이렇게 쫓겨났습니다." 그 말을 들은 금와왕은 불쌍한 유화를 대궐로 데려왔다. 얼마 뒤 유화는 큰 알을 낳았다. 그 알에서 나온 인물이 바로 주몽이다.



신작 4년 계해년 여름 4월에 주몽을 낳았는데 울음소리가 아주 크고 골격이 뛰어났다. 처음 날 때 왼쪽 겨드랑이에서 알 하나를 낳으니 크기가 닷 되 가량 되었다. 2000년 전 닷 대 가량의 알을 깨고 나와 고구려를 세운 주몽 알의 5되(5)는 10kg 가량이 된다.

-역사저널 그날 88회 '주몽신화' 중에서-



삼국유사



속종실록



세종실록지리지



동국대지도



주몽은 재능이 남달리 뛰어났다. 특히 활쏘기에 능하여 백발백중이었다. '주몽'이라는 이름은 활을 잘 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금와왕에게는 일곱 명의 아들이 있었다. 그런데 모두 주몽보다 능력이 뒤떨어졌다. "주몽은 알에서 태어나서 불길합니다. 더 강해지기 전에 죽여야 할 것입니다." 큰아들이 금와왕에게 아뢰었다. 생명에 위협을 느낀 주몽은 부하들을 이끌고 부여를 떠나 남쪽으로 내려갔다. 주몽은 압록강 유역의 졸본까지 내려와 이곳에 도읍을 정하고 고구려를 건국하였다.

고구려는 압록강의 지류인 동가강 유역의 졸본 지방에 자리 잡았다. 원래 이 지역에는 예맥¹⁾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살았다. 북쪽의 부여에서 주몽이 내려온 뒤 토착민과 타협하여 고구려를 건국했다. 졸본 지방은 큰 산과 깊은 계곡이 많은 산악지대로 평야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사람들은 산골짜기를 따라 흐르는 계곡물을 마시며 살았다. 그런데 비옥한 농토가 없었기 때문에 힘써 경작을 해도 먹을 것이 늘 부족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식량을 빼앗아 생활하는 약탈 경제가 발달했다. 활을 잘 쏘던 주몽의 영향으로 고구려 건국 세력은 무예를 숭상했고, 쉽게 정복국가 체제로 바뀔 수 있었다.

	<p>① 고구려의 건국역사</p> <p>[제1면]</p> <p>惟昔始祖鄒牟王之創基也。出自北夫餘，天帝之子，母河伯女郎。剖卵降世，生而有聖△△△△△△命，駕巡幸南下，路由夫餘奄利大水。王臨聿言曰，"我是皇天之子，母河伯女郎，鄒牟王。爲我連 浮龜" 應聲卽爲連 浮龜，然後造渡。於沸流谷忽本西，城山上而建都焉。不樂世位，天遣黃龍來下迎王。王於忽本東岡，△龍首昇天，顧命世子儒留王，以道興治。</p> <p>[제1면] 아, 옛날 시조 추모왕(주몽)께서 처음으로 (나라의) 기틀을 세우셨도다. (추모왕은) 북부여 출신이시니, 천제(天帝)의 아들이시고 어머니는 하백의 따님이시다. 알을 가르고 세상에 내려오시니 나면서부터 거룩한 △을 갖추셨도다. △△△△△△명(命), 수레를 타고 순행(巡幸)하며 남쪽으로 내려가시는데, 부여의 엄리대수(奄利大水)를 지나게 되었다. 왕께서 (대수)에 이르셔서 곧 "나는 하늘의 아들이고 어머니가 하백의 따님인, 추모왕이다. 나를 위하여 갈대를 잇고 거북을 띄워라"고 말씀하시었다. 그 말씀에 따라 바로 갈대가 이어지고 거북들이 떠오르자, 건너셨도다. 비류곡(沸流谷) 흘본(忽本) 서쪽에서 산 위에 성을 쌓고 도읍을 세우셨도다.</p> <p>세속의 지위를 즐겨하지 않으시자, 하늘이 황룡을 내려 보내 왕을 맞이하셨도다. 왕께서는 흘본 동쪽 언덕에서 용머리를 달고 하늘로 올라가시며, 세자 유류왕(儒留王)에게 도로써 잘 다스리라고 유언하셨도다.</p> <p>[출처] 광개토대왕릉비 원문과 번역문(고구려연구회 윤동희)</p>
	
<p>역사저널 그날 88회 주몽신화</p>	

<참고자료2> 28수

각 구역에는 여러 개의 별자리들이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을 그 구역에 있는 수(宿)라고 정하였다. 이러한 수는 전부 28개가 되므로 통칭 28수라고 부른다. 28수는 편의상 7개씩 묶어서 4개의 7사(舍)로 구별하여 각각 동·서·남·북을 상징하도록 하였는데, 이 4개의 7사에 속하는 별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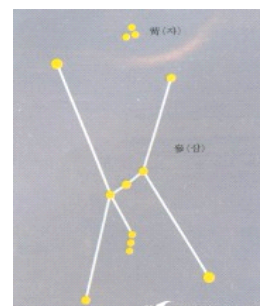
① 동방 7사 : 28수 중 춘분날 초저녁 동쪽 지평선 위로 떠오르는 각수(角宿 : 첫째 별자리의 별들)를 필두로 하여 시간이 경과되면 차례로 동쪽 지평선 위로 떠올라오는 항(亢)·저(氐)·방(房)·심(心)·미(尾)·기(箕) 등 7개의 수가 차지하는 성수(星宿)들을 말한다.

② 북방 7사 : 28수 중 하짓날 초저녁 동쪽 지평선 위로 떠오르는 두수(斗宿 : 여덟째 별자리의 별들)를 필두로 하여 시간이 경과되면 차례로 동쪽 지평선 위로 떠올라오는 우(牛)·여(女)·허(虛)·위(危)·실(室)·벽(壁) 등 7개의 수가 차지하는 성수들을 말한다.

③ 서방 7사 : 28수 중 추분날 초저녁 동쪽 지평선 위로 떠오르는 규수(奎宿 : 열다섯째 별자리의 별

들)를 필두로 하여 시간이 경과되면 차례로 동쪽 지평선 위로 떠올라오는 루(婁)·위(胃)·묘(昴)·필(畢)·자(觜)·삼(參) 등 7개의 수가 차지하는 성수들을 말한다.

④ 남방 7사 : 28수 중 동짓날 초저녁 동쪽 지평선 위로 떠오르는 정수(井宿 : 스물둘째 별자리의 별들)를 필두로 하여 시간이 경과되면 차례로 동쪽 지평선 위로 떠올라오는 귀(鬼)·유(柳)·성(星)·장(張)·익(翼)·진(軫) 등 7개의 수가 차지하는 성수들을 말한다. 이 28수의 유래는 분명하지 않으며, 왜 여러 가지 숫자 중에서 28이라는 숫자를 택했을 까에 대한 의문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1년의 12개월과도 다르고, 24절기와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에서는 아마도 달이 주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달의 운동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하기도 하는데,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케페니우스, 飛魚五星> 왜냐하면, 달이 운행하는 하늘인 백도(白道)는 황도(黃道)와는 약간 다르지만 거의 같은 하늘이라는 점과, 달이 백도를 따라 일주하는 데 약 27.32일의 항성주기(恒星週期)를 가지고 있어 28이라는 숫자에 가깝기 때문이다. 28수를 달의 운동과 연관 지어 생각한다면 달이 머무는 [宿] 하늘이 바로 그 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고대이나 지금이나 월령(月令)과 달이 위치한 수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점을 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수궁이 갈 만하다. 28개의 각 수에는 1개의 대표적인 별을 정해 놓고 있는데, 이와 같은 별을 수거성(宿距星)이라고 한다. 인접한 두 수거성 사이의 거리인 이각(離角)을 수도(宿度)라고 하며, 그 이각은 수마다 서로 같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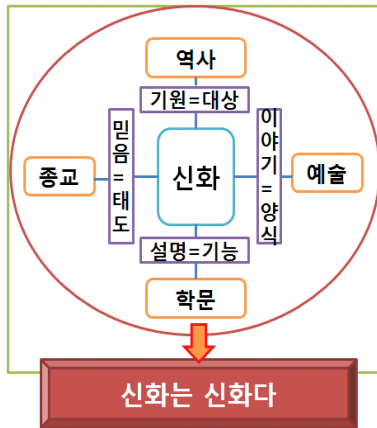
이것으로 28수가 서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만든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수 안에 속한 다른 별들과 수거성과의 거리는 입수도(入宿度)라 하고 각도로 표시한다. 남병길(南秉吉)이 지은 《성경 星鏡》이 간행된 1861년을 기준으로 한 28수표는 28수가 각각 하늘을 점유하고 있는 크기가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수마다 소속된 별의 숫자 또한 서로 다르다.

가장 작은 수는 단 2개의 별로 된 각·허실·벽의 4개가 있는가 하면, 가장 큰 수는 전부 22개의 별들로 구성된 익이다([표] 참조). 이 28개의 수들 중에는 서양의 별자리와 그 모양이 일치하는 것은 하나도 없으나, [그림] 과 같이 10개의 별로 구성되어 있는 삼과 3개의 별로 구성되어 있는 자를 합치면 서양의 오리온자리와 그 구성이 묘하게 잘 맞는다.



학생용 활동지 모범 답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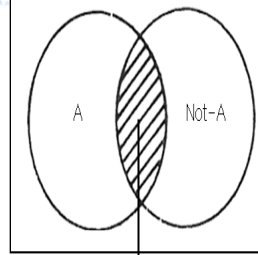
2. 신화의 다면성



유기적복합체

고구려인의 내세관 의미 : 원융통철(圓融通徹)
하늘과 땅, 生·死 두 세계는 같은 세계 연속의 세계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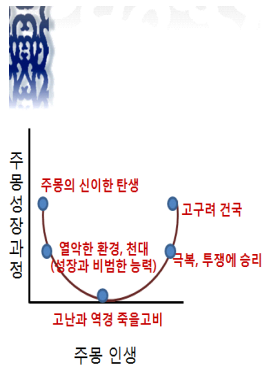
신화적 세계관 : 圓融通徹



A : 변화 이전의 세계
Not-A : 변화 이후의 세계
Liminal zone : 신성 영역 또는 의례행위의 장

반 게네프 Liminal Zone

주몽의 일대기 그래프로 표현



- 1 고귀한 혈통
- 2 비정상적 출생
- 3 어려서 비범한 능력
- 4 일찍 기아가 되거나 고난 시련
- 5 구출자 양육자 만나 살아남
- 6 다시 죽을 고비
- 7 투쟁에서 승리해 영광을 차지 (나라 건국, 시조가 됨)

영웅신화의 영웅 일생 구조

주몽의 인물관계도와 주몽 및 부모 별자리





○ 학습 주제

고구려인에게 하늘 ‘天’은 어떤 의미이고, 그들이 소원을 기원하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고구려 제천의식의 행사를 탐색한다. 더불어 주몽신화 속 이야기를 그림과 표어로 제작하는 ‘주몽 풍류도’ 부채를 만들어 감성적 체험을 가져본다.

○ 학습목표

우리 고유 신앙은 무엇이며 고구려 제천행사의 연결고리를 알아보고 ‘주몽 풍류도’ 부채 만들기를 통해 주몽신화의 서사 구조를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

학습문제 1. 고구려인에게 하늘 ‘天’은 어떤 의미일까?

학습문제 2. 우리 고유 신앙과 고구려 제천의식의 연결고리는 무엇일까?

학습문제 3. ‘주몽 풍류도’ 부채 만들기를 통해 주몽신화의 서사 구조를 그림으로 예술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 본시 내용과 활동 과정

1. 도입(상황제시)

고구려인에게 하늘의 의미는 무엇이고 선조들이 소원을 기원하는 방법이 무엇이었는지를 유추해 본다.

- 기우제 동영상 속 모습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 동영상을 보고 해당 행사의 이유는 무엇일까?



♣ 3차시~4차시 학습과정

① 우리 고유 신앙은 무엇이며 고구려 제천행사는 어떻게 진행 되었는지 탐색하기.

② 주몽신화 전개 구조를 그림으로 표현하여 ‘주몽풍류도’ 부채 제작하기.

③ 주몽 풍류도 작품 발표 및 감상평하기.



2. 전개(창의적 설계)

- 활동 1(협업) 풍류도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고, 학생들이 스마트폰과 넷북을 이용하여 우리 고유 신앙 및 고구려 제천행사를 탐색하고 정리하도록 지도한다.

- 활동 2(자기주도적학습) 학생들이 준비한 부채 위에 주몽 신화의 전개 이야기를 그림으로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3. 정리(감성적 체험)

- 주몽 풍류도 부채를 루브릭을 이용하여 동료평가를 실시하고 가장 독창적이고 아름답게 표현된 작품을 선정한다.

- 학생들의 작품을 수행평가로 반영한다.

- 교사는 차시 수업을 예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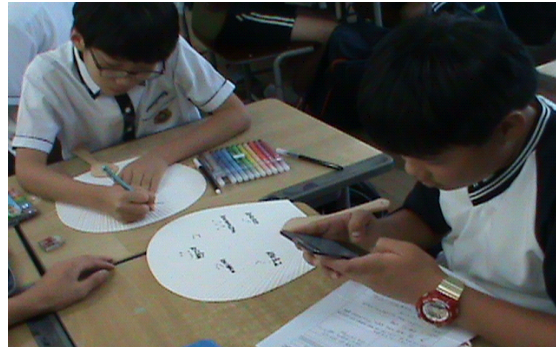
○ 준비물

- 부채, 물감, 색연필, 크레파스, 싸인펜, 붓, 물통 등 그림 도구, 미션활동지, 스마트 폰 등

○ 활동 방법 : 스마트 폰과 넷북, 컴퓨터 등의 기기로 협업 탐색활동



[미션1] 고구려인들에게 ‘天’은 어떤 의미이고 소원을 기원하는 방법을 탐색하여 정리하시오.



[미션2] 고구려 제천의식인 동맹제(東盟祭)를 조사하여 정리하시오.

미션 1. 우리 민족에게 하늘 ‘天’은 어떤 의미이고, 그들이 소원을 기원하는 방법을 탐색하여 정리하시오.

우리 민족이 하늘에 제사 지내는 풍습은 농경 문화에서부터 기인한다. 단군왕검이 세운 고신대부터 흉악 괴물을 기반으로 제사 지내던 고신대부터는 국가적인 제천의례가 거행됐다. 우리 민족은 삼국시대에부터 매년 1월 보름 국경대회를 열어 풍요 만물을 받고 만민에게서 하늘에 제사를 올려 국가민안을 기원하기도 했다. 이 제천의례를 보통 음력 1월 하순 경에는 부처의 법회, 고구려의 동맹제, 동이대천 등 제천의례로 이어져 내려왔다. 삼국시대에 고구려백제가 7 칸의 하늘과 천변에 제사 지내며, 단을 싸우고 천에 제사 지내는 법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토대 제천의례와 농경의례를 할 수 있다. 고구려들은 하늘에 여러 형상과 연하 고구려 인간세상이 연결되어져있는 사물을 갖게 되는데 이 사물의 관은 바로 동맹제다. 그들은 또한 하늘 달, 태양을 별과 천의 인간세상 연결이 되어있고 생각했다. 고구려 사람들은 보면 바람을 알기 힘들었다. 바람은 바람이 아니라 바람을 주재하는 하늘에서 풍광으로 보면 하늘에서 모든 천의 제사가 한 정경으로 되는 한의 세계가 사람이 준 하늘이 땅으로 흘러서 마른 흙이며 바람의 하늘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힘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을 우리로부터 하늘하는 바람이 하늘에서 연하로 생각했다. 이 제천의례가 바로 동맹제다. 동맹제라는 이름은 기원할 때 고구려에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구려에서는 매년 동맹제 국가를 할 때에 알 마다 하늘을 거행 제천의례가 풍년을 함께 나눈다. 이 동맹제 후에 천으로 제천의례가 천으로 제천은 사람이 보는 하늘로서 이 하늘이 천의 인간세상에서 우리와 같은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가을 풍년! 동맹제에 소원들이 풍년! 가을 풍년! 가을 풍년!

미션 2. 고구려 제천의식인 동맹제(東盟祭)를 조사하여 정리하시오.

동맹제는 대개 10월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 나라에 큰 모임을 가지는 것이다. 동맹은 하늘과 수에 게 제사를 지내 국가적 행사였다. 이것은 수확제로 또 한 번의 풍성한 수확에 감사하고 새 생명을 잉태함을 상징하는 일과 수신의 결합 의식을 통해 내린 풍물을 받으면 복제로 보기도 한다. 전향나 음을 받으면 먼저 일한게 대한 제사를 지냈다. 이어소에서 떨어진 곳에 있는 동굴에서 수천 불려 나어 내려 갔다. 많은 천변에 접하게 한 뒤 천으로 천변을 돌 비에 타워 양쪽을 통해 국내의 제사 장소로 옮겼다. 수신이 도둑으로 수에 대한 감사 제사를 올리고 천을 받고 있던 천을 받으면 하늘이 땅에 가득 바쳐 제이 잘을 맞는다. 수 수천은 수천에서 여인인데 이에 보인인 한쪽이 비쳐 양인이 고집하는 행동을 이루게 된다. 이런 제의의 진행과정을 주관하는 화 제사가 곧 고구려 왕이다. 왕은 인간을 관장하 비천을 받음과 천의 양쪽을 인간에게 천하는 신령제였던 것이다. 나이가 고구려 등 제천의식인 동맹제다.

[미션3] 주몽신화 속 이야기를 그림과 표어로 제작하여 ‘주몽 풍류도’ 부채 만들기



조 명	이 름	주몽 풍류도 부채 만들기 평가 루브릭		체계화, 검토, 실행			
영 역	평 가 기 준	최우수 (10점)	우수 (8점)	보통 (6점)	노력 (4점)	비고	
창의성 (50점)	주몽의 이야기 전개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가?						
	상상력을 발휘하여 인물들의 특징을 잘 표현 하였는가?						
	체계적인 구조성이 돋보이는가?						
	창의성이 돋보이는가?						
	보는 사람에게 이해를 주는가?						
점수 (50점)							
영 역	평 가 기 준	최우수 (10점)	우수 (8점)	보통 (6점)	노력 (4점)	비고	
예술성 (50점)	인물의 특성을 잘 묘사하였는가?						
	색의 표현이 조화로운가?						
	디자인의 구성이 개성이 있는가?						
	예술성이 돋보이는가?						
	보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가?						
점수 (50점)							
총점 (100점)							

교사지도자료



3차시 ~ 4차시

동맹(東盟)과 28宿 주몽신화 풍류도 그리기

<참고자료3> 고구려 제천행사 : 동맹(東盟)과 제천 의식

<p>11. STEAM 교육을 활용한 주몽신화 프로젝트 수업안</p> <p>내용 '동맹(東盟)'이라고도 한다. 동맹에 관한 기록은 <삼국지 三國志> <후한서 後漢書> 등에 처음 나타난다. <후한서>에서는 "10월로써 하늘에 제사하고 대회하니 이름하여 동맹이라 한다. 그 나라 동쪽에 대월이 있는데 수신이라 부르고, 역시 10월로써 맞아서 제사한다(以十月祭天大會 名曰東盟 其國東有大穴 號陰神 亦以十月迎而祭之)." 라고 기록하였다. <위지> 동이전(東夷傳) 고구려전도 대략 같은 내용의 기록이나 다만 "수신을 맞아서 나라 동쪽 높은 곳에 모시고 제사할 때 목수를 신좌에 모셨다(迎陰神 遷於國東上祭之 置木陰於神坐)." 라고 약간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수(陰)는 굴·구멍·대월신(大穴神) 등의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목수(木陰)는 목각(木刻)의 굴신상(窟神像)이라는 뜻이 된다. 한편, <주서 周書> (7세기)나 <북사 北史> (7세기)의 고구려전에도 "또 신묘 두 곳이 있으니, 하나는 부여신이라 하며 나무로 깎은 부인의 상을 만들었다. 하나는 등고신이라 부르니 이는 그 시조인 부여신의 아들이라 한다. 같이 베풀을 두고, 사람을 보내서 수호하는데 아마도 하백녀와 주몽을 말하는 것이리라(又有神廟二所 一曰夫餘神 刻木作婦人之象 一曰高神 云是其始祖 夫餘神之子 置置官司 遣人守護 蓋河伯女與朱蒙云)." 라고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고구려의 제천행사 : 동맹</p>		
<p>동맹의 수신유화부인을 모시고 나와 강가에서 제를 지냄</p>		
<p>삼국지 위치 동이전 기록에 나오는 동굴인 수협을 발견</p>	<p>신화를 찾아와서 동맹제</p> <p>1983년에 고구려시대 국동대월이 발견됐다.</p>	

<역사저널 그날 88회 주몽신화>

<참고자료4> 풍류도




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으니 일러 풍류라 한다. 가르침을 베풀은 근원은 선사에 상세하게 갖추어져 있다. 실로 3교를 포함한 것인데, 이로써 모든 사람을 교화한다. 즉 집에 들어가면 효도하고 나라에 나가면 충성하라는것은 노나라 공자의 뜻이요, 무위 자연에 처하라는 것과 말없이 실천함에 대한 가르침은 주나라 노자의 가르침이요, 모든 악행은 하지 말며 모든 선행을 다하라는 것은 인도의 석가모니의 가르침이다.

풍류도는 유교, 불교, 도교를 포함한 고대 한국의 독특한 사상체계

최치원의 난랑비서- 風流道

(1) 풍류를 닦던 신라의 청소년 심신수련 조직. 화랑도(花郎徒)·낭가(郎家)·국선도(國仙徒) 등 여러 이름으로 불렸다. 진흥왕대에 왕과 귀족의 자제로 조직된 이후 국가의 문·무(文武) 인재를 이에서 취했다. 그 기원은 민족 고유사상으로 불교·유교·도교 등의 가르침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유습은 고려이후에도 이어져 문화·예술 및 풍속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참고자료5> 주몽신화 속 서사구조와 영웅서사구조 상관관계

주몽신화 서사 구조	
	
오룡거를 타고 내려온 해모수와 물의 신 하백의 딸 유화를 만나 사랑을 나누다.	동부여 금와왕에게 의탁한 유화 홀로 임신하다.
	
알에서 태어난 '주몽' 기이한 탄생	주몽 : 활을 잘 쏘는 아이 비범한 능력
	 
힘난한 영웅의 길 : 동부여 왕과 왕자들은 주몽의 뛰어난 능력 시기, 죽음을 위협받는 주몽, 동부여를 탈출하는 주몽	나는 천제의 아들, 하백의 외손 주몽, 길을 열라 → 극복, 투쟁의 승리 남서쪽 졸본에 도착하여 후일 고구려 건국, 고구려 시조가 됨

(2) 세속의 욕심 경계를 벗어나 가무(歌舞)를 즐기는 길 평범한 사람과는 다른 초월적 능력, 요컨대 비범함을 구비한 영웅의 일대기를 그린 소설을 말한다.

영웅은 신화, 전설, 민담, 고대 서사시 등 다양한 서사 문학 속에서 자주 발견된다. 이들 서사 문학에서 영웅은 사회 집단의 대표자로서 자신이 소유한 비범함을 통해 세계와 대결하여 거기서 승리하는 신화적 인물이다. 신화의 체계는 제임스 조지 프레이저(James George Frazer)에 의하면 자연계를 설명하려는 원초적인 노력으로 정의된다. 그리고 에밀 뒤르켐(Émile Durkheim)은 신화를 개인이 집단에 귀속되도록 한 비유적인 가르침의 보고라고 말한다. 따라서 영웅은 이 같은 신화적 속성에 수반되는 초자연성과 비범한 능력을 통해 사회와 국가를 대표하는 성격을 갖추고 있다.

서구의 경우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오디세이》에서 발원하고 있는 영웅은, 조셉 캠벨에 따르면 ‘일상적 세계에서 초자연적인 경이의 세계로 모험을 떠나 엄청난 세력을 만나고 그것과 대결하여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어 동료와 사회 집단에 이익이 되는 힘을 얻어 귀환하는 존재’이다.

이 같은 영웅의 인물적 특성은 우리 소설의 경우 ‘일생의 유형’을 지니고 있다(조동일, 〈영웅의 일생, 그 문학사적 전개〉, 《동아문화》, 1971. 10). 영웅은 ① 고귀한 혈통을 지니고 있으며, ② 잉태와 출생

과정이 비정상적이다. ③ 그는 탁월한 능력을 소유하면서 탄생하며, ④ 어린 시절에 버려지거나 혹은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⑤ 이때 구출자나 양육자(혹은 조력자)의 도움으로 성장하며, ⑥ 자라서 새로운 위기를

당한다. ⑦ 그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자가 된다. 이 같은 영웅의 일생은 신화(예컨대 주몽 신화)에서부터 서사 무가(〈바리데기 공주〉가 대표적이다)로 전승되다가 소설 속의 유형적 서사 구조의 하나로 자리 잡는다고 할 수 있다. 조동일에 의하면 좁은 의미에서의 영웅 소설은 《홍길동전》에서 시작되어 《숙향전》, 《소대성전》, 《구운몽》, 《유충렬전》, 《조웅전》, 《장풍운전》 등 조선조 소설의 한 부류로 성립된 것을 가리키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일부 판소리계 소설과 신소설에까지 적용시킬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점은 영웅 소설이 후대의 소설에 암암리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말해 준다.

우리 문학에서의 영웅 소설 역시 그 원천이 신화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점은 예외일 수 없다. 신화적 영웅은 설화로 옮겨오면서 초자연성은 희석되지만 그의 비범성은 서사적 골격을 갖추게 된다. 이 같은 서사적 골격은 다시 작가들에 의해 소설 속의 영웅으로 재현되는 것이다. 조동일은 영웅 소설의 원형 한 가지를 신화에 기원을 둔 서사 무가 속에서 확인한 바 있다.



5차시 ~ 6차시

우리 선조들의 천문 코드 제작 나만의 '첨성대 만들기'

○ 학습 주제

고구려인에게 하늘은 매우 친숙하고 동경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천상의 세계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현실과 천상을 자연스럽게 공존하며 묘사되어 있는 덕흥리 고분벽화의 그림에서도 발견된다. 고구려인들의 내세관은 하늘과 땅 내세와 현세를 연장의 세계로 인식한 '원융통철(圓融通徹)'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고구려는 매우 천문학이 발전하였는데 이런 학문학적 계보가 신라의 '첨성대', 조선시대 권근의 '천상열차분야지도'으로 연결된다. 이번 차시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문화유산 중의 하나인 천체 관측기 첨성대를 직접 설계하고 조립하면서 첨성대의 과학적 구조와 원리를 알아보고 선조들이 자연의 섭리를 이해하며 발명한 과학적 우수성을 몸소 체험하는 시간을 가진다.



○ 학습목표

우리 관측기기인 첨성대의 유래를 통해 첨성대 설계도를 직접 제작해보고 첨성대의 과학적인 내용을 잘 이해하여 첨성대를 직접 조립할 수 있다.

학습문제 1. 첨성대의 유래를 바르게 표현할 수 있는가?

학습문제 2. 첨성대의 설계도를 잘 제작할 수 있는가?

학습문제 3. 첨성대의 과학적인 내용을 잘 이해하며 첨성대를 조립할 수 있는가?

○ 본시 내용과 활동 과정

1. 도입(상황제시)

첨성대에 관한 동영상을 시청하고 시청한 후 느낀점을 말하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한다.

- 자연의 섭리와 이치를 알고 첨성대를 발명한 우리 선조의 과학적 우수성은 무엇일까?
- 내가 만약 첨성대를 설계한다면 어떻게 제작할까?

♣ 5차시~6차시 학습과정

- ① 첨성대의 원리와 역사적 유래를 스마트기기로 탐색하기.
- ② 첨성대의 설계도를 작성하기.
- ③ 첨성대를 직접 조립하여 첨성대의 구조를 바르게 이해하기

2. 전개(창의적 설계)

- 활동 1(협업) 첨성대에 관한 다양한 역사적 배경과 과학적인 원리를 스마트기기들을 이용하여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첨성대의 설계도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활동 2(자기주도적학습) 첨성대 키트를 활용하여 직접 첨성대를 조립해 보고 첨성대의 구조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3. 정리(감성적 체험)

- 자신이 제작한 첨성대를 과학적·창의적으로 첨성대의 구조를 발표한다.
- 교사는 차시 수업을 예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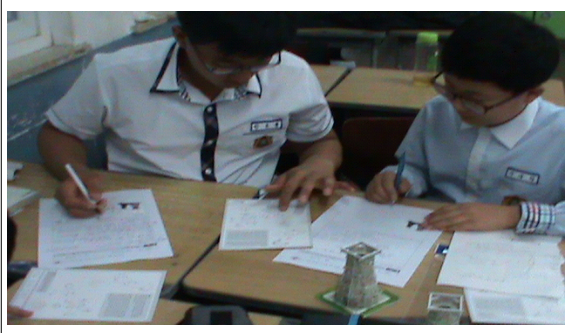


학생용 활동지

○ 준비물

- 침성대 키트, 미션활동지, 스마트 폰, 넷북 등

○ 활동 방법 : 스마트 폰과 넷 북 등의 스마트기기로 탐색 및 협업 활동



[미션 1] 침성대에 있는 과학적인 내용을 탐색하여 정리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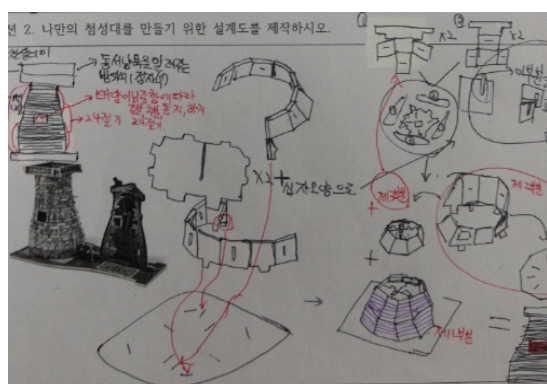
최초 침성관측대. 침성대를 통해 알아낸 신라인. - 자연과학이 된
(9.17m) 19~20단, 35~26단 -> 4다리촌적. - 자연에 순응. 3

난 반침대와 둥근 물체 -> 천원지방(天圓·地方)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는 기대라고 불리는 제기와 비슷한 형 태로,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모

벽자 정자석, 4면은 당북문 가로지르는 자오선의 표준이 됩니다.
이 정중앙의 네모난 창은 태양이 남달하는 모습에 따라 침성관측대, 하지
자를 정확히 알려주는 기준점이 된다. -> 13~15단

바늘루는 둘은 약 360개로 1년 상징. 기단부와 물체까지 11단을 합한 28은
자리 28수를 상징. 여객 정자석 그 단을 합한 30은 1달의 길이를
상징. 난 창문을 기준으로 아래위가 각기 12단으로 나뉘어진 것은 1년
4정기를 의미함.

[미션 2] 나만의 침성대를 만들기 위한 설계도를 제작하시오.



교사 지도자료



5차시 ~ 6차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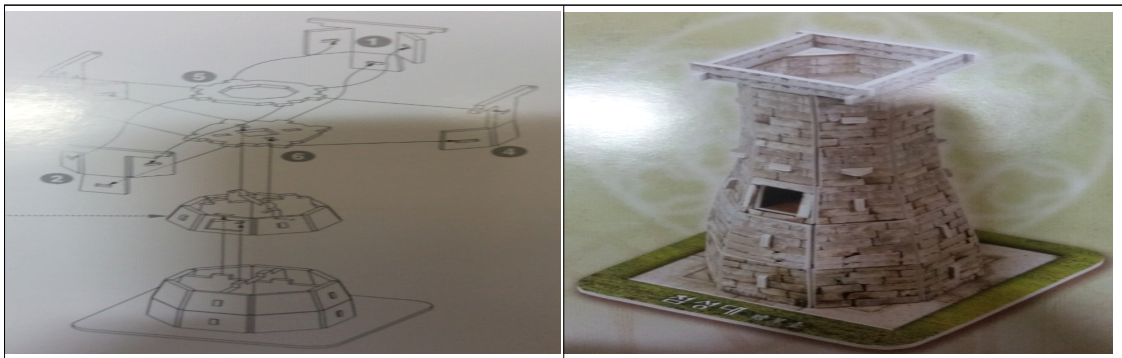
우리 선조들의 천문 코드 제작 나만의 '첨성대 만들기'

가. 첨성대에 관한 동영상 시청하고 첨성대의 상징성을 알아봅시다.

- 첨성대에 관한 동영상 시청

: <https://www.youtube.com/watch?v=9Q9Ne7Kdga0>

나. 첨성대에 관한 참고자료를 이용하여 나만의 첨성대를 만들어 봅시다.



<참고자료> 국보 제31호 첨성대

< 첨성대의 유래 >

천문학은 하늘의 움직임에 따라 농사 시기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농업과 깊은 관계가 있으며, 관측 결과에 따라 국가의 길흉을 점치던 점성술(占星術)이 고대국가에서 중요시되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면 정치와도 관련이 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찍부터 국가의 큰 관심사가 되었으며, 이는 첨성대 건립의 좋은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1. 첨성대

첨성대는 선덕여왕 때 만들어진 것으로 국보 제31호이다.

첨성대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이다. 1350년이 지나고도 옛날의 그 모습 그대로 보여 주고 있는 자랑스런 우리의 과학 유산이다.

첨성대의 건립은 신라의 천문학 발전을 상징한다. 확실한 기록은 남아있지는 않지만 신라의 천문학을 관장하는 국가 천문기관의 중심적 시설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을 것이다.

삼국유사의 기록에 의하면 360여 개의 돌을 정성들여 쌓아 만든 첨성대는 높이가 9미터 정도로 병 모양을 하고 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 갈수록 가늘어지는 원통형 또는 병 모양을 하고 있는 첨성대는 잘 살펴보면 위에 4각형의 돌이 놓여 있고 아래 부분도 4각형의 돌단이 있다. 또 그 한가운데에 남쪽을 향한 창이 하나 있는데 그 크기는 가로와 세로가 각기 1미터쯤이다. 창 아래와 위를 모두 12단씩 돌을 쌓아 만들었는데, 창은 3단에 걸쳐 있으니, 첨성대는 모두 276단의 돌을 쌓아 만든 셈이다. 첨성대는 옛날별의 운행을 비롯하여 일식, 월식 등 천문을 관찰한 외에도 길흉을 점쳤다고 하는데 농사일에도 도움을 준 흔적이 보인다고 하였다. 용도는 천체의 움직임(하늘의 변화)을 관측하고 별자리를 관찰하던 천문 관측대이다.

2. 모양

받침대 역할을 하는 기단부위에 술병모양의 원통부가 올려지고 맨 위에 정자형의 정상부가 얹혀진 모습이다. 남동쪽으로 난 창을 중심으로 아래쪽은 막돌로 채워져 있고 위쪽은 정상까지 뚫려서 속이 비어 있다.

옛 기록에 의하면, “사람이 가운데로 해서 올라가게 되어있다” 라고 하였는데, 바깥쪽에 사다리를 놓고 창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후 사다리를 이용해 꼭대기까지 올라가 하늘을 관찰했던 것으로 보인다. (도자기 모양이며, 바깥 벽면은 돌로 쌓아올려 성벽을 떠올리게 한다. 곡선과 직선이 어우러진 아름다운건축물이다.)

3. 의의

천문학은 하늘의 움직임에 따라 농사시기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농업과 깊은 관계가 있으며, 관측결과에 따라 국가의 길흉을 점치던 점성술이 고대국가에서 중요시되었던 점으로 미루어보면 정치와도 관련이 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찍부터 국가의 큰 관심사가 되었으며, 이는 첨성대 건립의 좋은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4. 보존상태

돌의 총 개수가 365개 인 것, 돌을 쌓은 단수가 27단 인 것 등을 알아볼 수 있는 것으로 보아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6.25 당시 탱크가 경주 시가지를 지날 때 허술한 초가들이 탱크의 진동에 여지없이 무너질 때도 첨성대만은 끄덕 없었다고 한다.)

5. 가치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로 그 가치가 높으며, 당시의 높은 과학 수준을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재라 할 수 있다.

6. 얽힌 이야기

첨성대가 제단이였다는 학설도 있다. (삼국유사)에는 한사내아이가 집을 나와 해매다가 첨성대의 신비한 빛 속으로 빨려 들어가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는 전설이 있다.

<상세내용>

지대석과 기단은 4각형으로 8석과 12석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 27단의 아래가 넓은 원통형 주체부가 있는데, 여기에 쓰여진 돌은 362개이고, 1단의 높이는 약 30cm이다. 제13단에서 제15단에 걸쳐 남쪽으로 면한 곳에 조그마한 출입구가 나 있는데, 그 아랫부분 양쪽에 사다리를 걸었으리라고 추정되는 흔적이 있다.

내부는 제12단까지 흠이 차 있고, 제19, 20단과 제25, 26단 두 곳에 정자형으로 길고 큰 돌이 걸쳐져 있는데, 그 양쪽 끝이 바깥으로 내밀고 있으며, 꼭대기에도 정자석 2단이 놓여 있다. 제27단 내부의 반원에는 판석이 있고, 그 반대쪽에는 판목을 놓았을 것으로 보여 지는 자리가 있다. 꼭대기의 정자석 위에도 관측에 필요한 어떤 시설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 진다. 현재 동북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으나 석조부분만은 원형을 간직하고 있는데, 매우 희귀한 유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첨성대의 건립에 대하여는, 《삼국유사》「선덕왕 지기삼사」조에 「별기운시왕대연석축첨성대」라고만 나와 있어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선덕왕 재위 시(632~646)에 건립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7. 첨성대의 유래

천문학은 하늘의 움직임에 따라 농사시기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농업과 깊은 관계가 있으며, 관측 결과에 따라 국가의 길흉을 점치던 점성술(占星術)이 고대국가에서 중요시되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면 정치와도 관련이 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찍부터 국가의 큰 관심사가 되었으며, 이는 첨성대 건립의 좋은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 학습 주제

고구려인들에게 하늘은 가까운 존재이자 그 속에서 영원히 살고자 한 믿음이 강하였다. 더불어 우리는 하늘의 자손임을 매우 강한 자부심으로 느껴 하늘과 천문은 그들에게 매우 친숙한 대상 이었다. 하늘을 섬기며 하늘을 동경한 고구려인들의 생활을 본받아 나의 별자리를 탐색해보고 나만의 별자리를 직접 제작하여 자신이 희망하는 소원과 앞으로 자신의 비전을 되새겨본다.

○ 학습목표

황도 12궁과 계절에 따른 별자리를 탐색하여 자신의 생년월일과 해당하는 별자리를 찾아 활동지에 작성하고 LED를 활용하여 자신의 별자리를 직접 제작하며 자신이 바라는 소원과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

학습문제 1. 자신의 생일과 관련된 별자리를 바르게 찾을 수 있는가?

학습문제 2. LED를 활용하여 자신의 별자리를 직접 제작할 수 있는가?

학습문제 3. 자신의 소원과 앞으로의 비전을 올바르게 제시할 수 있는가?

○ 본시 내용과 활동 과정

1. 도입(상황제시)

황도 12궁과 계절에 따른 별자리 관련 동영상 시청한 후 나의 생일과 관련된 별자리는 무엇이고 어떻게 나의 별자리를 찾을 수 있는지를 유추해 본다.

- 나의 별자리와 별자리점은 어떤 것인가?
- 황도 12궁과 계절에 따른 별자리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7차시~8차시 학습과정

- ① 황도 12궁과 계절에 따른 별자리 동영상 감상하기.
- ② 스마트기기를 이용하여 황도 12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별자리를 탐색하기.
- ③ 나의 별자리를 활동지에 직접 설계하고 자신이 원하는 소원을 작성하기.
- ④ LED를 활용하여 자신의 별자리를 직접 제작하기.

2. 전개(창의적 설계)

- 활동 1(협업) 자신의 별자리를 스마트기기들을 활용하여 탐색하고 본인의 별자리를 활동지에 작성하도록 지도한다.
- 활동 2(자기주도적학습) 자신의 별자리를 LED를 활용하여 직접 자신의 별자리를 제작하고 자신이 바라는 소원을 작성하도록 지도한다.

3. 정리(감성적 체험)

- LED를 활용하여 만든 자신의 별자리를 루브릭을 이용하여 동료평가를 실시하고 가장 독창적이고 아름답게 표현된 작품을 선정한다.
- 학생들의 작품을 수행평가로 반영한다.



학생용 활동지

○ 준비물

- 우드락, 별자리 조립모형, 건전지, 색지, 풀, 가위, 칼 등 기타 공구류, 미션 활동지

○ 활동 방법 : 스마트 폰과 넷북 등의 기기로 탐색 및 협업 활동

- 자신의 생년월일(四柱)에 맞는 별자리를 직접 탐색하고 활동지에 그리며 관련 별자리 어원을 정리한다.
- 자신의 미래와 비전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마련하여 자신의 희망과 소원을 작성하는 활동을 한다.
- 자신의 별자리 모형을 LED 전구(발광 다이오드)와 잘 조립하여 특별한 자신만의 별자리를 만 들고 과학, 기술을 융합한 과정중심 학습을 통해 이성적 · 감성적 성취감을 느낀다.



조 명		이 름	LED를 활용한 내 별자리 모형제작 ‘나의 별님~ 나의 소원 바라기’ 평가 루브릭		체계화, 검토, 실행		
영 역		평 가 기 준	최우수 (10점)	우수 (8점)	보통 (6점)	노력 (4점)	비고
과학성 기술성 (50점)	발광 다이오드와 전원이 바르게 연결되어 불이 들어오는가?						
	해당 별자리에 발광 다이오드를 맞게 연결하였는가?						
	체계적인 구조성이 돋보이는가?						
	과학성 기술성이 돋보이는가?						
	보는 사람에게 이해를 주는가?						
점수 (50점)							
영 역		평 가 기 준	최우수 (10점)	우수 (8점)	보통 (6점)	노력 (4점)	비고
예술성 (50점)	자신의 소원을 바르게 표현하였는가?						
	우드락에 별자리와 소원하는 글의 배치가 잘 돋보이는가?						
	디자인의 구성이 개성이 있는가?						
	예술성이 돋보이는가?						
	보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가?						
점수 (50점)							
총점 (100점)							

<참고자료> 황도 12궁

황도 12궁이란?

태양이 황도를 따라 연주운동을 하는 길에 있는 주요한 별자리 12개를 말하며, 월별 대표적인 별자리는 태양이 지나가는 자리에 있는 별자리라서 볼 수 없고(낮), 그 반대쪽에 있는 별자리가 밤에 보이는 대표적인 별자리가 된다.

황도 12궁은 태양과 행성들이 지나가는 길목에 있는 12개의 별자리를 말한다.

황도 12궁은 양자리에서 시작하여 황소자리, 쌍둥이자리, 게자리, 사자자리, 처녀자리, 천칭자리, 전갈자리, 궁수자리, 염소자리, 물병자리, 물고기자리의 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황도 제1궁 (the first sign of the Zodiac)

양자리는 황도 12궁 중에서 가장 먼저인 제1궁에 해당한다. 태양은 매년 4월 15일부터 5월 13일까지 이 별자리를 통과한다. 황도상에 있는 첫 번째 물고기자리인데도 이 별자리가 제 1궁인 것은 하늘의 춘분점이 세차운동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기원전 100년경에는 춘분점이 양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양자리가 황도 제1궁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황도 제2궁 (the second sign of the Zodiac)

황소자리는 황도 12궁 중 제 2궁에 속하는 별자리다. 태양은 매년 5월 13일부터 6월 18일경까지 이곳을 통과하는데 황소자리가 저녁하늘에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은 이로부터 여섯 달이 지난 11월 중순경이다. 동양에서는 이 별자리를 금우궁(金牛宮)으로 부른다.

황도 제3궁 (the third sign of the Zodiac)

쌍둥이자리는 황도 12궁의 제3궁으로 동양에서는 음양궁(陰陽宮)으로 불리는 별자리다. 이 별자리는 황도 12궁 중 가장 북쪽에 놓인 별자리로 하지점(夏至點)을 포함하고 있다. 태양은 하지(6월 22일 경)를 전후한 매년 6월 18일에서 7월 18일까지 이곳을 통과한다. 따라서 이 별자리를 볼 수 있는 경은 10월경부터 그 다음해 5월 이전까지이다.

황도 제4궁 (the fourth sign of the Zodiac)

게자리는 황도 12궁 중 제 4궁으로 쌍둥이자리(Gemini) 다음에 오는 황도 별자리이다. 쌍둥이자리를 통과한 태양은 7월 18일부터 8월 7일 사이에 이 별자리를 통과한다. 동양에서는 게자리를 거해궁(巨蟹宮)이라고 부른다.

황도 제5궁 (the fifth sign of the Zodiac)

사자자리는 황도상에 위치해 있는 별자리 중의 하나로 황도 12궁 중 제5궁에 속한다. 태양은 매년 8월 7일경부터 9월 14일경까지 이곳을 통과한다. 수천년 전 옛날, 하지에 태양이 이곳에 이르게 되면 대단히 더워졌기 때문에 백수의 왕 사자가 이곳에 놓여지게 되었다고도 전해진다. 또한 이집트에서는 웅크리고 앉아 있는 사자가 피라밋을 지키는 스펅크스와 관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황도 제6궁 (the sixth sign of the Zodiac)

대지에 봄내음이 물씬 풍겨날 무렵 겨울의 1등성들은 봄 별들의 선구자인 사자의 포효에 놀라 서쪽 하늘 저 멀리 달아나 버리고 새로운 모습의 별들만이 봄의 신선함을 축복하고 있다. 이때 동쪽하늘 지평선 위로 밝은 1등성 하나가 낮게 떠서 특히 주의를 끄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별이 바로 황도 12궁 중 6궁에 해당하는 처녀자리의 으뜸별 스피카(Spica)이다.

황도 제7궁 (the seventh sign of the Zodiac)

여름이 가까워 오면서 봄철의 별자리들은 하나 둘 서쪽 하늘로 모습을 감추기 시작한다. 이 무렵 남쪽하늘 아래를 보면 봄과 여름의 갈림길에 선 작은 별자리를 하나 만나게 된다. 황도 12궁 중 제7궁을 차지하는 천칭자리가 바로 그것인데 원래는 전갈자리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황도 제8궁 (the eighth sign of the Zodiac)

전갈자리는 황도 12궁 중 제8궁에 해당하는 별자리로, 태양은 매년 11월 21일부터 12월 16일 사이에 이 별자리를 지나게 된다. 이 별자리는 태양이 지나가는 황도상에서 가장 남쪽에 위치한 별자리이다. 그러나 태양이 전갈자리의 남쪽부분을 지나가는 것은 아니어서 황도의 가장 남쪽 지점은 바로 옆의 사수 자리에 있게 된다.

황도 제9궁 (the ninth sign of the Zodiac)

남쪽 하늘이 터진 곳에 있는 사람이라면 은하수가 뭉쳐져서 환하게 불이 켜져 있는 것 같은 하늘에 놀라게 될 것이다. 그곳이 바로 황도 12궁 중 제9궁인 반인반마(半人半馬)의 사수자리가 있는 곳이다. 사수자리는 은하수의 중심부분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별들의 높이라고 느낄 정도로 많은 별들이 모여 있다.

황도 제10궁 (the tenth sign of the Zodiac)

염소자리는 황도 12궁 중 제10궁에 속하는 별자리로 태양은 매년 1월 18일경부터 2월 14일경까지 이곳을 통과한다. 태양이 이 별자리에서 가장 멀리 있는 8월 말에서 10월까지가 관측에 가장 좋은 시기이다. 중국에서는 이 별자리를 마갈궁이라 부른다.

황도 제11궁 (the eleventh sign of the Zodiac)

물병자리는 황도 12궁 중 제11궁에 해당하는 별자리이다. 태양은 매년 2월 14일부터 3월 14일까지 이 별자리를 통과한다. 따라서 이 별자리를 관측하는 데 가장 좋은 시기는 태양이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9월에서부터 11월 사이이다. 동양에서는 이 별자리를 보병궁(寶瓶宮)이라 부른다.

황도 제12궁 (the twelfth sign of the Zodiac)

물고기자리는 황도상에 있는 첫 번째 별자리로 황도 12궁 중 마지막 궁에 해당하며 중국 이름은 쌍어궁(雙魚宮)이다. 이 별자리는 밝은 별은 없지만 태양이 황도상을 지날 때 하늘의 적도와 만나는 춘분점(the Vernal Equinox)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천문학자들은 이 점을 기준으로 하여 별들의 적경(the right ascension)을 매긴다. 물고기자리의 적경이 0H인 것도 이 별자리가 춘분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춘분점은 북극성(Polaris)의 위치가 변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황도상을 따라 약 2만 6천년을 주기 변한다.

<황도 12궁 별자리>



V. STEAM 교육을 활용한 신화교육의 가치 및 교육적 효과의 기대

우리의 신화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 실체가 얼마든지 재해석될 수 있는 값진 보배이고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신화를 역사의 관점으로 보면 고대사를 연구하는 사료가 될 것이고 문학의 관점으로 보면 문예적 설화이다. 신화가 종교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토속 신앙인 무교가 되고 신화가 예술의 관점에서 보면 비개연성의 구조와 무한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서사 문학이다. 이처럼 다채로운 양식이 공존하고 융합되어 있는 한국 신화를 부합하는 교과끼리 연결고리를 만들어 다학문적 접근으로 STEAM 교육을 활용하여 입체적 주제 중심형 교수·학습을 전개하였다.

‘타임머신 신화기행, 주몽신화’의 STEAM 주제 중심형 수업을 통해 우리 고전문학의 중요성과 가치를 깨달아 고전문학의 부정적인 거리감을 줄이고 무한한 상상력과 잠재적 창의력을 샘솟게 하는 학문의 보고로 재인식 할 수 있고자 하였다.

또한 우리의 건국 신화이자 영웅 신화의 효시인 주몽신화의 고전 작품을 과학적인 실증을 토대로 기술과 공학의 첨단 방법을 활용하여 실생활과 연계하는 산출물들을 협업하여 제작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였고 이러한 융합적 학문 간의 접근을 통해 우리 고유 예술과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실학의 實事求是⁶⁾의 정신을 본받아 배움 중심의 인재 교육을 도모할 수 있다는 데에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끝으로 한국 기록신화교육의 현전화 방안인 STEAM교육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교육적 효과로 확산적 사고(漸入佳境)⁷⁾, 종합적 사고(多多益善)⁸⁾, 창의적 사고(溫故知新)⁹⁾가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 더 나아가 세계의 내면화와 창조의 현실화가 거듭 실천될 수 있는 인간교육(인성교육)의 성취까지도 이룰 수 있는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VI. 결론 및 제언

우리의 한문교과 및 고전문학이 융합적 현전화를 시행하는 과감한 교육적 패러다임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유연하게 어울리며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교과들을 통합하여 교과 간의 장벽을 거둬내자. 다가올 미래사회는 첨단적 정점을 달리는 시대가 될 것이므로 현재 이루어져야 할 교육도 다원적 담론과 다원적 접근이 필요하다. 교과의 구분 짓기가 아닌 조화되는 교과끼리 짜임새를 갖추고 함께 어울려

6) 실사구시(實事求是) : 사실에 토대를 두어 진리를 탐구하는 일. 공리공론을 떠나서 정확한 고증을 바탕으로 하는 과학적·객관적 학문 태도를 이룬 것으로 조선시대 실학파의 학문에 큰 영향을 주었다.

7) 점입가경(漸入佳境) :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뛰어나거나 들어갈수록 아름다운 경치가 나타남을 뜻하는 성어로 깊이 있게 연구하고 탐구하여 지적 호기심과 유희적 활동을 능동적으로 즐기고 자기 스스로 혹은 협업을 통해 몰입 할 수 있는 확장적 사고를 표현하고자 하였음.

8) 다다익선(多多益善) : 많은면 많을수록 더욱 좋다는 말로서 유방과 한신이 군사의 통솔능력을 말하면서 만들어진 성어로 다원적 담론과 다원적 접근으로 종합적 사고를 표현하고자 하였음.

9) 온고지신(溫故知新) : 《논어(論語)》 <위정편(爲政篇)>에 나오는 공자의 말씀으로 “옛 것을 알고 새 것을 알면 남의 스승이 될 수 있다.”라는 구절이 유래된 성어로 상상력과 발상력이 원동력이 되어 새롭고 독창적이며 유용한 것을 만들어 내는 창의적 사고를 표현하고자 하였음.

통합으로 동맹하는 교육의 융합적 재구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융합적 현전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 질 때 우리 고전문학의 공존공영 바라기가 마치 장자의 곤봉(鯁鵬)처럼 무한한 상상력과 즐거움의 향연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문학 및 고전 교과서에서 화석으로 만들어 놓은 고전문학 작품들을 문화 공학으로 살려내어 예술로 작품을 감상하는 인성교과로 거듭나고 현실적 우리 삶과 관계할 수 있는 생활교과 및 내용교과로서의 지혜를 학생들에게 제시하기 위해서 교사가 해결해야 할 제언들을 제시하며 갈무리 하고자 한다.

첫째 과거의 고전을 지금 제대로 재현하기 위해서 고전문학의 내용과 장르를 본질적으로 정확하게 꿰뚫고 접근해야 하는 교과목의 전문성을 강조한다. 아직도 장르의 쟁점으로 야기되는 고전문학 작품들이 많이 있지만 이는 교육 연구자와 교사가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필수 선결 과제라고 생각한다.

둘째 통합교육의 가치는 학생들에게만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동일 교과는 물론 다학문적 입장에서 서로 다른 교과 교사와도 협력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선현의 지혜를 몸소 실천해야 한다.

셋째 타 학문의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시대를 보고 미래를 예견하는 천리안적 안목을 통해 고전문학을 시대적 흐름에 맞게 재가공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마련해야 하며 다양한 입체적 교수·학습지도안 구성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관련 교수방법으로 STEAM교육이 매우 이상적이라고 본다.

끝으로 공학 기술적 활용을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는 소양이 필요하겠다. 고전적 교육내용을 첨단적 방법을 사용하여 감각적이고 세련되게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미래를 선도하고 융합적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교사 또한 융합적 교사로 거듭날 수 있는 능력과 덕성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참고 문헌

[원전]

『三國史記』
『三國遺事』
『東明王篇』
『帝王韻紀』
『東國輿地勝覽』
『東國李相國集』
『世宗實錄地理志』
『我邦疆域考』

[교육과정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2), 『2012년도 스마트교육 모델 연구학교 담당자 워크숍 자료집』
교육과학기술부(2012), 『스마트교육 체제 구현을 위한 온라인수업 활성화 방안』
교육과학기술부(2012), 『스마트교육 수업시나리오: 중·고등학교 수업 사례』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13), 『스마트한 학교 현장 탐방하기』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13), 『통(通)하는 우리학교 스마트하게 운영하기』

광주광역시교육청, 금구초등학교(2015), 『2015 동계 스마트교육 교원 연수 스마트교육, 나도 할 수 있어요!』

[단행본 및 논저]

강필선 외(2013), 『한국철학사상사』, 심산.

권순궁(2015),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특성과 고전문학 교육 방안”, 제9집 1호(통권 제16호) 우리말교육현장학회, pp.31~55.

김기홍(2002), 『고구려 건국사: 되찾은 주몽신화의 시대』, 창작과비평사.

김민철(2013), “미국의 STEM 교육 정책과 한국의 STEAM 교육 정책의 비교”, 전남대학교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김무조(1988), 『韓國神話의 原型』, 정음문화사.

김진수(2012), 『STEAM 교육론』, 양서원.

김원석(2010), 『디지털생존교양』, 갤리온.

김홍규(2002), 『한국 고전 문학과 비평의 성찰』, 고려대학교 출판부.

나경수(1988), 『韓國 建國神話 研究』,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_____(1995), “구비문학교육의 필요성과 효용”, 『남도민속연구』 제3집, 남도민속학회, pp5~25.

_____(2005), 『한국의 신화』, 한일미디어.

_____(2009), 『마한신화: 남도문화의 서막』, 민속원.

_____(2012), “한국 기록신화의 상징 해석과 역사 인식”, 제21호 국어교과교육학회, pp.7~41.

나경수·이은민(2012), “『어부사시사』의 문학 교육적 문제와 해결 방안”, 제6집 2호(통권 제11호) 우리말교육현장연구, pp.127~158.

박성익(1998), 『教授·學習 方法의 理論과 實際』, 교육과학사.

신동희(2011), 『스마트 융합과 통섭 3.0』, 성균관대학교출판부.

윤경수(1997), 『圖解 韓國神話와 古典文學의 原型象徵性』, 태학사.

이대근(2014), 『무교와 그리스도교의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 종교사상사』, 가톨릭출판사.

이은민(2015), “한문교육, 예술의 옷을 입다: 고전의 飛上 교육적 현전화, 현실적 세계화”, 제15호 광주교육연구, 광주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 pp.106~111.

_____(2015), “융합인재교육[STEAM]을 활용한 기록신화의 현전화(現前化) 지도방안 모색”, 국어교육학회 제59회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pp.275~292.

_____(2016), “STEAM을 활용한 교수·학습 실천 사례”, 한문교육 92호, pp.34~49.

임재해(2006), “디지털시대의 고전문학과 구비문학 재인식”, 『국어국문학』 제143호, 국문학회, pp.33~71.

_____(2007), 『고대에도 한류가 있었다-민족 문화의 정체성 재인식』, 지식산업사.

전관수(2010), 『주몽신화의 고대 천문학적 연구』, 연세대학교 출판부.

정혜승(2014), “스마트(smart)교육은 국어교육을 스마트(smart)하게 할 수 있는가”, 제8집 2호(통권 제15호) 우리말교육현장학회, pp.7~27.

최숙기(2014), “스마트 교육 정책 실현과 국어 교육의 전망”, 제8집 2호(통권 제15호) 우리말교육현장학회, pp.31~59.

황준연(1994), 『한국사상의 이해』, 박영사.

로버트 루트번스타인·미셸 루트번스타인, 박종성 역(2007), 『생각의 탄생』, 예코의 서재.

에드워드 윌슨, 최재천·장대익 역(2012), 『지식의 대통합 통섭』, 사이언스북스.

[웹 사이트]

- 영재교육 정책 특집, 대중적 융합 · 영재 교육의 활로 방안 모색 : 이은민(문성중학교)

<http://gifted.kedi.re.kr/khome/gifted/news/listNewsletterMainForm.do>

- STEAM 수업의 설계: 이성혜 연구교수(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원)

http://gifted.kaist.ac.kr/movie/2014_teaching_training/2014dustn_02/JBook.htm

- STEM/STEAM 교육과 교수학습방법의 이해 : 이효녕 교수(경북대학교)

http://gifted.kaist.ac.kr/movie/2014_teaching_training/2014dustn_05/JBook.htm

- 첨단과학을 통한 융합인재교육 : 원광연 교수(KAIST)

http://gifted.kaist.ac.kr/movie/2014_teaching_training/2014dustn_01/JBook.htm

- STEAM 수업의 실제(Let it Bee) : 최진영 교사(대전제일고)

http://gifted.kaist.ac.kr/movie/2014_teaching_training/2014dustn_04/JBook.htm

- 과학예술의 융합수업 방법론 : 정은영 교수(한국교원대)

http://gifted.kaist.ac.kr/movie/2014_teaching_training/2014dustn_03/JBook.htm

- 예술 과학, 융합 프로젝트의 이해 : 박형준 작가(미디어아티스트)

http://gifted.kaist.ac.kr/movie/2014_teaching_training/2014dustn_06/JBook.htm

- KBS 역사저널 그날 주몽신화 88회

https://www.youtube.com/watch?v=qnDGD_NuyEg

사고력 신장을 위한 한문 교과서 개발 방안

윤지훈(한국교육과정평가원)

1. 서론
2. 한문교육과 사고력
3. 사고력 신장을 위한 한문 교과서 개발 방안
 - 1) 교과서의 질문 개선을 통한 사고력 신장
 - 2) 자기 주도 학습 지원 기능 강화를 통한 사고력 신장
 - 3) 교육과정 소재 교수·학습 방법 적용을 통한 사고력 신장
4. 결론

I. 서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사회는 지식이 중요한 생산수단으로 작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지식기반 사회이다. 이러한 변화 상황에 맞추어 교육도 전통적인 지식전달식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지식을 선별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¹⁾ 지식과 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사회가 갈수록 다양화되는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교육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학습자가 생각할 수 있는 힘을 뜻하는 사고력이 교육목표의 하나로 자리하며 강조되어 왔던 것은 이러한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와 관련이 깊다. 그간 교육계에서는 현재의 문제를 인식하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인지적 처리 및 사고 활동, 즉 복잡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여 비교·분석하고 통합·추론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일련의 과정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사고력 신장에 비상한 관심을 기울여 왔다.²⁾ 1960년대부터 교육학 일반은 물론 각 교과별로 다각적인 학문적 연구가 쏟아져 나온 것이 그 증거라고 할 수 있다.³⁾

학교 교육의 교육 내용과 학습 활동을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교육과정에서도 사고력 신장에 관한 내용은 제3차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판단력과 창의력의 함양’, ‘지력과 기술의 개발’, ‘과학적 탐구능력’, ‘문제해결력’, ‘창의적인 능력’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며 강조되어 왔다. 특히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배움을 즐기며 개인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교육의 근본적인 개혁 추진’이란 목적 하에 최근 개발·고시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해 교과 교육을 포함한 학교 교육 전 과정을 통해 중점적으로 기

1) 성태제 외(2013), 『2020 한국 초·중등교육의 행방과 과제』, 학지사 참조.

2) 김영채(2002), 『사고와 문제해결 심리학』, 박영사 참조.

3) 사고력과 관련하여 그간 연구된 선행 연구를 보면 사고력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비롯하여 특정 교과 단위에서 이루어진 사고력 관련 연구, 사고력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성 연구 등 주제 또한 다양하다.

르고자 하는 6가지 핵심역량 가운데 하나로 ‘창의적 사고 역량’을 제시하고 있다.⁴⁾ 2015 개정 교육과정
이 적용되는 시기에서도 학교 교육에서의 사고력 신장은 여전히 유효한 교육 목표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과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면서 교육과정의 절대적 영향을 받는 교과서 역
시 사고력 신장에 유의하여 개발될 필요가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편찬 방향을
보면 ‘바른 인성과 창의융합적 사고력을 갖춘 인재 양성에 적합한 교과용도서’가 기본 방향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거니와 교과목별 검·인정 기준에도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융·복합적 사고를 촉진하는 제
재를 선정하였는가?’, ‘융·복합적 사고와 교과 지식의 적용 및 활용을 유도하는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를 제시하였는가?’ 등의 사고력 관련 평가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⁵⁾ 이전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용도서 편찬 지침에서도 사고력 신장과 관련된 내용이 있지만,⁶⁾ 2015 개정 교육과정이 학습자의 역량
강화를 특히 강조하고 있음을 볼 때,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학습자의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편찬될 필요가 있다.⁷⁾

본고는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 따른 중·고등학교 한문 교과서가 개발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사고력 신장을 위해서 중·고등학교 한문 교과서가 어떠한 방향에서 편찬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한문교육과 사고력의 관계를 먼저 살펴본 후, 학습자의 사고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한문 교과서 방안을 교과서 구성의 관점에서 알아보고자 한다. 본고가 질 높은 한문 교과서 개발
에 조금이나마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I. 한문교육과 사고력

사고력은 ‘합리적으로 문제를 규정하고 거기에 대처해 나가는 유목적적이며 의도적인 정신활동’⁸⁾으
로 정의되기도 하고, ‘기억, 분별, 조직, 추리 등을 모두 포함하는 정신활동’⁹⁾, ‘의도를 가진 지적활동으
로 태도와 성향을 근간으로 하여 관련 배경지식과 고차적 정신능력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고등
정신 활동’¹⁰⁾ 등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또한 ‘추론의 요소와 직관·창의의 요소가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는 체계적인 정신 활동’¹¹⁾으로 사고력을 개념화한 경우도 있다. 사고력이 이처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는 것은, 사고력이 본래 비판적 사고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의사 결정 능력, 추론
능력, 메타인지 능력, 창의적 사고 능력 등의 여러 인지능력을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

4) 교육부(2015),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1]) 참조.

5) 교육부(2015),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개발을 위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 참조.

6) 2007 개정 교육과정기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창의력과 사고력, 탐구력을 기를 수 있는 내용 구성’이 편찬의 기본 방
향으로 제시되었으며, 교과목별 검·인정 기준에 ‘지식과 기능뿐만 아니라 논리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 등 고등
사고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평가 도구 및 과제를 제시하였는가?’라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다. 교육인적자
원부(2007),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검정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 참조.

7) 최근 한국교과서연구재단에서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교과서 심사기준의 평가지표 개발 연구-창의적 사고 역량을 중심
으로’란 정책 연구를 수행한 것도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편찬 시 사고력 신장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을 방증한다고 할 수 있다.

8) 이기우(1997), 「사고력 개발 프로그램의 적용 효과 연구」, 『창의력교육연구』1(1) 참조.

9) 김여철(1995), 「사회과교육의 사고력 신장방안」, 『한국교육논총』7 참조.

10) 김지은·정미경(2002), 「초등 실과 창의적 문제해결 수업이 아동의 사고력에 미치는 효과」, 『한국실과교육학회지』15(1)
참조.

11) 허경철·김홍원·조영태·임선하(1990), 『사고력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IV)』,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90-17 참조.

성을 반영하여 Bloom(1956)은 ‘지식→이해→적용→분석→종합→평가’로 사고력의 개념 모형을 설정하고 위계화한 바 있으며, Anderson(2001)는 ‘기억→이해→적용→분석→평가→창의’라는 사고력의 모형을 제시하기도 했다.¹²⁾ 따라서 사고력을 특정한 개념으로 정의할 수 없지만 일단 분류, 추론, 판단, 새로운 아이디어의 생성 등 인간 사고기능 활성화를 통해 문제해결에 이르는 인간 삶의 본질적인 정신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칭하는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다.¹³⁾

사고력의 함의를 위와 같이 상정할 경우 현재 중·고등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한문교육은 사고력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을 보면 ‘한문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문 독해와 언어생활에 활용하며, 한문 자료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심미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선인들의 삶과 지혜, 사상과 감정을 이해하여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고,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키며, 한자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자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학습자의 사고력과 관련된 내용이 성격과 목표에 공히 제시되어 있다.¹⁴⁾ 사고력을 인간 삶의 본질적인 정신활동이라고 할 때 한문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다양한 한문 자료에 담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거나 활용 혹은 적용하는 것, 심미적 향유 능력과 인성을 함양하는 것 등의 일체 행위는 위계의 차이는 있지만 학습자의 사고 과정과 이러한 사고를 통해 얻어지는 결과로 생각된다. 표의문자인 한자는 보는 즉시 이해가 되고 직관적으로 의미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며, 개념과 의미를 압축하여 체계적 이해에 도움을 주고, 한자 특유의 조어력을 통해 종합적 사고력 및 추론적 사고력 신장을 신장할 수 있는 것이다.¹⁵⁾ 또한 다양한 한문 자료를 독해하는 과정에서 추론 및 판단 능력과 함께 비판적 사고력이 신장될 수 있으며, 한문 자료에 담긴 내용의 현재적 가치를 찾는 과정에서 창의적 사고력도 함양될 수 있다.¹⁶⁾

한문교육이 사고력 신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한문을 조금이라도 배운 사람이라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한문교육을 통한 사고력 신장의 효용성을 크게 강조하지 않았던 것도 그간 이를 당위적 사실로 간주해 왔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중·고등학교에서 한문교육의 위상이 나날이 축소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한문교육이 지니고 있는 현재적 가치를 찾고 이를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 실상과 다르게 한자를 무조건 암기하고 고리타분한 낡은 지식을 배우는 교과로 인식되고 있는 한문 교과에 대한 선입견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당위성에 매몰되어 가려져 있던 한문교육의 가치들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¹⁷⁾ 이러한 관점에서 수업의 매개체이자 중요한 교수·학습 자료로 기능하며 학교 교육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교과서를 개선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교과서만큼 한문교육의 학문적 발달 수준을 객관적이고 집약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도 없기 때문이다. 한문교육이 사고력 신장에 도움이 된다면 이 부분을 특화시켜 교과서를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새롭게 편찬될 교과서는 지식전달식 수업에 적합한 교과서가 아니라 학습자의 사고

12) 허경철(2013), 「사고력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평가 방안 탐색」, 『사고개발』9, 대한사고개발학회 참조.

13) 이지연·김영환(2014), 「초등학생 대상 사고력 교육의 국내 연구동향 분석」, 『사고개발』10, 대한사고개발학회 참조.

14) 교육부(2015), 『한문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17]) 참조.

15) 정규훈(2008), 「인문콘텐츠와 교육사업의 접목: 사고력한자교육을 중심으로」, 『유고사상문화연구』32, 한국유교학회 참조.

16) 이러한 관점에서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의사소통 능력, 정보처리 능력, 창의적 사고 능력, 인성 역량, 심미적 감성 등의 5가지 교과 역량은 모두 사고력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관련되어 있다.

17)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김대희(2010), 「한자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재고」, 『한자한문연구』24,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참조.

력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고루 갖춘 교과서가 되어야 한다. 사고력에 대한 한문교육의 효용성을 검토한 선행 연구에서 지적했듯이 학생들 상호간의 경험 공유, 내용 관계에 대한 빠른 이해, 교수 내용에 대한 자기반성적인 사고를 등을 통한 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여 고차원적 사고력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교과서를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¹⁸⁾ Chance(1986)가 지적한 사고의 결과보다 사고의 과정을 강조해야 하며 학생들 사이의 개인차 또는 발달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는 유의사항도 아울러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¹⁹⁾

III. 사고력 신장을 위한 한문 교과서 개발 방안

1. 교과서의 질문 개선을 통한 사고력 신장

교과서를 통해 학습자의 사고력을 신장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교과서의 질문을 사고력 신장에 초점을 맞춰 개선하는 것이다. 질문은 소크라테스 이래로 교육의 중요한 도구이자 교육적 소통 방식의 하나로 기능을 해왔다. 최근에는 학생을 질문의 대상이 아니라 질문하는 존재로 보고 학생들의 질문 능력을 계발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이 협력을 통하여 학습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교실이 이러한 기능을 하는 공간으로 기능하는 데 질문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²⁰⁾ 따라서 교과서에 어떤 성격의 질문이 어떤 방식으로 제시되는가에 따라 교과서의 질적 수준은 물론 교수·학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질문을 통하여 학생의 사고가 발달할수록 새로운 사고에 의해서 세상과 그 속의 사물을 새롭게 조망하게 되고 새롭게 조망된 세상과 사물들에 대해 새로운 질문을 품게 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좋은 질문은 세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즉, 답은 열려 있되 질문의 의도가 쉽게 이해되는 명확한 질문이어야 하고, 학습 후에도 학생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 있어야 하며, 학생이 스스로 질문을 만들 수 있도록 요구하는 질문과 성찰적 질문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핀란드, 이스라엘, 미국, 호주 등으로 대표되는 교육 선진국의 교과서 소재 질문들을 보면 성취기준과 주제를 통합하는 핵심 질문을 제시하고 있고, 이 핵심 질문을 중심으로 교과서의 모든 질문이 긴밀하게 연결을 맺고 있다. 그리고 사고력 계발을 위해 다양한 수준의 질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학습 내용을 자기화하고 이를 다른 내용과 연결하도록 하는 질문을 제시하고 있다.²¹⁾

이에 반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중·고등학교 한문 교과서의 질문은 출판사별로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아래 경우와 같이 사고력 신장과 관계없이 해당 단원에서 배운 학습 내용을 확인해 보는 차원에 머물고 있다. 물론 단원의 도입부에 제시된 질문은 ‘다음 이야기를 읽고, 뒤에 이어질 장면을 생각해 보자.’와 같이 사고력 신장에 도움이 되는 것도 있으나, 단원별 형성 평가의 경우는 단순 지식을 점검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²²⁾

18) 김영주(2014), 「사고력에 대한 한문교육의 효용성 검토」, 『한문교육연구』43, 한국한문교육학회 참조.

19) 이광성(1997), 「고급사고력향상을 위한 교수·학습방법에 관한 연구」, 『시민교육연구』25, 한국사회교육학회 참조.

20) 정혜승 외(2016), 『창의적 사고력 계발을 위한 교과서 질문 개선 방안』,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이슈리포트 참조.

21) 정혜승 외(2016), 『창의적 사고력 계발을 위한 교과서 질문 개선 방안』,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이슈리포트 참조.

22) 학습 내용을 진단할 수 있는 질문도 물론 필요하다. 본고에서 해당 질문을 언급한 것은 동일한 내용을 묻더라도 지식을 단순히 확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생들의 사고를 보다 촉발할 수 있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가 雲深不知處

나 言師採藥去

다 松下問童子

라 只在此山中

1. 가와 다를 각각 두 번 띄어 읽을 때 나머지 한 곳에 'V' 표시를 해 보자.

(1) 雲深 / 不知處

(2) 松下 / 問童子

2. 위 시를 그림으로 그릴 때, 화면에 등장하지 않는 것을 두 개 골라 보자.

① 약초

② 소나무

③ 동자

④ 시적 화자

⑤ 동자의 스승

3. 라에서 가장 나중에 풀이되는 한자를 골라 보자.

4. 위 시구를 起承轉結의 순서에 맞게 차례대로 나열해 보자.

<A출판사의 중학교 한문 교과서 소재 질문 예시>

고등학교 교과서의 경우는 주로 고등사고력 측정을 표방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항 형태를 취하고 있어 중학교 교과서 보다는 나은 편이다. 또한 아래와 같이 활동과 연결 지어 학습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을 사용한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질문은 사고력 신장과 관련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① 가훈(家訓)이나 좌우명(座右銘)을 만들어 보자.

가훈	한 집안의 조상이나 어른이 자손들에게 일러 주는 가르침.
좌우명	늘 자리 옆에 갖추어 두고 생활의 지침으로 삼는 말이나 문구.

예

① 짓고 싶은 문장을 우리말로 적는다.	남의 단점을 말하지 말자.			
② 각 단어를 한자로 바꾼다.	남: 人, 어조사: 之, 단점: 短, 말하다: 說, 말라: 勿			
③ 한문 어순에 맞게 배열한다.	<table border="1"> <tr> <td>남의 단점: 人之短</td><td rowspan="2">勿說人之短.</td></tr> <tr> <td>말하지 말라: 勿說</td></tr> </table>	남의 단점: 人之短	勿說人之短.	말하지 말라: 勿說
남의 단점: 人之短	勿說人之短.			
말하지 말라: 勿說				

<B출판사의 중학교 한문 교과서 소재 질문 예시>

그렇다면 한문 교과서의 질문을 사고력 신장의 측면에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우선 학습자의 사고력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 내용과 질문거리를 선별하여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과서에 수록된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펼치기에 적합한 화두를 던지고, 이를 끊임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질문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학생의 정의적 발달에 기여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협력 학습과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 작용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질문이 제공되어야 하고, 학습의 과정을 안내하는 차원의 질문이 보다 많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대단원 마무리에는 대단원에 속한 각 소단원의 학습 내용을 연계하여 사고할 수 있거나 학습 내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생산을 요구하는 질문을 배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2. 자기 주도 학습 지원 기능 강화를 통한 사고력 신장

자기 주도 학습은 학습자 스스로가 자신에게 맞는 학습 방법을 터득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데 목적이 있다.²³⁾

학습 단계	자기 주도적 학습 단계별 정의
자기 관찰 및 점검 단계	• 학습자 자신의 이전 학습 경험을 점검해 보고, 형식적 혹은 비형식적 평가 도구를 활용하여 학습 문제를 정의하고 관찰해 보는 활동을 수행하는 단계
목표 설정 및 수립 단계	• 학습자가 자신의 중·장기 목표를 수립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단계
전략 수행 및 모니터링 단계	• 학습자가 스스로 수립한 학습 전략을 진행하고, 그 효과성을 모니터링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단계
전략적 결과물 모니터링 단계	• 학습자가 자신의 수행을 되돌아보며 스스로가 세운 목표를 달성하고 수행 과정 및 결과를 어떻게 완성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자신이 만든 각종 자료, 성찰 일지, 체크리스트 등 학습 결과물을 모니터링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단계

<Zimmerman, Bonner, & Kovach(1996)의 자기 주도 학습의 네 가지 단계별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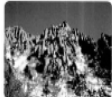
학습 과정도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내적인 동기 유발로 시작하여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능동적으로 학습을 진행하며, 자신에게 최적화 된 학습 기회, 학습 방법, 학습 자료 등을 스스로 선택하여 학습의 전 과정을 자신의 능력, 여건, 목표 등에 맞추어 이끌어 나가다가 마지막에 자기 평가 과정을 거쳐야 한다.²⁴⁾ 즉 자기 주도 학습이란 결국 학습자의 사고력이 신장되어 가는 과정인 셈이다. 따라서 교과서에 자기 주도 학습 지원 기능이 강화된다면 그만큼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교과서에 자기 주도 학습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은 지식 자체를 단순히 제공하기보다 학생들이 스스로 지식을 찾고 구성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기능, 즉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하고 메타인지를 활성화하여 학생들의 주도적인 학습을 안내하고 견인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과서가 구성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한문 교과서에서 현실적으로 구현 가능한 자기 주도 학습 지원 기능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단원의 도입부에 학습 동기와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삽화나 만화, 간단한 활동 등을 배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학습 내용에 대한 이해 제고와 보충·심화 학습을 위해 본문 학습과 관련이 있는 부가 학습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마지막 하나는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여 활동을 전개하거나 자기 반성적인 사고를 통해 학습 내용을 점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요소를 배치하는 것이다.

23) 박소영 외(2013), 『자기 주도적 학습 지원 교과서 일반 모형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T 2013-5 참조.





24) 윤지훈(2014), 「교과서 관련 정책의 변화와 한문 교과서 개발 방향」, 『한자한문교육』35.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참조.

<p>◦ 동기 유발 자료 예시</p>	
<p>◦ 부가 학습 자료 예시</p>	<p>계절마다 다른 금강산의 명칭</p> <p>금강산은 계절에 따라 그 아름다운 모습이 달라 예로부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다. 봄에는 아침 이슬이 햇볕에 빛나 금강석과 같다고 하여 금강산(金剛山), 여름에는 온 산에 녹음이 우거진 금강산이 삼신산(三神山: 중국 전설에 나오는 봉래산, 방장산, 영주산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며, 신산들이 산다는 전설이 있음.)의 하나인 봉래산과 같다고 하여 봉래산(蓬萊山)이라 하였다. 가을에는 단풍이 물들어 풍악산(楓岳山), 겨울에는 기이하게 생긴 바위와 괴상하게 생긴 돌이 빼처럼 드러나 개골산(骨脊山)이라 하였다.</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p>봄 - 금강산</p> <p>여름 - 봉래산</p> <p>가을 - 풍악산</p> <p>겨울 - 개골산</p> </div>
<p>◦ 학습 내용 점검 예시</p>	

<C, D, E출판사의 중학교 한문 교과서 소재 자료 예시>

현행 한문 교과서에서는 이러한 자기 주도 학습 지원 기능이 타 교과에 비해 풍부하게 갖추어져 있는 편이다.²⁵⁾ 그러나 문제는 아직도 상당수의 교과서는 자기 주도 학습 지원 기능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단원 도입부에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요소를 별도로 제시하지 않거나 형식적 차원에 제시한 경우가 있으며,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여 활동을 전개하거나 자기 반성적인 사고를 통해 학습 내용을 점검 요소도 생략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특히 부가 학습 자료로 제시된 것들 중에는 본문 학습과의 관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한문 교과서가 학습자의 사고력을 신장시키기 방향으로 편찬되기 위해서는 교과서 곳곳에 본문 학습과 관련한 자기 주도 학습 지원 기능을 배치하여 학습자의 사고를 끊임없이 유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본문 내용과 자기 주도 학습 지원 기능의 일관성 및 연계성이 비교적 높은 사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25) 현행 교과서의 다양한 사례는 김영주(2014), 「사고력에 대한 한문교육의 효용성 검토」, 『한문교육연구』43, 한국한문교육학회를 참조할 수 있다.

단원명	스승과 제자의 도리
도입부	이항복과 조광조의 스승 관련 일화
본문	學必由師而明, 學之本, 在於尊師. (『춘소자집』) 師生之間, 尤當以禮義相先, 師嚴生敬, 各盡其道. (『퇴계집』)
부가 자료	<p>문화 꾸러미</p> <p>왕을 깨우친 스승의 '정문일침(頂門一鍼)'</p>  <p>초나라 문왕이 나랏일을 돌보지 않아 보신이 태형을 내렸는데, 등에다 살짝 댔 다음 그만두었다. 그리고는 '군자는 형벌을 부끄러워하고, 소인은 형벌을 아파한다.'라고 하였다. 사마천 "사기"</p>
내용 점검	<p>1 만화를 보고, 바람직한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를 위해 필요한 행동에 대하여 토론한 후 발표해 보자.</p>  <p>2 스승과 학생의 관계를 소재로 하여 만든 아래 영화처럼 내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을 떠올려 보고 그 이유를 발표해 보자.</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1989)</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 영화 '완득이'(2011)</p> </div> </div>

<F출판사의 중학교 한문 교과서 사례 예시>

3. 교육과정 소재 교수·학습 방법 적용을 통한 사고력 신장

2015 개정 교육과정이 기존의 교육과정과 가장 차별되는 점은 교실 수업을 교사 중심에서 학생 활동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구체적인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을 교육과정에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교육과정 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교수·학습이 가능하도록 각 영역에 적합한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을 제시하여 교육 수요자가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 환경과 기법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²⁶⁾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경우도 각 영역별로 ‘교수·학습 방법’에 ‘A 내용 요소는 B, C, D, E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방식으로 해당 영역에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하고, ‘유의 사항’을 통해 각각의 교수·학습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교육과정 속에 제시된 영역별 교수·학습 방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영역	교수·학습 방법
한자와 어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전(사전, 옥편) 활용하기 • 부수(部首) 활용하기 • 한자 구조 분석하기 • 단어 구조 분석하기 • 어휘 만들기 • 한자 카드 활용하기 • 자원(字源) 활용하기 • 필순대로 따라 쓰기 • 한자의 구성 성분 활용하기 • 비교·분석하기 • 허사 쓰임 유추하기
한문의 독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장 구조 분석하기 • 허사의 쓰임에 유의하여 문장 독해하기 • 비교·분석하기 • 토 달아 읽기 • 역할 놀이 학습 • 연극·방송 대본 만들기 • 다른 창작물과 비교하기 • 어순에 유의하여 문장 독해하기 • 낭송하기 • 토의·토론하기 • 그림·만화 활용하기 • 역사 신문 만들기, 가상 인터뷰하기
한자 어휘와 언어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만의 학습 노트 만들기 • 의미망 만들기 • 성어의 유래 조사하여 발표하기 • 짧은 글 짓기 • 신문이나 방송 영상 활용하기
한문과 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언·명구 속에서 핵심 사상 찾기 • 명언·명구 암송하기 • 성찰 일지 쓰기 • 영상 매체를 활용한 토의·토론하기 • 자경문(自警文) 만들기
한문과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의·토론을 통한 전통문화 이해하기 • 전통문화 그림으로 표현하기 • 문화유산 답사하기 • 토의·토론을 통한 한자문화권 이해하기 • 한자문화권 언어·문화 사전 만들기 • 한자문화권의 상호 교류 사례 찾아보기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영역별 교수·학습 방법>

27)

26) 교육부(2015),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 확정 발표」(보도자료 2015.09.23.) 참조.

위에 제시된 교수·학습 방법을 보면 ‘낭송하기’, ‘토 달아 읽기’ 등과 같이 단순한 기능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사전 활용하기’, ‘그림·만화 활용하기’, ‘신문이나 방송 영상 활용하기’처럼 교수·학습의 도구를 제시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어휘 만들기’, ‘역사 신문 만들기’, ‘가상 인터뷰하기’, ‘연극·방송 대본 만들기’, ‘나만의 학습 노트 만들기’, ‘짧은 글 짓기’, ‘한자문화권 언어·문화 사전 만들기’ 등은 Bloom이나 Anderson의 사고력 개념 모형 중에 고차원에 속하는 사고력을 요구하는 활동들이다. ‘성찰 일지 쓰기’나 ‘문화유산 답사하기’와 같이 수행 평가를 염두에 둔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수·학습 방법은 교실에서 학생들이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들이다. ‘한문과 인성’ 영역에 제시된 ‘선인들이 자신을 경계하기 위해 지은 글을 학습한 후 학습자가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에 맞게 재구성하는 활동’²⁸⁾인 ‘자경문 만들기’가 교과서에 활동으로 제시되어 있다면, 교사는 이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고 학생들은 교수·학습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고력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과서 편찬 시 본문 내용의 적합한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방법을 선정하고 편중되지 않고 고르게 분포하여 다양한 지적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IV. 결론

이상에서 사고력 신장을 위한 한문 교과서 개발 방안을 살펴보았다. 본고에서 제시한 교과서의 질문 개선, 자기 주도 학습 지원 기능 강화, 교육과정 소재 교수·학습 방법의 적용은 사실 상호배타적이지 아니라 상호보완적 작용하며 함께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자기 주도 학습 지원 기능에 질문이 사용될 경우는 해당 질문을 개선해야 하는 것이며, 교육과정 소재 교수·학습 방법이 자기 주도 학습 지원 기능에 적합하다면 그에 맞게 변용하여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제한된 지면을 통해 교과서에 대한 다양한 요구들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본 기획주제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e-learning 콘텐츠나 실생활 관련 사항이 사고력 신장과 맞물려 교과서에 구현될 수 있다. 특히 이번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충실히 구현해야 하고, 바른 인성과 창의융합적 사고력을 갖춘 인재 양성에 적합해야 하며, 일상생활과 연계되어 이해하기 쉽고 흥미를 유발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과용도서여야 함에도 편찬상의 유의점에 제시된 분량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교과서에 대한 이러한 요구를 어떠한 방식이든 간에 수용한다면 학습량의 감축은 불가피해 보인다. 교과서에 무엇을 수록하고 무엇을 수록하지 않을지 교과서 집필자들의 과감한 결단과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27) 교육부(2015), 『한문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17]) 참조.

28) 교육부(2015), 『한문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17]) 참조.

실생활 연계형 한문 교과서 개발의 필요성과 방안 연구

허철(한국교원대)

<目 次>

- I. 序言
- II. 실용성 획득의 현실
- III. 교육과정과 교과서 구성의 상관성
- IV. 실용적 측면에서의 어휘와 문장 선택과 배열의 문제
- V. 실용적 측면에서의 교과서 구성과 설계 방안
- VI. 결론

I. 실생활 연계형 교과서의 필요성

“실생활 연계형 교과서의 필요성”이라는 문장의 의미는 현재의 한문교과서가 실질적으로 실생활과 유리되어 있다는 의미이며, 실생활과 연계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실생활과 연계될 필요성이란 다시 말하면 교과서의 실용성과 연관되며, 교과서의 실용성은 곧 교과서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교육이 사회화의 과정이라는 주지의 사실 앞에서, 우리는 사회화란 무엇인가를 말해야 한다. 사회화란 사회라는 집단 속에서 인간의 생존을 위해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능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사회를 유지시키기 위한 공통의 정신 문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실용적이지 않은 교육은 존재하지 않는다. 실용의 대상과 내용이 무엇인가만 변화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용한 것과 유용한 것을 나누는 이유는 그것을 생존을 위해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능의 측면에서 판단할 것인가, 사회 유지의 공통 정신 문화의 측면에서 판단할 것인가의 관점의 차이에서 연유할 뿐이다.

위의 두 논의를 연결시켜 보면 교육은 어떤 면으로도 실용적인 면을 찾을 수 있으며, 그 실용성을 획득하면, 교과서의 존재 이유, 곧 필요성이 담보되고, 이에 따라 교육은 시행되어야 할 당위성을 획득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그렇다면 한문과가 이런 교과서의 교육적 당위성을 획득하는데 여전히 실패하는 것은 교과서의 필요성에 대한 논지가 여전히 사회 속에서 용인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바탕에는 필요성, 곧 실용성을 사회구성원들에게 실질적으로 이해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는 “한자와 한문이 오랫동안 한국의 문자이자 문어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문자생활을 하였고, 수많은 한국의 문화유산이 이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우리 한국어 중 많은 수의 어휘가 한자어로 구성되어 있다.”는 주장은 결국 실용성을 강조한 것이 아닌 당위적인 주장일 뿐이다. 또한 한자어가 한자로 노출되어 사용되던 80년대 이전의 사회 현상을 이야기하면서 그 때와 달라진 현실 언어생활 속에서 실용성을 찾기란 쉽지 않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¹⁾

주지하듯 실용성이란 그것을 학습하여 직접적인 효용적 가치를 가질 때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논자에 따라서는 이를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같은 국가고시와 연계시키기도 하나 이 또한 실용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역시 실현 불가능한 일일 뿐이다. 한자 병기가 초등 한자교육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사실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곧 필요성의 문제를 실용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물론 한자어를 습득하면서 얻을 수 있는 어휘 이해력과 사고의 신장까지도 실용성이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실용성은 투입 정도와 결과물의 관계에서 볼 때 결코 실용적이란 단어를 사용키에 적합하지 않다. 교육 활동은 가장 적은 투자를 통해 최대의 효과, 즉 교육목표를 달성할 때 우리는 이를 효율적인 교육인 동시에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한자를 통한 한자어의 학습, 그리고 더 나아가 한자어의 학습이 한국 어휘의 이해, 더 나아가 한자문화권 이해 정도까지 발전하려면 현재의 교과서 구성으로는 매우 요원하다고 판단된다.

한문 문장은 더욱 이와 같은 실용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판단하고 있다.²⁾ 그러나 민족, 국가라는 사회적 규범과 전통이라는 측면은 결속력과 같은 새로운 힘을 가지게 되며, 현재에 있어서는 새로운 문화콘텐츠의 원천으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현재의 한자문화권에서 공유하고 있는 문화유산으로의 접근이나 자국 내의 전통 학문에의 접근 경로 또한 한문이라는 문장 형식이라면 이것이 실용성이 멀다고 할 수 없다. 문제는 그 목표가 어떻게 실현되는가에 있다.

결론적으로 한문과는 현실 생활에 맞는 실용성을 갖추고 있는 교과인가? 갖추고 있다면 그 실용성을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이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긍정하고 있는가? 갖추지 못하였다면 왜 갖추지 못하였을까? 어떤 개선의 노력이 필요할까? 등의 문제에 대해 답을 찾아야 한다.

본고는 실생활 연계라는 실용성에 초점을 맞추어 현재까지의 한문교과서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어떤 방향이 필요한가에 대해 논지를 펴고자 한다.

II. 실용성 획득의 현실

제2차 교육과정 때 한문교과의 신설 시기부터 현재의 2015 교육과정 과정까지 중학교와 고등학교 한문과의 목표 중 빠지지 않고 표현된 것이 있다. 바로 한문교육용 기초한자의 습득이다. 이 목표는 한문과의 가장 중요한 지식 전달 내용이었다. 기초한자의 습득이 있는 후에 어휘의 학습과 문장의 학습이 존재할 수 있고, 이 학습으로 인해 어휘 생활과 민족 전통 문화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일련의 논리가 구성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엄밀히 말해 기초한자의 습득이 어휘 학습이나 문장 학습의 습득과 가지는 연관성에 대해 우리는 100%라고 말할 수 없다. 기초한자를 습득하였다고 하여, 그 한자로 구성된 모든 한자계 어휘를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더욱이 한글로만 표기된 한자계 어휘를 이해하고 습득한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이해와 추론 과정을 필요로 한다. 주지하듯 한자계 어휘는 그 구성 방식이나 짜임, 유래 등에 있어서 다양하기 때문에 단순히 한자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하여 그 의미를 이해 파악

1) 윤채근(2002)은 이에 대해 “한자·한문 교육의 실용적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첩경으로는 결국 한자·한문에 대한 지식 없이는 불가능할 일상 언어생활의 다양한 국면들을 실례를 통해 설명하고, 가급적이면 학습자 자신이 그러한 필요성을 깨달아가도록 유도하는 길이 최상책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일일까? 필요성을 깨닫도록 유도하는 길은 무엇일까?

2) 고전교과는 대부분 같은 인식을 하고 있다. 곧 실용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인식이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문장도 마찬가지여서, 어법 형식은 물론, 그 문장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능력은 한자를 습득하였다고 하여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이 둘을 완벽히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결국 이 학습을 마친 학습자가 이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면 죽은 지식이 될 수밖에 없다.

실제 한문과와 서양의 라틴어 교과 학습의 비교가 가지는 문제점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한문과에서 학습한 한자 자형은 현실의 언어생활에서 숨겨진 것들이다. 곧 사전이나 자전을 들추어서 보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한글로 표현된 것을 볼 수밖에 없다. 한글로 표현된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한자를 머릿속에 떠올리게 된다. 우리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연속된 한자들을 떠올리고, 그 중에 선택을 하게 되며, 이렇게 두 자와 세 자를 놓고 앞뒤를 맞춰 가면 그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을 거친다. 결국 한자를 학습하여서가 아니라 그 어휘가 그 한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학습하였기 때문에 즉각적인 반응이 올 뿐이지, 그 어휘를 학습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한자를 학습한 것과 어휘의 이해 사이에 괴리를 겪게 된다. 그 이유는 표기의 방식 때문이다. 한글로 표기하고 한자로 이해해야 하는 시각적 불일치성이다. 반면 라틴어는 다르다. 라틴어는 여전히 라틴문자를 사용하고 있고, 이 라틴어는 영어 뿐 아니라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등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곧 표기 형태로만 보아도 라틴어 학습은 유용성을 획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자. 한글로 “표리부동”이라고 표현한 것과 “表裏不同”이라고 표현된 것은 시각적으로 한자 학습자들에게 큰 이해의 차이를 가져온다. 1800자로 구성할 수 있는 “대변불통”은 어떨까? 이 단어를 시각적으로 목도하는 순간, 이 단어를 구성하는 한자를 떠올리며,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까? 大便不通은 한자로 표기하지 않으면 수많은 선택과 오류를 반복하게 된다. 그렇다. 우리는 한글전용이다. 한자로 표기하지 않는다. 여기에 실용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반면 로망스제어들은 그 표기 자체에 라틴계 어휘의 흔적이 남아 있다.

의미	라틴어	로마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남자	homō, hominem	om	uomo	homme /ɔm/
여자	mulier, mulierem	muire	moglie	OF moillier
아들	filium	fiu	figlio	fils /fis/
물	aquam	apă	acqua	eau /o/
불	focum	foc	fuoco	feu /f ø /

영어 단어에서도 라틴어의 흔적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라틴어	영어
villa	villa, village, villager
alta	altitude, altimeter, alto
antiqua	antique, antiquity, ancient
longa	longitude, longevity, long
magna	magnify, magnificent, magnitude
pictura	picture, picturesque, pictorial

1989년 한겨레 신문의 등장 시점에 나온 동아일보의 첫 면과 한국전력공사 주권이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5 500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h2>한국전력공사주권</h2> <h3>五株券</h3> <h1>金貳萬五仟원整</h1>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p>인지세현금납부용</p> <p>승인제 89-110 호</p> <p>세액 30 원정</p> <p>출발일 1989.5.14</p> <p>여의도세무서</p> </div> <div> <p>第 1 回 發行</p> <p>나 第 01200239 號</p> </div> </div>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1. 會社의 商號</td> <td>한국전력공사</td> </tr> <tr> <td>1. 會社의 成立年月日</td> <td>西紀 1981 年 12 月 31 日</td> </tr> <tr> <td>1. 會社가 發行할 株式의 總數</td> <td>壹拾貳億株</td> </tr> <tr> <td>1. 壹株의 金額</td> <td>金五仟圓整</td> </tr> <tr> <td>1. 株式의 種類</td> <td>記名式普通株式</td> </tr> <tr> <td>1. 株式發行年月日</td> <td>西紀 1989 年 5 月 30 日</td> </tr> </table> <p>本株券은 當公社의 定款에 依한 株式五株의 株主임을 證하기 爲하여 裏面 記名者에게 交付함.</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div> <h2>한국전력공사</h2> <p>社 長 安 秉 華</p> </div> <div>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p>한국전력공사</p> <p>0831023911</p> </div>		1. 會社의 商號	한국전력공사	1. 會社의 成立年月日	西紀 1981 年 12 月 31 日	1. 會社가 發行할 株式의 總數	壹拾貳億株	1. 壹株의 金額	金五仟圓整	1. 株式의 種類	記名式普通株式	1. 株式發行年月日	西紀 1989 年 5 月 30 日
1. 會社의 商號	한국전력공사												
1. 會社의 成立年月日	西紀 1981 年 12 月 31 日												
1. 會社가 發行할 株式의 總數	壹拾貳億株												
1. 壹株의 金額	金五仟圓整												
1. 株式의 種類	記名式普通株式												
1. 株式發行年月日	西紀 1989 年 5 月 30 日												

다시 말해, 당시 한국인들이 느꼈던 실용성은 한자를 보고 읽기 위한 실용성이었을 뿐, 한자를 이용하여 어휘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현재의 한자 어휘 교육의 당위성과는 거리가 있었다. 따라서 어떤 어휘를 선정하고 학습시켜야 한다는 교육 내용의 선정은 이루어질 수 없었으며, 이는 사실 현재에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한문교과를 학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문교과에서 학습하는 漢文, 漢字, 部首, 筆順, 劃數 등의 기본적인 어휘조차 한자로 표기하거나 읽지 못하는 현실은 누구의 책임일까? 학생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기엔 어휘가 너무 보편적이다. 本文, 單語, 問題, 등이 중고등학교 기초한자의 수준을 벗어나서 일까? 國語나 數學, 科學, 生物 등의 교과명이나 숫자, 요일 등도 그러하다. 한문교과서에 자주 등장하는 출전인 <孟子>의 예는 어떨까?

[illegible]

3) 이 점에 대해서는 4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룬다.

居天下之廣居
 이 세상에서 가장 넓은자리에
 疇疇이 살아가고
 立天下之正立
 이 세상에서 가장 바른 곳에
 疇疇이 서며
 行天下之大道
 천하의 가장 큰 길을
 疇疇이 가는 사람이 대장부다
 得志, 與民由之
 내 뜻을 세상이 알아주면
 세상 사람과 나의 뜻을 펼쳐 나갈것이고
 不得志, 獨行其道
 세상이 날 알아 주지 않으면
 내 홀로 나의 인생을 살리라.

오역의 문제가 중점이 아니다. 사회 현상에서 이 같은 오역은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고, 한문 실력이 부족해서 일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블로거는 현역 국회의원이고, 박사 학위까지 받은 인문학 전공자이며, 중고등학교 시절 한문을 필수 교과로 배운 세대 중 한 명이다. 그렇기에 한문을 번듯하게 이용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문장이 많은 부분이 오역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인지하였다면 이렇게 옳기지는 않았을 것이다. 직역과 의역의 문제가 아니다. 물론 어디에선가 기재되어 있는 글을 전제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본인이 잘 모르니 무엇이 문제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것이다. 그럼 이 블로거를 한문을 모르는, 학습이 덜 되었기 때문이라고 비난해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이 학습자의 한문교과의 학습 과정에서 무엇이 부족하였던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일까?

우리의 현실은 이렇다. 한자어는 한글로 대체되어 표기되고 있고, 한문 문장은 인터넷을 찾아보거나 하면 금세 번역문을 찾을 수 있다. 이런 현실에서 한문교과의 두 내용의 축인 언어생활과 독해력 향상은 그 실용성을 담보하기 매우 어렵다고 말한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이는 우리 한문과 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실 모든 교과의 문제이기도 한다. 그런데 타 교과는 그 실용성을 현실과 접근하여 찾아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모든 학생들이 쉽고 재미있게 수학을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방향성을 잡은 것"이라며 "수학을 우호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고등학교 선택과목에는 '실용수학', '경제수학', '수학과제탐구'가 신설되고 통계교육은 생활 속에서 자료를 수집·분석하는 활동 중심으로 개편된다. 또 수학의 역사나 예술, 건축 등 다양한 수학 관련 도서를 학교 도서관에 비치해 '수학 독서'나 '독후감 쓰기' 같은 활동도 강화된다.

(중략)

예를 들어 초등학교 교과서에선 실용성이 떨어지는 넓이 단위인 아르(a),헥타르(ha) 등은 삭제되며, 현행 중2 과정에서 배우는 곱셈공식은 중3 교육과정의 인수분해로 통합된다.

여기서 우리는 교과의 실용성과 필요성을 다시 구분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필요성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실용성은 당연히 취득되지만,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하여 실용성이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실용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그 필요성을 부각시키거나 만들어 내면 된다. 어쩌면 우리는 그런 필요성이 사라지는 현실만을 개탄할 뿐, 필요성이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을 외부 환경 탓으로만 돌리고, 우리 스스로 조성하려 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III. 교육과정과 교과서 구성의 상관성

교육과정은 교육목표와 내용, 교수-학습, 평가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과정이란 곧 그 교과 전체적인 설계를 위한 밑그림이자, 필수적인 요소만을 제시한 것이며, 그 요소 각각을 이용하여 교과서를 구성하는 것은 필자의 몫이다. 더욱이 국정교과서가 아닌 인정교과 체제 내에서 교과서는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도록,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여러 내용을 수용하여 나름의 편집(editing)을 거쳐 교사에게 전달된다. 교사는 이 교과서를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육활동을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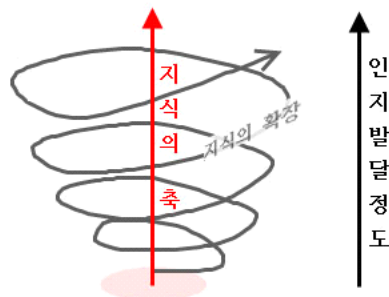
따라서 교과서는 1차적으로 교육과정의 내용을 준수하는 동시에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교과의 목표 혹은 학년별 목표를 달성하도록 구성해야 하며, 이 달성의 주체는 학생이고, 학생은 이를 성취기준과 성취수준으로 평가 받는다. 또 교사는 교재를 이용하여 학생들을 교수하므로, 교재 내용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교사는 때에 따라서는 교재의 내용을 재구성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재구성에도 역시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목표의 달성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재구성하는 이유는 목표의 달성 여부, 즉 성취 기준에 따른 성취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습자에 대한 다양한 고려가 뒤따라야 하고, 이 고려 속에서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 일률적인 교과서를 사용하기 보다는 학습자의 상황에 맞도록 재구성하는 것이 성취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서이다. 만일 그렇다면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가장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런데 교육과정의 무엇을 잘 따르고 있는가 하는 것은 논의의 대상이 된다.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개념과 용어, 내용을 잘 따르는 것이 교과서 구성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 한문과의 교육목표를 잘 따르는 것이 교과서 구성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지이다.

실제 현재의 한문과 교과서는 어느 교과서도 제도적으로 인정된 교과서이다. 인정된 교과서는 교과서 집필 요령을 충실히 이행하였고, 현재의 교육과정도 내용으로 볼 때 꼬리가 없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 의미가 교과서가 한문과의 두 가지 목표 “언어생활”과 “독해력 향상”의 성취 목표를 이루도록 구성되었는가 하는 것이라곤 보이지는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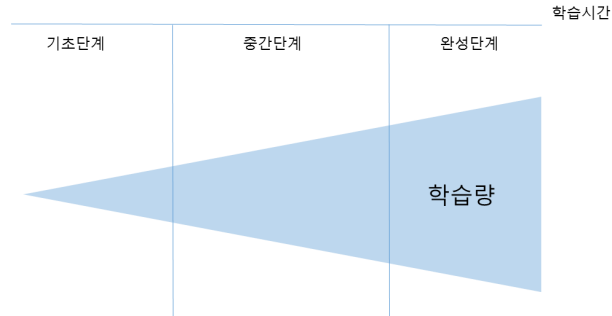
이는 다음 몇 가지 관점에서이다.

첫 번째, 교육은 학생들의 현재 상황 하에서 학습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곧 지식의 습득 혹은 내면화이다. 그리고 이 지식의 습득과 내면화는 교육이 계속될수록 강화되어야 하며, 현실적인 실용성을 계속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곧 성공감과 만족감의 경험이 증가하여야 한다.

두 번째, 하나의 경험은 다른 경험으로 확대될 수 있어야 한다. 곧 구구단을 배우는 것은 향후 다른 학습 요소의 중요한 요소로 끊임없이 확대된다.



또한 이 단계의 학습은 기초단계로부터 완성단계로 구분할 수 있지만, 그 시간적 배분에 있어서는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이는 학습대상에 대한 고려이기도 하지만, 기초단계의 중요성으로 인해 더 많은 투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가치관의 역할로의 확대와 이것이 나의 생활에서 얼마나 유용한 것이 될 수 있는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세 가지 관점을 견지하기 위해서, 교과서에서 교육 내용을 조직할 때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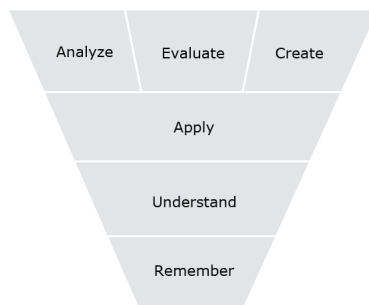
첫째, 계속성(반복성)의 원리

둘째, 계열성의 원리

셋째, 통합성의 원리

를 따라야 한다. 곧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일련의 학습 단계와 구조로 나아가며, 이를 타 학문분야와 통합하는 것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재의 구성에 있어서도 대단원과 소단원, 차시의 구분은 기초적인 인지내용이면서 자신의 주변으로부터 시작하여 정의적 내용이면서 복합적인 것으로 확대되도록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지식의 구조에 있어서도 bloom의 표현대로, 기억과 이해, 적용을 통한 분석과 경험, 창의까지 발전할 수 있어야 하며, 그 기초에는 기억과 이해가 존재한다.



그러나 현재의 한문교과서를 보면 이러한 교육내용 구성의 일반적인 원칙을 따랐다고 보기 어렵다.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의 원리라는 것은 결국 위계화와 심화를 말한다. 위계화란 중학교 한문교과의 학습자와 고등학교 한문교과 학습자가 구분되고, 고등학교 한문교과 학습 경험의 유무가 대학의 교양 한문 학습의 선경험으로 인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현재의 한문교과 학습자들의 학습 능력에 있어 차별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심화되지 않기 때문에 한문 교과서는 제재와 편집만 다를 뿐 여전히 지식 습득, 내면화, 현실적 경험, 확장, 통합으로의 확장이 두드러지지 않는다. 어떤 학습자나 어느 시기에 어

면 한문교재를 가지고도 한문교과를 이수할 수 있는 현재의 구조가 그것을 보여준다.

IV. 실용적 측면에서의 어휘와 문장 선택과 배열의 문제

이제 현재 교과서의 문제를 어휘와 문장 선택과 배열의 문제로 나누어서 살펴보자.

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3종의 교과서에 수록된 어휘의 수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이 어휘의 수는 한자로 표기된 것만을 나타낸 것이다.

A	B	C
374개	412개	612개

교과서별로 차이는 크다. 어떤 교과서는 374개이고 어떤 교과서는 612개의 어휘를 한자로 노출시키고 있다. 어휘를 활용하는 방식이나 설명 방식 등에 있어서는 대동소이하기에 그 논의는 피한다.

실제 교육적 관점에서 이 어휘들의 구성은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이 발견된다.

첫째, 어떤 교과서에서도 어떤 어휘도 중복적으로 표기되지 않는다. 물론 제목을 표기하는데 있어서는 通通, 生生, 本文, 自家 등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소단원의 구성 제목일 뿐이다. 예를 들어, 1단원에서 日記를 학습하였는데, 이 일기라는 단어는 교과서 전체를 통틀어 한 번도 한자로 표기되지 않고 있다. 학습자는 1단원에서 한번 학습한 단어를 기억해야 한다. 계속 내용이 이어지는 교과서에서 일기라는 어휘가 등장할 때, 日記라는 표기를 한자로 표기하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는다. 한 교과서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의 표기가 반복될 뿐이다. 한자로 표기되지 않는다는 것은 학습자가 이 어휘를 한자로 알던 모르던 관계없다는 의미이다. 언어 학습의 기본은 반복적 훈련이고, 이 반복적 훈련을 우리는 교과서를 통해 구현할 수 있음에도 이를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둘째, 어휘의 선택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교과 어휘도 표기되지 않고 있다. 교과서에 漢文이라고 표기한 교과서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한문교과서임에도 ‘한문’이라고 한글로 표기하고 있다. 漢字가 한자로 표기된 교과서를 한 종 이상 찾기 어렵다. 本文, 新習, 單元, 平價 등의 용어는 물론이요 部首, 筆劃, 劃數, 字典, 辭典 등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언어생활 특히 학문용어와 관련 있다고 하는 단어들 심지어 高句麗, 百濟, 新羅, 高麗, 朝鮮은 물론이요 大韓民國이나 韓國 또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발견된다.

셋째, 제시된 어휘가 각기 다르다. 세 교과서 공통의 어휘는 불과 50여개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 어휘는 모두 다르다. 이것은 곧 교과서마다 학습자들은 다른 어휘를 학습하게 됨을 의미한다. 또 이 어휘들은 실질적인 실용성이 있는 것인지, 어휘의 풀이가 직접적인지, 타 어휘를 학습할 때의 전이도를 갖춘 것인지 등등 어떤 기준으로 마련된 것인지 추측키조차 어렵다. 학습의 균질화가 일어날 수 없는 구조인 셈이다.

이 세 문제점의 원인은 간단하다. 한문교과의 필요성을 증대할 수 있는 어휘를 선정하고, 학습자의 학습 경험을 증대하여 실질적인 숙련과 활용을 하는 것보다는 “인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正月”이란 단어는 해당 교과서에서 무려 20여 번이 등장한다. 그러나 단 한번 한자로 표기되었을 뿐, 19번은 여전히 한글로만 표기되고 있다.

필자는 지금 한자혼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한문교과서이다. 한문교과서의 가장 기본적인 학습은 한자이며, 한자 어휘이고 문장해독이다. 그런데 한문교과서에서 제시된 어휘는 한글로 표기된다. 한자를 학습해야 하는 이유를 한문교과서 스스로 놓아버리고 있는 셈이다.

문장의 선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한문과의 목표를 한문문장의 독해력 향상을 첫 번째 목표로 인식하여 다양한 문장 형태의 작품 읽기를 위주로 하고 있다. 읽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감상하는 것이 현재 한문교과서의 구성이다. 그런데 한문교과서에 배운 다양한 문장에 대해 학습자는 깊은 인상을 받았는가? 학습자는 한문교과를 통해 한문해석의 기초를 닦았을까? 다시 말해, 한문교과를 학습한 중학교 학습자라면 어느 정도의 한문 독해 실력을 갖추고 있을까? 중고등학교 모두 이수하였다면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추었을까? 검증된 실험 방법도 결과도 없으니 이에 대해서는 대답키 어렵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유용성의 부재, 곧 실용성의 부재이다. 증명할 수 없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또한, 교과서에서 수록하고 있는 작품들은 집필진에 의해 선별되고 구성된다. 이러다 보니 11종의 교과서 모두가 동일한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각기 다른 한문 문장으로 구성되고, 그 학습의 순서도 다르다. 어떤 경우에는 그 주제도 다르고, 감상법도 다르다. 어떤 교과서를 배우느냐에 따라서 학습자가 학습하는 내용이 다른 셈이다. 물론 집필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자율성은 부여받아야 하며, 이 자율성은 교과서의 특징으로 드러나야 한다. 그러나 그 교과서의 특징은 제재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의 효율성과 교육 목표 달성에 맞는 체제를 갖추고 있는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실제 중고등학교 한문교과서에서 다루는 한문 제재는 위계적으로 보면 큰 차이가 없으며, 더 나아가 대학의 교양한문에서 다루는 제재와도 차이가 없다. 교육용 한자로 위계를 나누다 보니 생긴 문제이다. 인지적 교과를 정의적 교과로 대단원을 구성하고, 그 정의적 교과에 맞도록 제재를 끼어 넣다보니 생긴 문제이다. 언어로서의 한문 학습이 더 중점이어야 했다. 제재의 선정 보다는 제재를 어떻게 구성하여 어떻게 교수하고 학습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더욱 중점을 두었어야 했다는 의미이다.

구성에 있어서도 어떤 교과서도 단계적 학습을 학습목표로 구성하지 않는다. 물론 대부분의 중학교 한문교과서는 한자에 대한 기초가 대단원 1로 구성된다. 그러나 이후의 대단원 구성을 보면 다르다. 필자가 다르니 당연히 내용 구성에도 차이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그럼 필자는 한문교과서의 목표를 어떤 것으로 세우고 있는 것일까? 정의적 목표 혹은 인지적 목표? 인지적 목표라면 문장의 형식과 내용에 따른 단문에서 복문으로의 과정일까? 기초적인 산문형식에서 운문으로 일까? 한중일의 공통 문화유산에서부터 한국의 한문 작품까지일까? 이 교과서를 학습한 학습자가 향후에 어떤 지식의 습득과 경험을 체득하기를 원하는 것일까라는 최종의 목표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교과서는 개별적인 교과서를 보더라도, 여러 교과서를 모아 놓고 보더라도 이런 체계성이나 최종 목표를 어디에 놓고 있는가를 발견하기란 여전히 쉽지 않다.

예를 들어, 보자. B라는 교과서 10단원에서는 “주술구조로 이루어진 문장의 구조를 안다”가 학습목표로 제시되어 있다. 본문에서 제시된 성어를 포함한 4개의 문장 중 1개만이 주술구조로 이루어진 문장이었으며, 12단원에서는 명령문의 특징을 학습한다고 하지만, 3개의 제시 본문 중 1개만이 명령문 문장이며, 11단원에서 주술 학습이 선행학습으로 이어지지도, 13단원에서 12단원의 학습이 선행학습으로 이어지지도 않고 있다.

한편, 소단원의 제목, 본문 내용과 어휘의 선정과는 또 유리되어 있는 현상도 계속하여 발견되고 있다. 이런 구성 자체가 어렵다 보니, C교과서 같은 경우는 아예 본문과 어휘를 구분시키기 위해 활용하기를 두 번에 걸쳐 구성하기도 한다.

결국 우리의 한문교과는 사회 언어 환경의 변화와 교과 위상의 변화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3차 교육과정의 구성이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물론 변화도 있다. 판형도 변하였고, 채색도 변화하였으며, 활동도 늘어났다. 그러나 어떤 교과서도 어떤 교육과정에서도 큰 골격, 체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V. 실용적 측면에서의 교과서 구성과 설계 방안

2105년 교과용 도서 개발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고 한다.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적합하며, 핵심역량 함양을 도모하는 실생활 중심의 교과용도서 개발

- 교육과정을 충실히 구현하는 교과용도서
- 바른 인성과 창의융합적 사고력을 갖춘 인재 양성에 적합한 교과용도서
- 일상생활과 연계되어 이해하기 쉽고 흥미를 유발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과용도서

일상생활과 연계되어 이해하기 쉽고 흥미를 유발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과용 도서라는 세 번째 항목 중 본고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은 일상생활과 연계된 교과서 내용 구성의 문제이다. 따라서 학습자 중심이라는 논의는 본고에서 따로 하지 않는다. 이는 또 다른 설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학습은 반복된 경험을 통해 성취감을 취득하는 과정이다. 또 이 경험 환경은 곧 학습자에게 문제 환경으로 꼭 수행해야만 할 필요성을 제공하고, 이 성취감은 습득 지식의 유용성을 증명해 준다.

따라서 앞으로 제작될 교과서는 지식의 반복을 통한 나선형 구조를 지닐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함이 첫 번째 구조이다. 다시 말해, 선행된 학습 지식이 후행될 학습 내용에 포함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 國民이라는 단어를 학습하였다면 이후의 단원에서서 국민이라는 단어는 여전히 한자로 노출되어야 할 뿐 아니라, 본 단원에서 배우는 한자와 결합된 歌도 별도의 학습 없이 사용됨으로써 자연스럽게 반복과 확장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한문 문장의 학습도 동일하다. 선행지식에 +를 계속하는 구조와 확장으로의 구조 변화가 필요하다. 물론 이를 위해서 대주제 중심의 구조를 변화시킬 수도 있고, 대주제 중심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변화를 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구성상의 원리만으로 현실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란 쉽지 않다. 특히 실용적 측면에서 본다면 변화는 쉽지 않다. 우리는 여전히 어떤 어휘를 선택하고, 어떤 제재를 선택하며, 900자를 어떻게 소모할까의 문제에만 집중하기 때문이다. 곧 재료의 선택에만 집중하여 그 재료를 어떻게 구성하여 학습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신경을 쓰기란 여전히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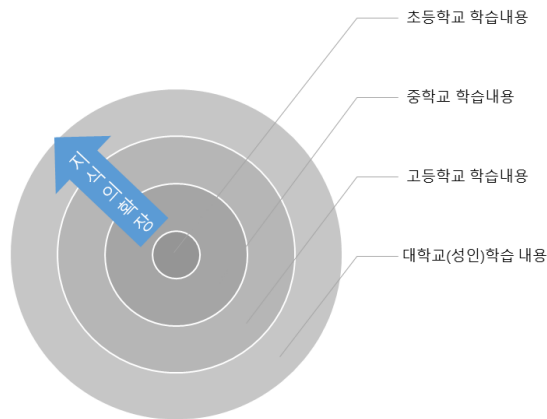
첫째, 한문교과 학습용 어휘표 선정이다. 곧 한문교육용 기초한자로 이루어지는 어휘 중 한문교과에서 필수로 학습해야 할 어휘 목록을 제시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쓰기 한자어와 읽기 한자어의 구분과 주제별 구분도 필요하다. 영어교과를 비롯하여 많은 언어교과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둘째, 한문교과 중학교, 고등학교 학습용 한문 문장 제재 선정이다. 내용적인 면에서의 제재와 문법적인 면에서의 분류를 기준으로 다양한 문장 중 중학교 학습용 기본 한문 문장, 고등학교 학습용 기본

한문 문장을 선정하고, 이를 교과서의 기본 내용으로 삼는 방법이다. 중국에서 사용하는 제재 선정 방식이다.

현재의 한문교과는 비효율성을 가지고 있고, 비효율적이라면 효율적이 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 효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몸집을 줄이고, 집중할 것을 선정한 후 집중해야 한다. 중학교를 학습하면 누구나 이 작품을 읽었다, 독해할 수 있다, 이 어휘를 읽을 수 있다, 이 어휘를 사용할 수 있다는 성취 기준이 필요하고, 그 성취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학습자를 최대한 많아지도록 하는 것이 교과 학습의 목표이며, 교과서 구성의 원리여야 한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물론 이 두 가지 제안에 대해 반대나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시도해 보지 않았고, 이 두 가지 안에 대해 각기 다른 주장이 팽배해 질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작품이 좋은 작품인가에 대한 선정 방법과 기준 모두 달라지고, 새로운 문제를 양산해 낼 수 있다. 전공자들마다 자신의 선호 작품을 넣으려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승적 차원에서 보면 이는 최소한의 지식 범주 집합을 구성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교과서에 수록되었던 문장을 수집하고, 이를 다시 유별화시킨 후, 그 중에서 주제별로 혹은 문형별로 가장 기초적인 문장을 선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어려운 일은 이를 우리가 스스로 합의하는가이다.

또한 지금보다 범주가 작아지니 한문과의 위기라는 말이 나올 수 있다. 누구나 가르칠 수 있는 교과가 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누구나 가르칠 수 있는 내용을 학습 내용으로 삼기 때문이다. 곧 읽고 해석하기 위주의 교과서라면 아무리 어려운 문장인들 누구나 가르치지 못할 것인가? 오히려 교사의 전문성은 독해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교수 방법과 평가의 차이이다. 누군들 수학을 못 가르치며, 누군들 영어를 가르치지 못하겠는가, 교과서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다. 그들은 교과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렇게 범주가 정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지식의 전달과 관련된 교수-학습, 평가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각기 다른 형태의 교과서 모델이 등장할 수 있게 되고, 그것으로 교과서는 차별화 될 수 있다. 이제 이 재료를 어떻게 요리하여 더 맛있게 식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가에 집중하게 됨으로써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교육적 효과의 극대화는 곧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실용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한문교과가 지향해야 할 “실생활 연계형”이다.

IV. 결론

학습자는 자신이 학습한 경험이 다른 학습에 전이되었을 때, 혹은 생활 속에서 활용되었을 때 그것을 실용적이라고 여긴다. 때문에 실용성은 언어생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한국인으로서의, 동양인으로서의, 혹은 인류로서의 보편적 가치와 삶의 태도 또한 실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 한문교과는 어쩌면 우리는 학부모들이나 일부 옹호론자들이 함께 하는 한자와 한문 교육 필요성에 지나치게 기대어 있는지도 모른다. 그들이 주장하는 한자병기나 초등학교 한자교육이 한문교과와 연계될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를 하고 있기도 하다. 한문교과의 쇠락에는 사회 언어생활의 변화와 교육 정책, 어문 정책이 크게 자리하고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충분한 이유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반면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변화하지 않은 교육의 문제가 크게 자리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변화하였고, 교과서는 변화하지 않았다. 한문교과서는 한문교과서의 모양을 갖추고 있으나 한문 독해력 향상이나 어휘 생활과는 크게 관련되어 보이지 않는다. 3차에서 09년 개정 교육과정까지 우리 교과서는 그러했다.

하지만 이제라도 변화의 길을 찾아야 한다. 지식의 양을 한정하고, 지식을 단계별로 구성해야 한다. 반복적인 단계를 구성해야 하고, 인지에서 정의까지 나아가는 단계도 구상해야 한다. 학습자들이 학습 후 학습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야 한다. 그 경험이 긍정적으로 다른 학습으로 전이가 되어야 한다.

기초 없이 중간 단계부터 학습할 수 없어야 하며, 기초는 모든 고등학교 학습까지의 핵심요소로 구성되어야 한다.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지식은 그 양은 적지만 핵심적인 요소로 중학교 지식의 기초가 되어야 하고, 중학교 지식은 양이 확대되나 고등학교의 지식 양보다 적으면서도 고등학교 지식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고등학교 지식은 향후 대학이나 성인으로서의 기초 소양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

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가 한문교과에서 실현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한문교과의 내용을 재정비하는 것이다. 문제는 그 시기와 중점을 누가 어떻게 조절하는가에 달려있다. 한문교과를 담당하는 우리의 책임이다.

문자학이 필요한 한문교과서 -신석기 시대 농경문화를 중심으로

김동석(성균관대)

<목 차>

- I. 서론
- II. 농경문화와 갑골문자
- III. 교과서에 수용된 문자학
- IV. 결론

I. 서론

한국어는 매우 발달한 표음문자이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어원을 학습할 수 없다. 한국어의 어원 학습을 위해서도 한자는 필요하다. 중국에서도 한자의 표음을 중요시하던 시기가 있었다. 상형 문자가 많았던 갑골문자에서 예서에 이르게 되면 집중적으로 표음문자에 가까운 形聲이 크게 발달하였다고 한다. 이 문제는 양계초가 지적한 적도 있다. 양계초는 『설문』의 15,016자 중에서 형성자는 8,407자이고 상형은 1,000여 자에 불과하며 중국 문자는 90퍼센트가 소리와 관계있다고 지적하였다.¹⁾

특히 우리의 경우 한자의 어원으로 한자어를 이해하는 한국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게다가 한자 교육은 언어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 소홀히 된 채 한자 학습이 단순한 암기 위주로 수업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다. 문제는 문자학에 대한 이해 없이는 한자의 생성과 발전에 대한 적절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암기 위주의 학습에 치우치게 되어 이러한 문제점에 당면하게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신석기 시대 만들어진 상형 문자 중에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농경문화와 관련된 한자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 글자들이 부수가 되거나 이후 진화해서 로 계속발전하기 때문에 중요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 한자들이다. 학교 교육의 현장에서 한자 교육이 단순한 선과 점을 암기하는 수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갑골시대의 문자 학습이 병행되어야 한다. 지금의 교과서에 갑골문자를 중심으로 상형 문자가 대량 들어오게 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에서는 문자학에 대한 담론이 비교적 보편화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이를 수용하여, 이를 근거로 연구를 발전시켜가고 있는 상황이다. 문자학과 한문 교과교육과 연관하여 연구가 시도되기도 했다.²⁾ 한자문화학과 한자 교육을 연관지어 논의가 된 적도 있다.³⁾

본고에서는 현재 중고등학교 한문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한자를 문자학과 연관지어 설명하고자 한

1) 中 吳浩坤・潘悠, 梁東淑譯(2002), 190쪽 참조 ; 진진, (1933), 135쪽

2) 송병렬(2012)

3) 양원석(2014)

다. 이미 학생들이 습득하였거나 습득해야 할 어휘를 문자학의 배경이 되는 지식을 가지고 학습하여 흥미로운 한자교육이 진행된다면 체계적인 한문 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이런 문자학의 배경을 이해한다면 한자 학습을 단순히 필획을 암기해야 하는 학습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 녹아 있는 인류의 사유방식, 논리 같은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실용적인 면을 고려한다고 해도 한자학습은 암기위주의 학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자의 역사가 5천여 년 전후로 보았을 때 인류는 눈에 들어오는 자연과 신체 일부분에서부터 시작한 상형 문자가 점차 주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들이 상형문자로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을 끄는 것이 있다. 바로 신석기 농경문화가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잉여 농작물이 있기 때문에 문화생활이 가능했고 농사를 하기 위하여 만든 농기구, 그릇, 곡물, 가공 식품 등이 문자 세계에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인공으로 만든 물질 문명이 이 시대의 사람들의 사유방식으로 들어와 문자가 되었고, 이것을 계승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답습하게 되었으며 지금 이 순간도 10억이 넘는 사람들이 아득한 시대의 사람들이 만들었던 한자의 규칙을 따르고 있다. 바로 문자를 사이에 두고 신석기 시대의 중국인과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이다.

인류가 문자를 발명한 것은 5천 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고 중국에서 은허에서 발굴된 갑골문의 경우로 추정한다면 이미 3천 여 년 전에 문자로 세계가 어느 정도 성숙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갑골문자는 20세기 문헌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1899 국자감의 祭酒로 있던 王懿榮이 갑골문을 발견하면서부터 문자학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정립되었다. 殷墟 유적지는 기원전 1319년에서 기원전 1046년에 이르는 시기로 河南城 安陽市 서북쪽에 있는 小屯村 주변지역이다.

甲骨文은 龜甲과 數骨에 쓴 글자이다. 주로 칼에 의지해서 쓰고, 붓과 朱砂를 적서 쓰기도 했다고 한다.⁴⁾

문자학의 체계는 계속 발전해왔지만 우리 교과서에는 이런 성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문자학의 내용은 일부가 육서에 의거하여 진행되고 있기도 하지만 문자가 만들어진 시대의 배경과 역사가 빠진 채 학습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문자학을 학습하게 되면 고문헌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한문(古漢語)을 학습하는데 도움이 되며, 고대의 物質 文化와 社會 習俗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견해가 있다.⁵⁾ 그런데 고대의 물질문화와 사회 풍속에 대한 이해 없이 문자를 이해한다는 것은 학습이 암기 위주의 한자 쓰기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실 문자학에 대한 이해 없이는 고문헌의 정확한 이해와 고대 문물에 대한 이해를 분명하게 하기 힘들다. 한문 교육이 시작되는 시점에 중국과 우리가 이루어낸 문자학의 성과를 일정부분 수용하여 고문헌 이해에 활용하여야 한다고 본다. 중국의 경우 이미 연구 체계가 갖추어져 있다. 우리의 현실에 맞게 수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학습 현장의 형편이 밝지 못하다. 고문사를 깊이 있게 연구하

4) 구석규, 88면 참조

5) 中 經本植 저 · 김현철 외 4명 譯, 『고한어 문헌학의 기초』, 18~34면 참조.

는 초석이 되지만 깊이 있는 고문사를 배울 기회가 적기 때문에 고문사에 관심을 가질 수 없는 것이 학습 현장의 현재의 상황이기도 하다.

하지만 문자학을 통한 한자 학습은 이루어져야 한다. 적어도 정상적인 한자 교육을 위해서 필요하다. 육서인 상형과 지사, 회의, 전주, 자차에 의존하여 한자를 풀이하고, 나아가 계통이 있는 문자학으로서 한자의 기초를 학습하여야 한다고 본다.

II. 농경문화와 갑골문자

신석기 시대는 인류가 정착하며 농경을 하게 되었고 점차 문명을 축적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갔다. 중국에서 신석기 시대는 仰韶문화(기원전5000~기원전3000)로 부터 시작하여 大汶口문화(기원전4500~2300), 龍山 문화(기원전2900~1800), 小屯 殷墟 文化(기원전 1600)로 이어진다.⁶⁾

현재 출토문헌을 보면 초기 문자학은 占卜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占卜은 농경문화가 정착하기 시작한 신석기 말기에는 이미 출현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연구내용이다.

현존하는 考古의 材料에 근거하여 보면, 甲骨 문자의 占卜術은 신석기 말기에 이미 출현하였고, 상나라에 이르러 크게 번성하였으며, 상나라가 망한 이후에도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다. 일부 소수민족은 현대까지도 보존하고 있다.⁷⁾

農耕을 하며 문화가 있었던 신석기 시대에 占卜을 위해 사용했던 甲骨와 소의 肩胛骨을 통하여 문자 생활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언급한 것이다.

갑골문 연구가 필요한 원인 중에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한자의 초기 모형이 이미 은나라 시대의 한자를 계승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갑골 시대 사용했던 문자는 후대에 문자 체계로 계승이 되었지만 갑골문 이외의 기록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갑골시대에도 문헌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구석규는 『尙書』의 「多士」편에 “有冊有典”이라는 말을 예로 들면서 은나라 시대에도 죽간 같은 책이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죽간에 쓰여진 글자는 썩기 쉬어서 원형을 보관하기 힘들어 전해질 수 없었다고 말하였다.⁸⁾

상서에 있는 “惟爾知惟殷先人 有冊有典 殷革夏命”라는 내용은 은나라가 망하고 주나라가 건립될 때 은허에서 낙양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따르지 않으려는 은나라 頑民을 설득하기 위하여 주공이 한 말이다. 주공은 殷나라도 이미 夏나라에서 혁명했던 사실을 冊과 典에 기록해 놓았다는 사실을 언급한 것이다. 이점은 지금 특별히 시사하는 것이 있다. 구석규는 은나라에 문헌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상서』에 남긴 언급을 통하여 알 수밖에 없을 정도로 다른 기록물이 거의 사라졌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때

6) 中 王寧著·홍영희외 3인 譯(2009) 59쪽 참조.

7) 中 李學勤(2013), “根據現有考古材料, 甲骨占卜在新石器時代晚期已經出現了, 至商代而大盛, 商亡以後延續未絕, 在某些少數民族甚至保存到現代.”

8) 구석규, 91면

문에 출토된 갑골문이나 자기, 옥 같은 것으로 문자세계를 살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고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갑골문이 추정하기 힘든 시기인 신석기 시대를 거쳐서 발전하였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신석기 시대의 중요 특징으로서 농경문화와 이를 통한 정착문화가 꽃 피우게 된 사실을 문자와 연관시켜 보고자 한다. 특히 갑골문이 어느 정도의 문자 체계를 갖추었다는 것은 이미 이 전단계인 신석기 시대에 문자생활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기에 대한 고찰은 그 당시 생활상은 알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고, 우리의 교과서 체계에서 크게 수용하지 못했던 내용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농사혁명은 불의 발명과 함께 정착생활을 이끄는 중요한 생활방식이 되었다. 농경문화의 발달로 잉여 생산물이 생산되었고 이를 보관하거나 담는 그릇도 다양하게 발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에 이점을 고려하여 농경문화의 흔적을 갑골문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상형의 경우 고대에 사용했던 그릇이나 무기, 농기구 등에 대한 이해없이 한자를 이해한다는 것은 실상을 보지 못하고 문자만 학습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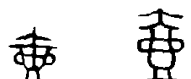
특히 한자에 농경 문화와 관련된 글자가 많은 것은 바로 정착생활을 하면서 생활 주변의 用具가 상형 문자 같은 것으로 채워져 사용되면서 문자로 정립이 되었고, 이를 계기로 문자 생활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훗날 문명의 발달로 이런 용기를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문자는 쓰던 관례가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지금 시대에 와서는 신석기 시대 이후로부터 익숙하게 사용했던 생활주변의 器皿들이 지금에 와서는 이해하기 용이하지 않은 器皿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문자 생활은 신석기 시대의 인류가 형상하여 만든 상형 문자 같은 것이 지금의 한자로 까지 緣變하여 지금이 한자가 되었다. 이 한자로부터 파생된 수많은 한자어는 우리의 언어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알 수없는 아득한 신석기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지금 우리의 언어생활과 일정부분 관련이 있다는 것은 문화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보인다.

그 둘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은 문화의 변화와 함께 생활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고려하지 않고 한자 학습을 하게 되면 바로 필획을 암기하기만 해야 하는 수업이 될 것이다.

농경 시대에 발생한 한자가 있지만 중학교 900자와 고등학교 900자에 포함되지 않은 글자도 많이 있다. 농경문화와 관련된 글자 중에 먼저 지명과 관련이 있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조사이다.

1. 器皿 漢字

한자	뜻	갑골문 ⁹⁾	중학·고등 한자
酉(유)			중학 900자
食(식)			중학 900자
勺(작)			기타

한자	뜻	갑골문 ⁹⁾	중학·고등 한자
匕(비)			기타
皿(명)			기타
鼎(정)			기타
鬲(력)			기타
壺(호)			기타

器皿과 관련된 글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학습목표로 지정된 한자에 포함된 것은 많지 않다. 중학교 한자 중에 ‘酉’와 ‘食’이 있고, 勺, 匕, 皿, 鼎, 鬲, 壺는 중고등학교 한자 범위에 없다. 농기구와 관련된 한자 중에는 ‘耒’와 ‘斤’이 있는데, ‘斤’은 고등학교 학습한자이다.

酉는 술동이, 酒는 술을 말한다.¹⁰⁾ 술병에 있는 선은 문향을 말한다고 한다.¹¹⁾ 꼭대기에 있는 것은 뚜껑으로 보인다. 술을 알코올 성분이 있기 때문에 열어두면 저절로 휘발되기 때문에 뚜껑을 만들어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食은 뚜껑과 음식 밥이 담겨있는 그릇을 상형화 한 것이다. 어떤 글자에는 몇 개의 점이 있기도 한데 김이 나는 밥을 표현한 것이다.¹²⁾ 밥뚜껑 밑에 있는 점은 밥이 넘쳐 흘러내리는 모양을 말하기도 한다.¹³⁾

勺은 음식물을 담는 국자 모양이다. 이 국자의 자루가 길고 특이 있어 木을 첨가하여 杓라는 글자로 국자의 자루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다.¹⁴⁾ 국은 뜨겁기 때문에 쏟으면 데일 수 있기 때문에 자루를 길게 하여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匕는 숟가락 匙의 본자이다.¹⁵⁾ 皿은 대야나 그릇의 상형이다.¹⁶⁾ 명은 본래 액체 같은 것을 담는 기구이다. 용기의 총칭이기도 하다.¹⁷⁾ 皿과 관련하여 중학교 한자 900에 포함되는 한자로는 盆과 盛이 있다. 이밖에도 鼎과 鬲은 술을 상형화 한 것이고 壺는 뚜껑이 있는 술그릇이 있다. 신석기 시대 농산물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거나 술을 만들어 먹을 때 사용했던器皿이다.

9) 본고에서 갑골문의 도형은 2006년 文物出版社에서 간행한 『甲骨文小辭典』와 『古文字詁林』 등에서 인용하였음을 밝힌다.

10) 김언중(2005), 36쪽 참조.

11) 中 左民安, 513쪽, “當中的兩條橫線是酒瓶上的花紋”

12) 김언중(2005), 183쪽 참조.

13) 中 左民安, 557쪽, “兩側的兩個點兒, 表示已經裝滿後外流了”

14) 김언중(2005), 608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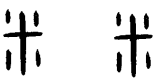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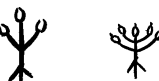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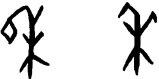

15) 김언중(2005), 453쪽 참조.

16) 김언중(2005), 45쪽 참조.

17) 中 左民安, 403쪽, “皿字的本義就是裝東西(液體爲多)的器具”

그런데 농업생산물과 관련해서 만들어진 한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한자에 자주 나타난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내용이다.

2. 농업생산물과 식물

한자	뜻	갑골문	중학·고등 한자
米(미)			중학 900자
麥(맥)			중학 900자
竹(죽)			중학 900자
草(초)			중학 900자
果(과)			중학 900자
禾(화)			고등 900자
棗(조)			기타
黍(서)			기타
瓜(과)			기타

농업생산물과 관련해서 만들어진 한자들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한자에 속해있는 것이 비교적 많다. 위의 표를 보면 농업생산물과 관련하여 중고등학교 1800자에 포함되지 않는 글자로는 ‘瓜’와 ‘棗’, ‘黍’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 글자는 학생들에게 일정 정도 학습에 어려움이 따르는 글자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설명을 기존 연구를 통하여 설명하여 보기로 한다.

米는 갑골문에서 벼이삭을 상형한 문자이다. 가운데 있는 선은 줄기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선에 있는 점들은 쌀의 알곡이라고 할 수 있다.¹⁸⁾

麥은 來에서 온 글자로 밀을 상형화한 글자이고 밀과 같은 科에 속한 보리를 표현하는데 사용되었다. 뿌리까지 그려 넣었다는 것이 특징이다.¹⁹⁾

18) 김언중(2005), 681쪽 참조.

竹은 대나무의 상형이다.²⁰⁾ 두 갈래의 대나무 아래에 있는 대나무 잎이는 설도 있다.²¹⁾ 갑골문의 모양에 따라 다양하게 설명될 수 있지만 위에 제시된 그림을 보면 뿌리 번식이 좋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대나무의 뿌리를 상형하여 그린 문자처럼 보인다. 특히 대나무 뿌리에는 마디가 있기 때문에 도형에 나타난 선도 대나무의 뿌리 마디를 상징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草는 艸와 日, 十 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글자이다. 艸는 무성한 풀을 日은 해이다. 그리고 十은 측량막대이다.²²⁾ 『설문·草部』에서는 무를 발음으로 보기도 한다.

果는 아래 부분을 나무를 말하고 윗부분은 충실하게 달려있는 과실을 나타낸다.²³⁾ 禾는 벼포기를 말한다. 첫 번째 획은 고개를 숙인 열매, 두 번째 획은 잎과 나머지 줄기와 뿌리를 의미한다.²⁴⁾

농업생산물과 관련된 글자는 중학교 900자에 포함되는 한자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자 발전 과정 중 비교적 기초적인 한자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3. 농경 문화

농경생활을 하면서 있었던 문화가 한자로 흔적이 남아 있기도 하다. 이와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몇 가지 살펴보기로 한다.

한자	뜻	갑골문	중학·고등 한자
卿(경)	벼슬	 	고등학교 900자
秉(병)	잡다	 	기타
牢(노)	우리	 	

卿은 음식상을 앞에 두고 마주 앉은 사람의 형상으로 卿과 동일한 字源의 글자이다. 이 음식을 임금 이 준 것이고 이들은 고관이었을 가능성이 있다.²⁵⁾ 牢는 宀와 牛가 합쳐져 만들어진 글자이다. 의미는 소가 울타리 안에 있는 모습으로 농경에 이미 소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다른 글자에 서는 소가 울타리 안에 있는 모습이다.

秉는 갑골문을 살펴보면 그 의미를 살필 수 있다. 왼쪽에 있는 것은 한포기의 벼를 그린 것이고, 이를 잡고 있는 것은 손을 뜻한다. 바로 손으로 벼를 잡고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쳐져 있는

19) 김언중(2005), 520쪽 참조

20) 김언중(2005), 88쪽 참조

21) 中 左民安, 447쪽, “多像兩枝下垂的竹葉”

22) 김언중(2005), 334쪽 참조

23) 中 左民安, 306쪽, “這是个象形字. 甲骨文的下部是樹木, 樹梢上結滿了果實”

24) 김언중(2005), 739쪽 참조

25) 김언중(2005), 98~99쪽 참조



것은 이삭을 말한다. 秉의 원래 뜻은 벼포기를 잡고 있는 모습이다.²⁶⁾ 벼 이삭이 늘어져 있는 것을 보면 농부가 농사를 짓거나 채집한 벼를 손으로 잡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인다.

秉이나 牢의 경우는 농경 생활의 일부분을 보여주는 듯하다. 卿의 경우는 조금 달라 농사를 지어 만든 음식을 그릇에 담아 두고 두 사람이 마주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농경과 직접관련이 있다고 할 수 없지만 농경 생활 이후에나 가능했던 생활모습이기에 언급했다. 이밖에도 年 같은 글자가 있지만 차후 좀 더 조사하여 언급하기로 한다.

III. 교과서에 수용된 문자학

갑골문자가 중학교 한문 교과서에서 한자풀이에 이용되고 있다.²⁷⁾ 이 교과서에서는 月, 天, 水, 土, 山, 火, 水, 木, 耳, 目, 口, 心, 族, 手, 面, 母, 女, 人, 大, 立, 鳥, 牛, 羊, 魚, 二, 三, 下, 末, 貝, 馬, 犬, 高, 京, 竹, 米, 門, 弓, 井, 田, 明 같은 글자가 언급되고 있다. 이 글자들에 대한 특징은 주로 상형에 치우쳐 있다는 점이다. 이중 농경 생활과 관련된 글자는 ‘田’가 있는데, 농경문화와 관련지을 때 더 많은 문자를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이는 한자 학습이 단순 암기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에 대한 작은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문자학은 다양한 학설이 상존하지만 육서와 상형, 지사, 회의를 포함한 육서²⁸⁾와 갑골문과 금문, 전서, 예서, 해서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기초지식이 학습되고 있다.²⁹⁾ 고등학교 한문 교과서 중에 부수에 갑골문으로 설명하는 교과서가 있다.³⁰⁾ 여기서는 水, 木, 子, 言, 火, 衣, 禾, 土, 犬, 力, 口, 車, 水, 刀, 王, 月, 貝, 口, 雨, 走, 絲, 心, 頁 같은 한자가 언급되고 있다. 이중 다음과 같은 예를 통하여 교과서와 다른 문자학 연구서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글자	갑골문	『고등학교 한문 I』설명
子		두 팔 벌린 어린아이의 모양을 본뜬 글자 ³¹⁾
言		말이라는 뜻을 나타낸 글자 ³²⁾
犬		개의 모양을 본 뜬 글자 ³³⁾
走		발의 모양을 본 뜬 글자 ³⁴⁾
糸		실타래 모양을 본뜬 글자 ³⁵⁾

26) 中 左民安, 382쪽, “ 甲骨文的左邊是一棵‘禾’, 穗子向右彎垂, 右下部是一只‘手’, 是用‘手’拿‘禾’的意思, 這是個會意字. 所以秉的本意就是一把禾稻.”

27) 이병주 외 2인(2012) 참조.

28) 심경호, 13쪽 ; 이상진 13쪽.

29) 심경호 14쪽

30) 이상진 외(2014) 참조.

갑골문을 이용하여 풀이한 내용이다. 여기에 풀이하고 있는 내용은 좀 더 풍부하게 내용을 설명할 수 있기도 하다. 子의 경우 아기가 처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풍부하게 이해할 수도 있다. 이 경우 襁褓에 싸인 아기가 손을 흔드는 모습을 형상한 것이다.³⁶⁾

言의 경우 『설문』에서는 “直言을 言이라고 하고 (다양한 주장을 하며 다투는) 論難을 語라고 한다.”³⁷⁾라고 설명하고 있다. 言은 갑골문에서 아래에 있는 부분은 입을 뜻하고 윗부분은 관악기를 형상한 것으로 입을 대고 악기를 불고 있다고 풀이하기도 했다.³⁸⁾ 악기를 불고 있는지 아닌지는 좀 더 고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犬은 인류와 오랜 동안 함께 살아온 동물이다. 『설문』에서는 공자의 말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공자가 犬이라고 쓴 글자를 보고 개를 그린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³⁹⁾ 이 개중에는 犬과 狗를 세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犬은 큰 개를 말하고 拘는 작은 개를 말하기도 한다.

辵은 『설문』에는 문뚝 가가다 문뚝 멈추는 것을 말한다.⁴⁰⁾라고 풀이하고 있다. 갑골문을 보면 큰 거리라는 뜻을 가진 行과 다리[脚]를 뜻하는 止가 합쳐져 있는 글자이다. 이 말은 풀이하면 길에서 가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 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⁴¹⁾

糸는 『설문』에서 2개의 糸로 풀이하고 있는데,⁴²⁾ 누에의 입에서 나오는 두 갈래의 실을 뜻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교과서에서 수용하여 설명하고 있는 내용 중에는 기존 문자학 연구 업적을 보면 대략 그 뜻을 참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문자학으로 글자를 풀이하는 것은 학자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양한 설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모두 수용하여 설명한다는 것은 오히려 복잡하게 만들어 문자학을 위한 한자 학습으로 흘러갈 수도 있을 것이다. 문자의 문화와 시대배경, 또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를 겪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모든 것을 계통을 찾아 밝히거나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미 널리 알려진 이야기라도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버린다면 이런 과정에 새로운 이해를 도모할 수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 한자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자 학습이 단순 선의 암기에서 벗어나 흥미롭고 풍부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한자 교육에 언급되고 있는 한자의 문자학으로 설명한 것은 구석규의 언급을 인용하여 설명한다면, 초기 상형 문자에 치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자는 시대를 거치면서 “簡化”와 “筆劃化”를 거치면서 크게 변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31) 이상진 외(2014) 39면 참조

32) 이상진 외(2014) 55면 참조

33) 이상진 외(2014) 99면 참조

34) 이상진 외(2014) 203면 참조

35) 이상진 외(2014) 215면 참조

36) 谷衍奎, 『漢字原流字典』 331쪽, “正像個襁褓中的嬰兒”

37) 『說文·言部』, “言, 直言曰言, 論難曰語”

38) 谷衍奎, 『漢字原流字典』 478쪽, “甲骨文 從口, 上像簫管樂器形, 會口吹樂器之意”

39) 『說文·犬部』, “孔子曰, 視犬之字, 如畫拘也”

40) 『說文·辵部』, “辵, 乍行乍止也”

41) 谷衍奎, 『漢字原流字典』 461쪽 참조, “甲骨文從行(大街), 從止(脚), 會在街上走路之意”

42) 『說文·絲部』, “絲, 蠶所吐也, 從二糸 本意爲蠶絲, 蠶所吐像細線的東西”

갑골문에 대한 소극적인 수용에 비해 六書는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교과서에 언급이 되고 있다. 육서는 갑골문을 발견한 이후에 언급된 이론이다. 육서에는 象形과 持事, 形成, 會意, 轉注, 假借가 있다.

중국에서 육서를 언급하기 시작한 것은 劉歆의 『七略』과 班固의 『漢書藝文志』, 鄭衆의 『周官·保氏注』, 그리고 許慎의 『說文解字序』가 있다.⁴³⁾ 특히 허신의 경우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 지사로는 上과 下, 상형으로는 日과 月, 형성으로는 江과 河, 회의로는 武와 信, 전주로는 考와 老, 그리고 가차로는 令과 長을 언급하고 있다.⁴⁴⁾

다음은 구석규가 육서와 문자학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漢나라 시대 학자가 제기한 六書는 기여한 것이 있다. 그러나 六書의 학설이 권위가 일어난 이후로 점차 문자학 발전을 속박하여 질곡이 되어버렸다. 경전을 崇奉하고 고전을 欽賞하던 봉건시대 속에서는 문자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모두 육서를 위반할 수 없는 持針으로 여겼다. 비록 그들은 상형과 지사 등에서 육서의 이해가 종종 각각 서로 같지 않더라도 도리어 어떤 사람도 육서의 범위 안에서 뛰어나와 연구를 진행하려 하지 않았다.⁴⁵⁾

육서가 문자학 연구를 저해할 정도로 권위를 가져다주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도 언급하고 있다.

학자들이 많은 글과 문장을 썼다. 논쟁점은 어떻게 轉注에서 정의를 내려주어야 하는 것인가? 어떤 글자를 상형으로 귀속시켜야 하는가? 어떤 글자를 指事에 귀속시켜야 하고, 어떤 글자를 회의에 귀속시켜야 하는가? 등등이다. 실제로 오히려 이런 문제는 대부분 어떤 의의가 있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많은 에너지가 헛되이 낭비되었다라고. 또 한가지는 문학 학문에 있어서 옹당 연구되어야 많은 문제가 도리어 종종 사람들이 연구하지 않았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런 분위기는 오히려 지금의 우리에게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것은 경계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⁴⁶⁾

구석규는 왕조시대 모든 글자를 육서의 범주로 분류하다가 발생한 폐해에 대하여 지적한 것이다.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육서 중에 상형과 지사, 회의, 형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다음은 여기에 대한 조사한 내용이다.

43) 中 吳浩坤·潘悠, 梁東淑譯(2002), 186쪽 참조

44) 許慎, 『說文解字序』, “周禮八歲入小學, 保氏教國子, 先以六書, 一曰指事, 指事者, 視而可識, 察而見意, 上、下是也, 二曰象形, 象形者, 畫成其物, 隨體詰詘, 日、月是也, 三曰形聲, 形聲者以事爲名, 取譬相成, 江、河是也, 四曰會意, 會意者, 比類合誼, 以見指撝, 武、信是也, 五曰轉注, 轉注者建類一首, 同意相受, 考、老是也, 六曰假借, 假借者, 本無其字, 依聲託事, 令、長是也”

45) 구석규(1988), 103쪽, “漢代學者提出六書是有功勞的, 但是六書說在建立起權威之後, 就逐漸變成束縛文字學發展的桎梏了, 在崇經媚古的封建時代裏, 研究文字學的人都把六書奉爲不可違離的持針, 盡款他們對象形, 指事等六書的理解, 往往各不相同, 却沒有一個人敢跳出六書的圈子去進行研究”

46) 구석규(1988), 103쪽, “大家寫了很多書和文章, 爭論究竟應該怎樣給轉注下定意, 究竟應該把哪些字歸入象形, 哪些字歸入指事, 哪些字歸入會意等等. 而這些問題, 實際上却大都是爭論不出什麼有意義的結果來的, 可以說, 很多精力是白白浪費了. 另一方面, 文學學上很多應該研究的問題, 却往往沒有人去研究. 直到今天, 這種研究風氣對我們仍然還有影響, 這是值得警惕的.”

	상형	지사	회의	형성
다락원	羽, 燕, 魚	本, 末	休, 沓, 竝, 析	伴, 芽, 鎭, 吐
금성출판사	禾	本	苗, 臭	贈, 鏡
천재교육	鹿	上	析	泳, 磨
대학서림	木, 人, 月, 魚	上, 下, 本, 末	休, 林	淸, 問
교학사	象, 鹿, 龜	本, 末, 亦	臭, 突, 器	結, 泊, 像
장원교육	鹿, 亞, 互, 桑	上, 下, 本, 末	好, 林, 沓	姑, 枯, 銅, 廳

우리 교과서에서는 육서 중에 상형과 지사, 회의, 형성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고, 대부분 앞부분에 해설의 형식으로 소개하고 있다. 육서의 이론은 한문 학습에 분명 유익한 부분이 있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의 경우 교과서 마다 육성 중에 상형과 지사, 회의, 형성에서 언급하고 있는 한자의 예가 각각 다르다. 다만 예로 들고 있는 한자들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한자 범위에 들고 있다.

이미 지적인 것처럼 모든 한자를 이런 범주로 분류하기 힘들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배우기 쉬운 한자라고 하더라도 문자학으로 풀이하려면 매우 어려운 한자 역사 배경과 문자학 지식이 수반되기 때문에 자칫 학습이 아니라 문자학 연구로 빠져버릴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 게다가 문자학으로 풀이하다보면 상호 이론의 충돌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주위가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회의의 경우 두 글자의 합성되어서 된 글자라고 하지만 갑골문의 배경에 대한 이해 없이는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臭의 경우 自와 犬의 합성어이다. 그리고 자는 갑골문자에서는 사람의 코를 상형한 것이다. 결국 냄새를 잘 맞는 개와 코와 연결이 되어 하나의 글자가 이루어진 것이다. 문제는 臭를 다루고 있는 출판사의 교재에서는 이 글자를 이해할 수 있겠지만 臭를 다루고 있지 않은 교과서로 학습하는 하는 학생의 경우 이해가 어려울 수 있다. 특히 自의 갑골문을 교재나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교과서에는 육서로 제시한 갑골문이 있는데 다양한 예가 없어 이해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기로 한다.

한자	대학서림 ⁴⁷⁾	갑골문 소사전
月		

대학서림의 경우 지면 등을 고려하여 갑골문 한 가지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갑골문소사전』에 수록된 내용을 함께 비교하여 보니 月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고 많은 상상력을 발휘하여 볼 수도 있고, 달에 대한 상형자의 아름다운 예술미도 느낄 수 있다. 문자 제시는 좀 더 풍부하게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47) 신표섭 외 4인(2016), 10쪽.

갑골문이나 금문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지 않고 육서를 설명한 경우도 있다. 한 가지 회의라고 설명하고 있는 “器”로 들어보기로 한다.

	교학사	육서	갑골과 금문의 예
器	器	회의	𠩺 𠩺 𠩺

犬과 口로 되어 있다. 口는 제사에 쓰던 그릇으로 귀한 물건이다.⁴⁸⁾ 그런데 器에서 개를 뜻하는 “犬”과 귀한 물건을 뜻하는 “口” 중에 器라는 한자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하여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명확하지가 않다. 이런 연구가 있다.

『說文』에 “器는 皿인데, 器를 口라고 형상하였다. 개가 이것을 지킨다.”라고 하였다. 이 말은“器”자를 假借하여 본래의 의미에서 뜻이 잘못된 것이다. “器”의 의미는 개가 짓는 소리이고, 뒤에 이 본래의 뜻이 소실되었으며 假借가 되어 陶器로 器皿이 되었다. 예를 들어 『老子』에 “埏埴以爲器” 내용이 있다.⁴⁹⁾

埏埴는 흙을 반죽한다는 말이다. 『노자』에 나오는 말은 반죽으로 그릇을 만드는 것이다. 器는 교과서는 회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원래 이 글자가 개가 짓는 소리에서 귀중한 그릇이라는 뜻으로 바뀐 가차되었다고 설도 있다. 본고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육서의 경우 필요한 문자학 이론이지만 구석규가 지적한 것처럼 여기에 너무 집착하여 모든 글자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한자의 생성과 변화 과정이 너무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다. 지사의 경우 대부분 몇 개의 글자에 한정되어 설명되고 있고 상형의 경우 도형을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별다른 이론이 생기지 않을 수 있지만 지사나 회의의 경우는 변화가 많기 때문에 충실한 해설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IV. 결론

중국의 경우 문자학 연구에 대한 성과가 풍부하다. 자국의 언어의 배경이기도 하기 때문이지만 계속 출토 유적이나 문헌이 발굴되기 때문에 연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자학은 축적된 연구와 학습할 내용이 없어서가 아니라 문자학의 내용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이점이 한자 교육이 처한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중고등학교 1800자가 지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한자의 범위를 제한받는다. 현황을 파악하고 우리의 실정과 연관지어 어떻게 문자학의 이론을 학습에 이용할 것인가가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문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것인가? 이점을

48) 김연중(2005), 308쪽 참조.

49) 中 左民安, 557쪽,, “『說文』: “器, 皿也. 象器之口, 犬所以守之.”這是將“器”字的假借義誤爲本意. “器”字本義爲“犬吠聲”, 後來其本意消失, 被假借爲陶器, 器皿, 如『老子』“埏埴以爲器””

생각해야 된다고 본다.

우리의 한문 교재 중에 실려 있는 갑골문자는 초기 상형 문자를 중심으로 설명한 것이 많다. 구석규가 언급한 것처럼, 이후 문자는 간화와 필획화를 거쳐 점차 오늘날 의 문자 모습으로 바뀐다고 하고 있다. 한자의 이런 변화가 있지만 미처 우리의 교재에는 이런 문자학 이론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한자의 모든 내용을 교재에 수용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런 변화의 과정에 대한 이해는 단순 암기의 한자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된 글자가 학습교재에 매우 적지만 앞으로 이 부분 연구가 좀 더 진행시켜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본다.

참고문헌

【단행본】

- 『甲骨文小辭典』(2006), 文物出版社.
中 谷衍奎, 『漢字原流字典』, 語文出版社.
中 裘錫圭(1998), 『文字學概要』, 商務印書館.
中 吳浩坤·潘悠, 梁東淑譯(2002), 『중국갑골학사』, 東文選.
中 王寧著·홍영희외 3인 譯(2009), 『한자학의 誕生과 發展』, 차이나하우스.
中 李學勤著(2013), 『古文字學初階』, 中華書局.
中 左民安(2005), 『細說漢字』, 九州出版社.
中 經本植지· 김현철외 4명 譯, 『고한어 문학학의 기초』, 신아사, 18~34면 참조.
陳晉(1933), 『說文研究法』, 商務印書館.
김언중(2005), 『한자의 뿌리』 I, II, 문학동네.

【교과서】

- 이병주·박영숙·윤미정(2012), 『중학교 한문』, 대림서림.
이상진·최상근·이지곤·원주용·김인서, 『고등학교 한문』 I, 동화사, 2014.
송재소·조병덕·배기표·김호기·변유경, 『중학교 한문』, 다락원, 2012.
송재소·조병덕·배기표·김호기·변유경, 『고등학교 한문』 I, 다락원, 2014.
신태영·김태주·장윤혁·김정수, 『고등학교 한문』 I, 금성출판사, 2014.
신표섭·이운찬·성진우·김준영·홍인기, 『고등학교 한문』 I, 대학서림, 2014.
안재철·원용석·김은경·김동규·임동헌·홍은정·이우경(2013), 『중학교 한문』, 미래엔.
안대회·안기봉·황성하·이한신·장현곤·서문기·주성민(2013), 『중학교 한문』, 천재교육.
안대회·안기봉·황성하·이한신·장현곤·서문기·주성민(2014), 『고등학교 한문』 I, 천재교육.
임완혁·조영호·박영숙·임재범(2014), 『고등학교 한문』 I, 교학사.
진재교·신영주·최돈욱·김명주(2014), 『고등학교 한문』 I, 장원교육.

【논문】

- 송병렬(2001), 「한문교과교육에서 ‘한자의 짜임’ 지도 방안의 일고찰— 상형자와 지사자를 중심으로, 『한문교육연구』, 16호, 한국한문교육학회.
양원석(2014), 「한자문화학과 한자 교육」, 『한자한문교육』,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會意兼形聲’에 대한 고찰 및 한문교과서에서의 활용

楊沅錫(고려대)

〈목 차〉

- I. 序論
- II. ‘會意兼形聲’의 來源
- III. ‘會意兼形聲’을 한문교과서 및 漢字 教育에 활용하는 방안
- IV. 結論

I. 序論

1. 연구 목적

본 논문은 ‘會意兼形聲’의 개념과 그 來源에 대해 고찰해 보고, 이것을 현재의 한문교과서 및 漢字 教育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會意兼形聲’ 또는 ‘形聲兼會意’는 다소 생소한 용어이지만, 중국에서는 자주 사용되고 있는 한자학 용어 가운데 하나이다. ‘회의겸형상’은 會意字의 한 구성 요소가 表義 기능 뿐 아니라 表音 기능을 아울러 가지는 것을 말하며, ‘형성겸회의’는 形聲字의 聲符가 表音 기능 뿐 아니라 表義 기능도 아울러 가지는 것을 말한다. 즉 ‘회의겸형상’과 ‘형성겸회의’는 하나의 한자가 회의자이면서 동시에 형성자인 경우, 혹은 형성자이면서 동시에 회의자인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다.¹⁾

이에 해당하는 한자 몇 가지를 예로 들어보겠다. 政은 正과 攴으로 구성된 것으로 ‘바르게 하다[正]’와 ‘치대[攴]’의 뜻이 합쳐진 會意字이다. 또한 여기서의 正은 ‘정’이라는 음을 나타내므로 政은 形聲字이기도 하다. 즉 政의 구성 요소인 正은 뜻을 나타내는 形符(意符)이면서 동시에 소리를 나타내는 聲符의 기능도 하고 있으므로, 政은 ‘會意兼形聲字’라고 할 수 있다.

志는 ‘심장의 상형으로 ‘마음’이라는 뜻을 가진 心과 ‘가다’는 뜻을 가진 之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을 『說文解字』의 풀이인 “從心, 之聲.”²⁾을 따르면 형성자라고 할 수 있고, ‘마음이 가는 바로 풀이하면 회의자라고 할 수 있다. 즉 志의 구성 요소인 之는 聲符이면서 形符의 기능을 동시에 하고 있으므로, 志는 ‘회의겸형상자’라고 할 수 있다.

娶는 ‘취하다’라는 뜻을 가진 取와 ‘여자의 뜻을 가진 女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取가 ‘취하다’라는

1) ‘會意兼形聲’은 해당 한자가 회의자인데 형성자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는 경우, ‘形聲兼會意’는 해당 한자가 형성자인데 회의자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 두 가지는 한자 구조 분석의 착안점이 같지 않지만 그 본질은 같다고 할 수 있다. 즉 이 兩者는 모두 회의자와 형성자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므로 ‘회의겸형상’과 ‘형성겸회의’를 엄격하게 구분하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이 兩者는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고에서는 ‘회의겸형상’과 ‘형성겸회의’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되, 편의상 그 용어는 ‘회의겸형상’으로 한다.

2) 許慎, 『說文解字』, 卷10下, 「心部」: 志, 意也. 從心, 之聲.

뜻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경우 𠄎는 회의자가 되며, 𠄎가 ‘취’라는 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경우 𠄎는 형성자가 된다. 그러므로 𠄎는 ‘회의겸형성자’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몇 개의 한자는 그 구조를 회의로 설명할 수도 있고 형성으로도 설명할 수 있으므로 ‘회의겸형성’이라고 판정할 수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의자 혹은 형성자로 알고 있는 한자 가운데 상당 수는 이처럼 ‘회의겸형성’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회의겸형성’이라는 용어는 清代에 언급되기 시작하여 주로 현대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 來源은 許慎의 『說文解字』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許慎은 어떠한 한자의 形符가 表義 기능을 가지면서 동시에 表音 기능을 하는 것에 대해 ‘亦聲’이라는 용어로 설명하였다. 또한 그 이후에 제시된 ‘右文說’과 ‘因聲求義’ 등도 대체로 ‘亦聲’을 구체화시키고 발전시킨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亦聲’, ‘右文說’, ‘因聲求義’ 등은 모두 ‘회의겸형성’의 來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본론에서는 이에 대해 다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또한 현재의 한문교과서 및 한자 교육에서 형성과 회의를 교육하는 현황에 대해 살펴보면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형성겸회의’에 대한 이해를 통해 그것을 한자 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2. 선행 연구

한국에서 이루어진 ‘亦聲’, ‘右文說’, ‘因聲求義’ 등에 대한 연구로는 박홍수의 「右文說 小考」³⁾, 강혜근의 「六書互兼說에 대한 考察」⁴⁾ 등의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이에 대해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중국의 경우, 楊樹達의 「形聲字聲中有義略證(附論中國語源學問題)」⁵⁾를 비롯하여, 孫建偉의 「20世紀以來的‘亦聲’研究綜述」⁶⁾, 胡文華의 「《說文解字》中的‘亦聲字’分析」⁷⁾, 張玉梅의 「王筠‘形聲兼會意’述論」⁸⁾, 曾昭聰의 「黃永武形聲兼會意考述評」⁹⁾ 등 다수가 있다. 또한 王初慶의 『漢字結構析論』¹⁰⁾, 黨懷興의 『宋元明六書學研究』¹¹⁾ 등의 단행본에서도 ‘亦聲’, ‘右文說’, ‘因聲求義’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이러한 연구 성과를 수용하면서, ‘亦聲’, ‘右文說’, ‘因聲求義’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할 뿐 아니라, 특히 이러한 이론간의 연관성과 차이점 등을 통시적으로 고찰하면서 ‘회의겸형성’의 이론적 기반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요컨대, 기존의 연구성과는 ‘亦聲’, ‘右文說’, ‘因聲求義’ 각각에 주목하였다면, 본 연구는 이를 통시적인 관점에서 유기적으로 연계하면서 ‘회의겸형성’의 이론적 토대를 정리하는 것이다. 또한 이에 더하여 ‘회의겸형성’에 대한 한자학에서의 논의를 현재의 한문교과서 및 한자 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겠다.

3) 『중국어연구』 12, 중국학연구회, 1997.

4) 『중국어문학』 28, 영남중국어문학회, 1996.

5) 『清華大學學報(自然科學版)』, 1934年02期.

6) 『寧夏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第24卷 第2期, 2012年 3月.

7) 『蘭洲學刊』, 2009年 第10期.

8) 『古漢語研究』 2010年01期.

9) 『語言研究』 2000年 第3期.

10) 北京: 中華書局, 2010.

11)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3.

II. ‘會意兼形聲’의 來源

1. 『설문해자』의 形聲과 會意, 그리고 亦聲.

‘회의겸형성’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 六書 중의 회의와 형성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다.

주지하다시피, 육서는 『周禮』 「地官」에서 처음 언급되었다. 해당 부분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保氏는 왕의 악을 諫하는 일을 담당하였고 또한 귀족 자제를 道로써 길렀는데, 그들을 六藝로 가르쳤다. 六藝의 첫 번째는 五禮, 두 번째는 六樂, 세 번째는 五射, 네 번째는 五馭, 다섯 번째는 六書, 여섯 번째는 九數이다.¹²⁾

여기서 六藝는 禮·樂·射·馭·書·數를 가리키는데,¹³⁾ 그 중 하나가 바로 육서임을 볼 수 있다. 『周禮』에서 언급한 육서에 대해, 鄭玄·班固·許慎 등은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다. 鄭玄은 『周禮注』에서 鄭衆의 說을 인용하여 육서를 ‘象形, 會意, 轉注, 處事, 假借, 諧聲’이라고 하였으며,¹⁴⁾ 班固는 『漢書』 「藝文志」에서 육서를 ‘象形, 象事, 象意, 象聲, 轉注, 假借’이라고 하면서 이를 ‘造字之本’이라고 하였다.¹⁵⁾ 또한 許慎은 『說文解字』 「敍」에서 육서의 명칭과 순서를 ‘指事, 象形, 形聲, 會意, 轉注, 假借’로 확정하고 이것에 대한 定義를 내렸다.¹⁶⁾

鄭玄과 班固는 육서의 명칭에 대해 언급하였을 뿐 육서 각각의 의미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許慎은 육서 각각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이에 해당하는 한자를 예로 제시하였는데 이로부터 六書의 의미가 분명하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형성과 회의에 대한 허신의 해석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形聲이란 일[形符]을 가지고 이름(受)을 삼고, 같은 것[同音, 近音 등 소리 요소]을 취하여 서로 이루는 것으로, 江과 河가 그 예이다.¹⁷⁾

會意란 여러 자형을 결합하여 그 의미들을 합하여 그것이 뜻하는 것을 드러낸 것으로, 武와 信이 그 예이다.¹⁸⁾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형성은 形符와 聲符의 결합으로, 회의는 形符와 形符의 결합으로 설명하고

12) 『周禮』 「地官」: 保氏掌諫王惡, 而養國子以道, 乃教之六藝. 一曰五禮, 二曰六樂, 三曰五射, 四曰五馭, 五曰六書, 六曰九數.

13) 六藝은 六經을 가리키기도 한다.

14) 鄭玄 注, 『周禮注』 卷14: 六書, 象形·會意·轉注·處事·假借·諧聲也.

15) 班固, 『漢書』 卷30 「藝文志」: 周官保氏, 掌養國子, 教之六書, 謂象形·象事·象意·象聲·轉注·假借, 造字之本也.

16) 許慎, 『說文解字』 「敍」: 周禮八歲入小學, 保氏教國子先以六書. 一曰指事, 指事者, 視而可識, 察而見意, 上下是也. 二曰象形, 象形者, 畫成其物, 隨體詰詘, 日月是也. 三曰形聲, 形聲者, 以事爲名, 取譬相成, 江河是也. 四曰會意, 會意者, 比類合誼, 以見指擗, 武信是也. 五曰轉注, 轉注者, 建類一首, 同意相受, 考老是也. 六曰假借, 假借者, 本無其字, 依聲托事, 令長是也.

17) 許慎, 『說文解字』 「敍」: 形聲者, 以事爲名, 取譬相成, 江河是也.

18) 許慎, 『說文解字』 「敍」: 會意者, 比類合誼, 以見指擗, 武信是也.

있다.

이러한 회의자 가운데 形符가 表意 기능 뿐 아니라 表意 기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許慎은 ‘某亦聲’(某는 또한 소리 요소이다.)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하였다. 몇 가지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吏는 ‘사람을 다스린다는 뜻이다. 一과 史를 의미 요소로 삼았다. 史는 또한 소리 요소이다. (吏, 治人者也。从一从史, 史亦聲.)¹⁹⁾

政은 ‘바르게 하다는 뜻이다. 支과 正을 의미 요소로 삼았다. 正은 또한 소리 요소이다. (政, 正也。從支從正, 正亦聲.)²⁰⁾

貧은 ‘재물이 나누어져 적어지는 것’을 뜻한다. 貝와 分을 의미 요소로 삼았다. 分은 또한 소리 요소이다. (貧, 財分少也。从貝, 从分, 分亦聲.)²¹⁾

像은 ‘본뜨다는 뜻이다. 人과 象을 의미 요소로 삼았다. 象은 또한 소리 요소이다. (像, 象也。从人, 从象, 象亦聲.)²²⁾

忘은 ‘알지 못한다는 뜻이다. 心과 亡을 의미 요소로 삼았다. 亡은 또한 소리 요소이다. (忘, 不識也。从心, 从亡, 亡亦聲.)²³⁾

授는 ‘주다는 뜻이다. 手와 受를 의미 요소로 삼았다. 受는 또한 소리 요소이다. (授, 予也。从手, 从受, 受亦聲.)²⁴⁾

娶는 ‘부인을 얻다는 뜻이다. 女와 取를 의미 요소로 삼았다. 取는 또한 소리 요소이다. (娶, 取婦也。从女, 从取, 取亦聲.)²⁵⁾

字는 ‘낳다는 뜻이다. 子가 乚 아래에 있는 것에서 뜻을 취했다. 子는 또한 소리 요소이다. (字, 乳也。从子在乚下, 子亦聲.)²⁶⁾

『설문해자』 중에 ‘亦聲’에 해당하는 글자에 대해, 胡文華는 223개 글자라고 하였고,²⁷⁾ 薛克謬는 215개 글자라고 하였다.²⁸⁾ 필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총 232개이다. 이렇게 차이는 연구자들이 『설문해자』 원문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는 과정의 일부에서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설문해자』에서 제시한 ‘亦聲’이라는 개념은 청대 이래 현대한자학에서 언급하고 ‘회의 겸형성’의 가장 오래된 來源이라고 하겠다. 즉 ‘회의겸형성’이라는 개념은 『설문해자』의 ‘亦聲’에서부터 출발한 것이라고 하겠다. 淸의 段玉裁도 “亦聲이라고 말하는 것은 곧 ‘會意兼形聲’을 의미한다.”고 하였다.²⁹⁾ 이러한 ‘亦聲’은 그 이후의 ‘右文說’, ‘因聲求義’ 등의 이론을 발전시키게 된다.

19) 『說文解字』卷一「一部」

20) 『說文解字』卷三「支部」

21) 『說文解字』卷六「貝部」

22) 『說文解字』卷八「人部」

23) 『說文解字』卷十「心部」

24) 『說文解字』卷十二「手部」

25) 『說文解字』卷十二「女部」

26) 『說文解字』卷十四「子部」

27) 胡文華, 「《說文解字》中的亦聲字分析」, 『蘭洲學刊』, 2009年 第10期, 168-171면.

28) 薛克謬, 「論《說文解字》的亦聲部首」, 『河北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90年 4期, 119-130면.

29) 段玉裁 『說文解字注』 ‘吏’에 대한 注: 凡言亦聲者, 會意兼形聲也.

2. 右文說

右文說이란 동일 聲符를 가진 形聲字는 서로 비슷한 뜻을 가진다는 주장으로, 곧 형성자의 聲符가 뜻의 요소로도 쓰인다는 것이다. 즉 聲符가 表音 兼 表義 작용을 하므로 形聲字의 聲符에서 그 한자의 뜻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반적으로 形聲字는 形符가 한자의 왼쪽에 위치하면서 뜻을 나타내고, 聲符가 한자의 오른쪽에 위치하면서 소리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을 右文說이라고 칭한다.³⁰⁾

右文說은 晉代 楊泉의 『物理論』에 처음 보인다고 할 수 있으며, 北宋 王聲美的 『字解』에서 우문설이 정식으로 시작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³¹⁾ 이후 宋 王觀國, 張世南, 戴侗, 明 黃生, 清 段玉裁, 王念孫, 焦循, 郝懿行, 阮元, 陳師庭, 黃承吉, 근대의 劉師培, 梁啓超, 楊樹達, 沈兼士 등이 우문설을 더욱 발전시켰다.³²⁾

하지만 형성자가 반드시 左形右聲인 것은 아니며, 聲符가 같다고 해서 그것이 표현하는 뜻이 모두 同源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판이 진행되기도 하였다.³³⁾

요컨대, 右文說은 동일 聲符를 가진 형성자는 서로 비슷한 뜻을 가진다는 것으로 형성자의 聲符에서 그 한자의 뜻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주요한 내용인데, 그 근거는 형성자의 聲符가 表音兼表義 작용을 한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우문설 또한 ‘회의겸형성’의 유래라고 할 수 있다.

3. 因聲求義

‘因聲求義’란 ‘以聲音通訓詁’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자 음과 義의 상호 관계와 聲音 변화의 궤적에 대한 분석을 통해 詞義를 구하는 방법이다. 漢代부터 ‘聲訓’의 훈고 방식이 사용되었는데, 이를 통해 훈고학자들은 예전부터 음과 義의 관계에 주목했음을 알 수 있다.

因聲求義의 훈고 방법은 다음과 같이 宋 戴侗의 『六書考』에서 명확하게 제출되었다.

訓詁學者들은 文[形符]에서 뜻을 구할 줄을 알았지만 聲[聲符]에서 뜻을 구하는 것은 알지 못했다. 문자의 활용은 諧聲보다 넓은 것이 없으며, 假借보다 변화 있는 것이 없다. 文에서 뜻을 구하는 것만 알고 聲에서 뜻을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나는 그들이 문자의 정황을 능히 다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³⁴⁾

여기서 말한 ‘因文求義’는 形符에 근거하여 뜻을 구하는 것이며, ‘因聲求義’는 聲符에 근거하여 뜻을 구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戴侗은 因聲求義의 훈고 방식의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戴侗의 주장은

30) 楊劍橋, 『實用古漢語知識寶典』, 復旦大學出版社. 264-265면. ; 朴興洙, <右文說 小考>, 《中國學研究》 12, 中國學研究會, 1997. 89-90면.

31) 王聲美的 『字解』에서 언급한 내용은 沈括의 『夢溪筆談』 卷十四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凡字, 其類在左, 其義在右. 如水類, 其左皆從水, 所謂右文者, 如𣎵, 小也, 水之小者曰淺, 金之小者曰錢, 貝之小曰賤, 如此之類, 皆以𣎵爲義也.

32) 楊劍橋, 『實用古漢語知識寶典』, 復旦大學出版社. 264-265면.

33) 章炳麟은 右文說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었다.

34) 戴侗, 『六書考』: 訓詁之士, 知因文以求義矣, 未知因聲以求義也. 夫文字之用, 莫博于諧聲, 莫變于假借. 因文以求義, 而不知因聲以求義, 吾未見其能盡文字之情也.

清代의 王引之 등에 의해 더욱 系統化되고 理論化되어 발전하게 되었다. 또한 因聲求義는 訓詁方法과 결합하여 ‘字族’이나 ‘詞族’ 연구로까지 이어지고, 形聲字 · 聲訓 · 右文說을 종합적으로 운용하여 同源字 理論으로 발전하게 되었다.³⁵⁾

요컨대 ‘因聲求義’는 聲音에 근거하여 뜻을 구한다는 聲訓의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聲符에도 뜻을 담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이 또한 ‘회의겸형성’의 유래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간략하게 정리한 바와 같이, ‘亦聲’, ‘右文說’, ‘因聲求義’ 등이 ‘회의겸형성’의 유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聲訓과 右文說 등을 종합적으로 운용한 ‘同源字理論’도 넓게 보면 ‘회의겸형성’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한자의 聲符에도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견해는 許慎 이래로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며, 청대의 段玉裁, 王國維 등은 이를 ‘회의겸형성’이라는 용어로 정착시켰다. 그 이후 ‘회의겸형성’은 현대한자학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이 되었다.³⁶⁾

III. ‘會意兼形聲’을 한문교과서 및 漢字 教育에 활용하는 방안

‘會意兼形聲’에 대한 이해는 한자 교육을 수행하는 데에도 일정한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漢字 教育을 진행할 때에, 어떤 한자의 造字原理가 회의인지 형성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거나 애매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앞에서 살펴보았던 政, 志, 娶 등의 경우, 이러한 한자들의 조자 원리를 회의나 형성 중 하나로 명확하게 판정하기에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한자들을 회의와 형성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회의겸형성’으로 판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회의겸형성’은 亦聲, 右文說, 因聲求義 등의 來源을 가진 것으로 『說文解字』 이후 2,000여년의 漢字學 研究史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논의되었던 이론이기도 하며, 한자의 조자 원리 분석에도 합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 하에, 아래에서는 한문과 교육과정, 한문 교과서 등에서 회의와 형성에 대해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회의겸형성을 한국의 한자 교육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겠다.

2009 한문과 교육과정 및 2015 한문과 교육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한자의 짜임’이라는 내용 요소를 두고 있으며, 성취기준에서 이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고 있다.

【 2009 한문과 교육과정 】 [공통교육과정 1. 한문]

가. 내용체계

영역	내용	
한문	한자	한자의 특징
		한자의 짜임

35) 이경숙, 「同源字理論과 漢字教育」, 『한자한문교육』 35,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14. 59면.

36) 形聲兼會意는 六書互兼說 가운데 하나이다. 六書互兼說에는 形聲兼會意(會意兼形聲), 會意兼象形, 會意兼指事, 形聲兼會意兼象形, 形聲兼指事 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 形聲兼會意가 명실상부하게 會意와 形聲을 겸하고 있다. (강혜근, 「六書互兼說에 대한 考察」, 『중국어문학』 28, 영남중국어문학회, 1996.)

영역	내용	
지식	어휘	단어의 짜임
		단어의 갈래
		성어의 의미
	문장	문장의 구조
		문장의 유형

라. 학습내용 성취기준

[중-한자(5)] 한자의 짜임을 알 수 있다.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 곧 한자의 짜임을 이해하면 한자의 모양과 소리와 뜻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된다. 한자의 짜임은 일정한 구성 원리와 응용 원리에 따라 크게 ‘상형(象形)’, ‘지사(指事)’, ‘회의(會意)’, ‘형성(形聲)’, ‘전주(轉注)’, ‘가차(假借)’ 등 6가지로 나뉜다. 이를 육서(六書)라고 한다. 이 중 ‘상형’·‘지사’·‘회의’·‘형성’은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원리이고, ‘가차’와 ‘전주’는 이미 만들어진 글자를 응용하는 원리이다. ‘가차’와 ‘전주’는 학설이 다양하여 학습에 혼동을 주므로, ‘상형’, ‘지사’, ‘회의’, ‘형성’을 위주로 학습한다. 한자의 짜임은 글자에 따라 이견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 특징이 뚜렷한 한자를 통하여 학습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학습의 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학습하게 하고, 짜임의 원리 자체를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도록 한다.³⁷⁾

【 2015 한문과 교육과정 】 [공통교육과정 - 중학교 선택 과목 ‘한문’]

가. 내용체계

영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한문의 이해	한자와 어휘	한자는 하나의 글자가 모양·음·뜻을 지니고 있다.	한자의 모양·음·뜻
			한자의 부수
			한자의 필순
			한자의 짜임
		단어를 구성하는 의미 요소들 사이에는 일정한 결합 관계가 있다.	단어의 짜임
		한문의 품사에는 단독으로 어휘적 의미를 가지는 실사와 문법적 의미만을 나타내는 허사가 있다.	실사와 허사

나. 성취기준 / (나) 성취기준 해설

[9한01-04]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를 이해하면 한자의 모양과 음과 뜻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된다.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는 ‘상형(象形)’, ‘지사(指事)’, ‘회의(會意)’, ‘형성(形聲)’으로 나눌 수 있다. ‘상형’은 구체적인 사물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것이고, ‘지사’는 추상적인 생각이나 뜻을 점이나 선으로 나타낸 것이다. ‘회의’는 이미 만들어진 둘 이상의 글자들을 결합하여 새로운 글자를 만들되, 그 글자들이 지닌 뜻을 합쳐서 새로운 뜻을 나타낸 것이다. ‘형성’은 이미 만들어진 글자를 결합하여 새로운 뜻을 만들되, 일부는 뜻을 나타내고 일부는 음을 나타낸 것이다.³⁸⁾

37) [선택교육과정 1. 한문 I]에도 ‘한자의 짜임’에 대한 언급이 있다. 다만 [선택교육과정 2. 한문 II]에는 ‘한자의 짜임’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38) [선택 중심 교육과정 - 일반 선택 ‘한문 I’]에서도 ‘한자의 짜임’에 대한 언급이 있다. 다만 [선택 중심 교육과정 - 진로 선택 ‘한문 II’]에는 ‘한자의 짜임’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상의 2009 한문과 교육과정 및 2015 한문과 교육과정에서는 ‘한자의 짜임’이라는 내용 요소를 제시함으로써 상형·지사·회의·형성에 대해 주로 교육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2009 한문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내용 중 “한자의 짜임은 글자에 따라 이견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 특징이 뚜렷한 한자를 통하여 학습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학습의 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학습하게 하고, 짜임의 원리 자체를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도록 한다.”라는 부분이 있다.³⁹⁾ 여기서 언급한 ‘한자의 짜임이 글자에 따라 이견이 있는 경우’의 상당수는 회의와 형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⁴⁰⁾ 교육과정에서도 회의와 형성이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 즉 ‘회의겸형성’의 경우가 있음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과정에서는 ‘회의겸형성’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아무래도 현재의 한문과 교육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회의겸형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기는 무리가 따르지 않나 생각된다.

그러나 ‘회의겸형성’이 조자원리 분석 또는 한자의 짜임을 설명하는 유용한 도구라고 인정된다면 향후 교육과정 개편시에 일정 정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회의겸형성’을 도입하게 된다면, 회의와 형성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한자의 조자 원리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역대 漢字學史에서 논의되었던 漢字 구조 분석 이론의 주요한 한 내용도 아울러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문과 교육과정에 ‘회의겸형성’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당연히 한문 교과서에서도 이에 대한 내용은 다루지 않고 있다. 중학교 한문교과서의 경우 대부분 교과서의 앞부분에서 ‘한자’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자의 짜임’을 같이 언급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회의와 형성에 대해 다루고 있을 뿐이다. 현행 중학교 한문 교과서에서 회의와 형성에 대해 어떻게 설명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회의 또는 형성의 예로 제시한 한자가 타당성이 있는지, 또 회의와 형성의 구분이 애매한 경우가 있다면 이를 ‘회의겸형성’으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에 대해서는 추후 완성본 논문 제출시에 언급할 예정이다.

‘會意兼形聲’을 한문교과서 및 漢字 教育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회의겸형성에 해당하는 한자를 정리하여 제시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겠다. 이러한 자료가 구축된다면 한자 학습 및 한자 교육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그 대상을 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본고에서는 그 대상을 <漢文教育用 基礎漢字 1,800字>로 한정하도록 하겠다. 또한 1,800자에 대한 조자원리를 분석하여 회의자⁴¹⁾ 또는 형성자에 해

39) 참고로, 2015 한문과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언급이 없다.

40) 물론 상형과 지사의 경우도 있지만, 회의와 형성의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41) 참고로, <중학교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900자> 가운데 會意字에 해당하는 것은 아래의 총 410개 글자이다. 이것은 穀衍奎의 『漢字源流字典』(北京: 華夏出版社, 2003.)에 근거한 것이다. 물론 개별 연구자에 따라 會意字 분류의 기준은 다를 수 있을 수 있다.

家, 加, 各, 間, 看, 敢, 降, 改, 皆, 開, 更, 去, 巨, 居, 見, 決, 敬, 競, 季, 計, 古, 故, 告, 谷, 困, 坤, 骨, 共, 公, 科, 過, 官, 關, 光, 國, 君, 軍, 金, 及, 幾, 既, 吉, 男, 內, 年, 農, 多, 短, 達, 對, 到, 道, 圖, 同, 冬, 得, 等, 登, 兩, 量, 旅, 連, 列, 令, 勞, 料, 流, 留, 律, 里, 利, 林, 買, 賣, 麥, 名, 命, 明, 鳴, 妙, 武, 聞, 美, 尾, 反, 半, 拜, 百, 番, 伐, 法, 別, 兵, 保, 步, 報, 伏, 奉, 婦, 北, 分, 比, 備, 鼻, 貧, 水, 史, 師, 死, 思, 事, 射, 絲, 算, 散, 相, 喪, 色, 生, 書, 昔, 先, 善, 雪, 設, 成, 省, 聖, 聲, 世, 歲, 素, 笑, 孫, 受, 守, 秀, 叔, 宿, 順, 習, 乘, 承, 是, 食, 實, 甚, 安, 野, 養, 言, 與, 如, 易, 炎, 永, 屋, 臥, 外, 要, 浴, 用, 容, 右, 原, 位, 危, 威, 幼, 育, 音, 邑, 應, 義, 醫, 意, 以, 異, 益, 引, 仁, 寅, 印, 者, 作, 章, 再, 爭, 赤, 展, 電, 典, 戰, 絕, 正, 貞, 弟, 祭, 朝, 族, 尊, 卒, 從, 宗, 左, 坐, 罪, 晝, 走, 衆, 卽, 曾, 知, 支, 至, 直, 眞, 進, 質, 集, 執, 此, 察, 參,

당하는 글자를 추출하고,⁴²⁾ 이 가운데 회의겸형성에 해당하는 것을 다시 추려내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일련번호	한자	회의	형성	비고
1	吏	从一, 从史	从一, 史聲	
2	政	从支, 从正	从支, 正聲	
3	貧	从貝, 从分	从貝, 分聲	
4	像	从人, 从象	从人, 象聲	
5	授	从手, 从受	从手, 受聲	
6	忘	从心, 从亡	从心, 亡聲	
7	娶	从女, 从取	从女, 取聲	
:	:	:	:	

이상과 같이, ‘회의겸형성’에 해당하는 한자를 제시하고, 그 짜임을 회의로 볼 수 있는 경우와 형성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설문해자』의 풀이 방식인 ‘從A從B’, ‘從AB聲’의 형태를 사용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기타’에는 참고 사항이나 이설 등을 표기해 둔다.

1,800자를 대상으로 이상의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形聲兼會意에 해당하는 한자를 제시하고 또 이에 대한 설명자료를 제작한다면, 한자의 조자원리 교육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IV. 結論

漢字 教育의 질을 提高하기 위해서는 한자학 연구 성과와 이론 가운데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수용하여 이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甲骨文·金文 등의 고문자 연구 성과를 활용하거나, 漢字文化學 연구 성과를 활용하거나, 同源字 이론 및 構形學 이론 등을 수용하여 응용하는 등의 방법이 그것이다. 다양한 교육적 방법을 활용하는 교수·학습 방법의 개발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수 천년 동안 축적된 한자학 연구 성과와 이론을 활용하는 것은 한자 교육의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할 수

昌, 妻, 千, 初, 最, 秋, 追, 祝, 出, 取, 就, 吹, 致, 則, 打, 泰, 退, 敗, 便, 平, 閉, 暴, 表, 品, 皮, 必, 筆, 何, 學, 寒, 閑, 合, 解, 幸, 香, 鄉, 向, 血, 兄, 刑, 惠, 好, 號, 或, 化, 畫, 會, 孝, 後, 休, 興, 喜, 希

42) 참고로, <중학교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900자> 가운데 形聲字에 해당하는 것은 아래의 총 410개 글자이다. 이것은 穀衍奎의 『漢字源流字典』(北京: 華夏出版社, 2003.)에 근거한 것이다. 물론 개별 연구자에 따라 形聲字 분류의 기준은 다를 수 있을 수 있다.

佳, 街, 可, 歌, 價, 假, 脚, 渴, 減, 感, 江, 講, 强, 個, 客, 學, 乾, 堅, 結, 潔, 景, 輕, 經, 耕, 驚, 界, 溪, 鷄, 固, 苦, 穀, 功, 空, 課, 觀, 廣, 校, 教, 橋, 救, 究, 舊, 句, 郡, 權, 卷, 勸, 貴, 歸, 均, 極, 近, 勤, 根, 禁, 給, 急, 記, 期, 基, 氣, 技, 起, 暖, 難, 念, 怒, 端, 但, 談, 答, 堂, 當, 代, 待, 德, 度, 島, 都, 徒, 獨, 讀, 洞, 童, 動, 頭, 燈, 落, 浪, 郎, 冷, 涼, 歷, 練, 烈, 領, 例, 禮, 路, 露, 綠, 論, 柳, 陸, 倫, 理, 李, 莫, 滿, 晚, 望, 忙, 忘, 妹, 勉, 眠, 暮, 務, 茂, 墨, 問, 物, 味, 密, 朴, 飯, 發, 放, 訪, 房, 防, 杯, 變, 病, 福, 服, 復, 逢, 富, 扶, 部, 否, 浮, 佛, 悲, 仕, 謝, 使, 寺, 私, 產, 常, 賞, 霜, 想, 傷, 序, 暑, 惜, 線, 選, 鮮, 船, 仙, 說, 姓, 性, 城, 誠, 盛, 星, 洗, 稅, 細, 勢, 所, 消, 俗, 速, 續, 送, 松, 授, 收, 數, 誰, 雖, 愁, 樹, 壽, 修, 淑, 純, 崇, 拾, 勝, 市, 時, 詩, 視, 始, 施, 試, 植, 識, 式, 神, 信, 新, 室, 深, 惡, 案, 顏, 眼, 暗, 巖, 仰, 愛, 哀, 夜, 約, 藥, 洋, 陽, 讓, 揚, 語, 漁, 憶, 億, 嚴, 餘, 汝, 逆, 然, 研, 煙, 悅, 葉, 英, 迎, 藝, 吾, 悟, 誤, 溫, 完, 往, 欲, 勇, 宇, 遇, 運, 雄, 遠, 園, 願, 怨, 圓, 偉, 油, 猶, 唯, 遊, 柔, 遺, 恩, 銀, 飲, 陰, 吟, 泣, 議, 依, 矣, 移, 忍, 認, 字, 慈, 姊, 昨, 場, 將, 壯, 材, 財, 在, 栽, 哉, 貯, 低, 著, 的, 適, 敵, 前, 傳, 錢, 節, 店, 接, 政, 定, 情, 庭, 精, 頂, 停, 靜, 淨, 題, 除, 製, 第, 諸, 造, 調, 助, 祖, 存, 種, 終, 鐘, 注, 住, 酒, 宙, 重, 增, 證, 地, 指, 志, 紙, 枝, 持, 借, 着, 唱, 窓, 採, 菜, 責, 處, 淺, 鐵, 青, 清, 聽, 請, 晴, 體, 草, 招, 村, 推, 春, 忠, 治, 親, 針, 快, 他, 脫, 探, 宅, 通, 統, 投, 特, 波, 破, 判, 篇, 布, 抱, 彼, 賀, 河, 韓, 漢, 恨, 限, 恒, 海, 害, 虛, 許, 現, 賢, 協, 形, 湖, 呼, 混, 婚, 紅, 花, 和, 話, 貨, 歡, 患, 活, 效, 厚, 訓, 胸.

있으며 이 또한 교수·학습 방법으로 응용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會意兼形聲’은 아직까지 한국에서 낫선 용어이며, 한국의 한문 교과서나 한자 해설서에 ‘회의겸형성’이 사용된 적은 없다. 하지만 본론에서 살펴보았듯이 ‘회의겸형성’은 亦聲, 右文說, 因聲求義 등의 來源을 가진 한자학 연구사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이며, 합리적인 한자 조자원리 분석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회의겸형성’을 한문교과서와 한자 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의 제시는 아직까지 미흡한 편이었지만, 향후 ‘회의겸형성’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

‘한문교과 논리 및 논술’ 수업의 구성 및 운영 방안 모색 - 중등교사 양성을 위한 대학 한문교과 수업 사례를 통해 -

김진경(고려대)

< 목 차 >

- | | |
|-------------------|-------------|
| I. 시작하는 말 | 2. 강의 내용 구성 |
| II. 강의 구성 및 운영 사례 | 3. 강의 운영 실제 |
| 1. 강의 개요 | III. 마치는 말 |

I. 시작하는 말

본 발표는 중등교사 양성을 위해 대학에 개설된 한문교과 수업의 실제 사례를 통해, 한문교과의 논리 및 논술 교육 수업의 내용 구성 및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본 발표의 연구 사례로 선택한 ‘한문교과 논리 및 논술’ 수업은 중등교육에서 논리 및 논술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부 지시에 의해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중등 교사자격 취득을 위해 기본적으로 이수해야 할 과목으로 각 대학에 개설된 강의이다. 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2007-161호(2008.01.08) ‘유치원 및 초·중·고·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3조 4항을 살펴보면, “교과교육 영역에는 표시과목별로 ‘교과교육론’(2학점 이상)과 ‘교과 논리 및 논술에 관한 과목’(2학점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교과 논리 및 논술에 관한 과목’은 과목별 논술교육뿐만 아니라, 과목별 창의성 발달 지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곧 중등학교의 모든 교과 교사에게 논리 및 논술 지도 역량을 갖추게 될 것을 권장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그러나 중등교사 양성을 위해 대학에서 개설한 한문교과 수업에서의 논리 및 논술 교육은 내용 구성과 운영 방법에 있어서 아직 체계적인 방안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¹⁾ 이에 발표자는 이러한 현황에 주목하여 대학에서의 한문교과 논리 및 논술 교육을 위한 수업의 내용 구성과 운영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 것이다.

1) 대학 한문교과에서의 논리 및 논술 교육에 주목한 연구는 아직까지 매우 영성한 실정이다. 아울러 각 대학의 한문교육학과 및 한문학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문교과 논술 교육의 운영 실태에 대한 파악도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참고로 지금까지 한문교과의 논리 및 논술 교육에 관해 이루어진 연구들은 모두 중등학교 한문과 수업에서의 논술 교육에 관한 것이고, 다음의 연구들이 그 예이다. 權赫鎭(2008), 「한문과 통합 논술 수업 사례 연구」, 『한문교육연구』30, 한국한문교육학회; 權赫鎭(2007), 「통합 교과형 논술과 한문 수업」, 『한자한문교육』19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김연수(2008), 「논술 교육을 시도한 고등학교 한문 수업에 관한 사례연구」, 『한문교육연구』30, 한국한문교육학회; 안세현(2014), 「한문 산문을 활용한 글쓰기 교육 -自薦書, 自傳類 산문과 자기소개서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48집, 우리어문학회; 정민(2001), 「한문 고전을 통한 논술 지도의 실제」, 『漢文教育』49집, 전국한문교사모임. 이 가운데 한문교과에서의 통합 논술 교육에 본격적으로 주목한 경우는 權赫鎭의 연구들이다. 안세현과 정민의 연구는 한문 작품 가운데 글쓰기 작법과 관련된 내용에 주목하여 그것을 글쓰기 교육에 적용할 것을 시도한 성과물이다. 김연수는 중등교육 현장에서 시도된 논술 교육을 사례로 한문교과에서의 논술 교육이 논술교육보다는 한문교과 내용의 이해와 확장을 위한 글쓰기 활동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 주목하였다.

한문교과에서 이루어지는 논리 및 논술 교육은 두 가지 방향을 고려할 수 있다. 하나는 논술 교육을 한문과 교육과정에서 설정한 목표를 궁극적으로 성취하기 위한 교육 방법의 하나로 파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논술은 도구가 된다. 이는 한문의 학습을 통하여 다양한 유형의 한문 자료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심미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능력 기르기, 다양한 유형의 한문 자료에 담긴 선인들의 삶과 지혜와 사상과 감정을 이해하여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기, 우리 생활 전반에 면면히 이어 온 전통문화를 바르게 계승하고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기 등²⁾ 한문과 교육 과정에서 설정한 목표를 논리 및 논술 교육을 통해 성취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학습자의 논리와 논술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한문교과를 활용하는 학습법으로서 한문교과의 논술 교육을 파악하는 것이며, 이 경우는 한문교과가 도구가 된다. 한문교과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안에 학습자의 논리와 논술력 향상을 도모할 만한 요소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 선인들의 사고가 응축되어 있는 수많은 한문 고전들은 학습자들이 깊이 있고 폭넓은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훌륭한 자료가 되며, 특히 論·說·辯 등 작자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서술한 문체들은 학습자들이 논리적인 글을 작성하고 논리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이 된다.

발표자가 담당 한 '한문교과 논리 및 논술' 수업은 두 가지 방향을 모두 고려하되 후자의 방향에 보다 비중을 두고 진행하였다. 그래서 이 과목의 목표를 논리적인 성격이 강한 한문 텍스트의 내용과 그 안에 내포된 논리를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한문 텍스트를 비판적·논리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고, 나아가 이러한 훈련을 통해 학습자의 비판적인 사고 능력과 논리적인 언어 표현 능력을 함양하는 것으로 삼았다. 아울러 중등학교에서 한문교육을 담당할 학습자들이 자신의 논리력 향상 및 논술 능력 함양뿐만 아니라 논술을 지도하는 능력을 함께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II. 강의 구성 및 운영 사례

1. 강의 개요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리적 성격이 강한 한문 텍스트의 내용과 그 안에 내포된 논리를 분석하고, 그를 통해 한문 텍스트를 비판적·논리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기른다. • 학습자의 비판적인 사고 능력과 논리적인 언어 표현 능력을 함양한다. • 중등학교에서 한문교육을 담당할 학습자들이 자신의 논리력 향상 및 논술 능력 함양뿐만 아니라 논술을 지도하는 능력을 함께 양성한다.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서 및 제자서 • 중국 산문 및 한국 산문 • 중등학교 한문과 교육과정 해설서 및 한문교과서 • 글쓰기 관련 이론서 • 각종 문화콘텐츠 • 학습자들이 작성한 과제물
운영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 읽기, 강의, 모둠 활동 <p>* 발표문 II. 3. 강의 운영 실제에서 구체적으로 제시</p>

2) 유종만 외(2013), 『2013 중등 서술평·논술형 평가 예시 자료 한문』, 경기도 교육청, p.1.

평가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석 및 참여도(50점) - 이 강의는 교수자의 강의 및 이론 수업 보다는 학습자들의 실습이 주요한 활동이므로 평소 학습 활동에 대한 비중을 여타 강의에 비해 높게 두었다. • 수시 과제 - 모듈별 작성(20점) • 기말 과제 - 개별 작성(30점)
-------	--

2. 강의 내용 구성

학습자의 논리와 논술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한문교과를 활용하는 데에 비중을 두고 강의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므로 수업 내용도 이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현행 중등교육과정에서는 미래지향적 창의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통합 교과 교육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통합 논술이다. 통합 논술이란 기존의 교육과정에서 시행한 비판적 읽기와 창의적 문제 해결하기를 기반으로 한 논리적 글쓰기와 다른 특별한 것이 아니다. 다만 기존의 암기된 지식중심, 결과 중심, 개별 교과 중심, 주입식 학습 중심이라는 논술 교육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논술 개념이며 그 교육의 특징은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암기로 얻은 지식보다는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중시하는 교육,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교육, 한 교과에 갇힌 교육이 아니라 서로 다른 교과 간에 소통하는 교육, 주입식 교육이 아닌 자기 주도적 교육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에 근거하면 통합 논술이란 ‘교과 내용을 비롯한 다양한 소재를 담고 있는 제시문을 읽고 논제를 분석한 다음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논리적인 근거를 통해 합리적으로 설득하는 글쓰기’라고 정의할 수 있다.³⁾

통합적 논술에 필요한 능력으로는 비판적 읽기 능력,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논리적 서술 능력 등을 들 수 있다. 비판적 읽기란 반성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로 글을 읽는 것을 말하고, 창의적 문제 해결이란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태도로 독창적인 해결책을 끌어내는 것을 말하며, 논리적 서술이란 논거를 제대로 설정하여 체계적으로 글을 구성하고 그것을 상황에 맞도록 설득력 있게 표현해 내는 것을 말한다. ‘한문교과 논리 및 논술’ 수업은 중등교사 양성을 위해 대학에 개설된 한문교과 수업이므로, 미래의 예비 중등교사인 학습자들이 중등교육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이러한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비판적·분석적으로 텍스트 읽기’와 ‘통합적·논리적 사고하기 및 설득적 글쓰기’를 위주로 강의를 구성했다. 아울러 중등학교에서 한문교육을 담당할 학습자들이 스스로 학습 자료를 구성해 보는 과정도 안배하였다.

1) 비판적·분석적으로 텍스트 읽기

논술을 위해 갖추어야 할 능력 가운데 ‘비판적 읽기’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글의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논리력과 비판적인 사유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곧 한문교과에서 설정한 목표 가운데 한문 학습을 통하여 다양한 유형의 한문 자료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심미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3) 통합 논술에 대한 설명은 『논술교육 길라잡이』(한국대학교육협의회 중앙상담교사단,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6) pp.1-13.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능력을 기르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1) 텍스트 읽기

실제 수업에서 발표자가 선택했던 한문 텍스트는 『古文眞寶』 가운데 논변적 성격이 강한 「過秦論」, 「聖主得賢臣頌」, 「師說」과 李奎報의 「屈原不宜死論」이다.

(2) 요점식 개요 작성하기

① 단락별 요지 적기

다음은 李奎報의 「屈原不宜死論」을 읽고 작성한 사례이다.

서론	옛날에~이론 것이다	죽음으로 인(仁)을 이룬 비간(比干)과 의(義)를 이룬 백이(伯夷)·숙제(叔齊)
본론	그런데~할 것이다	굴원(屈原)의 죽음은 마땅하지 않음.
	굴원은~없어지겠는가	굴원(屈原)으로 인해 임금의 잘못이 천하에 드러남.
	또한~않았을 것이다	비간(比干), 백이(伯夷)·숙제(叔齊)의 행동은 그들의 임금에의 잘못을 드러낸 것이 아님.
결론	그러므로~슬프다	굴원(屈原)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정당하지 않음.

② 글의 주제 파악하기

李奎報의 「屈原不宜死論」의 주제를 제시한 사례이다.

비간(比干)과 백이(伯夷)·숙제(叔齊)는 그들의 임금을 욕되게 하지 않고 인과 의를 이루었으나 굴원의 죽음은 그 임금의 악함을 온 천하에 드러내었기에 마땅하지 않다. 그러므로 굴원은 왕이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기를 기다렸어야 했다.

(3) 논술 주제 잡아보기

다음은 학습자들이 李奎報의 「屈原不宜死論」를 통해 추출한 논제 사례이다.

이규보, 가의, 사마천의 굴원에 대한 평가를 비교하여 설명하고, 각자 굴원이 마땅히 취했어야 할 선택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시오.

2) 논리적·통합적 사고하기 및 설득적 글쓰기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과 논리적 서술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연습이다.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이란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태도로 독창적인 해결책을 끌어내는 능력을 말하며, 논리적 서술 능력이란 한문 텍스트 내용을 비롯한 다양한 소재를 담고 있는 제시문을 읽고 논제를 분석한 다음 자신의 생각이나 주

장을 논리적인 근거를 통해 합리적으로 설득하는 글쓰기 능력을 말한다. 이는 곧 한문교과에서 목표로 하는 다양한 유형의 한문 자료에 담긴 선인들의 삶과 지혜와 사상과 감정을 이해하여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 생활 전반에 면면히 이어 온 전통문화를 바르게 계승하고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1) 사례1 : 한문 단문의 내용 및 의미를 바르게 파악하여 삶 속에 적용하기

① 문제

※ 아래 제시된 『論語』 문장을 읽고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 (가) 其怨乎! 己所不欲, 勿施於人.
- (나) 仁者, 己欲立而立人, 己欲達而達人.

※ 조건 :

- 최근 사회문제 가운데 공자의 ‘仁’과 ‘恕’ 사상을 근거로 해결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하고, 그 해결방안을 서술하시오.
- (가), (나) 문장 가운데 하나의 해석이 들어가도록 할 것.
- 500자 (±20) 내외로 서술할 것.

② 모둠 활동 결과물 사례

집단 따돌림, 소위 왕따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은 '제로 톨레랑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가혹하다. 그러나 왕따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가해자를 엄격하고 강제적인 법으로 처벌하고 있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못한다. 처벌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결과에 대한 것이고 일시적인 것일 뿐이었지 문제의 원인을 알아내어 예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집단 따돌림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인(仁)을 실천하는 것이다. 인을 실천하는 방법은 바로 “己所不欲 勿施於人”, 즉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베풀지 않는 것이다.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입장을 헤아려본다면 장난삼아 누군가를 따돌리지는 못할 것이다. 상대의 입장에 서 보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역할극을 해보는 것을 들 수 있다. 역할극을 통해 상대방의 기분을 파악하게 되고, 상대의 입장에서 내 행동을 되새겨보는 일련의 과정들은 왕따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단초가 될 것이다.

(2) 사례2⁴⁾ : 한문 문장의 내용을 바르게 파악하고 그에 대한 분석력과 사고력 기르기

4) 유종만 외(2013), pp.42~46. 참조.

① 문제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於我善者, 我亦善之, 於我惡者, 我亦善之. 『명심보감』

以直報怨, 以德報德.

『논어』

(나) 지난 달 23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의 한 찜질방에서 휴대전화를 도난당한 A(18)군. A군은 화가 나 같은 날 오전 7시 30분께 B(44)씨의 휴대전화를 훔치는 등 19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훔쳤다. A군은 “친구와 찜질방에 놀러 갔는데 누군가 내 스마트폰을 훔쳐가 핫김에 다른 사람의 전화를 훔치게 됐다”고 진술했다.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2일 찜질방에서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난 A군을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OO뉴스」

※ 조건 :

- (가)의 『논어』 문장을 근거로, (나)의 A군 행동을 비판하는 글을 쓰시오.
- 자신의 견해는 (가)와 (나)를 활용하여 쓸 것
- 300자(±50자) 내외로 쓸 것

② 모둠 활동 결과물 사례

A군의 행동은 비판받을 만하다. 논어에 곧음으로써 원수를 갚고, 덕으로써 덕을 갚는다는 구절이 있다. 이는 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해 정당한 방법으로써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지, 감정적으로 그 원수를 갚으려고만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다른 사람이 자신의 핸드폰을 훔쳤다 해서, 핫김에 다른 사람의 핸드폰을 훔치는 행동은 정당하지 않다. 다른 합당한 방법을 통해 대가를 치르게 하고, 옳은 곳으로 인도했어야 한다. 따라서 A군의 행동은 잘못되었다.

(3) 사례3 : 글을 읽고 주어진 논제에 대한 글쓰기

① 문제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李奎報 「屈原不宜死論」 (나) 賈誼 「弔屈原賦」 (다) 司馬遷 「屈原賈生列傳」

※ 조건 :

1. 굴원의 행동에 대한 (가) 작자의 논평에 대해 서술하시오.
 - 비간백아숙제의 경우와 대비하여 서술할 것.
 - 500자(±50자) 내외로 쓸 것
2. 이규보, 가의, 사마천의 굴원에 대한 평가를 비교하여 설명하고, 굴원이 마땅히 취했어야 할 선택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시오.
 - 1200자(±50자) 내외로 쓸 것

② 모둠 활동 결과물 사례

1. 굴원이 이소를 짓고 죽음을 택한 것은 그 임금의 잘못만을 드러내었을 뿐, 그 행동에 마땅한 이유가 없다. 이에 비해 비간(比干)은 주(紂)의 포악함을 참지 못하고 간(諫)하다가 죽임을 당한 것이므로 인(仁)을 이룬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의사(義士)의 입장에서 무왕(武王)이 주(紂)를 토벌하는 것은 덕(德)에 비추어 보았을 때 참람(僭濫)된 것이었다. 따라서 백이(伯夷)와 숙제(叔齊)는 그의 곡식을 먹는 것조차 부끄러워해서 굶어 죽은 것이다. 이들의 죽음은 절의(節義)를 이룬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회왕(懷王)의 잘못은 당시에 흔히 있을 법한 일이기 때문에 죽음에 마땅한 명분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굴원의 죽음은 억울한 것이었다. 작자에 따르면 굴원은 죽음을 택하지 말고 멀리 숨어 있다가 임금의 잘못이 차차 없어질 것을 기다려야 했다.

2. 이 항목에 대한 결과물 사례는 분량이 다소 많아 생략함.

3) 학습 자료 구성하기

중등학교에서 한문교육을 담당할 학습자들이 자신의 논리력 향상 및 논술 능력 함양뿐만 아니라 논술을 지도하는 능력을 함께 양성하기 위해 마련한 과정이다.

(1) 100자 미만의 단문 텍스트를 활용한 학습 자료 사례

교수학습 방안

■ 대상 : 중학교 3학년

■ 목표 : 한문 단문을 해석하고 중심 내용을 파악하여 현재 상황에 적용할 수 있다.

■ 모형 : 모둠별 협동학습

■ 내용(text)

※ (가)의 주제를 (나)와 관련하여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 (가) 문장의 해석이 들어가도록 할 것.
- 공권력의 오·남용 문제와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서술할 것.
- 300(±50) 내외로 서술할 것.

(가) 當官者, 必以暴怒爲戒. 事有不可, 當詳處之必無不中. 若先暴怒, 只能自害豈能害人.

『명심보감』

(나) 지난 장애인의 날, 시외버스를 타려고 했던 장애인들에게 경찰은 ‘헌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등에 명시된 장애인들의 당당한 권리들을 묵살했고, 심지어 유례없이 장애인에게 최루액을 난사하는 등 심각한 공권력을 남용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4월 22일 오후 2시,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420장애인차별철폐 공동투쟁단 등이 참여한 가운데 ‘장애인의 날’에 서울 고속터미널역 앞에서 벌어졌던 장애인에 대한 경찰의 폭행 및 최루액 난사 사건과 관련해 공권력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이 지난 20일 장애인의 날 경찰이 장애인에게 최루액을 난사하는 등 무차별적으로 공권력을 남용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평가 방안

■ 평가 계획

- 문장을 바르게 읽고 해석 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 단순한 인지적 능력 보다는 분석력과 사고력을 이끌 수 있도록 평가한다.

■ 평가 내용

- 문장을 바르게 풀이할 수 있는지 서술형으로 평가하고, 이 문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진술 할 수 있는지 논술형으로 평가한다.

(2) 200자 미만의 중문 텍스트를 활용한 학습 자료 사례

교수학습 방안

◆ 대상 : 중학교 3학년

◆ 목표

- 경전(經傳)에 담긴 사상을 이해할 수 있다.
- 경전의 내용을 통해 현실사회의 문제를 비판할 수 있다.

◆ 모형 : 강의법, 토론학습법, 모듈별 협동학습

◆ 내용(text)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梁惠王曰, “寡人願安承教.” 孟子對曰, “殺人以梃與刃, 有以異乎?” 曰, “無以異也.” “以刃與政, 有以異乎?” 曰, “無以異也.” 曰, “庖有肥肉, 廄有肥馬, 民有飢色, 野有餓莩, 此率獸而食人也. 獸相食, 且人惡之, 爲民父母, 行政, 不免於率獸而食人, 惡在其爲民父母也?”

『맹자』 「양혜왕」

(나)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헌법 34조]

(다) ‘사회안전망’ ‘구멍’ 드러낸 송파구 세모녀 비극

지난 2월 26일 송파구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모녀의 비극은 사회안전망의 한계와 복지 사각지대를 드러낸 안타까운 사건이다. 28일 송파구 등에 따르면 숨진 박모(60)씨 모녀는 질병 상태로 수입도 끊겼지만, 국가와 자치단체가 구축한 어떠한 사회보장체계의 도움도 받지 못했다. 세 모녀는 가장 기본적인 복지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나 의료급여제도 대상에 들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안타깝다는 지적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에 최저생계비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복지제도이고, 의료급여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층을 위한 의료보장제도이지만 이들에게는 먼 나라 얘기였다. (이하 생략)

- 연합뉴스

2014년 2월 28일 하채림 기자

1-1. (가)의 주제를 바탕으로 (다)의 사건을 설명하시오. (300자 ± 50자)

1-2. 사회 복지의 문제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3) 한 편의 텍스트를 활용한 학습 자료 사례

교수 학습 방안

■ 대상 : 고등학교 1학년

■ 목표

- 한문 고전인 《슬견설》에 나타나는 사상을 이해할 수 있다.
- 고전을 바탕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사회적 현안을 이해하고, 자신의 관점을 확립할 수 있다.

■ 모형

- 모듈별 협동 학습

■ 내용 (text)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客有謂予曰, 昨晚見一不逞男子以大棒子椎遊犬而殺者, 勢甚可哀, 不能無痛心。自是誓不食犬豕之肉矣。予應之曰, 昨見有人擁熾爐捫蝨而烘者, 予不能無痛心, 自誓不復捫蝨矣。客慙然曰, 蝨微物也。吾見龐然大物之死, 有可哀者故言之。子以此爲對, 豈欺我耶。予曰, 凡有血氣者, 自黔首至于牛馬猪羊昆蟲蠅。其貪生惡死之心, 未始不同, 豈大者獨惡死。而小則不爾耶。然則犬與蝨之死一也。故舉以爲的對, 豈故相欺耶。子不信之, 盍齧爾之十指乎, 獨拇指痛, 而餘則否乎。在一體之中, 無大小支節, 均有血肉, 故其痛則同。況各受氣息者, 安有彼之惡死而此之樂乎, 子退焉。冥心靜慮, 視蝸角如牛角。齊斥鷃爲大鵬, 然後吾方與之語道矣。

<虱犬說>

(나)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식물은 동물을 위해 존재하며 동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 따라서 인간의 필요에 의해 동물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근대철학의 아버지 데카르트(Rene Descartes, 1596~1650)는 인간과 동물의 몸은 자동 기계인데, 인간과 달리 동물에게는 정신 또는 영혼이 없어 쾌락이나 고통을 경험할 수 없다고 보았다. 데카르트는 마취도 없이 살아있는 동물을 해부하는 실험을 한 것으로 악명이 높는데, 당시에는 마취 술이 없었을 뿐더러, 그에게는 동물이 아파하는 행동도 진정한 통증을 반영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동물실험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칸트(Immanuel Kant, 1724~1804) 역시, 이성과 도덕을 갖는 인간의 이익이 그렇지 못한 동물의 이익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동물 실험의 타당성>

3-1. (가)의 주제를 적으시오. (100자 내외)

3-2. (가)와 (나)의 관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인간을 위한 동물실험은 정당인가’에 대해 논술하시오. (1600(±50)자)

평가 방안

■ 평가 계획

- 서술형 평가 : 고전을 읽고 중심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 논술형 평가 : 제시된 조건에 맞게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치는지 평가한다.

■ 평가 내용

· 제시된 조건에 맞게 논리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서술하였는지 검토한다.

3. 강의 운영 실제

1) 세부적 진행 일정

주	수업 내용	수업 자료
1주차	한문교과 논리 및 논술 교육의 성격 및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7개정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한문』 『논술교육 길라잡이』
2주차	현대적 글쓰기 이론 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논증의 글쓰기, 설득의 글쓰기 관련 자료 - 『대학 글쓰기의 이해』 (고려대학교 출판부)
3주차	비판적·분석적으로 텍스트 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古文眞寶』 「過秦論」 모둠 활동 결과물
4주차	논리적·통합적 글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芝峯集』 문장, 이백의 「將進酒」, 신문 기사를 활용한 수업자료 모둠 활동 결과물
5주차	비판적·분석적으로 텍스트 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古文眞寶』 「聖主得賢臣頌」 모둠 활동 결과물
6주차	논리적·통합적 글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明心寶鑑』 문장, 『論語』 구절, 뉴스 기사를 활용한 수업자료 모둠 활동 결과물
7주차	비판적·분석적으로 텍스트 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古文眞寶』 「師說」 모둠 활동 결과물
8주차	논리적·통합적 글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論語』 구절들을 활용한 수업자료 모둠 활동 결과물
9주차	비판적·분석적으로 텍스트 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李奎報 「屈原不宜死論」 모둠 활동 결과물
10주차	논리적·통합적 글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論語』 구절, 칸트 『윤리학 강의』 내용을 활용한 수업자료 모둠 활동 결과물
11주차	논리적·통합적 글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李奎報 「屈原不宜死論」, 賈誼 「弔屈原賦」, 司馬遷 「屈原賈生列傳」 모둠 활동 결과물
12주차	학습 자료 구성하기 - 100자 미만의 텍스트를 대상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둠 수시 과제 결과물

주	수업 내용	수업 자료
13주차	학습 자료 구성하기 - 200자 미만 텍스트를 대상으로	• 모둠 수시 과제 결과물
14주차	학습 자료 구성하기 - 한 편의 텍스트를 대상으로	• 모둠 수시 과제 결과물
15주차	학습 자료 답안 작성하기	• 모둠 수시 과제 결과물 • 모둠 활동 결과물
16주차	개별 기말 과제 준비	

2) 운영의 구체적 실제

(1) 대체적 운영 방식

① 자료 읽기, 강의, 모둠 활동

• 모둠 활동

- 적지 않은 수강 인원을 고려하여 시행한 학습법으로, 6~7명의 인원으로 한 모둠을 구성하여 모두 6개의 모둠으로 편성하였다.
- 매시간 주어지는 과제에 대해 모둠별로 결과물을 제출해야 하므로 모둠 구성원 개개인이 모두 예외 없이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 매시간 구성원끼리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조율하며 그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하는 과정이 학습자 모두에게 논리력 및 표현력을 기르는 기회가 된다. 이를 통해 모둠 학습이 개별 학습에 비해 개인별로 집중적인 지도를 받지 못하는 한계를 다소 극복할 수 있다.

② 주 2차 수업

- 1차 수업에서는 과제에 대한 논의 및 답안을 작성한다.
- 2차 수업에서는 1차시 작성된 결과물에 대한 검토 및 평가를 시행한다.
- 제 2차 수업 진행시
 - 다른 모둠의 결과물에 대해 모둠별로 학습자들이 직접 분석하고 평가한다. 기말 개별 과제를 제외한 모든 학습 결과물들에 대해 교수자와 학습자가 함께 검토하며 평가를 진행하여 논술 지도에 대한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논술 결과물에 대한 평가 능력은 학습자가 향후 교육 현장에서 논술 교육을 담당하게 될 경우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소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학습자 스스로 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전반적으로 수업 진행 과정에서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
 - 교수자가 과제 결과물과 학습자들의 평가 내용에 대해 최종 강평을 한다.

(2) 학습내용별 운영 방법

- 5) 이 외에 한문교과 논술 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한문 문장론에 대한 이론적 교육도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그러나 발표자의 이번 수업에서는 이와 관련한 내용은 포함시켜 시행하지 못했다.

① 비판적·분석적으로 텍스트 읽기

- 논리적인 성격이 강한 한문 텍스트를 정독한 후 그 글의 내용 및 논리적인 구조를 파악하여 글의 개요를 작성하고, 나아가 논제를 추출해 보도록 하였다.
- 개요 작성은 학습자 스스로 단락을 나눠보고, 단락마다 요지를 적고, 그 요지를 통해 글 전체의 주제를 정리하는 방식을 취했다.
- 글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읽고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발전시키고 정리하는 과정, 글의 내용과 관련하여 논의할 만한 주제를 스스로 정하고 그 주제를 중심으로 자신의 논지를 세우는 연습 등은 각 논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확립하고, 글을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판단하여 시행한 학습이다.

㉠ 텍스트 읽기

-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수업 시간 내에 대상 텍스트를 교수자와 학습자가 함께 원문으로 정치(精緻)하게 해석해 가며 읽는 것이다. 그러나 제한된 한 학기의 수업 시수 안에서 원전 강독과 논술 교육을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⁶⁾ 아울러 학습자들의 한문 독해력의 부족도 원전 강독을 통해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었다. 그래서 현토한 원문과 번역문을 동시에 제공하고, 수업 시간에는 번역문을 활용하는 차선택을 선택하였다.
- 효율적인 수업 진행을 위해 수업 자료는 늦어도 수업 시행 일주일 전에 제공하여 학습자가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요점식 개요 작성하기

- 단락별 요지 적기
단락이 전혀 나뉘져 있지 않은 텍스트의 의미 단락을 나눠보고 단락마다 요지를 적도록 하였다. 아울러 글 전체의 구조를 파악하여 서론, 본론, 결론을 구분하도록 하였다.
- 글의 주제 파악하기
글의 주제를 파악한 후 완전한 문장으로 서술하도록 하였다.

㉢ 논술 주제 잡아보기

분석한 글의 논점을 중심으로 학습자 스스로 논제를 추출하도록 하였다. 학습자들이 추출한 논제는 논리적·통합적 사고하기 및 설득적 글쓰기 과정에서 활용하였다.

② 논리적·통합적 사고하기 및 설득적 글쓰기

- 이 과정에서는 단문의 한문 텍스트 또는 한 편의 한문 고전 작품과 그와 연계한 각종 콘텐츠를 접한 후 주어진 논제에 대해 일정 분량의 글을 쓰도록 하였다.
- 단문 텍스트의 경우는 번역을 제시하지 않고 수업시간에 교수자와 학습자가 함께 강독하였다. 그리고 결과물에 대한 평가는 학습자들의 상호 첨삭과 교수자의 강평으로 진행했다.

③ 학습 자료 구성하기

- 중등학교에서 한문교육을 담당할 학습자들이 자신의 논리력 향상 및 논술 능력 함양뿐만 아니라 논술을 지도하는 능력을 함께 양성하기 위해 마련한 과정이다.

6) 한 학기 수업은 총 16주로 구성이 되고, 한 주당 75분씩 2회의 수업이 진행된다. 중간시험과 기말시험 기간을 제외하면 평균 14주, 28회의 수업이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

- 작성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로 수업 대상, 수업 목표, 수업 모형, 평가 방식 등을 제시했으며 모듈별 수시 과제로 부과했다.
- 100자 미만의 단문 텍스트, 200자 미만의 중문 텍스트, 한 편의 텍스트를 대상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대한 평가는 모듈별 상호 첨삭과 교수자의 총평으로 진행했다.
- 최종적으로 가장 잘 구성된 자료를 하나 선정하여 그에 대한 답안을 작성하는 실습을 하였다.

III. 마치는 말

본 발표에서는 수업 구성의 중심이 되었던 비판적·분석적으로 텍스트 읽기, 논리적·통합적 사고하기 및 설득적 글쓰기, 학습 자료 구성하기에 대한 사례들을 소개하는 데에 그쳤을 뿐, 실제 수업에서 이루어졌던 각 사례에 대한 정치한 분석과 평가 내용까지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 아울러 다른 각 대학의 ‘한문교과 논리 및 논술’ 강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운영 현황을 참고하고 분석하여 보다 적절하고 효율적인 수업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단계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대한 논의는 향후 연구에서 심화시키고자 한다. 이 외에 한 학기 동안 수업을 진행하면서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파악한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 학기 수업 시수 안에서 한문 독해력 증진을 위한 교육과 논술 교육을 병행하는 것이 녹록치 않았다. 아무리 훌륭한 번역문일지라도 원문이 내포하고 있는 여러 층위의 의미들을 온전하게 전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학습자들의 한문 독해력 증진을 위한 학습 활동은 한문교과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수업에서는 한문 독해력 증진을 위한 시간을 안배하지 못했다. 교육 현장에서 주어진 수업 시수 안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모색이 절실하다.

둘째, 중등 한문교과 교육과정과 성취기준을 고려하여 학습 자료를 구성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아울러 교직을 이수하는 학생들에게 현실적으로 절실한 문제인 임용고사의 논술 시험 준비에 대한 대비를 배려하지 못했다.

이상의 언급처럼 이번에 시도한 수업 구성과 운영 방법은 보완해야 할 여러 문제들이 있다. 아울러 한 학기 동안의 교육을 통해 학습자의 논리력과 논술 능력에 큰 향상을 가져왔다고 자신할 수 없다. 다만 이번에 시행했던 학습을 통해 학습자들이 학습 이전 보다 통합적이면서도 비판적으로 사유하고 논리적으로 글을 쓰는 데에 다소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 그리고 거칠게 제시한 이번 사례가 한문교과의 논리 및 논술 교육을 위한 이상적인 교수학습법을 모색하는 데에 토대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교육인적자원부(2008), 『2007개정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한문』, 교육과학기술부
- 유종만 외(2013), 『2013 중등 서술평·논술형 평가 예시 자료 한문』, 경기도 교육청.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중앙상담교사단(2006), 『논술교육 길라잡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중앙상담교사단(2007), 『논술교육 길라잡이Ⅱ』,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權赫鎭(2008), 「한문과 통합 논술 수업 사례 연구」, 『한문교육연구』30, 한국한문교육학회, pp.147~177.
- 權赫鎭(2007), 「통합 교과형 논술과 한문 수업」, 『한자한문교육』19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pp.77~110.
- 김연수(2008), 「논술 교육을 시도한 고등학교 한문 수업에 관한 사례연구」, 『한문교육연구』30, 한국한문교육학회, pp.179~215.
- 안세현(2014), 「한문 산문을 활용한 글쓰기 교육 -自薦書, 自傳類 산문과 자기소개서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48집, 우리어문학회, pp.101~129.
- 정민(2001), 「한문 고전을 통한 논술 지도의 실제」, 『漢文教育』49집, 전국한문교사모임, pp.10~40.

韓文(古文)과 中文(漢文)

金時晃(慶北大 名譽教授)

I. 머리말

II. 文字(글자)의 語源

1) 文字 : (1)글자. 말을 기록하는 부호. [한글학회 큰사전] ‘글자’ [許愼 說文解字 敍] ‘蓋依類形象 故謂之文 其後形聲相益 卽謂之字’ (2)韓字. 韓文. [世宗御製訓民正音] ‘國之語音이 異乎中國하야 與文字로 不相流通일새 故로 愚民이 所欲言하야도 而終不得伸其情者ㅣ 多矣라’ (3)漢字. 漢文. 中文. 古文.

2) 漢字 : [한글학회 큰사전] ‘중국의 글자’

3) 漢文 : [한글학회 큰사전] ‘漢字로된 글’ [敎學 大漢韓辭典] ‘漢語의 古文 語法에 근거하여 漢字로 表記한 글. 또는 韓代의 文章’

4) 漢文學 : [敎學 大漢韓辭典] ‘(1)漢字 漢文 漢詩 등을 연구하는 學問. 漢學. 漢代의 學問. (2)漢代의 文學’

5) 眞書 : . 한글을 諺文. 韓文(漢文)을 진짜 글이라 하여 眞書라함. 2. 眞字. 楷書. [歐陽脩 學眞草書] ‘自此已後隻日學草書 雙日學眞書’

6) 諺 : (1)속된 언. 粗俗. 嘯(상말언)과 통용. 거칠고 상스럽다. [書 無逸] ‘乃逸乃諺 既誕’ (2)俚諺 언.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속담. [孟子 梁惠王 下] ‘夏諺曰 吾王不遊 吾何以休’

7) 諺文 : 朝鮮시대 한글을 낮추어 한 말. [世宗實錄 第103卷 世宗 26년(1444) 2월 庚子(20일)] ‘集賢殿 副提學 崔萬理 等上疏曰 臣等 伏觀諺文制作 至爲神妙 創物¹⁾運智²⁾ 匱出千古--- 今當同文同軌之時 創作諺文 有駭觀聽 儻曰諺文 皆本古字 非新字也’

8) 白話文<中文> : (1) 白話. [한글학회 우리말 큰사전] ‘일상 생활에 쓰는 입말체인 중국 말. 白話小說. 白話文學. (2)白話文. 白話로 쓴 중국의 글. [中國文化大學 印行 中文大辭典 六-876] ‘與口語相同之文體 則語體文 別於文言文而言 參見語體文條’

9) 白話運動 : [한글학회 우리말 큰사전] ‘中國에서 1917년 胡適 등이 從來의 文語(古語)를 배격하고, 白話 곧 일상생활에 쓰는 口語를 중시하여 고취한 문화운동. 1919년의 오사운동에 이어져 言語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묵은 윤리사상의 타파운동으로 발전하였다.’

1) 創物 : 創造. [周禮 考工記 總目] ‘知者創物 巧者述之’

2) 運智 : 知慧를 씀.

- 10) 訓民正音 : [世宗御製訓民正音] ‘國之語音’ 周時經 : 한글.
- 11) 篆書 : 篆文 篆字體로 쓴 글.
- 12) 篆籀 : 大篆을 말함. 周宣王 때 太史 史籀(籀文 주)의 創作이라 함.
- 13) 隸書 : 佐書. 秦始皇 때 程邈이 만들었음.

[梁誠之 訥齊集 卷二 奏議 請建弘文館] ‘藏書後面圖書 稱朝鮮國第六代癸未歲御藏書 本朝九年³⁾ 大明天順七年 以眞⁴⁾字書之 前面圖書 稱朝鮮國御藏書 以篆字書之 遍着諸冊 昭示萬世’

Ⅲ. 韓文은 助辭(語助辭)를 使用한다. 中文에는 語助辭가 없다. 韓文은 添加語이고 中文은 孤立語이기 때문이다.

[孟子 梁惠王 下3] ‘王請大之’ 크게 하다.

[孟子 梁惠王 下3] ‘作之君作之師’ 君主를 삼아주고 스승을 삼아주다.

[孟子 梁惠王 下5] ‘王欲行王政則 勿毀之矣’ 헐어버리다.

[孟子 梁惠王 下15] ‘吾聞之也’ 들으니까. 듣기로는.

[孟子 梁惠王 下15] ‘邑于岐山之下하사 居焉하신대’ 살았다.

[孟子 梁惠王 下15] ‘君請擇於斯二者’ 註 孟子之於文公. 예게.

[孟子 梁惠王 下16] ‘有司 未知所之’ 갈 곳을 알지 못하다.

[孟子 盡心 上33] ‘孟子 | 曰堯舜은 性者也 | 오 湯武는 反之也 | 시니라 性者는 得全於天하야 無所汙壞하야 不假修爲하니 聖之至也 | 오 反之者는 修爲以復其性하야 而至於聖人也 | 라 程子 | 曰 性之反之는 古未有此語하니 蓋自孟子 | 發之하시니라

[孟子 盡心 下25] ‘可欲之謂善이오 有諸己之謂信이오 充實之謂美오 充實而有光輝之謂大오 大而化之之謂聖이오 聖而不可知之之謂神이니’

[孟子 梁惠王上] ‘王이 說曰 詩云 他人有心을 予忖度之라하니 夫子之違也로소이다 夫我乃行之하고 反而求之호대 不得吾心이러니 夫子言之하시나’

[孟子 告子上] ‘求則得之 舍則失之’

[書商書 中虺之誥 7] 註 諸侯之賢德者를 佑之輔之하고 忠良者를 顯之遂之는 所以善善也 | 라.

[莊子 天道] ‘知天樂者 無天怨 無人非 無物累 無鬼責’

3) 世祖 9年 癸未(1463) 5月 11日 以行僉知中樞院事上.

4) 眞 : 楷書 진.

[中宗實錄 35.5. 辛丑(10) 國編 18-385 下左] ‘禮曹 仍議啓曰 --- 周禮 祭于雩而 巫人舞之 或歌或哭者 以民生之艱難 欲其上徹於天也 前朝時於都省爲之也 古書亦云 聚于市而禱之 此亦成周之古禮也’

[禮記 樂記] ‘物至知知’ 註 朱子 | 曰 上知字는 是體오 下知字는 是用이니라⁵⁾ (사물이 이르면 지혜가 이를 안다)

[禮記 冠義 5] ‘成人之者는 將責成人之禮焉也 | 오 責成人之禮焉者는 將責爲人子 爲人弟 爲人臣 爲人少者之禮行焉이니’

[禮記 昏義 9] ‘天子之與后 | 猶日之與月와 陰之與陽이 相須而后에 成者也니라 ‘天子之與后 | 猶父之與母也 | 라하니’

[禮記 鄉飲酒義 1] ‘尊讓絜敬也者는 君子之 所以相接也라’

[韓愈 原道] ‘博愛之謂仁이오 行而宜之之謂義오 由是而之焉之謂道오 足乎已無待於外之謂德이라’

[歐陽脩 學眞草書] ‘自此以後 隻日學草書 雙日學眞書’

[世宗御製訓民正音] ‘國之語音 異乎中國 與文字不相流通’

[世宗御製訓民正音 諺解] ‘漢音은 中國소리’

[書堯典 12] ‘汝能庸命하나니 巽朕位인저’ 註 四岳이 能用我之命하니 而可遜以此位乎 인저하니 故로 欲舉以授人而 先之四岳也 | 라.

[書大禹謨 15 註] 蓋古之聖人이 將以天下與人에 未嘗不以其治之之法으로 并而傳之하시니

[書大禹謨] ‘滿招損하고 謙受益이 時乃天道 | 니이다’ 註 滿損謙益은 卽易所謂 天道는 虧盈而益謙者 | 라. [易謙卦] ‘天道虧盈而益謙’ 가득한 것을 이지러지게 하고, 겸손한 것을 더해준다는 뜻이다.

[禮記 樂記 21-5] ‘爲人君者는 謹其所好惡而已矣니라’

[論語 爲政] ‘攻乎異端 斯害也已’

[孟子 梁惠王 上 1] ‘王은 何必曰利잇고 亦有仁義而已矣니이다’

[孟子 梁惠王 下 3] ‘樂天者’ 註 天者 理而已矣.

[大學 傳2章 作新民 註] ‘鼓之舞之之謂作’

[大學 傳8章] ‘人이 之其所親愛而辟焉하야’ 註 之는 猶於也 | 라.

[中庸 6章] ‘舜은 其大知也與인저’

[中庸 17章] ‘舜은 其大孝也與신저’

[中庸 8章] ‘拳拳服膺而 不失之矣니라’

5) 物至知知 : 사물이 이르면 지혜가 이를 안다.

IV. 韓文과 漢文은 語順이 다르다

韓文은 主語가 앞에 오고 敘述語가 뒤에 온다. 中文은 그 반대로 敘述語가 앞에 오고 主語가 뒤이다.

1) 詩經 國風

[詩經 國風 周南 1. 關雎⁶⁾]

‘關關雎鳩 | 在河之洲 | 로다

窈窕淑女 | 君子好逑 | 로다

參差荇菜를 左右流之로다

窈窕淑女를 寤寐求之로다

[詩經 國風 周南 6 桃夭⁷⁾]

桃之夭夭 | 여 灼灼其華 | 로다

之子于歸여 宜其室家 | 로다

桃之夭夭 | 여 有蕢其實이로다

之子于歸여 宜其家室이로다

桃之夭夭 | 여 其葉蓁蓁이로다

之子于歸여 宜其家人이로다

[詩經 大雅 靈臺]

經始靈臺하야 經之營之하시니

庶民攻之라 不日成之로다

經始勿亟하시나 庶民子來로다

王在靈囿하시니 麀鹿攸伏이로다

麀鹿濯濯이어늘 白鳥鶴鶴이로다

王在靈沼하시니 於沔魚躍이라하니

2) 周易 孟子 荀子 등

[周易 家人] ‘父父子子兄兄弟弟夫夫婦婦而 家道 | 正하리니 正家而 天下 | 正矣리라’

6) 男女間の戀愛詩.

7) 婚姻을 祝賀한 시.

앞의 父子兄弟夫婦는 부모 자식 형 동생 가장 주부의 뜻이고, 뒤의 父子兄弟夫婦는 아버지답고 자식 답고 형답고 동생 답고 가장 답고 주부답와야 한다는 뜻이다. 곧 자신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中文에서는 그 反對이다.

[論語] ‘君君 臣臣 父父 子子’ ‘君不君 臣不臣 父不父 子不子 雖有俗 吾得而食諸’

[孟子 梁惠王 下 1] ‘曰可得聞與잇가 曰 獨樂樂<독악락*>과 與人樂樂<여인악락>이 孰樂이니잇고 曰不若與人이니이다 曰與少樂樂<여소악락>과 與衆樂樂<여중악락>이 孰樂이니잇고 曰不若與衆이니이다.’ 註 聞與之與는 平聲이라 樂樂의 下字는 音洛이라 孰樂亦音洛이라 ○獨樂이 不若與人이오 與少樂이 不若與衆은 亦人之常情也 | 라 (혼자 음악을 즐기는 것과 남과 함께 음악을 즐기는 것이 어느 것이 즐겁겠습니까. 적은 사람들과 음악을 즐기는 것과 여러 사람과 함께 음악을 즐기는 것이 어느 것이 즐겁겠습니까)

* [成百曉 譯註 懸吐完譯 孟子集註 傳統文化研究會 1991.3.31. 45면 譯註 1]에 ‘樂樂 集註에는 악락으로 音이 표시되어 있으나, 文法에 맞게 낙악으로 읽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을 밝혀 둔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악락으로 읽는 것은 韓文이고 낙악으로 읽는 것은 中文이다. 다음 文獻들 參考.

[漢書 卷二十八 下 地理志 第八 下 408-1627. 後漢 班固(32-92) 撰 120卷.] ‘樂浪郡 : ‘武帝元封 三年開 莽曰樂鮮 屬幽州⁹⁾ 樂浪郡은 韓國音 악랑군 并音 yue lang jun. 樂 洛也 洛은 并音 luo.

[한글학회 지은 큰사전 4-1994면, 을유문화사 1967년] ‘악랑(樂浪) : 중국 전한(前漢) 때의 무제(武帝)가 서기(西紀) 108년에 위만조선(衛滿朝鮮)을 멸망시키고 둔 네 군(郡)의 하나. 잘못된 말 : 낙랑 = 樂浪’ 으로 옳게 되어 있다.

[한글학회지은 우리말큰사전 1-725 어문각 1991] ‘낙랑(樂浪) : 한사군의 하나. 중국의 기록에 의하면 랴오허 주위의 땅에 있었지만 유물의 발견을 들어 평양 근처에 있었다고도 한다. 313년 고구려에 병합되었다.’ 라고 잘못되어 있었는데, [한글학회 지은 큰사전 4, 1994면. 1957년 8월 30일 초판발행. 지은이 한글학회(조선어학회), 낸데 을유문화사, 박은이 선미인쇄소] ‘악랑(樂浪) : 중국 전한(前漢) 때의 무제(武帝)가 서기(西紀) 108년에 위만조선(衛滿朝鮮)을 멸망시키고 둔 네 군(郡)의 하나. 잘못된 말 : 낙랑 = 樂浪’ 으로 訂正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전에는 아직 고쳐지지 않고 있다.

[이희승 국어대사전 2230면 민중서관 1981년] ‘악랑(樂浪) [歷] 낙랑(樂浪)’이라 되어 있다.

8) 樂樂 : [孟子 諺解音] 악락. 集韻 1. 逆角切 악 并音 yue. 2. 歷各切 락 并音 le. 3. 魚敎切 요 并音 yao. 4. 本音 辽 liao.

9) 應劭曰 故朝鮮國也 師古曰 樂音洛(le) 浪音狼.

[敎學社 大漢韓辭典 1998.9.10. 1595] ‘樂浪(낙랑) : 한무제(漢武帝)가 위씨조선(衛氏朝鮮)을 치고, 그 지방에 설치한 사군(四郡)의 하나’ 라고 하였다.

[孟子 梁惠王 上 7-12] ‘老吾老하야 以及人之老하며 幼吾幼하야 以及人之幼’ 면 *吾老를 老하고 吾幼를 幼하야

[荀子] ‘非是是非之謂愚’ (그른 것을 옳다고 하고, 옳은 것을 그르다고 하는 것을 어리석다고 말한다)

V. 韓國音과 中國音은 처음부터 달랐다

金 : 금. 김. [集韻] 居吟切. 니 ㄱ . jin

時 : 시. [集韻] 市之切 平聲支韻.尸. shi

晃 : 황. [集韻] 戶廣切 上聲養韻. ㄱ×九. huang

秦 : 진. [集韻] 慈隣切 平聲眞韻. ㄱ ㄴ . gin

始 : 시. [集韻] 首止切 上聲紙韻.尸. shi

皇 : 황. [集韻] 胡光切 平聲陽韻. ㄱ×九. huang

栩 : 1) 허. 本音 후. 集韻 火羽切. xi. 상수리나무 허. 諺解音 호. [詩陳風 東門之粉] ‘東門之粉 宛丘之栩’ 諺解 완구지호. 2) 우. 集韻 王矩切. yu. 땅이름 우. [詩唐風 鶉羽] ‘肅肅鶉羽 集于苞栩’ 鶉 능에 보. 諺解 집우포 우.

旦 : 1) 단. 集韻 得安切. dan. [柳宗元 種樹郭橐駝傳] ‘旦視而暮撫’ 2) 조. [詩陳風 東門之粉] ‘穀旦于差’ 諺解 곡조우차. [詩大雅 板] ‘昊天曰旦’ 諺解 호천왈 조.

菅 : 1) 관. 字典 姑頑切 并音 guan. 땅이름 관. 春秋宋地. 2) 간. 集韻 居顏切. jian. 莎草 간. 난초 간. 菅蒯(간괴). [左傳 成功 9년] ‘雖有絲麻 無棄菅蒯’ 菅屨(간구). [左傳 襄公 17] ‘莛經帶杖菅屨’

晝 : 1) 절. 集韻 之烈切 zhe. 밝을 절. 光亮. 똑똑할 절. 明智. 슬기롭다. 2) 제. 集韻 征例切 zhi. 별이 반짝이는 모양 제. 諺解音 제. [詩小雅 庭燎] ‘夜未艾 庭燎晝晝(제제)’ [詩陳風 東門之陽] ‘昏以爲期 明星晝晝(제제)’

苕 : 1) 초. 集韻 田聊切 tiao. 완두 초. 능소화 초. 2) 조. [詩陳風 防有鵲巢] ‘防有鵲巢 邛有旨苕(諺解音 도)’ [詩小雅 苕(豆)之華] ‘苕(諺解音 條豆)之華 芸其黃矣’ 3) 소. 集韻 時饒切. shao. 홍소 소. 고구마.

𪔐 : 이을 철. 반두둑길 철. 集韻 株劣反. 中并音 zhui. [禮記 郊特牲] ‘饗農及郵表𪔐(株劣反)’

遊 : 놀 유. 여행하다. 集韻 夷周切 平聲尤韻 并音 you.

客 : 나그네 객. 集韻 乞格切 入聲陌韻 并音 ke.

天 : 하늘 천. 集韻 他年切 平聲先韻 諺解音 던. 并音 tian.

地 : 땅 지. 集韻 徒二切 去聲寘韻 孝經諺解音 디. 并音 di.

日 : 날 일. 集韻 入質切 并音 ri.

月 : 달 월. 集韻 魚厥切 并音 yue.

有 : 있을 유. 集韻 云九切 并音 you.

傳 : 1) 전할 전. 諺解音 던. 集韻 重緣切 平聲先韻 并音 chuan. 2) 주식 전, 옛책 전. 傳記 전. 集韻 朱戀切 去聲霰韻 jhuan

齊 : 1) 平聲 齊韻 같을 제. 가지런할 제. 다스릴 제.(齊家) 并音 qi. 2) 去聲 霽韻 섞을 제. 和也. 탁주 제. 이룰 제.(成就) 종을제. (時運 不齊) 并音 ji.

曰 : 왈. 諺解음 왈. [集韻] 王伐切. 니ㅅ. yue

于 : 우. 本音 허. [集韻] 雲俱切. 니, ㄸ니. xi

之 : 지. [集韻] 眞而切. ㅅ. zhi. [古文眞寶 柳宗元 捕蛇者說] ‘若¹⁰이 毒¹⁰乎야’ ‘謹食¹¹之¹¹’

而 : 이. [集韻] 人之切. 儿. er.

而已 : 이이. [古文眞寶 韓愈 伯夷頌] ‘士之特行獨立하야 適於義而已¹²오

而已矣 : 이이의. 일 뿐이다. [孟子 梁惠王 上1] ‘孟子 | 對曰 王은 何必曰利잇고 亦有仁義而已矣니이다’ ‘王은 亦曰仁義而已矣시니 何必曰利잇고’

而已也 : 이이야. 할 뿐이다. [古文眞寶 柳宗元 送薛存義序] ‘盖民之役이오 非以役民而已也’

中 : 1) 平聲 東韻 中間 中央 裏面 中等 中道 中正 中媒 마음(中心). 2) 去聲送韻 맞칠중 (適中) 바람맞을 중(中風) 응할 중. 해당되다. (律中黃鐘之宮) 해칠중(中傷) 버금중(次也) 中(仲)氏. 并音 zhong.

耳 : 1) 귀 이. 聽覺器官. [說文] ‘主聽者也 象形’ 人止切. 紙韻. 儿 er. [孟子 滕文公 下] ‘三日不食 耳無聞’ 2) 들을 이. 聞也. [漢書 62 外戚傳] ‘耳曩者所夢日符’ 3) 곡식의 싹 이. 穀芽. [朝野僉載 卷一] ‘秋甲子雨 火斗生耳’ 4) 語助辭 이. 뿐 따름. 限定의 뜻을 나타내는 말. [論語陽化] ‘前言戲之耳’ 語勢를 돕는 말. [論語 雍也] ‘女得人言耳乎’ [御製訓民正音] ‘便於日用耳’ 5) -으로서. 앞뒤의 말을 연결하는 而와 같게 씀. [賈誼 治安策] ‘爲人臣者 主耳忘身’ 6)성한 모양 이. 盛貌. [詩魯頌 閟宮] ‘六轡耳耳’ 7) 잉. 如蒸切. 蒸韻. ㄹ reng. 耳孫. 仍孫 七大孫. 玄孫의 曾孫. 仍과 통용. [漢書 惠帝紀] ‘内外公孫耳孫’

10) 毒之 : 고통스러움.

11) 謹食之 : 조심해서 먹이다.

12) 而已 : 할 뿐이다.

矣 : 의 廣韻 于紀切 紙韻. 并音 yi

1. 語助辭 의. 語氣助辭.

- 1) -이었다. 과거완료를 나타낸다. [論語雍也] ‘不幸短命死矣’
- 2) -리라. 미래의 意思를 나타낸다. [論語陽化] ‘諾 吾將仕矣’
- 3) -이다. 결정이나 斷定的 뜻. [論語學而] ‘吾必謂之學矣’ [世宗御製 訓民正音] ‘終不得伸其情者 多矣’
- 4) -도다. 感歎의 뜻. [論語述而] ‘甚矣 吾 衰也’
- 5) -뿐이다. 限定的 뜻을 나타내는 耳와 같이 쓴다. [戰國冊 趙3] ‘連有赴東海而死矣’
- 6) -느냐. 疑問의 뜻. [論語季氏] ‘則將焉用彼相矣’

2. 注比 의. 部門. 서울 鐘路에 있었던 商品別의 가게. [萬機要覽] ‘六矣廛 俗稱六注比’

也 : 야. [集韻] 以者切. 馬韻.¹세. 并音 ye

耶 : 야. 인가 아닌가. [古文眞寶 韓愈 雜說] ‘其眞無馬耶 其眞不識馬耶’ [古文眞寶 韓愈 諱辯] ‘賢於周公孔子曾參者耶’

夫 : 부. [集韻] 馮無切. 虞韻. 并音 fu. 1)대저 부. 發語辭. 2)저 부. 彼也. 人稱代名詞. 3)이 부. 此也. 4)-도다. -구나. 感歎詞. 5) -느냐 부. 疑問助詞.

哉 : 재. [集韻] 將來切. 灰韻. 并音 zai. 1) -로다.-도다. 感歎. 2) -느냐. 疑問. 3) -하다. 肯定.

乎 : 호. [集韻] 洪孤切. 虞韻. 并音 hu. 1) -느냐. 疑問. 2) -랴. 反語. 3) -로다. -도다. 詠嘆. 4) -아. 歎辭. 嗚呼. 5) -에.에서. 前置詞 於 于와 같은 뜻.

焉 : 언. [集韻] 於虔切 先韻. 并音 yan. -느냐. 語助辭. -도다. 感歎. -이다. 肯定的 뜻. [古文眞寶 柳宗元 捕蛇者說] ‘觀人風者得焉’ [古文眞寶 柳宗元 愚溪詩序] ‘得其尤絕者 haya 家焉하나’

焉爾 : 할 뿐이다. [古文眞寶 柳宗元 種樹郭橐駝傳] ‘以能順木之天하야 以致其性焉爾라

焉耳矣 : [孟子 梁惠王 上3] ‘梁惠王이 曰寡人之於國也에 盡心焉耳矣로나’

於 : 어. [集韻] 衣虛切. 魚韻. 并音 yu. 1)前置詞(介詞) 于와 동. 2)이에 어. 連接助辭. 3)있을 어. 在也. [集韻] 汪胡切. 虞韻. 并音 wu.

◎ 악랑 樂浪과 中音 ㄴㅅ ㄹㅅ yue lang (樂浪郡)

樂 : 1)악 集韻 逆角切 中音 ㄴㅅ ㄹㅅ yue.

2) 락 集韻 歷各切 中音 ㄹㅅ ㄹㅅ le.

◎ 伯魚 백어, 배어.

伯 : 1) 백. [集韻] 博陌切. 入聲 陌韻. ㄅㄛ 并音 bo.

2) 배. [正字通] 必駕切. 去聲 禡韻. ㄅㄞ 并音 ba.

3) 파. [全韻玉篇] 五霸 오파.

伯魚 [論語 16장, 17장 諺解] 백어.

[中韓辭典] 伯氏 boshi. 伯牙 boya. 伯父 bofu. 伯母 bomu. 伯樂 bole.

[漢韓大辭典] 伯王 패왕. 伯主 패주.

◎ 俛伏 俛仰 (부복 부양)

俛 : 1) 힘쓸 먼. [全韻玉篇] ‘면 類(부)首僂(민, 心不欲而强爲 上聲軫韻)俛 上聲銑韻 黽 (힘쓸민)通’

[集韻] 美辨切 上聲銑韻 ㄇㄢ 并音 mian.

2) 숙일 부. [奎章全韻 銑韻] ‘俯也’

[集韻] 匪父切 ㄈㄨ 并音 fu. 俛伏(부복) [左傳 成公 2年] ‘韓厥俛定其右’ [教學 大漢韓辭典] ‘俛伏’ 音부복. 몸을 굽혀 엎드리는 것. 俯伏.

○ 부수 俛首 : 머리를 굽힘. [列子 湯問] ‘俛首而聽之’ [史略 卷一 夏后氏] ‘龍 俛首低尾而逝’

○ 부양 俛仰 : [淮南子 原道] ‘與陰陽俛仰兮’ [史記 84 屈原傳] ‘撫情效志兮 俛詘以自仰’ [端宗實錄 元年 癸未(2)] ‘執義 柳規 掌令 柳誠源 朴璘 持平 李克堪等 又上書辭職曰 --- 臣等 皆仍職 俛仰愧忤’. 宋純의 俛仰亭<부양정>

○ 부출과하 俛出袴下 : (韓信이) 머리를 숙이고 바지가랑이 아래로 지나가다. [史記 卷九十二 淮陰侯列傳 第三十二] ‘淮陰屠中 少年有侮信者 曰若雖長大 好帶刀劍 中情怯耳 衆辱之曰 信能死刺我 不能死出我袴下 於是 信孰視之 俛出袴下蒲伏 一市人皆笑信 以爲怯.’

○ 부개천 覆蓋川. 부공판 覆空板 부면강도 覆面强盜

VI. 맺는 말.

四五千年前 東洋古代에 만들어 지금까지 사용되어 내려온 象形文字는 보통 漢字 漢文이라고 하며, 중국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하며, 이천 여년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지금까지 사용하여 왔고 日本 越南 말레이시아 등의 나라에서 사용함으로써 동아시아의 共通文字가 되었다고 보아 왔다.

그러나 漢字 漢文이라는 것이 中國文字라고 하지만 중국 사람의 言語에 맞지 않은 점이

있었기 때문에 宋나라 때 와서 中國語에 맞는 白話文이 만들어 졌고, 일본의 가나가 생겨났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우리의 言語에 서로 통하지 않는 점이 있고, 또 일반인들이 모두 쉽게 배워 사용하기 어려우므로 朝鮮 初期에 世宗大王의 訓民正音が 創製되어 일반인들에게 널리 쓰여 왔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中國人도 漢文은 中文이라 하지 않고 古文이라하며, 白話文을 中文이라고 한다. 아마 漢文이라고 하는 古文이 中國人의 言語生活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漢文 곧 古文은 뜻글자[表意文字]이기 때문에 音聲言語에 꼭 맞지 않음은 중국이나 우리나라가 다 마찬가지일 것이다.

또 한편 東洋의 經傳에 사용된 文字를 조금 깊이 살펴보면 글자의 모양과 뜻은 중국의 白話文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글자의 음에 있어서는 매우 다르며, 文法과 文章 構造가 같지 않은 점을 發見할 수 있다. 古文은 東夷 西夷 時代에 거의 自然發生的으로 만들어져서 秦漢시대에 定着되었다고 볼 수 있고, 白話文은 唐나라때부터 宋나라에 이르러 古文을 바탕으로 하여 中國語音에 맞게 만든 것이다. 古文은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큰 변화 없이 사용되어 왔으므로 韓國韓文 곧 韓文이라 해야 하며 訓民正音과 混用되고 있다. 中國은 古文과 白話文이 같이 쓰이고 있다. 古文과 白話文의 다른 점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韓國語는 원래 添加語이기 때문에 韓文에는 많은 語助辭가 앞뒤에 첨가되어 語辭를 돕기도 하고, 語尾變化를 시켜 名詞를 動詞化 한다. 따라서 語助辭가 있는 곳에서는 대부분 띄어 읽게 된다. 그러나 中國語는 孤立語이기 때문에 白話文에 助辭가 없고 語尾變化가 없으며 狀況과 내용에 따라 같은 글자가 名詞와 動詞로 사용된다.

둘째 한국어와 중국어는 語順이 같지 않으므로 主語와 敍述語 目的語의 순서가 反對인 경우가 많다. 孟子 梁惠王 下篇에 있는 ‘讀樂樂과 與人樂樂’의 樂樂의 음은 古文으로는 악락[音樂을 즐긴다]이라고 읽는데, 中文에서는 낙악으로 읽는다. 論語의 ‘君君 臣臣 父父 子子’와 ‘君不君 臣不臣 父不父 子不子’란 文章을 보면 古文에서는 앞의 ‘君臣父子’字는 모두 名詞이고 뒤의 ‘君臣父子’字는 모두 動詞인데 中文에서는 반대로 본다. 그러나 ‘君不君 臣不臣 父不父 子不子’의 경우는 앞의 君臣父子를 名詞로 볼 수밖에 없다.

셋째 文字의 音價가 韓國과 中國이 갖지 않다는 것을 看過해서는 안 된다. 世宗御製訓民正音諺解에 ‘漢音은 中國소리라 했다. 古文인 漢字를 중국에서 빌어 왔다면 처음부터 中國音으로 읽어야 했을 것인데 언제부터 어떻게 되어 중국과 다르게 읽은 것인지 아는 사람이 없다. 筆者는 이점이 가장 궁금하며 이해할 수가 없다. 古文의 韓國音이 먼저인지 中國音이 먼저인지를 알 수가 없지만 필자의 愚見으로는 韓國音이 먼저였다고 보고 싶다.

古文은 韓國 사람들이 만들었던 빌어 왔던 간에 수 천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써 왔고 읽어 왔으며, 의식과 생활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다. 그러므로 韓國 文字는 韓字 韓文과 訓民正音임을 認定해야 할 것이다. 韓國人이 옛날부터 입던 옷이 한 때 唐元明清의 흥내를

내었더라도 漢服이라 할 수 없고 韓服이라 해야 하며, 오랫동안 漢醫라고 하던 것을 30餘年 전부터 韓醫라 한 것은 先見之明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大學校의 漢文學科와 漢文敎授, 初中等學校의 漢文敎師 漢文敎科書와 漢文時間은 固定不變이며, 韓文敎育은 필요 없고 한글專用이라야 된다고 固執하는 사람들도 이제 그만 두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英語 數學을 가지고 수많은 불쌍한 학생들을 몸서리치게 괴롭히는 때가 빨리 사라져야 하겠고, 앞으로 韓文敎育이 제자리를 잡아서 韓文濫用 때문에 어린 學生들과 一般大衆이 모두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韓字와 韓文은 우리의 먼 조상들이 오랜 세월 동안 만들어 지금까지 사용해 왔던 것이므로 우리의 歷史와 文化를 고스란히 담아 傳한 文字이다. 外國語로 생각하고 천대하거나 버려야 한다는 생각은 知性人이라면 할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인간의 本性을 回復하여 어질고 착한 사람이 되게 하는 人格陶冶와 思考力과 創意性을 길러,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게 하는 全人敎育에는 必須不可缺한 우리 固有의 文字이다. 그러므로 나라를 다스리는 政治家 敎育者 公務員 言論人 등 指導層에 있는 사람들은 잠시라도 이것을 잊지 말기를 간절히 바란다.

[토론문]

「한문교과서 研究史 검토」에 대한 토론문

안재철(단국대학교)

본 논문은 한문교과서의 연구사를 검토하는데, 시기적으로 1945년 광복이후 간행된 한문 교과서를 연구한 논저들의 현황만을 중심으로 하고, 교육과정 시기를 교수요목기에서 제5차 교육과정기, 제6차 교육과정기, 제7차 교육과정기, 2007년 개정 교육과정기, 2009년 개정 교육과정기로 나누어, 논문 서술의 순서를 각 교육과정시기별로, 교과서 정책, 교과서 전체를 대상을 한 연구, 한자, 한자 어휘, 산문, 한문 문법, 해석, 한시 등의 순으로 살펴본 논문이다.

현재 한문교육에 관한 연구는 국어 등 다른 교과목에 비해 한문교과교육에 대한 연구자가 적고, 교과서 분석에 대한 관심이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표자께서는 논문을 통해 많은 연구자 및 연구 목록, 그 내용 등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기존에 나온 교과서를 분석하여 장단점을 파악하여, 이를 통해 새로운 교과서의 개발방향을 모색하여 차후 교과서를 제작할 때 이를 반영하여 더 좋은 교과서를 만들 수 있도록 방향 제시를 하여 주신 점에서 본 논문은 매우 의미 있는 논문이라 생각합니다.

좋은 논문을 발표하여 주신 발표자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논문을 읽다가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을 드리하고자 합니다.

1. 논문 서술 방식의 준거 방식에 대한 질문

‘서론’ 마지막 부분에 논문 서술 방식에 대한 내용, 즉 “서술의 편의상 복합적인 연구는 그 가운데 주된 내용으로 분류하였고, 종적연구는 연구의 마지막 시기로 분류하여 서술하였다. 또한 연구의 편의상 정책, 교과서 전체분석, 한자, 한자 어휘, 산문의 구성, 문법, 풀이, 내용, 한시, 교수·학습, 평가, 제책, 기타로 구분하여 살펴보겠다.”이 있습니다.

1) 논문 서술방식은 어떠한 준거에 의해 만드신 것인지요?

2) ‘종적연구는 연구의 마지막 시기로 분류하여 서술하였다.’는 내용 중에 ‘연구의 마지막 시기’라는 의미가 잘 이해가 잘 안됩니다?

3) 위의 내용 중 ‘제책’의 의미는? 한자로 製冊(제책)의 의미인지?

2. 연구사를 통해 교과서를 분석하는 준거를 마련할 필요성에 대한 동감

혹시 연구사를 검토하실 때, 通時的 연구와 共時的 연구를 통해 교과서를 분석하는 준거에 대한 방법을 고민하여 보셨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하여 주실 수 있으신지요?

21세기의 한문교육을 위해서는 반드시 좋은 교과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 발표하신 논문과 같은 지속적인 연구는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교과서의 연구사를 검토하는 것은 교과서의 연구 목록을 작성하여 추후 교과서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연구사의 검토를 통해 교과서를 분석하는 여러 준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 발표는 그러한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훌륭한 발표를 하여 주신 이동재교수님께 감사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中等 漢文科 e-learning contents 開發 방안」에 대한 토론문

하정원(성균관대학교)

이화춘 선생님의 발표문 『中等 漢文科 e-learning contents 開發 방안 : 이러닝 환경 변화를 대비한 한문과 표준DB 서비스의 필요성을 중심으로』를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 발표문은 현업에서 수년간 한자 한자어·한문고전 관련 이러닝 콘텐츠 개발 업무를 담당하면서 직면했던 문제들을 명시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까지 제시한 논문으로 원고를 읽으면서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토론자는 이러닝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한문교육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공부를 하지는 못하였기에, 발표문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점 몇 가지를 질의하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1. 발표문에서는 표준DB의 제시, 한문과 교육 범위의 확정 등을 ‘이러닝 콘텐츠 개발의 외연확대’를 위한 필요조건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작업들은 교수학습의 방향성을 고려하기 이전에, 즉 이러닝 콘텐츠 설계 이전에 제공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발표문에서 지적한 표준DB의 기초요소인 교육용 기초한자는 이미 선정되어 있고 그 자형 문제 등의 부수적인 원칙 또한 제시되어 있습니다. 사실 관계를 확인하자면 논문에서도 지적한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0년 발간한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조정 백서』와 이 자료의 요약본 격인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 이렇게 조정하였습니다.』라는 문건에서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의 자형은 본체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康熙字典의 자형을 기본으로 하되 현재 널리 통용되는 자형을 고려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2002년 발간된 『교과서 편수자료』에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이 자료는 현재 교육부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 2007년 고시된 ‘중학교 검정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에서도 ‘한자의 자형(字形)은 강희자전(康熙字典)의 자형을 기본으로 한다.’는 원칙을 지속적으로 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대만·일본 등에서 한자자형 정리 및 표준화에 대한 연구가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음을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서 자형정리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발표자의 인식과 궤를 같이 합니다. 다만 이러닝이 현재 학교 현장에서 도구적인 형태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일정 부분 충분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한문과 기초DB를 이러닝 콘텐츠 개발에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한편 발표자께서 ‘한문과 교육범위의 확정이 필요하다.’는 주장 또한 기존 한문과 교육과정과는 별개의 교육범위가 필요하다는 지적인지 아니면 ‘한문 원전의 적절한 범위를 제공해야 한다.’(12면)는 주장의 결과로써 ‘한문과 이러닝 콘텐츠 센터’의 역할을 제시하신 것인지 충분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견해는 각주로 인용하신 것처럼 다른 연구자들이 제기한 내용과 동일한 논의의 반복인 것인지, 지면의 제약으로 인해 논지를 충분히 전개하지 못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추가적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2. 발표지 3면에서 한문과 이러닝 콘텐츠 제작 기준 중 ⑤ 접근하여 상호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기술과 발표지 4면에서 ‘사전적 개념정의에서도 공유를 하나의 개념으로 명시하고 있다.’라는 지적은 다른 층위에서의 공유를 다룬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나아가 공유가 이러닝 콘텐츠 제작 기준으로 중

요한 요소라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현재 한국의 교육환경에서는 제작 방법에 있어서의 ‘공유’ 문제가 아니라 서비스의 확장성에 대한 문제로써의 공유를 고민해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다양한 정보화 자료를 XML 코딩 처리하여(표준화) 원천 자료를 다양한 형태로 가공하고 다양한 활용처를 만들어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자로서 다양한 고민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러닝 콘텐츠 중에 가장 각광을 받는 것은 강의 동영상 자료입니다. 유명 대학의 강의 동영상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라든지 또 이와 유사한 형태의 TED나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KOCW 같은 이러닝 콘텐츠들이 교실생태계를 변화시키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Coursera, Udacity 같은 기업들은 천문학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강의 동영상 기반 이러닝 콘텐츠들이 학교의 경계를 허물고, 학제를 파괴하고, 학력의 개념마저 변화시키는 등의 현상까지 보이며 그 효용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통문화연구회에서도 지난 수년간 우수한 한자·한문관련 동영상 강의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사이버 서당, 사이버 서원에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동영상 강의 자료들은 한문과 또는 동양고전 전문지식이라는 수요자의 한계로 인해 확장성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발표자께서 공유의 문제에 대해 지적하신 만큼, 우수한 동영상 강의 자료들의 확장과 공유에 대한 문제에 대해 고민하신 부분이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3. 앞 내용에 이어지는 부분에 대한 질의입니다.

한문과 이러닝 콘텐츠 제작시의 기준 중(3면) ⑤번 항목에서 ‘사회관계적 영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이후 하단에 ‘사회학적 영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셨습니다. ⑤번 항목의 내용에서 ‘접근하여 상호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명시한 것은 이러닝 콘텐츠의 수요자가 콘텐츠 활용하고 그 확장성에 대해 고려해야 함을 지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서 제시하신 ‘사회관계적 영역’ 또는 ‘사회학적 영역’이라는 용어가 의미하는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4. 1면의 각주 4)에서 콘텐츠 개발자, 생산자를 굳이 구분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한문과는 한문으로 된 고전을 교수학습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문과 이러닝 콘텐츠들은 새로운 콘텐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콘텐츠를 교수학습 목표에 맞추어 어떤 방식으로 잘 전달할 것이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UCC(user creat contents)가 콘텐츠 제작자와 사용자의 개념을 희석시켜서 그 구분점을 모호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제작과정에서 개발자와 생산자의 경계가 발생하는 지점이 무엇인지, 개발자와 생산자가 어떤 방식으로 차이점을 갖는지 명료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개발자가 원천기술 또는 가능성 모델을 제시하고, 생산자는 그 기술을 바탕으로 대량화, 또는 대중화한다는 의미인지요?

또 발표지 4면에서 ‘중고교 한문 교과서의 인정절차 같은 제한된 형태의 콘텐츠 품질관리보다는 콘텐츠 품질관리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라고 지적하신 바, 이러한 인정절차 또는 콘텐츠 품질관리와 같은 통제가 말씀하신 콘텐츠 생산자의 창의성이나 다양성을 견인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5. 7면의 각주 17)에서 ‘한국고전번역원의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전통문화연구회의 ‘동양고전종합DB’(http://db.juntong.or.kr),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의 ‘유경편찬센터’(http://ygc.skku.edu) 등과

같이 한문과와 관련된 직접적인 원문 자료실로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이 많은 자료를 교수-학습자들이 직접 이용하기에는 문제점이 존재한다.'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DB들을 이러닝의 범주에 포함 시킨다면 전체 DB 또는 아카이브 형태로 구축된 전산자료들도 이러닝의 범주에 포함 시켜야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고 가정할 때 과연 이를 한문과 이러닝 콘텐츠 센터에 포함시켜 통제할 수 있는지 또 그것이 공교육의 영역에서 과연 제시가 가능한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발표문에서 제시하신 것처럼 교육과정의 범위(원전의 적절한 범위(12면))를 확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확장 가능한 내용을 제시하는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한 아카이브 구축이 초래할 수 있는 저작권의 문제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요건이지 않나 판단됩니다.

6. 8면(각주 24))에서 콘텐츠 제작시 원문 입력을 위한 add-on 프로그램인 MS-Word용 '사용자한자사전'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자어를 말뭉치 단위로 변환하여 어절 단위로 입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적용된 기술은 단순한 입력에서 나아가 한문고전 번역기로 발전할 수 있는 원천 기술로써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대단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어는 구어와 문어에서 공통적으로 언어파괴, 맞춤법 무시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워드프로세서의 보급, 인터넷 보급률 확대 등의 쓰기 교육의 약화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한문과에서는 그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한자를 보면 그 한자를 알아보는 것은 하는데 쓰기는 거의 하지 못하는 상황이 교실에 만연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입력 프로그램이 보편화된다면 한자-한문 교육의 약화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공개하는 대상을 개발자, 사용자로 구분하여 제공하여야 하지는 않을까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융합교육을 위한 한문과 수업자료 개발과 교과서 적용 방안」에 대한 토론문

공민정(경기 보정고등학교)

시대와 문화, 지역에 따라 인재상은 계속 변화하고 있으므로 교과서 내용과 교수·학습 방법도 변화의 흐름에 맞게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발표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Science(과학), Technology(기술), Engineering(공학), Arts(예술), Mathematics(수학)를 융합해서 교육하는 방식인 STEAM 교육을 한문 수업과 접목한 것이 침체된 한문 교과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고, 타 교과와 더불어 共存共榮할 수 있는 교과임을 시사했다는 점이 유의미하다 생각합니다.

발표자는 STEAM 교육을 활용한 주몽신화 주제 중심형으로 ‘타임머신 신화기행, 별에서 온 주몽’ 수업을 총 8차시 설계하였고, 중학교 1학년 한문(자유학기제)과 고등학교 1학년 문학 교과에 활용하도록 권장하였습니다. 발표문엔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에 초점이 맞춰진 교수·학습 과정안이 제시되어져 있어 이에 따른 궁금한 점을 여쭙겠습니다.

1~2차시에 학습문제 4가지가 제시되어 있는데, 정리하면 ① 한국 신화의 유기적 복합체를 이해하고 신화의 다면성 설명하기 ② 신화 인물 속 별자리 찾기 ③ 주몽신화의 영웅서사 구조 틀 파악 및 그래프 도식화 ④ 별자리와 연계한 주몽 관련 인물 탐색 및 주몽 일대기 구조화 마인드맵 작성이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블록수업을 해도 90분인데 활동과제양이 過多한 것은 아닌지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애니메이션 ‘주몽신화’ 장면을 보고 ‘유기적 복합체’, ‘신화의 다면성’ 등을 찾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활동과제를 해결하는데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정리하도록 하였고 학생들이 과제를 수행한 후 발표하고 공유하는 것으로 수업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이 때, 교사의 피드백은 하지 않으신 건지요? 아니면 따로 활동과제 관련 피드백 시간이 계획되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루브릭은 과제의 평가 기준을 제공하는 평가 도구로, 학습 결과물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다양한 기술 수준에서 각 부분과 연계된 학습 결과물의 특성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루브릭을 사용하면 과제 요구사항 및 허용되는 성과 기준을 전달할 수 있고, 일관성 있고 공정한 채점을 보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발표자께서 3~4차시 ‘주몽 풍류도 부채 만들기 평가 루브릭’을 수행평가에 반영했을 때 학생들의 평가 불만은 없었나요? 그리고 발표자께서 개발하신 혹은 생각해본 중학교 한문과 수행평가를 위한 루브릭의 예를 들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5~6차시에서 학생들이 침성대를 직접 설계하고 조립하면서 침성대의 과학적 구조와 원리를 알아보고 선조들이 자연의 섭리를 이해하며 발명한 과학적 우수성을 몸소 체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자유롭게 침성대 설계도를 작성하였으나, 결국 침성대 키트를 활용해 조립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결국 학생들은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찾은 자료와 정보로 침성대의 구조를 이해한 것이지 직접 설계하면서 과학적 원리를 터득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침성대의 과학적 내용을 이용하여 제작하였는가?’, ‘자신만의 창의적인 설계가 포함되어 있는가?’, ‘예술적인 아름다움이 있는가?’라는 평가 내용과 이를 수행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교과간의 통합, 융합은 앞으로 더욱 요구되는 교육의 패러다임일 것입니다. 한문교육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STEAM 교육이 필요하고 발표자의 연구가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고력 신장을 위한 한문 교과서 개발 방안」에 대한 토론문

白光鎬(전주대학교)

오늘 학회 기획주제는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이하 ‘2015 교육과정’)에 따른 중·고교 한문 교과서 개발이 진행 중인 현 시점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주제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윤지훈 선생님(이하 ‘발표자’)의 글은 2015 교육과정을 충실히 구현해내면서 인성과 사고력을 갖춘 인재 양성 그리고 실생활과 연계된 쉽고 재미있는 내용을 담은 학생 중심의 교과서를 구현할 아이디어를 구상 중인 교과서 집필자들에게 ‘학생의 사고력 신장을 위해 어떤 방향에 초점을 두고 한문 교과서를 편찬해야 할 것인가?’라는 화두를 던졌다고 생각됩니다. 漢文科에서 참고할 수 있는 한문 교과서 개발 방안을 소개해 준 발표자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발표문을 읽으면서 생긴 궁금한 점을 여쭙는 것으로 토론자의 임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1. “한문교육이 사고력 신장에 도움이 되고 한문을 조금이라도 배운 사람이라면 쉽게 공감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한문교육을 통한 사고력 신장의 효용성을 크게 강조하지 않았던 것도 이를 당위적 사실로 간주해 왔기 때문이다.”라는데, 이를 뒷받침할 既存 연구가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줄 수 있는지?

2. 교과서의 질문이 사고력 신장에 영향을 끼치므로 교과서에 좋은 질문을 구현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그렇다면, 발표자께서 생각하는 “답은 열려 있되 질문의 의도가 쉽게 이해되는 질문”, “학습 후에도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는 질문”, “학생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성찰할 수 있는 질문”, 이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한문 교과서’에 수록할 질문 예를 든다면?

3. 본문 내용과 자기 주도 학습 지원 기능의 일관성 및 연계성이 “비교적” 높다고 예시한 사례(발표문 8쪽)를 보고, 학습자의 사고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사고력을 유발할 질문 개발이 중요하다는 점을 새삼 느꼈다. “스승과 학생의 관계를 소재로 하여 만든 아래 영화처럼 내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을 떠올려 보고 그 이유를 발표해보자.”라는 질문은 답이 열려 있고, 의도가 쉽게 이해되며, 기억에 남는 이유를 스스로에게 물으며 당시 상황을 성찰할 수 있어 학습 후에도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다고 생각될만한 좋은 질문이라고 판단된다.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재인 영화를 제시해서 학생들이 더 친근하게 느꼈으리라 생각된다. 발표자는 영화(광고) 제목이나 영화(광고) 내용이 한문 교과서에 등장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춰 한문 교과서 구현 양상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교과서를 통해, 학생은 교과내용 학습과 아울러 창의융합적 활동을 하고 사고력을 신장할 수 있으며, 교사는 교과서에 구현된 질문과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해 학생 중심 수업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과서 집필자들이 발표문을 통해 교과서 구현 방향을 다시금 되새기고, 학생들이 ‘漢文’ 과목을 좋아하게 만들 수 있는 교과서가 많이 개발되길 기대합니다.

「실생활 연계형 한문교과서 개발의 필요성과 방안 연구」에 대한 토론문

김병철(군포고등학교)

1. 최근에 한문 교육 현장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新習(발표자 원고 9페이지에도 있음)’이란 용어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국립국어원에 등록을 요청한 바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해결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한문교육 분야에서 익숙한 것이지만 한문교육 밖의 세상에서는 낯설은 것들이 이 밖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문 과목이 선택과목이 되면서 고등학교에서 처음 한자를 접하는 학생들도 늘어나고 있고, 한자의 모양을 그림으로 인식하는 학생들도 많으며, 자신의 성명을 한자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반이 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발표자께서는 1장에서 한문과가 교과 교육적 당위성을 획득하는데 여전히 실패하는 것은 교과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사회 속에서 용인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바탕에는 필요성, 곧 실용성을 사회 구성원들에게 실질적으로 이해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교육과정은 사회의 변화를 수용하고 교과서는 이를 반영한 것인데, 한문교육의 실용성을 사회 구성원들에게 이해를 구하지 못한 것 보다는 사회의 변화를 한문 교육에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발표자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2. 2장에서 현역 국회의원 블로그의 오역 문제는 교과서의 문제보다는 개인의 자질 문제로 논제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발표자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또 2장에서 타 교과 실용성에 위한 사례로 고등학교 선택과목에는 '실용수학', '경제수학', '수학과제탐구'의 예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한문 교과서 명을 '생활한문', '한문과 생활' 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3. 3장에서 한문과의 교육내용은 나선형으로 조직하고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의 원리를 적용하여 조직되어야 하지만 현재의 교과서는 제재와 편집만 다를 뿐 지식의 습득, 내면화, 확장의 과정이 잘 나타나지 않음을 지적하셨습니다. 토론자의 짧은 생각으로는 이러한 원인은 한문 교육의 내용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열적으로 제시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문교육의 내용을 학습자 중심으로 선택하고 이에 대해 집중한다면 한문 교과서의 조직 원리를 실현하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발표자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4. 발표자께서는 4장에서 한문교과 필요성을 증대할 수 있는 어휘를 선정하고, 학습자의 학습 경험을 증대하여 실질적인 숙련과 활용을 하는 것보다는 “인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결국 우리의 한문교과는 사회 언어 환경의 변화와 교과 위상의 변화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3차 교육과정의 구성이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전자의 지적은 교과서의 검인정 시스템에 따른 문제이고, 후자는 한문과의 교육과정 변화 모색하였지만 사회적 담론을 담아내지 못한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의 교육은 학생의 삶과 연계되어 설계되어야 하는데, 한문 교육과정에서 학습자의 요구조사 및 실생활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영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어생

활과 관련하여 2009 교육과정에서는 ‘문화-언어생활과 한자문화-언어생활 속의 한자 어휘 알고 활용하기’와 ‘한문지식-어휘-성어의 의미’에 반영하였으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한문의 활용 - 일상용어, 학습용어, 성어’로 반영하였습니다.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한문 영역 중 일상용어, 학습용어, 성어, 즉 한자어를 가장 선호합니다. 따라서 교과서를 구성할 때, 1부는 한자어 중심, 2부는 한문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에 대해 발표자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또한 실생활 연계형 한문 교과서가 효율적으로 구성되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5장의 실용적 측면에서의 교과서 구성에서 발표자께서 제안한 한문교과 학습용 어휘표 선정과 한문 학습용 한문 문장 선정에 대해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물론 한문학습의 다양성을 훼손하는 등의 부작용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시점에서 한문학습에서 필수 어휘와 필수 문장을 선정하여 학습한다면 학습의 효율성과 학습 목표 달성에는 학습자들에게 더 유익한 방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생각이 있다면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 세계 교육은 통합교육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도 이에 발맞추어 통합교육, 융합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한문Ⅱ』는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존재하지만 실제 학교에서는 거의 교육과정을 편법적으로 운영하고 교과서로 학습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한문Ⅱ』를 실생활과 연계한 통합교육이 가능한 내용으로 교과서를 구성하면 어떻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발표자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문자학이 필요한 한문교과서」에 대한 토론문

金永玉(고려대학교)

본 논문은 한문교과의 한자 학습 방법 중 문자학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발표자 선생님의 견해를 제시한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연구 대상은 갑골문 내의 상형자 중 신석기 농경 문화와 관련된 한자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본 논문과 관련하여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아래에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1. 본 논문이 기존의 갑골문 등 字源을 활용한 한자 교육 관련 연구와 방법론적 측면에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본 논문에서는 문자학을 통해 ‘단순 암기식 한자 학습을 지양하고, 고문헌을 이해하며, 사회 풍습 등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고 그 목적을 기술하였습니다.

논문의 목적과 관련하여 선생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셨습니다.

문자학을 통해 고문헌 이해에 도움 되게..... 문자학의 배경을 이해한다면 한자 학습을 단순히 필획을 암기해야 하는 학습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 녹아 있는 인류의 사유방식, 논리 같은 것을 이해..... 물질문화 이해, 사회 풍습 이해..... 그 당시 생활상은 알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고.....

그러나 본 논문 내에 이에 대한 논리적 분석 및 실증적인 예시가 제시되어 있는지요?

3. 본 논문에서는 문자학 활용과 관련하여 교과서의 서술을 인용하고 이에 대하여 비판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선생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셨습니다.
















문자학의 체계는 계속 발전해왔지만 우리 교과서에는 이런 성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문자학의 내용은 일부가 육서에 의거하여 진행되고 있기도 하지만 문자가 만들어진 시대의 배경과 역사가 빠진 채 학습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교과서 집필은 교육과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즉 교과서는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지침에 따라 제작됩니다. 그러므로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문자학 활용’과 관련된 문제는 교과서 뿐 아니라 교육과정의 측면에서 먼저 제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문자학이 한문교과서에 활용된 변천 과정을 연구한 논문을 참고해 보면, 각 교육과정에 따라 제작된 한문교과서에서 문자학 성과를 활용한 내용과 양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한문교과서에서 문자학을 활용한 것은 교육과정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본 논문에서 제시한 한자가 신석기 시대 농경문화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요?

5. 아래의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표 논문 내 서술	수정														
甲骨文은 龜甲과 獸骨에 쓴 글자이다.	甲骨文은 龜甲과 獸骨에 쓴 글자이다.														
<table border="1"> <tr> <td>匕(비)</td><td></td></tr> </table>	匕(비)		<table border="1"> <tr> <td>匕(비)</td><td> <table border="1"> <tr> <td>甲 骨 文</td><td>金 文</td></tr> <tr> <td></td><td></td></tr> <tr> <td>前 4·8/8·2</td><td>乙 3729</td></tr> <tr> <td>獸 骨</td><td>丁 父 彝</td></tr> <tr> <td></td><td>丁 父 彝</td></tr> </table> </td></tr> </table> <p>匕(비) : 숟가락 匙(시)의 본자 匕(화) : 변할 化(화)의 본자/거꾸로 서 있는 사람 : 금문에서 刀+又의 형태로 와변된 것임.</p>	匕(비)	<table border="1"> <tr> <td>甲 骨 文</td><td>金 文</td></tr> <tr> <td></td><td></td></tr> <tr> <td>前 4·8/8·2</td><td>乙 3729</td></tr> <tr> <td>獸 骨</td><td>丁 父 彝</td></tr> <tr> <td></td><td>丁 父 彝</td></tr> </table>	甲 骨 文	金 文			前 4·8/8·2	乙 3729	獸 骨	丁 父 彝		丁 父 彝
匕(비)															
匕(비)	<table border="1"> <tr> <td>甲 骨 文</td><td>金 文</td></tr> <tr> <td></td><td></td></tr> <tr> <td>前 4·8/8·2</td><td>乙 3729</td></tr> <tr> <td>獸 骨</td><td>丁 父 彝</td></tr> <tr> <td></td><td>丁 父 彝</td></tr> </table>	甲 骨 文	金 文			前 4·8/8·2	乙 3729	獸 骨	丁 父 彝		丁 父 彝				
甲 骨 文	金 文														
															
前 4·8/8·2	乙 3729														
獸 骨	丁 父 彝														
	丁 父 彝														
2006년 文物出版社에서 간행한 『甲骨文小辭典』	2006년 文物出版社에서 간행한 『甲骨文小字典』														
한문교과교육에서 ‘한자의 짜임’ 지도 <u>방안</u> 의 일고찰	한문교과교육에서 ‘한자의 짜임’ 지도 <u>방법</u> 의 일고찰														

「‘會意兼形聲’에 대한 고찰 및 한문교과서에서의 활용」에 대한 토론문

김성중(계명대학교)

한자학의 연구 성과를 종합, 정리하여 우리나라 한자, 한문 교육에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 이를 실용화하는 것은 지난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한자 조자원리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시는 발표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하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1. 발표자께서는 선행 연구의 한계를 언급하시면서 ‘亦聲’, ‘右文說’, ‘因聲求義’ 등을 통시적인 관점에서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면서 ‘회의겸형성’의 이론적 토대를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소견으로는 이것만으로도 의미있는 한 편의 논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연구를 통해 이론적 토대가 충실히 마련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에 대한 학계의 후속 연구들이 원만하게 이어질 듯합니다.

2. 적지 않은 교과서에서는 한자의 음과 뜻을 연계시키면서 한자 학습의 확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를 소화하는 방편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만, 그 와중에 교육적인 효과와 난해성으로 인한 혼란과의 경중에서 교과서 집필자들의 고민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표자께서 언급하신 ‘會意兼形聲’이라는 개념이 ‘회의’ ‘형성’을 사용할 때보다 이러한 고민을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만, 현재의 한문 교과서 혹은 중국의 사례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찾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穀衍奎의 『漢字源流字典』을 근거로,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중학교용) 900자 중, 회의자와 형성자가 각각 410자라고 하셨습니다. 발표문에서 언급하셨듯이 개별 연구자에 따라 분류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회의와 형성의 판별도 지난한 작업인데 ‘會意兼形聲’의 분류는 어려움이 배가될 것 같습니다. 판단 기준 내지 표적을 일부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문교과 논리 및 논술」 수업의 구성 및 운영 방안 모색」에 대한 토론문

김대회(원광대학교)

‘한문교과 논리 및 논술’ 수업이 단순히 한문과 논술의 접목이 아닌 언어 교육적 측면에서 한문 교과의 성격과 본질에 부합하는 논술 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했다는 데에서 연구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연구에 대한 간단한 의견만 덧붙이고자 합니다.

1. 연구자는 ‘한문교과 논리 및 논술’ 수업의 핵심을 ‘비판적·분석적으로 텍스트 읽기’와 ‘통합적·논리적 사고하기 및 설득적 글쓰기’로 간주하고, 이를 중심으로 교수요목을 구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판적·분석적으로 텍스트 읽기	논리적·통합적 사고하기 및 설득적 글쓰기
(1) 텍스트 읽기 (2) 요점식 개요 작성하기 ① 단락별 요지 적기 ② 글의 주제 파악하기 (3) 논술 주제 잡아보기	(1) 한문 단문의 내용 및 의미를 바르게 파악하여 삶 속에 적용하기 (2) 한문 문장의 내용을 바르게 파악하고 그에 대한 분석력과 사고력 기르기 (3) 글을 읽고 주어진 논제에 대한 글쓰기

언어 교육에서 비판적 독해 방법의 구체적 내용은 ‘1) 내용의 타당성과 공정성, 자료의 정확성과 적절성 등을 판단하는 것 2) 글에서 공감하거나 반박할 부분을 찾고 필자의 생각을 비판하는 것 3) 필자의 가치관이나 글의 배경이 되는 사회문화적 이념을 비판하는 것 4) 글의 구성 및 표현의 적절성과 효과를 비판하는 것 5) 글감이나 주제가 유사한 글을 찾아 읽고, 관점이나 구성 등을 비교하는 것(2012 국어과 교육과정 중)’ 등입니다. 연구자가 제시한 ‘비판적·분석적 텍스트 읽기’의 내용은 대부분 사실적 독해와 관련이 있는 항목들이라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논리적·통합적 사고와 설득적 글쓰기’로 범주화한 내용 또한 연구자가 제시한 통합 논술의 개념(교과 내용을 비롯한 다양한 소재를 담고 있는 제시문을 읽고 논제를 분석한 다음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논리적인 근거를 통해 합리적으로 설득하는 글쓰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다소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서론에서 언급한 교육부 고시 제2007-161호는 2014년에 개정 고시(제2014-48호)되었으니 독자들을 위해 확인하시고 내용을 업데이트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국가공인 한자시험 YBM 商務漢檢

민간자격 국가공인을 취득한 YBM 商務漢檢은 단순한 한자 낱 글자의 음과 뜻 풀이 출제형식에서 벗어나 일상생활 및 사회 실무에서 사용되는 한자와 한자어에 대한 이해 능력과 한자를 바르게 활용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실용적인 한자능력 평가 시험입니다.

본 시험은 YBM이 주관·시행하고 한국한문교육학회가 후원합니다.

▶ 시험 구성 및 유형

문제 유형		출제	문항 수	시간	총점
생활 한자어	신문 헤드라인 한자어	객관식	70 문항	70분	1,000점
	생활 한자어 이해				
	한자어 변환				
	상대어				
	동자이음(同字異音)				
	약자(略字)				
	한자성어(漢字成語)				
	그림 한자성어				
한자어 퍼즐	주관식				
실무 한자어	한자어 이해	객관식	80 문항		
	한자어 완성				
	한자어 찾기				
	한자어 전환				
	한자어 바로 쓰기	주관식			
	문장 독해	객관식			
	간체자 활용 어휘				
	합계			150 문항	

▶ 정기 시험: 일반인 대상 年 5회 정기시험 실시 (응시료 ₩25,000원)

회 차	시험 일자	접수 기간	성적 발표일
48 회	16. 08. 21(일)	16. 05. 18(수) ~ 16. 08. 16(화)	09. 05(월)
49 회	16. 10. 23(일)	16. 08. 17(수) ~ 16. 10. 18(화)	11. 07(월)
50 회	16. 12. 25(일)	16. 10. 19(수) ~ 16. 12. 20(화)	17. 01. 09(월)

▶ 특별 시험: 대학, 기업체, 공공기관 대상의 수시 단체 시험으로, 사전 협의(일시, 장소 등) 후 실시

관련 문의: (02) 2280 - 7231 / www.bizhanja.co.kr

이 발표논문집은 2016년도 정부재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음.

韓國漢文教育學會
2016年 夏季學術大會 發表論文集

- 발행일 : 2016년 7월 8일
- 발행처 : 한국한문교육학회
- 주 소 : 경북경산시 대동 214-1 영남대학교 사범대학 한문교육과
 송병렬 교수 연구실
- 전 화 : 053-810-3175
- E-mail : l0012@hanmail.net
- Homepage : <http://www.hanmunedu.or.kr>